

다.

리

로품만을
삼삼일뿐
커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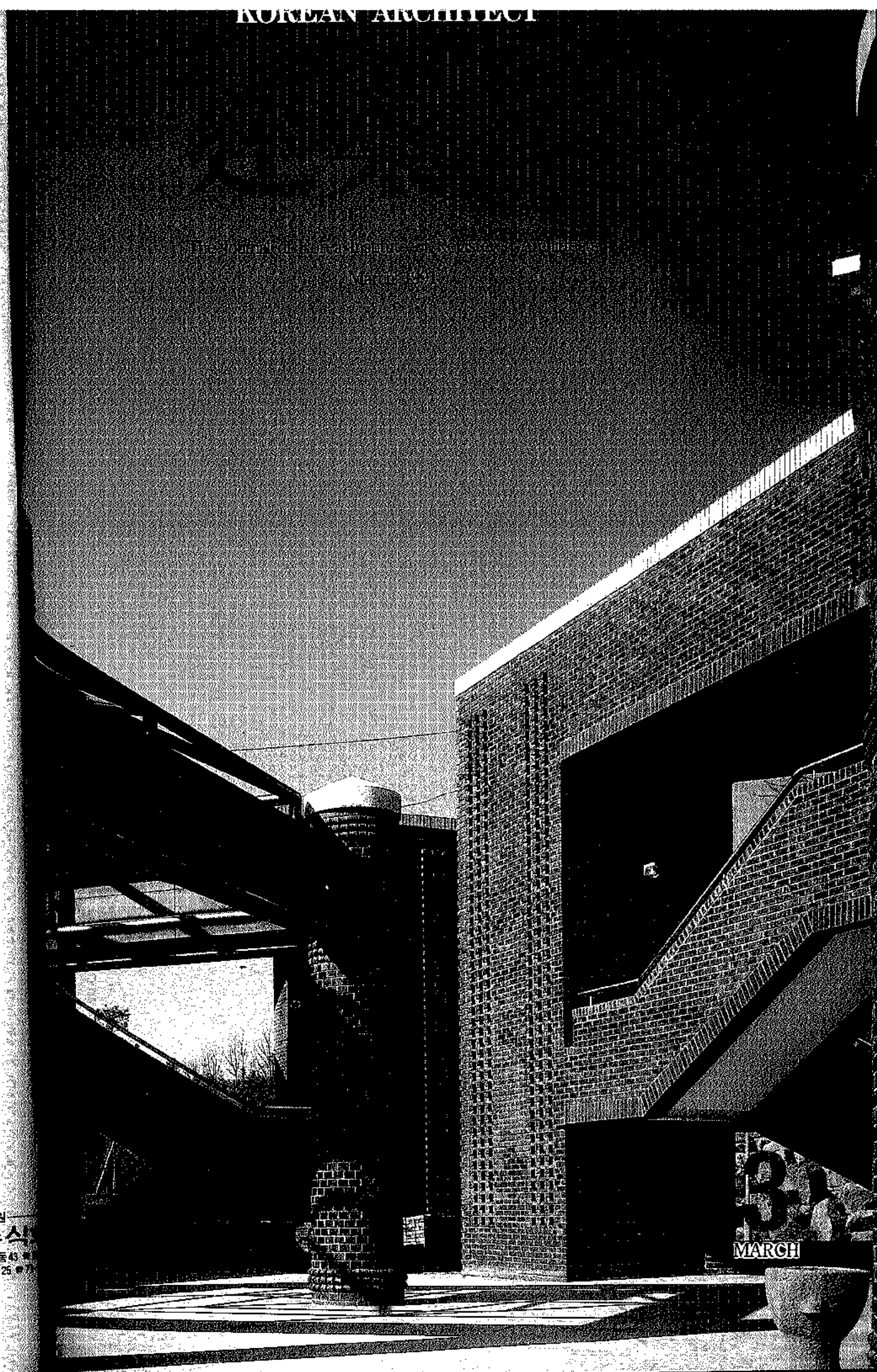
과 노력
은 앞으로
색스치로
카어, 보다
이바지

치로 풀은
재용으로

리 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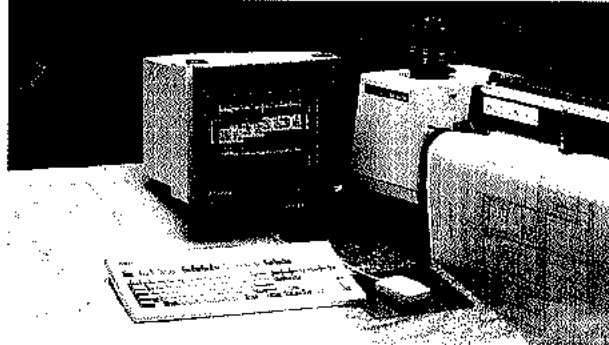
스치로 풀 원료제조원
화학주식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3
울산시 남구 성일동 45-25

MARCH



건축과 컴퓨터의 이상적인 만남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건축의 전문지식과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축 CAD전문회사로 출발한 건캐드시스템은 건축을 아끼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경제적인 CAD시스템과 효율적인 활용기술을 제공하여 실질적 이익과 만족을 드립니다.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건축 CAD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에 적합한 기종에서 활용까지 제반사항을 자세하고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입비용이 걱정인데...

저가격, 고성능의 신뢰성이 있는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여 귀사의 실정에 맞는 CAD장비를 경제적,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합니다.

◎아프터서비스가 중요하다는데...

만약 시스템이 이상이 있으면 업무저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며 신속하고 완벽하게 A/S해 드립니다.

◎CAD교육은 제대로 해주는지...

건축 CAD실무자 출신으로 구성된 CAD교육팀이 기초부터 고급활용까지 실무적이고 체계적으로 성실히 가르쳐 드립니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최신 CAD활용기술과 CAD데이터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시로 활용사항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건축 CAD 활용을 추구합니다.

◎운영요원이 필요한데...

건축 CAD활용을 위한 우수한 운영요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설계업무를 부탁하고 싶은데...

귀사의 설계업무를 건캐드시스템의 수준 높은 기술력으로 신속 정확히 처리해 드립니다.

할인판매

건축 CAD지원용 소프트웨어인 CAD POWER Ver 4.0개발에 따른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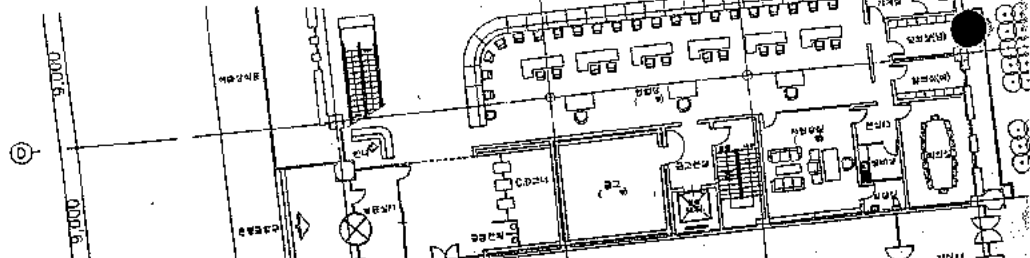
•기간 : 1991. 4. 1~4. 30 •품목 : 32Bit Computer 30%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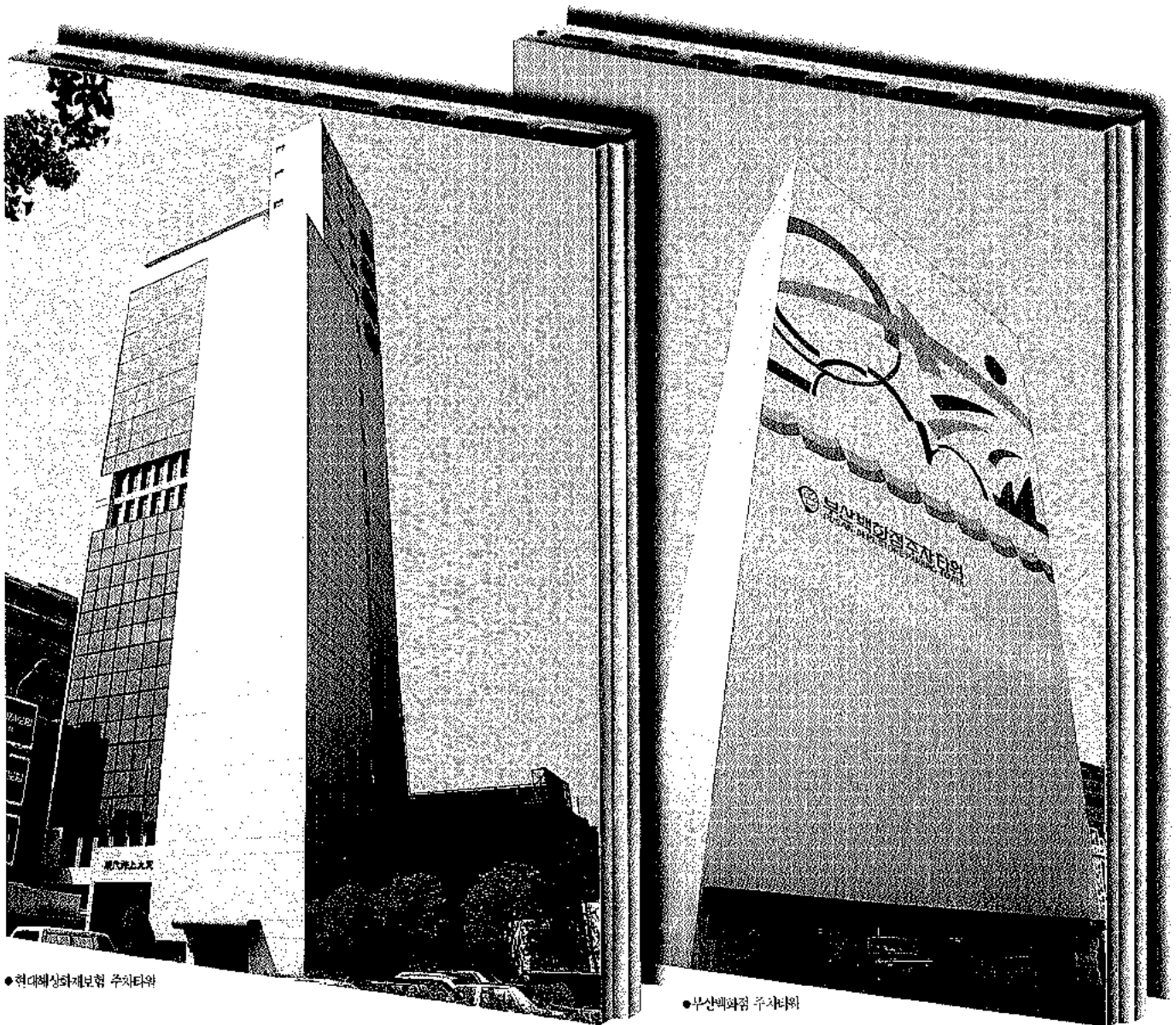


건축CAD전문회사

건캐드시스템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44-2 풍원빌딩 402호 TEL (02)594-6490, 521-4995 FAX (02)587-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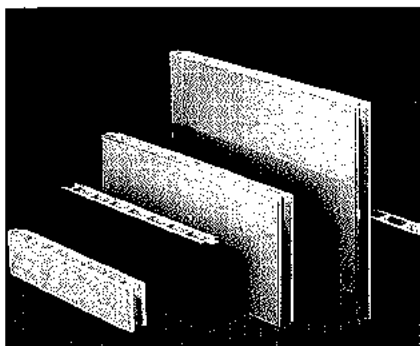




●현대화재보험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란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응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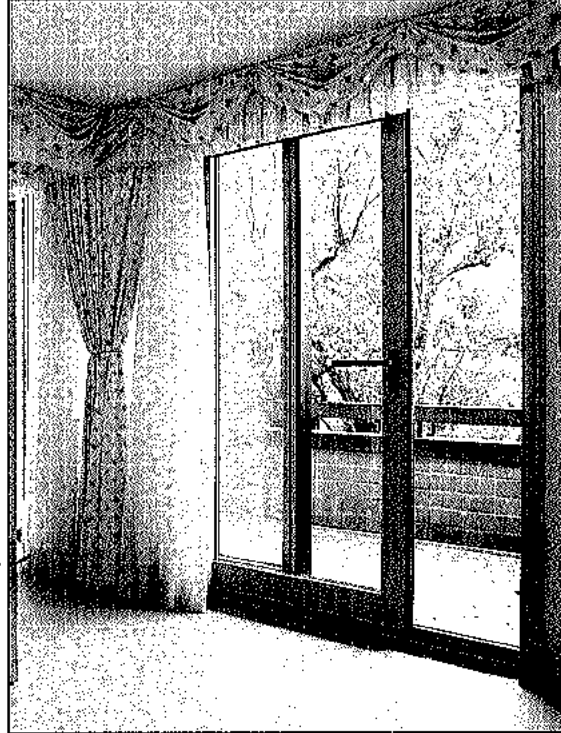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벽산 베이스

더 많은 분들이 名品窓門,



●평창동 S씨덕 ●설계:예전건축
●시공제품:이건창호 CONNEX TURN & TILT WINDOW



●연희동 M씨덕 ●설계:전면디자인
●시공제품:이건창호 CONNEX LIFT SLIDING DOOR



●평창동 L씨덕
●시공제품:이건창호 CONNEX TURN

●대치동전시장



위치: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09
전화:563-2071 FAX:563-5628

●논현동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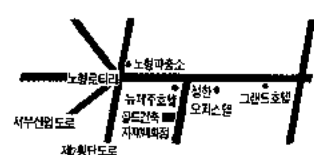
위치: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540-2071 FAX:540-2080

●부산전시장



위치:부산직할시 동래구 은천2동 1434-10 서동빌딩 2층
전화:(051)557-2071 FAX:(051)557-2077

●제주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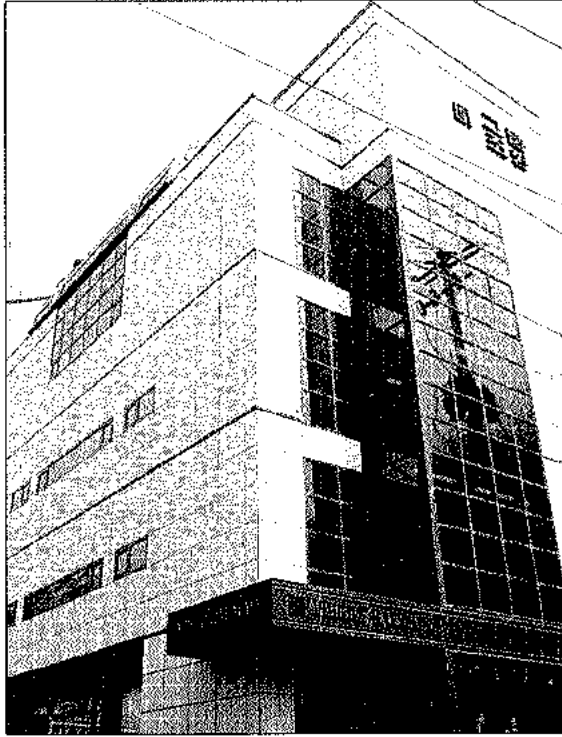
위치:제주시 노형동 928-8 굿드건축(재배화장 지하) 1층
전화:(064)41-4100 FAX:(064)42-3486

기능과 디자인, 품격이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창호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WINDOW



●도곡동 그룹조형사옥 ●설계: 이정희, 손헌재(그룹 조형)
●시공제품: 이진창호 ISKOTHERM TURN & TILT WINDOW



●제주 신라리조트 ●설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제품: 이진창호 ROYAL 110 LIFT SLIDING DOOR

이진창호의 기능과 품격이 최고의 생활공간을 만듭니다.

디자인·소재에서/ 이진창호는 형태와 크기, 색상, 소재 결합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택의 거실, 욕실, 침실, 온실은 물론 사무실, 호텔 등 각종 오피스빌딩의 공간 특성에 맞게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방음·단열에서/ 이진창호는 컴퓨터로 정밀 설계되고 특수유리와 밀폐성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음성능이 뛰어나며 우수한 단열효과로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환기·개폐에서/ 이진창호는 특수 기어 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부드럽으며 환기만을 위한 특수 개폐가 가능하므로 환기가 편리합니다.

안전·수명에서/ 고강도 소재와 특수 유리, 특수 배수시스템에 의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변형되지 않으며, 독특한 잠금장치로 도난, 침입의 우려가 없습니다.

시공에서/ 공장 완제품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현장작업이 간단하며 전식공법에 의한 깨끗한 마감처리로 정기적인 보수없이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시스템 윈도우

이진창호



이진산업주식회사 · 이진자원 개발주식회사 · EAGON FOREST PRODUCT INC.

가장 막강한 건축전용 CAD 시스템입니다.

아직도 건축설계에 적절한 CAD를 찾지못해 고민하십니까?

ARRIS는 미국 SIGMA DESIGN사에서 개발한 막강한 건축 전용 CAD시스템입니다.

■ 더이상 반복작업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 ARRIS는 도면작성시 반복되는 창문, 문, 벽체, 화장실, 계단 등을 쉽게 작성하도록 해줍니다.
- ARRIS는 사람, 자동차, 나무 등 디자인에 필요한 심볼들을 제공합니다.
- ARRIS는 평면작업이후 자동으로 입면도를 작성하도록 해줍니다.
- ARRIS는 PLOTTING하면서 동시에 다른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된 MULTI-USER, MULTI-TASK용 CAD 시스템입니다.
- ARRIS는 프로그램의 SOURCE CODE가 대부분 공개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능을 쉽게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 여러가지의 ALTERNATIVE를 제공합니다.

- ARRIS는 강력한 수정(EDIT) 기능이 있어 도면 변경 및 대안설계가 용이합니다.
- 완벽한 3-D와 풍부한 COLOR(1,670 만가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내·외부 투시도 및 조감도 작업이 용이하며, 동시에 무수히 많은 대안을 창출합니다.
- 각 시간대 별로의 그림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일조권 검토가 용이합니다.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는 ARRIS 전문회사입니다.

■ ARRIS만을 전문으로하는 회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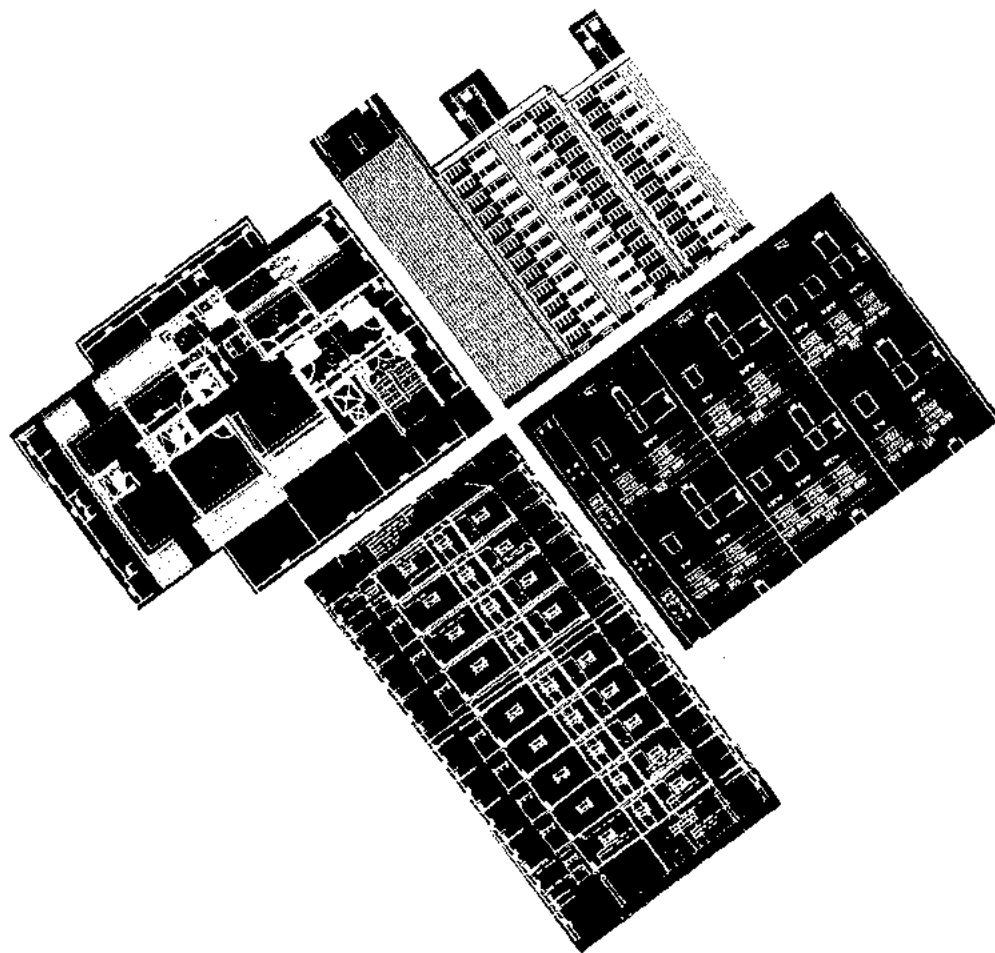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는 1988년 ARRIS가 국내에 소개된 이후 현재까지 ARRIS만을 위해 일해온 사람들로 구성된 ARRIS 전문회사입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의 기술수준은 ARRIS개발사인 미국 SIGMA DESIGN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 ARRIS사용중에 겪는 각종 어려움을 건축을 전공한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는 국내의 모든 사용자에게 더욱 사용하기 편한 ARRIS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 ARRIS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ARRIS에 의한 설계도면용역도 취급합니다.
(건축설계도면, 투시도,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도면 등)
- ARRIS에 숙달된 사용자들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급 LEVEL의 ARRIS 교육을 실시하며, 해외교육 및 전문가 초청교육, 세미나도 실시합니다.

■ 고객을 우선으로 합니다.

- 구매방법은 고객의 선택이지 저희의 선택이 아닙니다.
- 필요한 각종 시스템을 선택할 때에 특정회사의 제품만을 고집하지 않고 사전에 고객과 충분히 상의하여 선택합니다.
- 고객의 사용 용도에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ARRIS MODULE 및 3RD PARTY 프로그램들을 선택하시도록 추천하여 드립니다.
- 기존의 시스템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약간의 추가로 즉시 ARRI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CAD 시스템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 할부, 리스 등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WORKSTATION에서 ARRIS를 운영하고자하는 분들에게는 PC의 경우보다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ARRIS를 운용할 수 있게 해 드립니다.

ARRIS

ARRIS는 미국 Sigma Design사에서 개발한 "디자인 전용" CAD (Computer Aided Design) 시스템으로서, 그 적용분야는 건축, 인테리어, 가구, 산업미술 등이며, Drafting 뿐만 아니라 Design 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진 CAD 시스템으로 특히 완벽한 3-D (입체적 표현) 및 유한한 COLOR와 빛의 Simulation이 가능한, 디자이너를 위한 가장 막강한 최신 CAD 시스템입니다.



■ ARRIS에 관한 교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시그마 디자인 코리아는 ARRIS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ARRIS 교육을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ARRIS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실때 유능한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SIGMA DESIGN

(株) 시그마디자인코리아

서울·서초구 방배동 795-25 (방배빌딩 5F)
TEL: (02) 536-4057 ~ 9
FAX: (02) 599-4030

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에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 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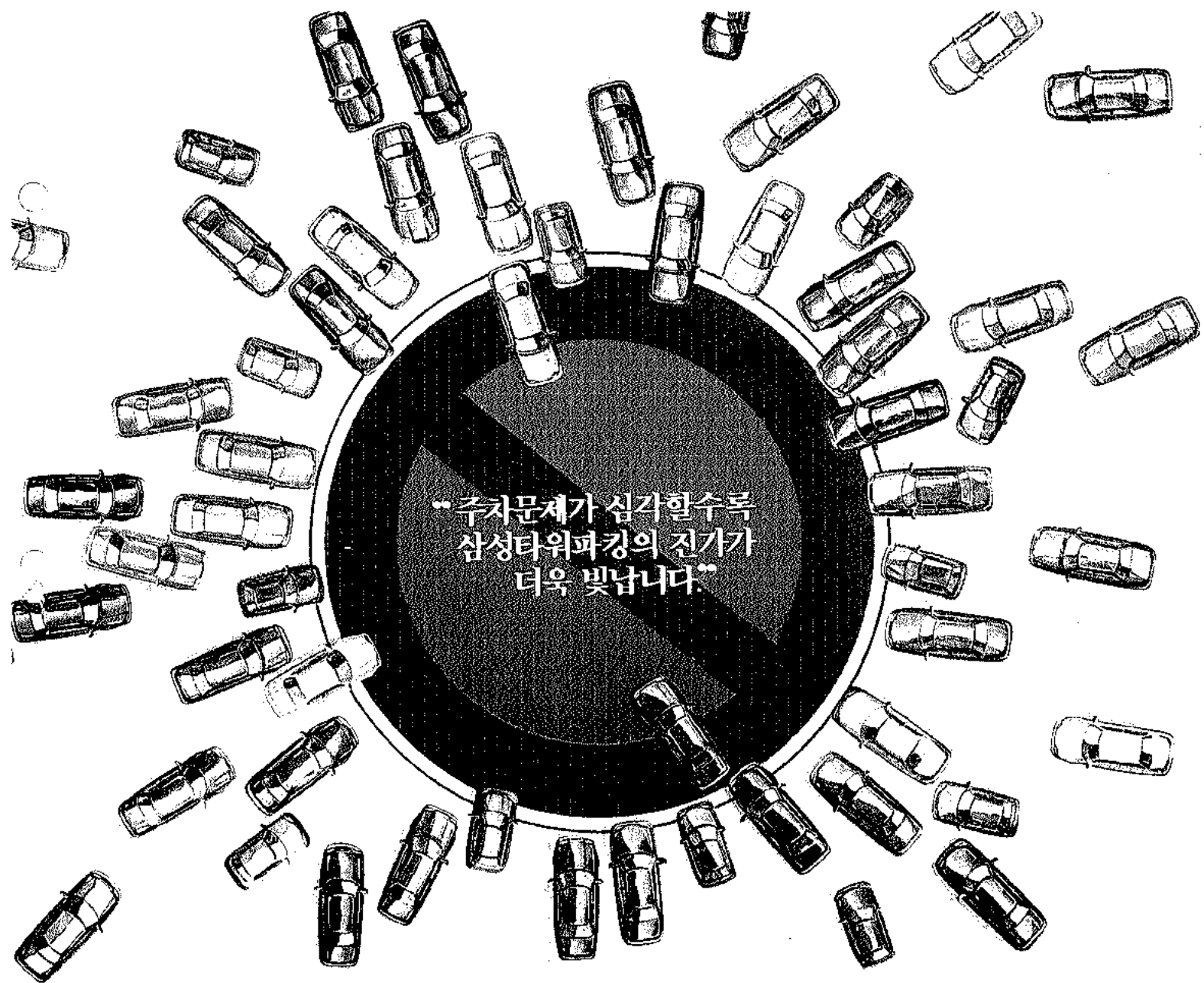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워튼타워힐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 본당 ◎ 문화예술진흥원(문예회관) ◎ 리틀엔젤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동센타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
|---|---|--|

주요 생산품목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TAGE & STUDIO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
|--|---|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서울특별시 麻浦区 城山洞 108-1 TEL: (02) 322-4544(代表) (02) 326-4542(代番)
工場: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蔭里 山209-1 TEL: (031) 3007-4104 (031) 307-2016



삼성타워파킹

국내 처음으로 초고속형, 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킹 개발!

일찌기 15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 주차난 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급기종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 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 엘리베이터방식
- 다층순환방식 ● 2, 3단 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본 사 : (02)728-6431~3 FAX: (02)728-6214, 756-9358
 창원공장 : (0551)60-6382~3 FAX: (0551)60-6767
 부산지점 : (051)807-6814 FAX: (051)862-5375
 대구지점 : (053)254-3004~5 FAX: (053)23-9244
 광주지점 : (062)224-2174 FAX: (062)224-2173
 대전지점 : (042)253-2252~3 FAX: (042)253-3988

三星立體駐車設備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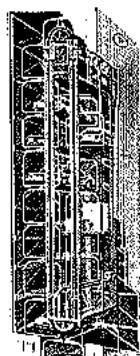
수직순환방식 :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상자(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엘리베이터방식 :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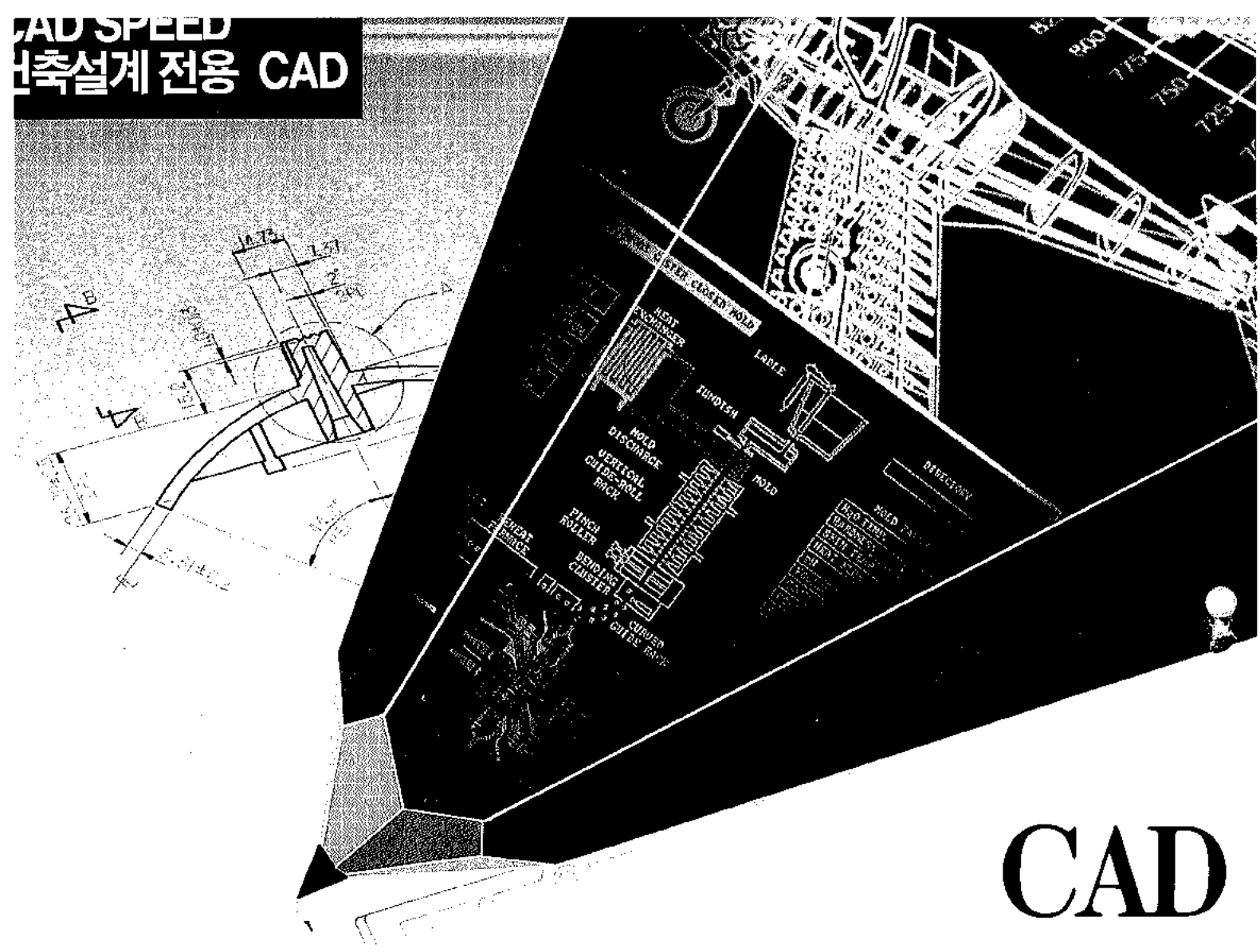
1. 초고속형 : 입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턴테이블내장형 : Cage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 파렛트 하나에 2대를 주차



CAD SPEED
건축설계 전용 CAD



CAD

귀하께서도 이미 디자이너

CADSPEED는 AutoLISP을 이용한
건축설계전용 CAD SOFTWARE 입니다.
AutoCAD를 사용하시는 건축설계자께서는
₩600,000만 더 투자하십시오.

이제 귀하는 건축설계를 위한 편리한 모든 기능을
만끽하시게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

주요기능
편리한 EDIT, 모서리 처리, 창 또는 출입문의
자동 설계 삽입 등.

첨단기술의 정밀화

Je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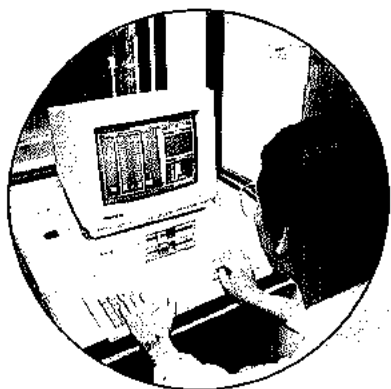
제일 第一精密

■ CAD 사업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B/D 801호
대표전화 : 783-9503, FAX: 783-9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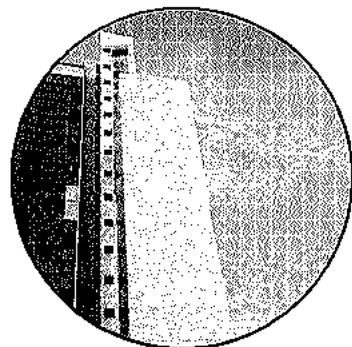
■ 공장 : 경남 창원시 내동 456-8
대표전화 : 82-4131-5131 FAX: 84-7141

■ 대리점 : 서울·부국 782-1888, 시스텍 675-4701, 위켄 588-0386, 대구·신일 956-9570, 캐드비전 421-5549, 캐드콤 53-4153, 부산·MIS 807-1301, 화일 644-3151, 광주·대화 223-0006, 대전·국제 254-1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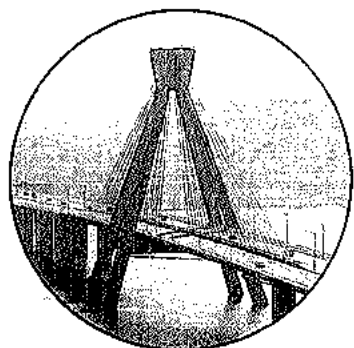
유원의 첨단기술이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 한국일보사신문 주차타워
컴퓨터 콘트롤 룸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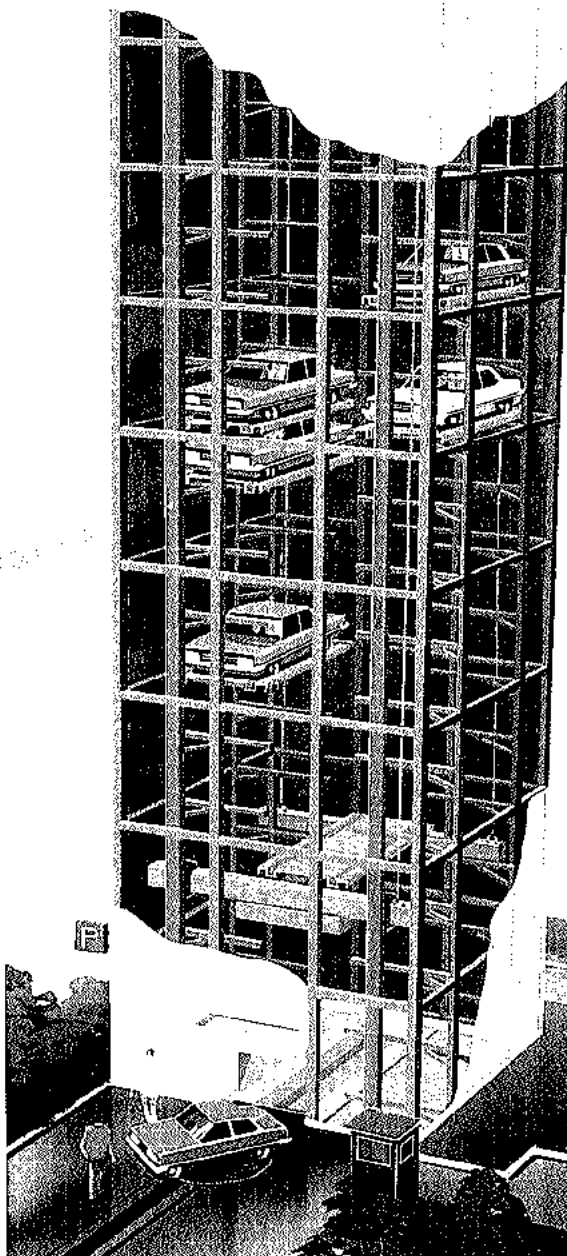


● 서울·올림픽대교

13평의 땅에 50대 주차 설비를 세운다.

올림픽대교를 건설한 유원건설이 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컴퓨터 주차타워. 유원은 한국일보사 신문 주차타워와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주차타워 등을 완공,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지금도 서울 부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주차타워 설치공사를 수행,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원은 국내외에서 쌓은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주차설비 분야의 기획업무부터 설계, 시공, A/S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설의 특징

- 13坪에 50臺 주차설비 시설가능
- 지상, 지하에 동시 운행가능
- 트윈타입으로 설치원이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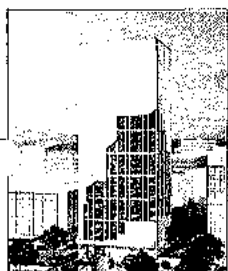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시설의 7대 장점

1. 경제성 - 저렴한 시공비, 최소의 운영관리비
2. 안전성 - 16가지 이상의 COMPUTER 안전장치
3. 신속성 - 상승속도 60m/min 이상, 1분내 입출고 처리
4. 간편성 - 차량번호만 입력, 자동으로 입출고
5. 정숙성 - 승객용 승강기에 버금가는 무소음 무진동
6. 다양성 - 대지형태에 따라 선택 가능한 다양한 기종

7. 독창성 -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 100% 국산화

유원 컴퓨터 주차타워 시공 및 착공사례

- 한국일보 신문 : 2기 48대
- 현대해상화재보험 명동사옥 : 1기 40대
- 부산 고속터미널 : 3기 120대
- 사당 쇼펄센터 : 3기 150대
- 잠실 뉴스타관광호텔 : 1기 50대
- 평창산업주차타운 : 4기 200대



YOP-A 연립형



YOP-M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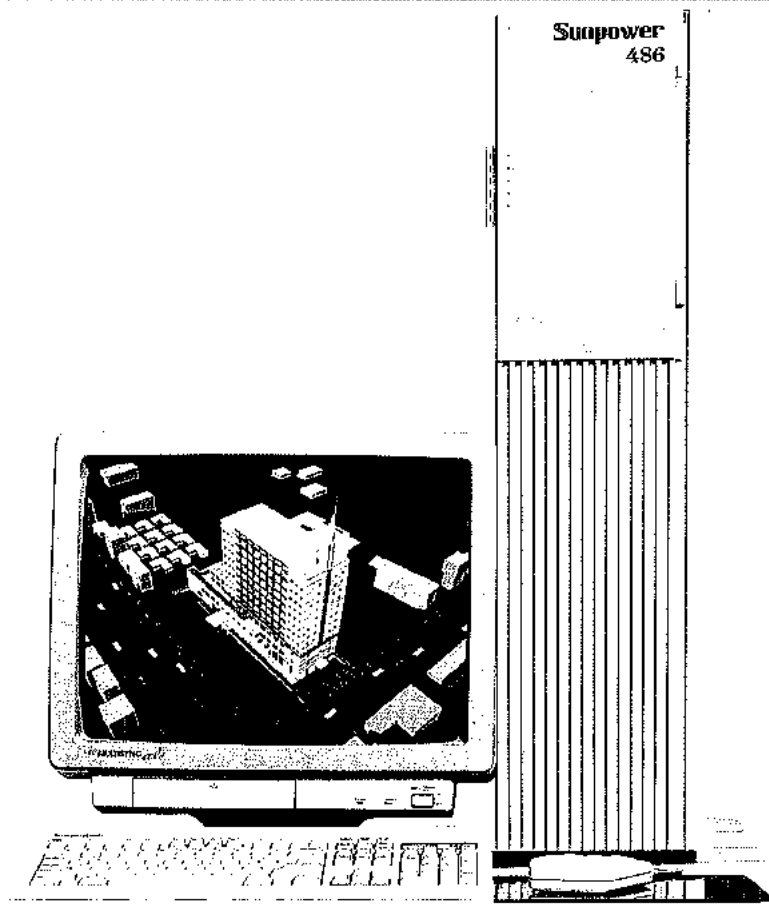


유원건설

상담전화 : (02) 756-9821, 9841 (02) 777-9821, 9841

FAX : (02) 754-8521

주주 플랜트부



가·격·혁·명 품·질·혁·명 A/S·혁·명

AutoCAD TURN-KEY

미국 AutoDesk社에서 1982년에 발표하여 전세계적으로 각분야에 걸쳐
가장 많이 보급되어진 AutoCAD는 3-D, 드로잉, 편집기능을 강화시킨

Rel 11.을 90년 1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서통AI사업부에서는 CAD의 사용에 적합하게 설계된 썬파워
컴퓨터에 연필 사용이 가능한 MUTOH 플로터, 칼라모니터의 대명사

NEC Multisync 등을 통합한 Turn Key System을 보급합니다.

H/W와 S/W를 기술력있는 업체에서 일괄구매하는 방식은 비용절감은 물론

교육 A/S 등의 모든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수 있는 시스템 구매방식입니다.

■ 대한건축사협회부설 CAD 교육연구소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1층

운영 : 서통 AI사업부 교육팀

문의 : 521-7296, 581-5711

■ 교육과정 및 일정

- 실무과정, 연구과정, 경영자 과정의
3단계로 각과정 1주일 완성입니다.



Page 교육안내 참조

ware의 구매시에는 License 여부를 확인
시오. 불법 copy는 바이러스 감염
험은 물론 법적 보호를 받을
없습니다.

* 건축사협회부설 CAD 교육 연구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는
인스텔구에서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AutoCAD TURN-KEY SYSTEM

1. 286 Turn-key System

제품구분	소비자가
컴퓨터-286-PC CPU 20Mhz 처리속도 27Mhz HDD 40MB MEM 1MB (80ns) 5.25" FDD×1 MS-DOS Ver.4.0 MOUSE	2,600,000원
80287 12Mhz	300,000원
AutoCAD-Rel.10	2,800,000원
MONITOR- NEC 2A Polarizer 포함	680,000원
Plotter iP-210	1,180,000원
Graphic card AutoPACK	880,000원
Apogee 2048×2048 Resolution	
합계금액	8,440,000원

20%
OFF

●구매시 선택사항

교 제품목	추가부담액
HDD 100MB로 중설	500,000원
MEM 1MB로	50,000원
Monitor 3D (14")	100,000원
4D (16")	650,000원
XL (20")	1,050,000원
5D (20")	1,400,000원
Plotter iP-530E	2,776,000원
iP-530EL	4,056,000원
F-920E	6,216,000원
Digitizer KUTRA	464,000원

2명 AutoCAD 교육지원
6,752,000원

2. 386 Turn-key System

제품구분	소비자가
컴퓨터-386-Super CPU 33Mhz 처리속도 59Mhz HDD 100MB MEM 4MB (80ns) 5.25" FDD×1 3.5" FDD×1 MS-DOS Ver.4.0 MOUSE	6,750,000원
80387-33Mhz	800,000원
AutoCAD-Rel.11	3,200,000원
MONITOR- NEC 4D Polarizer 포함	1,600,000원
Plotter iP-530E	4,650,000원
Graphic card AutoPACK	880,000원
Apogee 2048×2048 Resolution	
Surpover UPS	400,000원
합계금액	18,280,000원

20%
OFF

●구매시 선택사항

교 제품목	추가부담액
HDD 200MB로 중설	750,000원
MEM 1MB로	50,000원
Monitor XL (20")	450,000원
5D (20")	800,000원
Plotter iP-530EL	1,280,000원
F-920E	3,140,000원
VME Graphic Board	
COBRA Plus	1,800,000원
3B1-HS	
X-Series	1,800,000원
16Color	
X-Series	2,450,000원
256Color	
(한글카드 포함)	2,450,000원
Digitizer KUTRA	464,000원

2명 AutoCAD 교육지원
14,624,000원

3. 486 Turn-key System

제품구분	소비자가
컴퓨터-486 CPU 25Mhz 처리속도 117Mhz HDD 200MB MEM 4MB (60ns) 5.25" FDD×1 3.5" FDD×1 Co-Processor MS-DOS Ver.4.0 MOUSE 한글카드 Word Processor (Sunword)	9,400,000원
AutoCAD Rel.11	3,200,000원
MONITOR- NEC XL Polarizer 포함	2,300,000원
Plotter iP-530E	4,650,000원
Graphic card COBRA Plus	2,500,000원
3B1-HS	
1024×768	
256Color	
Surpover UPS	400,000원
합계금액	22,150,000원

20%
OFF

●구매시 선택사항

제품구분	추가부담액
HDD 400MB로	1,350,000원
중설	
MEM 1MB로	60,000원
Monitor 5D (20")	400,000원
Plotter iP-530EL	1,280,000원
F-920E	2,440,000원
VME Graphic Board	
X-Series	
16Color	
X-Series	650,000원
256Color	
Digitizer KUTRA	464,000원

2명 AutoCAD 교육지원
17,964,000원

무상 A/S 1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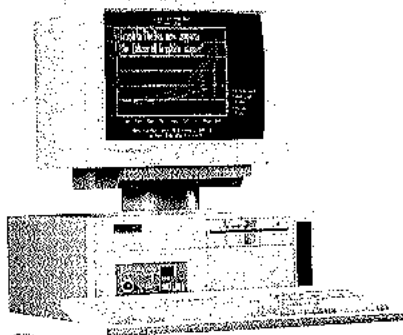
●Option 사양

제품명	소비자가	Specification
SUN-Laser	3,500,000원	A4 34mm 300DPI 118PM
SUNSPOT-300	1,290,000원	324CPS, 156Color, 24Pin, 전자-광상/초입출
5.25" FDD	85,000원	120Mbit PANASONIC
3.5" FDD	90,000원	144Mbit TEAC
SUNWORD	75,000원	한글, 영문, 3B1 Word-Processor
SUNSHEET	180,000원	3차원 도면작성, 기능용, 한글용
SUNSALE	950,000원	기판용, 컴퓨터용, 전자식 S/W
SUNCOMM	200,000원	VAX와 PC와의 Emulator S/W

* (Turn-key System과 동시 구매시는 소비자가의 20% OFF)

●Specification

제품구분	MODEL-NO	SPEC.	MAKER
Monitor		2A Multi sync 800×600 Resolution 3D Multi sync 1024×768 Resolution 4D Multi sync 1024×768 Resolution XL Multi sync 1024×768 Resolution 5D Multi sync 1280×1024 Resolution	NEC
Graphic Board		COBRA-Plus 3B1-HS X-Series 16 Color X-Series 1280×1024 16 Color X-Series 1280×1024 256 Color 256 Color	Vermont Microsystem Inc.
	AutoPACK Apogee	2048×2048 256 Color VGA mode	Grabert
Plotter	iP-210 iP-530E (PEN+PENCIL) iP-530EL F-920 F-920ER	A3-A4 70mm/sec A1-A4 70mm/sec A0-A4 70mm/sec A0-A4 113mm/sec A0-A4 Roll 113mm/sec	MUTOH
U.P.S	Surpover-UPS	500WATT, 9차원 전원장기	SUNPOWER
Digitizer	IS/ONE	12"×12"	KURTA



* 상기단가는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임.



서통 시사업부 5140-386

■ 교육장/전시장/A/S Center

서울·강남구 논현동 6-21 TEL : 514-0386

• 교육장 : 대한건축사협회 1층 TEL : 521-7296

부산·중구 대창동 32-4 태창캐드픽스 TEL : 464-6450

대구·중구 동인동 3가 271-17 TEL : 421-2856

■ 인슈그라스울파넬이란?

INSU GLASS WOOL PANEL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함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율을 극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들이 음의 진동을 원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 성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INSU
PANEL
SYSTEM

1급불연 단열파넬 탄생! **INSU GLASS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소재가 1급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였으므로 기존단열파넬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화재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 방화실험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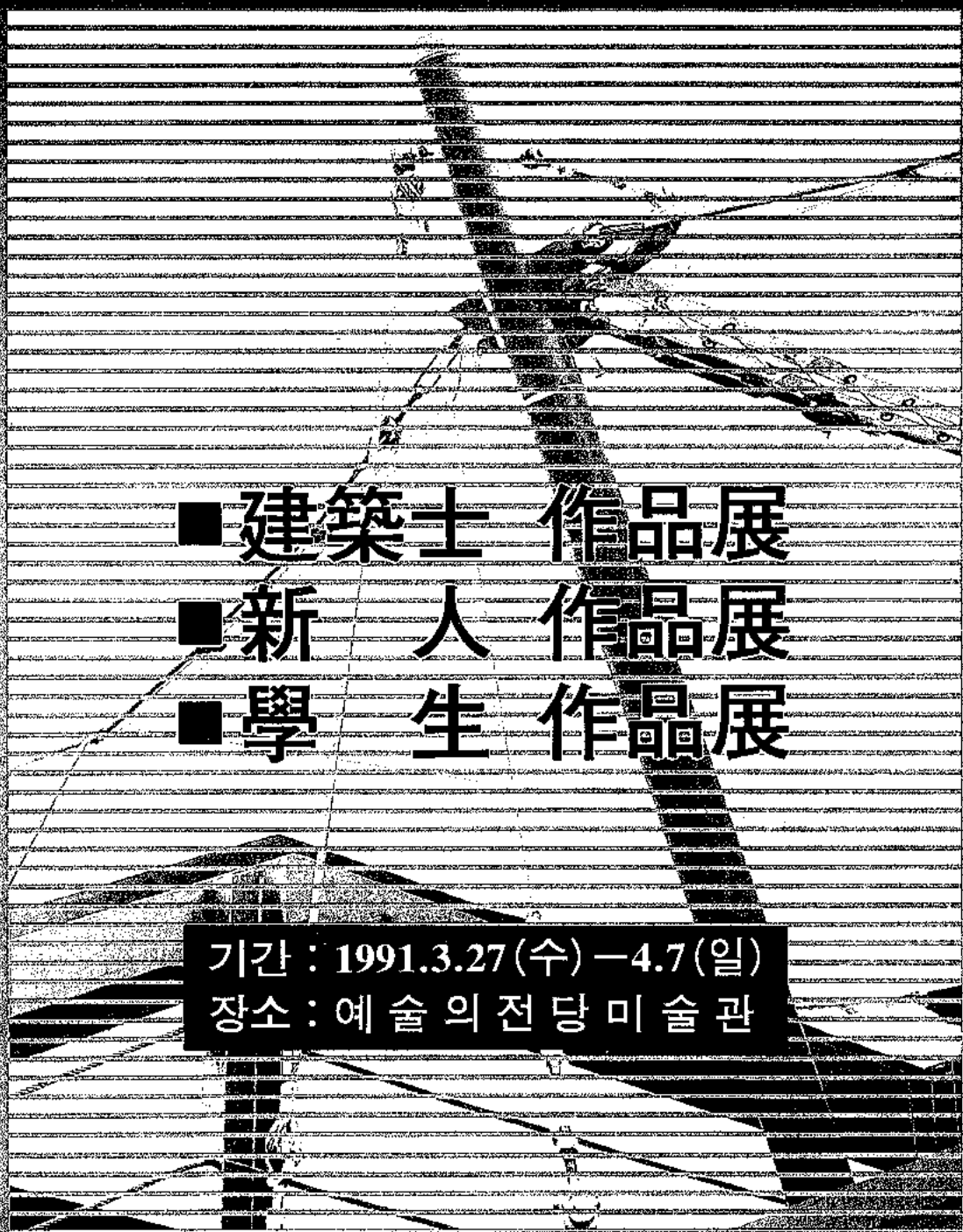


주식회사 인합인슈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 39-2
TEL : (02)745-0687, 이천 : (0336)32-4635~6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인합인슈빌딩
TEL : (02)555-6891, FAX : 553-1651
부산사무소 : (051)462-9534 · 대구사무소 : (053)53-4543
광주사무소 : (062)524-9779 · 창원사무소 : (0551)85-5944

'91韓國建築展



- 建築士 作品展
- 新人 作品展
- 學 生 作品展

기간 : 1991.3.27(수) - 4.7(일)
장소 : 예술의전당 미술관

大韓建築士協會

차례/1991년 3월호 통권 제263호

會員作品

정지원, 신암성당, 윤봉길의사 기념관, 제주 파라다이스 서귀포호텔, 봉명동성당, 목동 주경기장 및 야구장,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 흥은동 H씨택, 강릉 K씨 주택

정지원(忠孝家)/姜錫元	20
신암성당/金武權	22
윤봉길의사 기념관/金基雄	24
제주 파라다이스 서귀포호텔/金 浩	26
봉명동성당/曹龜鉉	27
목동 주경기장 및 야구장/金宇成	28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李珪杓	29
흥은동 H씨택/崔勝元	30
강릉 K씨 주택/安文孝	32

特 點

신인부문 수상작, 학생부문 수상작

신인부문 수상작	34
학생부문 수상작	39

읽히며 생각하며

다시 맞는 3월에/梁元錫

著 說

체계접근으로서의 건축형태/董政根+朴研心	50
일본의 미술관 건축/金文德	57
한국의 전통건축 32 朝鮮時代의 建築/張慶浩	68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6)/裴元泰	76
建築構造物 스판의 長大化/金鍾洛+李鶴洙	82

新入會員

90

會員勳勞

91

資 料

1991년 1월분 도서신고현황

92

協會消息

94

發行人: 吳雲東

編輯企劃: 編輯委員會

委員長: 李義求

委員: 徐千植, 姜哲求, 金煥起, 崔英集, 吳元根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0

電話: 代表 (02) 581-5711, 581-5712~14

팩시밀리: (02) 586-8823

登錄番號: 서울 라-26(月刊)

登 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0612(519)

印刷人: 全允珪/汎文精版社

Publisher: Oh, Woon-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Lee, Eun-Koo

Member: Suh, Chun-Ski/Kang, Chul-Koo/Kim, Hwan-Kee/Choi, Young-Jeep/Oh, Won-Keun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Registered Number: Seoul Ra-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054-2):0612(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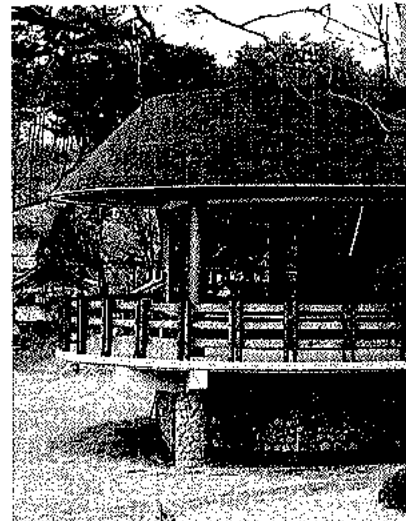
Printer: Jeon, Yun-Kyu(Kwangmoon Printing Co.)

표지: 姜錫元作 「성지원」

CONTENTS Vol. 263, MARCH 1991

WORKS /

An Asylum for Aged in 'Songjiwon' / Kang, Suk-Won	20
Shinam Catholic Church / Kim, Mu-Kwon	22
The Patriot Yun, Bong-Gil Memorial / Kim, Ki-Woomg	24
Cheju Paradise Sogwipo Hotel / Kim, Ho	26
Bongmyung-dong Chthedral / Cho, Koo-Hyun	27
Mok-dong Main Stadium & Diamond / Kim, Woo-Sung	28
KEPCO Chonnam District / Lee, Kak-Pyo	29
H's Residence at Hongeun-dong / Choi, Seong-Won	30
Ks Residence at Kangneung / Ahn, Moon-Hyo	32



ISSUE /

Debutant's & Student's Design Show	39
------------------------------------	----

ESSAY

Gree the March Over Again / Yang, Won-Seok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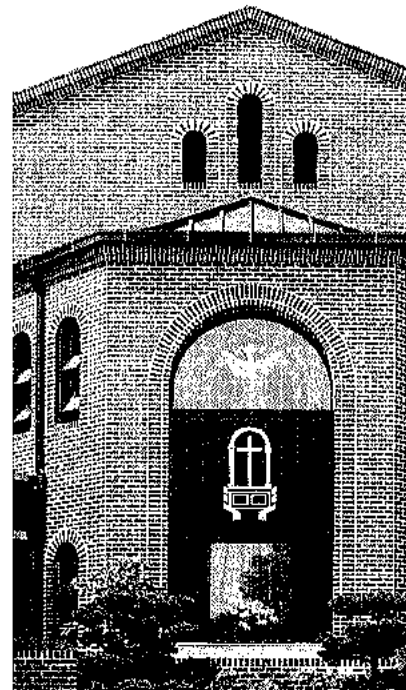
REPORT

System Approach Design Method / Dong, Jung-Keun & Park, Youn-Sim	50
Museum Architecture in Japan / Kim, Moon-Duck	57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 Chang Kyung-Ho	68
Tour of Mesopotamia Architecture / Bae, Won-Tae	76
Look Forward to the Long-span Beam on Bulding Structures / Kim, Jong-Rak & Lee, Hark-Soo	82

NEWLY ADMITTED MEMBER

MATERIALS

KIRA NEWS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상당실 안내

■ 서울특별시지부/서울특별시초등건축동1603-55, 561-5715-8. 서대문분소/서대문구연희동168-25, 333-6411. 관악분소/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도봉분소/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영등포 분소/영등포구당산3가81, 634-2143. 강동분소/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강서분소/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68. 성동분소/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동대문분소/동대문구신암동101-2, 923-6313. 중로분소/중로구청전동201-1, 738-5416. 마포분소/마포구정선동275-1, 333-5251. 송파분소/송파구송파50-12, 423-9158. 송구분소/송구로2가49-11, 279-1415. 용산분소/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서초분소/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60. 은평분소/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동작분소/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강남분소/강남구논현동241-5, 511-8545. 노원분소/노원구상계1동 1049-79, 992-8076. 양천분소/양천구신정동1027-9, 046-7172. 중랑분소/중랑구민목동166-46, 436-0587. 성북분소/성북구삼선5가410, 923-4401. 구로분소/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지부/ 부산직할시중구동명1가1(부산대파트내)(061)246-6284~7. ■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가1-8, (053)753-8880~5. ■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동558-1, (032)437-3381~4(FAX)437-3385(한국종 합발행204호). ■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북구중흥동694-10, (062)521-0025~6(FAX)528-0026. ■ 대전직할시지부/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37-1, (042)254-2441. ■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곡로1124-5, (031)47-6129-31. ■ 직할분소/경기도수원시매곡로3가1-8, (031)42-6490, 7072. 안양분소/안양시안양6동523-5, (0343)49-2698. 부천분소/부천시중구원미동88-1, (032)1664-1554. 성남분소/성남시수정구태평동3407, (0342) 755-5445. 의정부분소/의정부시정자동182, (031)2-1082. 송탄분소/송탄시시정동343-22, (0333)4-6153. 고양분소/고양군원당읍주교리38블럭16북로, (034)163-8902. 구라분소/구리시수택동409-2, (0346) 63-2337. 아산분소/아산시천안리192-1, (0336)635-6545. 광명분소/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안산분소/안산시고장동536-1, (0345)180-9130. ■ 강원도지부/강원도춘천시목천동39-5, (0361)54-2442. 원주분소/원주시일산동206, (0371)42-3257. 강릉분소/강릉시성내동6-14(0391)2-2262. 속초분소/속초시동명동466-33, (0392)133-5081. 삼척분소/삼척시삼양동55-43, (0397)2-3106. 영월분소/영월군영월읍 영흥1리960-12, (0372)43-2685. ■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37가87-3, (0431)56-2752, 53-7342. 충주분소/충주시영천동673-1, (0441)847-3082. 제천분소/제천시외의림동8-8, (0443)43-6253. 옥천분소/ 옥천군옥천읍삼양동222-206, (0475)133-3502. ■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487-1, (042)256-4088. 천안분소/천안시문화동100-1, (0417)551-4551. 홍성분소/홍성군홍성읍호리239-1, (0451)32-2853. 부여분소/부여군부여읍남리703-1, (0463)2-2271. 대천분소/대천시대천동197-10, (0452)34-3367. ■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서노송동568-116(전원빌딩6층), (0552)87-6007. 이리분소/이리시남중로1 가77-21, (0653)52-3796. 군산분소/군산시신창동35-4, (0654)445-4059. 남원분소/남원시하정동106-2, (0671)31-1000. ■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귀포시정동783-23(추진회관)(062)364-7567, 33-9944. 목포분소/ 목포시대안1동1, (0631)43-3348. 순천분소/순천시장천동51-11(0661)3-2457. 여수분소/여수시관문동41번지, (0662)64-7023. ■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286번지, (053)425-4904. 포항분소/포항시 죽도동43-22, (0562)44-6029. 경주분소/경주시노동동42-2(0561)3-3638. 구미분소/구미시원평동964-264, (0546)52-6351. 안동분소/안동시서부동157-4, (0571)54-5703. 김천분소/김천시평화동280-1, (0547)2-2541. 영주분소/영주시후천2동642-52, (0572)33-7504. 점촌분소/점촌시중앙동290-3, (0581)2-2706. 상주분소/상주시남성동36-23, (0582)2-4306. ■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가3-47, (0551)46-4530~1. 울산분소/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52)174-8836. 진주분소/진주시본성동7-20, (0591)41-6403. 충무분소/충무시서호동163-18, (0557)43-3577. 김해분소/김해시부원동24B-10L, (0525) 2-6114. 밀양분소/밀양시삼문동184-108, (0527)53-2110. 거창분소/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12-7090. 양산분소/양산군양산읍다랑리522-4, (0523)184-3050. 거제분소/거제군시원읍고현리139-2, (0558)1635-3432. 삼천포분소/삼천포시동금동91-6(0593)33-9779. ■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12-3248, 52-3248. 서귀포분소/서귀포시서귀동290-6, (064)32-7777.

'91韓國建築展 受賞作 發表

本協會가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발전과 새로운 建築風土 造成 및 後進養成에 이바지하고자 開催하는 '91韓國建築展 各部門 受賞作이 選定되었다.

총 57작품이 출품된 建築士部門에서는 최종심사대상작품들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 우리나라 建築文化 발전에 공헌한 우수작품 9점을 선정, 優秀賞을 시상키로 하였으며, 新人・學生部門에 있어서는 응모작 28점(신인부문), 154점(학생부문)중 最優秀作 1점과 優秀賞을 선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작에 대해 장려상 등 총입상작 11점(신인), 35점(학생)을 선정하였다.

작품심사경위와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作品(應募)現況

- 가. 建築士部門: 57작품 출품
- 나. 新人 部門: 총 28작품 응모
- 다. 學生 部門: 전국 48개교에서 총 154작품 응모

▶審査日時

- 가. 建築士部門: 1991년 3월4일~5일
- 나. 新人・學生部門: 1991년 2월27일~28일

▶作品審査 委員

가. 建築士部門:

- ◇ 審査委員: 委員長—吳雲東(大韓建築士協會 會長)
- 委 員—尹道根(韓國建築家協會 會長)
- 劉熙俊(漢陽大 建築科 教授)
- 吳雄錫(신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安箕泰(건축사사무소 동화건축 대표)
- 朴成圭(종합건축사사무소 합성건축 대표)
- 張城鎭(건축사사무소 삼호건축 대표)

나. 新人・學生部門:

- ◇ 審査委員: 委員長—吳雲東(大韓建築士協會 會長)
- 委 員—辛鉉植(大韓建築學會會長)
- 安英培(서울市立大學 建築科 教授)
- 李環會(延世大學校 建築科 教授)
- 韓昌鎭(한정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金枝泰(삼아건축사사무소 대표)
- 宋基德(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禹南龍(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세종 대표)
- 李義求(조합건축사사무소 대원・창건사 대표)
- 權泰政(대한・동신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李文雨(종합건축사사무소 예성 대표)

▶審査經過

가. 建築士部門

심사방법은 네가티브방식에 의해 과반수 이상(-4점)의 점수를 받은 작품을 탈락시켜나가는 방법을 택하고 원안의 시상대상작품 수가 적으므로 그 수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키로 하는 한편 시상가능 작품으로 심사 대상 작품수가 좁혀졌을 경우는 심사위원 전체토론을 거쳐 시상을 확정키로 하였으며 최종심사 단계에서 작품의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힘들고, 작품의 서열을 가리는 것이 전시회 개최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에 모두 우수작으로 시상키로 하였다.

*1차심사

총 출품작 55작품을 심사대상으로 네가티브방식에 따라 심사위원당 20작품을 감점하여 -4점이상 17작품은 탈락하고 2차심사대상을 선정.

*2차심사

38작품을 대상으로 네가티브방식에 의해 20작품씩을 감점, -4점이상 19작품은 탈락하고 3차 심사대상을 선정.

*3차심사

19작품을 대상으로 네가티브방식에 의해 10작품씩을 감점, -4점이상 10작품은 탈락하고 4차심사대상을 선정.

*최종심사

심사대상 9개작품에 대해 심사위원 전원의 토론형식으로 진행된 최종심사에서 작품의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렵고 전시회 개최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상작 9점에 대해 순위없이 모두 시상키로 하고 優秀賞 5점과 準優秀賞 4점을 결정.

※ p. 46로 계속

— '91 韓國建築展 各部門 受賞作 名單 —

가. 建築士部門 受賞作

시상구분	작 품 명	출품자	소 속
優 秀 賞	성지원	강석원	건축사사무소 구름가
	제주 파라다이스호텔	김 호 (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봉명동성당	조구현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윤봉길의사기념관	김기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조	
	신암성당	김무권	현대종합건축사사무소(대구)
準優秀賞	홍은동 H씨 주택	최승원	앙가주망건축사사무소(경기)
	강릉 김씨 주택	안문호	새안건축사사무소(강원)
	목동종합운동장	김우성 (주)아키텍트종합건축사사무소	
	한전전남지사	이각표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다. 學生部門 受賞作

시상구분	작 품 명	응 모 자	소 속
最優秀賞	Art Plaza	황길순, 김윤정	경원대
優 秀 賞	飛翔	김구훈, 고철웅, 김소희	중앙대
	A Different Corner	최광덕, 박범수, 서용준	한양대
獎 勵 賞	Gazebo	김형일, 이승원, 이혁준	단국대
	Cultural Park	최분규, 이민창, 이종구	연세대
	Mall and Performance	이동우, 김종찬, 김창호	인하대
	The Start Step of Traditional Succession	변문수, 한창호, 정승태	충북대
	Union Complex	강옥현, 김오진, 조권제	국민대
	도시감각	이희정, 장현순	아주대
	Mental Dynamo	엄성철, 김민진	국민대, 덕성여대
	Prism(청소년을 위한 공간)	이옥화, 임희숙, 박상희	인천대
	종합박물관계획안 —겨레의 서사시—	하원기, 양희중, 차운주	중앙대
	共鳴	박선옥, 박세환, 장현정	전국대
	Complex Sunken Atrium	김기남, 이관우, 신경민	부산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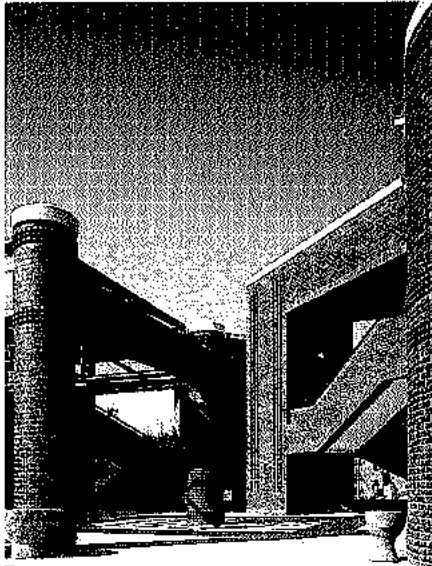
나. 新入部門 受賞作

시상구분	작 품 명	응 모 자	소 속
最優秀賞	Urban Life	이상훈, 정성문, 윤정현	서울대학교원
優 秀 賞	Urban Identity	김상언, 안준석, 백기동	고려대학교원, 우노건축, 정림건축
獎 勵 賞	Complex for Human Life	주현준, 고훈현	두우건축, 성균관대
	복합근린생활시설	김태우, 임형석	홍익대학교원
	多色空間	김용희, 김화봉, 안창훈	전인건축, 동서건축, 부산대학교원
入 選	복합용도건축물계획안	장건홍, 허영권, 김상진	그림가건축
	도심 속의 쉼터	성낙훈	동인건축
	복합건축	정일교	예우건축
	City in the City	이인구, 강성동, 신우탁	도문기획, 상림건축, 동익건축
	The Image of a Layer City	윤평현	홍익대학교원
	도시블럭	노종석, 이영우	영건축, 여건건축

市 道 支 部 會 長 賞			
서울支部	시각예술센터	서경배, 서상준, 윤여정	승실대
	Music Plaza Apollon	김혁중	서울산업대
	Informational Center	문석중, 이방설, 황금순	명지대
釜山支部	Separate...but the only one	김종복	부산대
大邱支部	For Citizen	배소현, 권용한, 홍성구	영남대
仁川支部	The Third Amenity	정영준, 김태섭	인하공전
光州支部	People and Space	성용관, 이경아, 김혜영	전남대
大田支部	Alive	김을섭, 윤석원, 홍경표	목원대
京畿支部	Contemporary	최정우, 김승태, 이경환	아주대
江原支部	共存	김한수, 손호성, 최재훈	강원대
忠北支部	Indoor Sports Complex	양남진, 김 배	충북대
全北支部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이창재, 이석태, 임귀석	원광대
慶北支部	Freedom in the City	이영수, 이익환, 강영미	금오공대
慶南支部	A Small City in Urban	김승복, 송은경, 장원승	경상대
入 選	체육교육센터	남선희, 조창덕, 김명석	국민대
	Sporty for All	강화명, 김홍일, 김영옥	건국대
	여론광장	주요한, 안승엽, 박대성	경원대
	Another Dimension	김상운, 소인철	연세대
	Art Complex	박홍철, 이은숙, 서동갑	청주대, 중앙대
	同·Civersity	박영배, 구연희, 박종학	건국대
	도시근린지구복합시설	나종만, 김영기, 박범기	홍익대

성지원 (忠孝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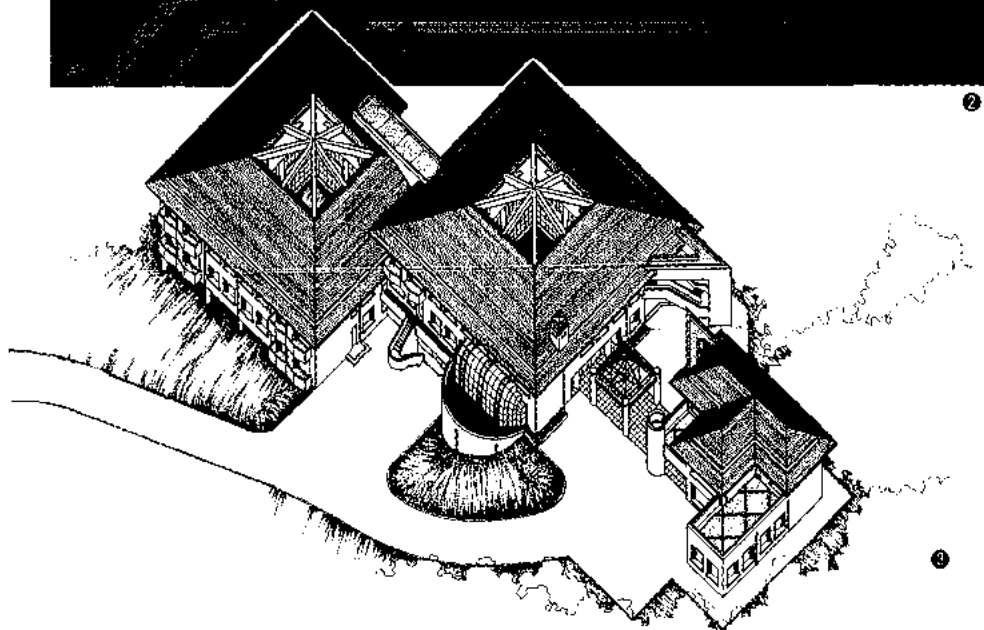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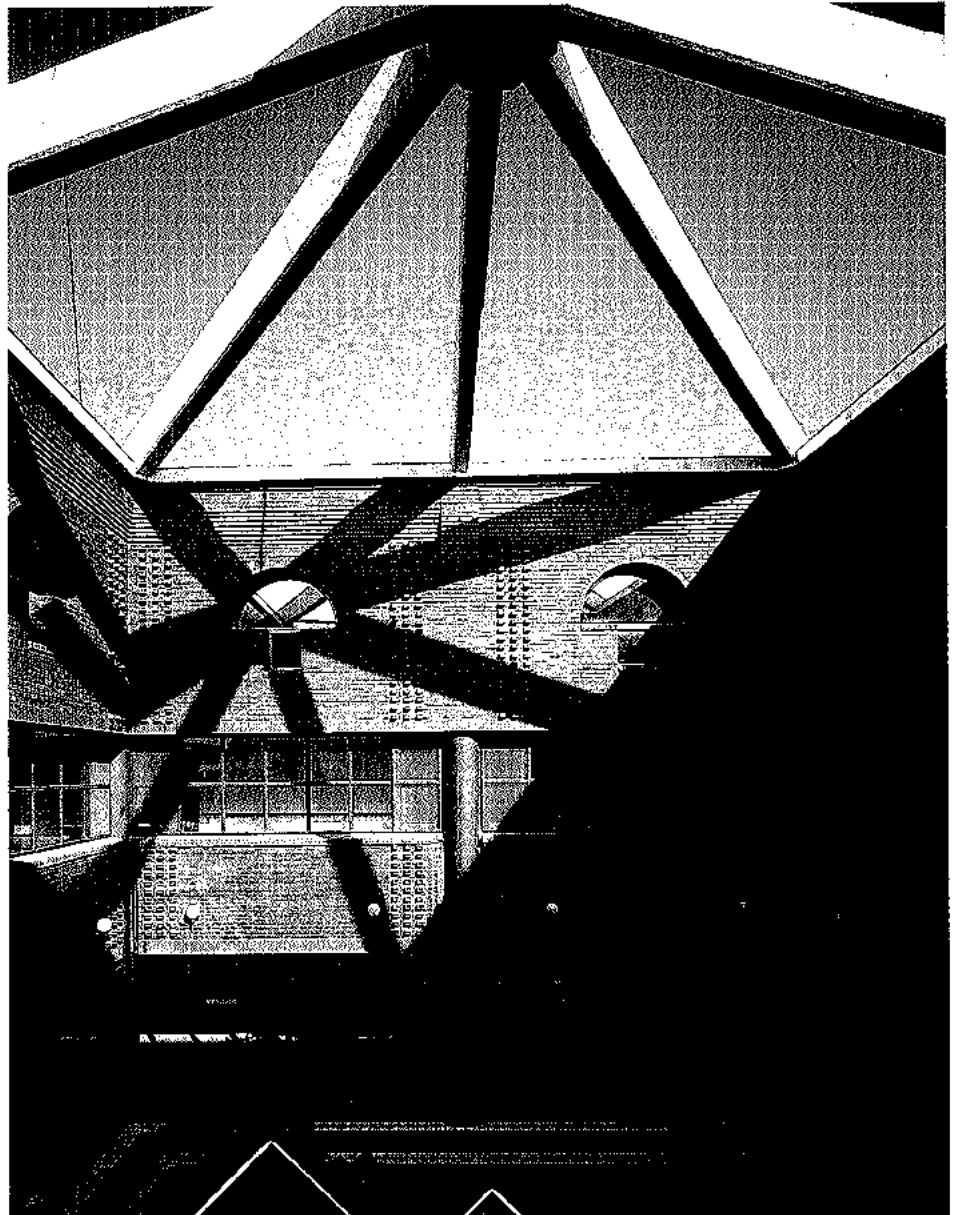
An Asylum for the Aged in 'Songji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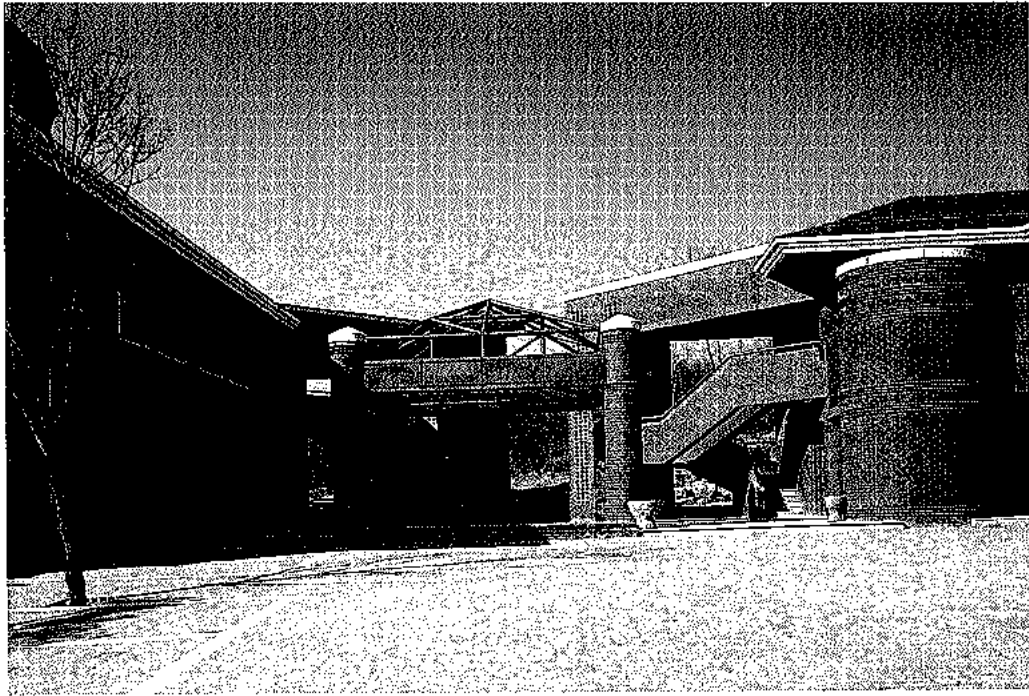
'91 韓國建築展

優秀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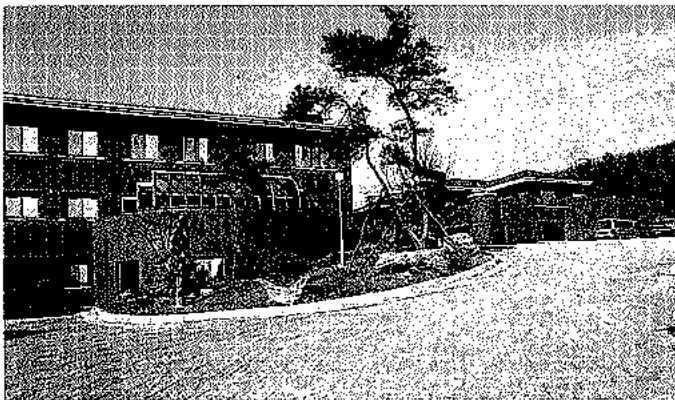
대지위치/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조원동 일대
지역·지구/자연녹지 및 시설녹지
대지면적/10,295㎡
건축면적/총면적-1853.9㎡
연면적/4,556.52㎡
건폐율/18%
용적률/34.26%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차대수/15대
용도/노유자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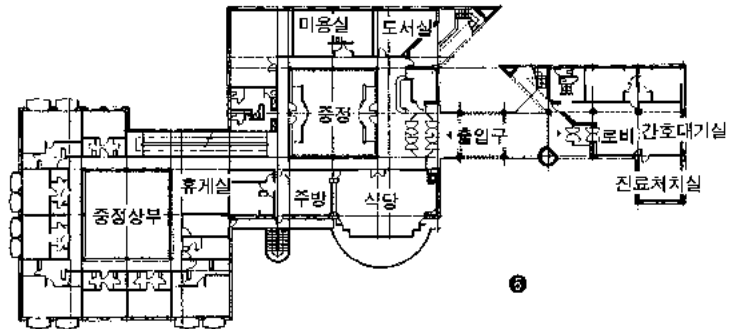
姜錫元/건축사사무소 구름가
Designed by Kang, Suk-Won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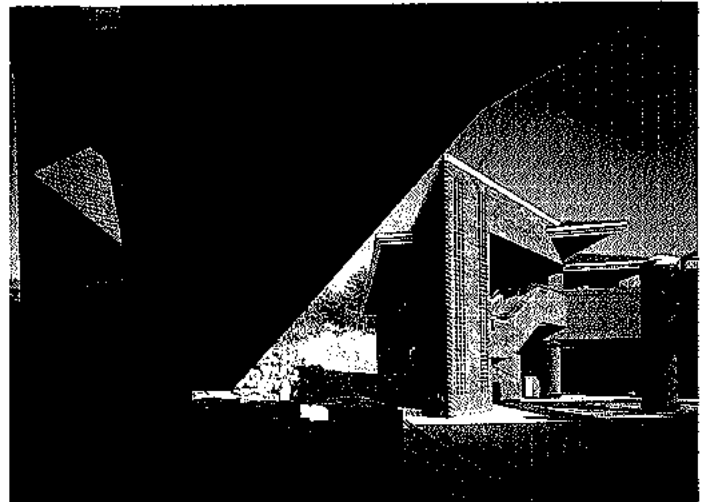
설계소요

성지원은 유료 양로원으로서 노인의 여생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존의 양로원과 달리 노인의 환경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된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개념설정은 노인의 특성을 파악·분석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노쇠화로 인해 생활규모나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특별한 활동욕구가 부여되지 않는 한 하루종일 가만히 머물러 있으며, 더군다나 기존의 물리적 환경구조가 이들의 활동범위를 더욱 축소·제한시킨다.

기존의 양로원은 노인들에게 쾌적한 삶을 부여한다는 개념보다는 우선 수용하기에도 급급한 것이어서 노인의 환경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었다. 성지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담소·오락·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의 50%를 공용장소로 계획하였으며 식당, 대충당, 이용실, 미용실, 물리치료실, 병실, 오락실 등을 분산·배치하여 동선 및 공간의 독립성을 주는 한편, 시설에 접근이 쉽도록 하였다.

반면에 침실은 1인실, 2인실 등으로 상층부에 배치하여 독립성을 주었으며, 각 건물동에는 중정을 두어 자연스런 채광 및 실내정원을 조성, 한결 부드러운 쾌적성을 주었다.



7

- ① 캐노피 및 연결계단측 외벽상세
- ④ 주출입구측상세
- ⑦ 외부계단측에서 본 외벽상세
- ② 중정측 외벽상세
- ⑤ 전경
- ⑥ 1층평면도
- ③ 엑소노메트릭

신암성당

Shinam Catholic Church

대지위치/대구시 신암동

연면적/2,012.20㎡

건축면적/1,130.55㎡

외부마감/벽-붉은벽돌 치장쌓기

지붕-동판잇기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지붕-철골트러스

'91 韓國建築展

優 秀 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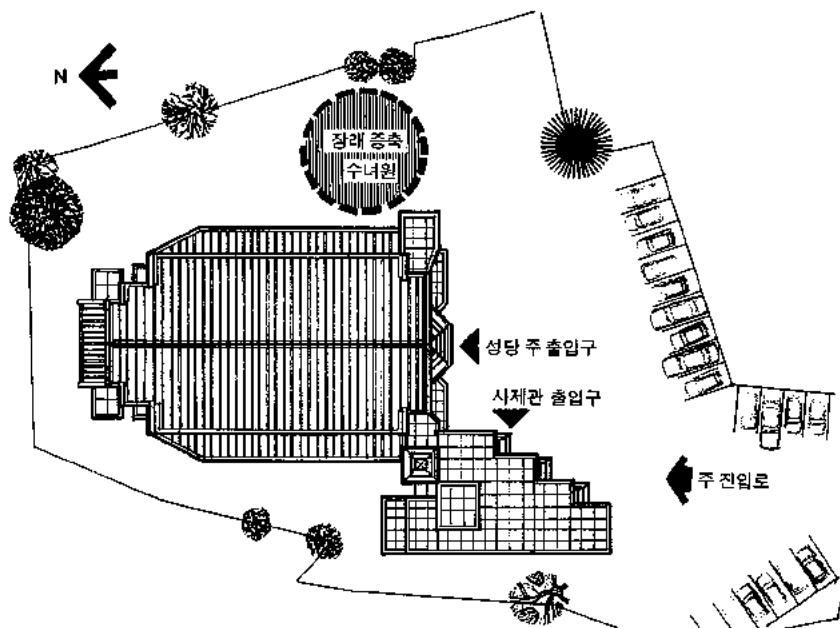
설계소모

절대자를 향한 인간의 향수는 오늘 더욱 더 절실해 지는 것 같다.

사랑을 상실해가는 오늘의 사람들은 절대자를 통해, 공동체 모임을 통해 자아상실의 위기를 극복해 가려한다.

본 작가가 계획한 신암성당 또한 작지만 아름답고 무언가 평화가 깃들고 안식처의 푸근함을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사람들과의 친밀감을 더하기 위하여 붉은벽돌을 사용하였고 솜은듯 하지만 구도의 희망을 주기 위한 상징의 종탑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로 줄 것이며, 성당 안으로 은은히 들어오는 빛의 효과는 신자들에게 평화의 기쁨을 주리라 생각한다.

배치계획에 있어서 불규칙한 긴 대지를 이용하여 기도 및 집회의 장소를 중심으로 정문에서의 입구쪽에 사제관, 성당 우측의 정적인 공간에 프라이버시를 요하는 수녀원을 배치하여 세 공간의 유기적 연결을 도모하였고 진입시 사제관의 점진적 돌출을 통해 성당으로 향하는 동선을 정신적 상승의 기분을 유도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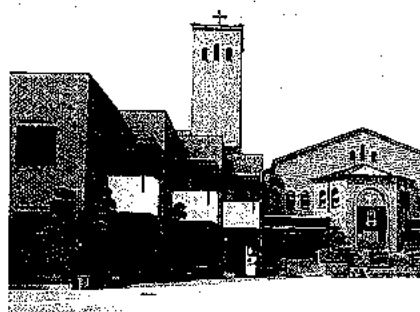


金武權/현대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Mu-K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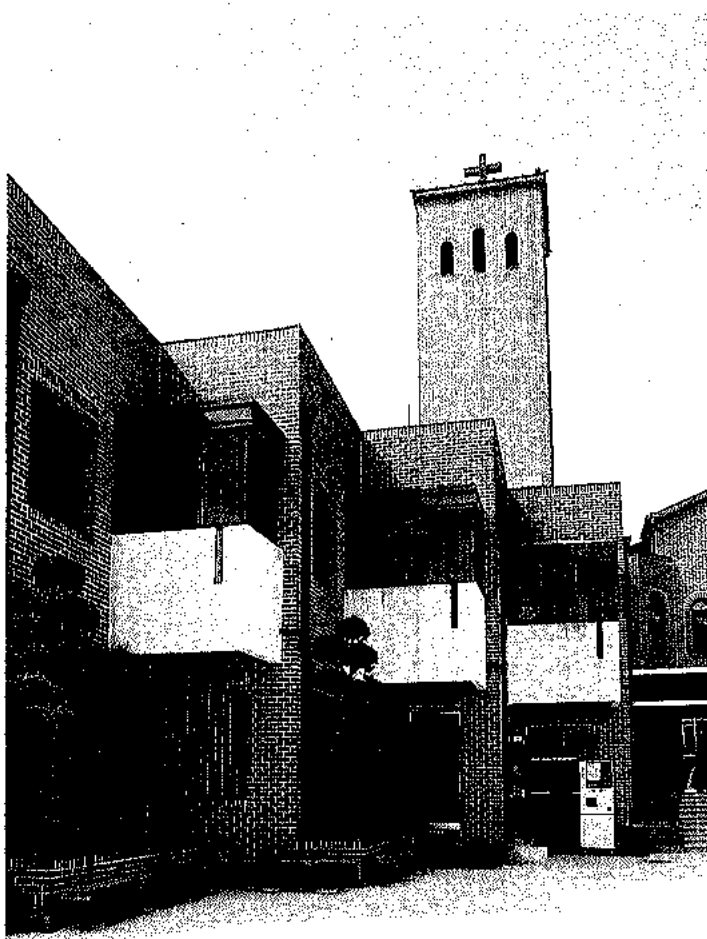


- ① 주 출입구 상세
- ② 배치도
- ③ 내부전경
- ④ 전경
- ⑤ 외벽 모서리 상세
- ⑥ 루시도
- ⑦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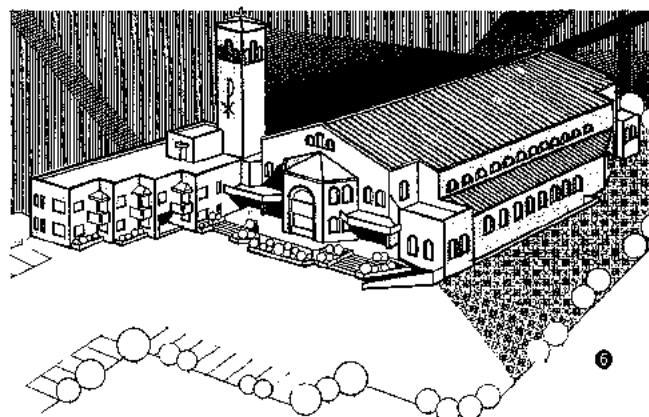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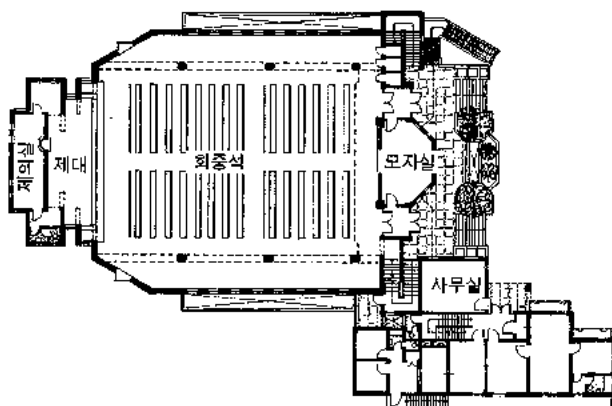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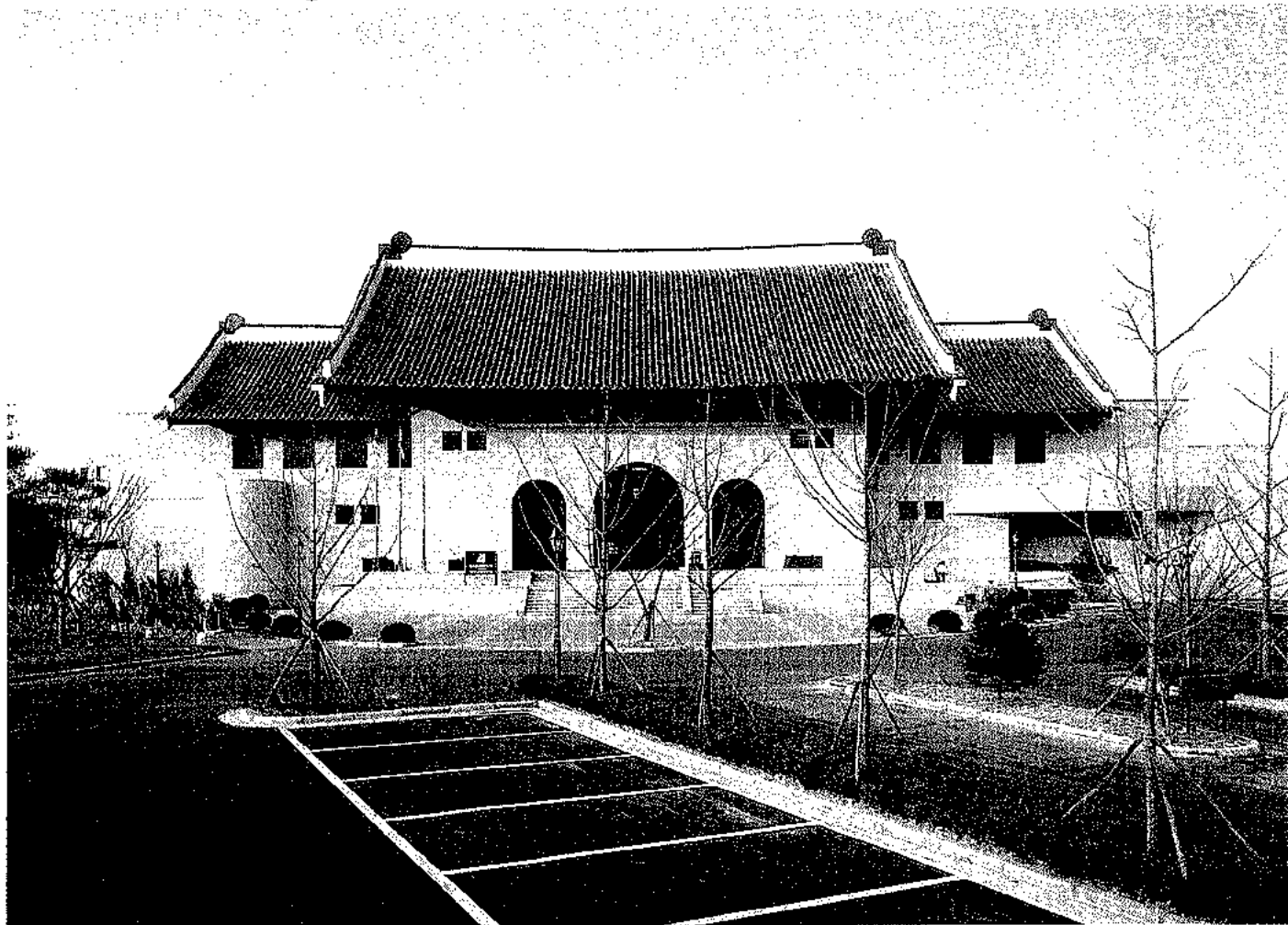
⑥



⑦

윤봉길의사 기념관

The Patriot Yun, Bong-Gil Memorial



'91 韓國建築展

優 秀 賞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개포시민의 숲 공원 부지內

대지면적/6,589.9㎡

건축면적/1,202.13㎡

연면적/2,444.22㎡

건폐율/18%

용적율/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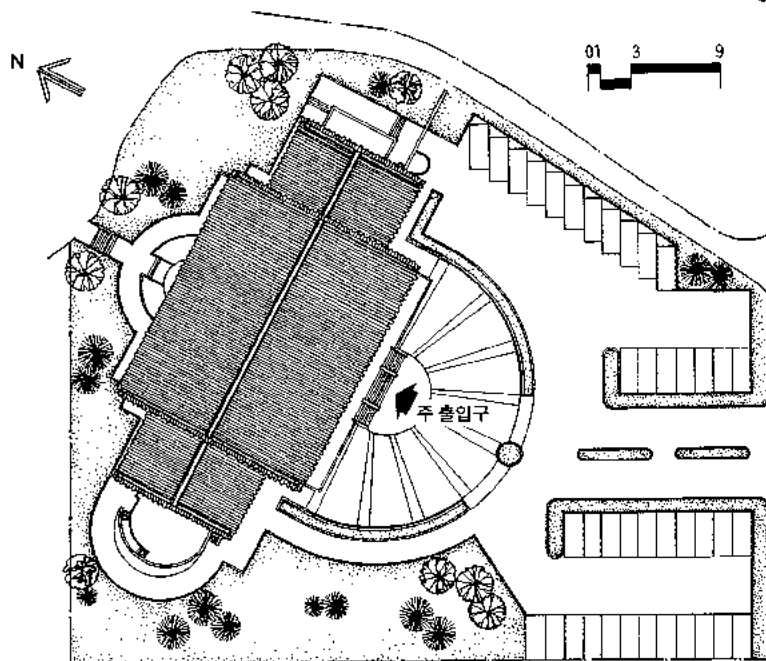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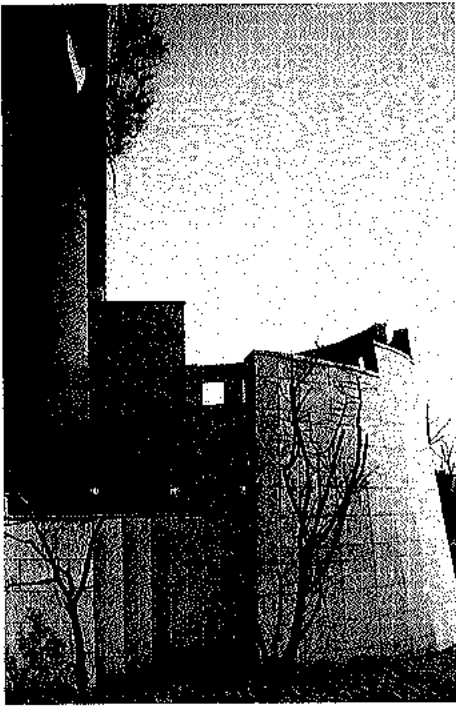
외부미감/지붕-한식기와 잇기

벽-회강석 버너구이, 붉은벽돌 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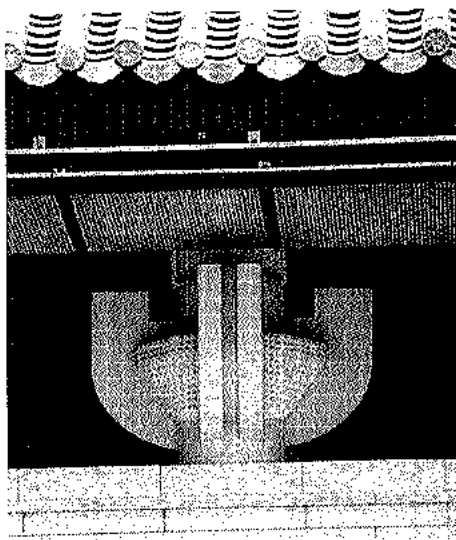
金基雄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Designed by Kim Ki-W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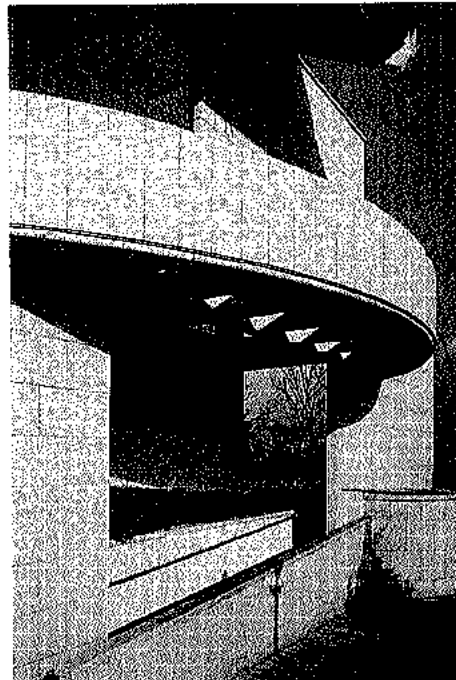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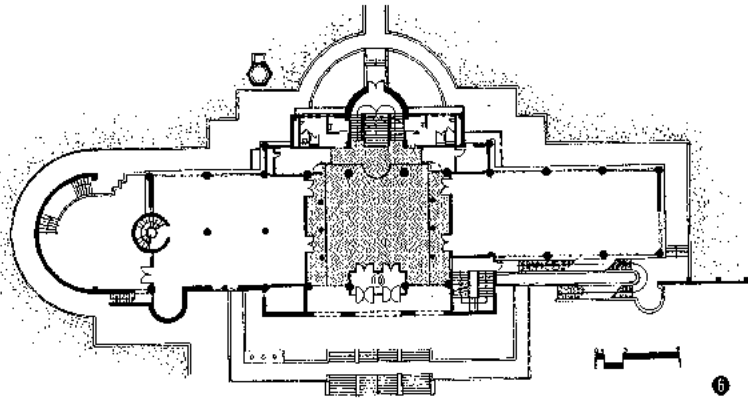
3



4



5



6

- ① 정면 전경
- ② 배치도
- ③ 외벽상세

- ④ 공포상세
- ⑤ 부출입축상세
- ⑥ 1층평면도

- ⑦ 전경



7

■ 설계소요

이 건물의 주요한 표현요소는 벽이다. 벽체는 경부고속도로를 상행하는 차량에 대응하며, 정남향으로 앉혀져있다. 상당한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차에서 이 건물을 느끼려면, 이 건물을 기다랗고 넓은 벽면으로 조형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또 이 벽은 높은 소음으로부터 건물을 차단해주고, 전시장을 직시광선으로부터 보호한다.

좌측의 둥근옹벽은 차를 탄 사람의 시선이 이동할 때 시선이 끝나는 것을 막아주나, 내부의 옥외 전시장을 한정해 주기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이 벽체에 구멍을 뚫어, 주대문을 만들고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구를 만들고, 최소한 창도 만들었다.

이 벽체를 뒷쪽 본체 부분과 연결시켜주는 것은 3쪽의 기와지붕이며, 이 벽체뒤에는 벽돌벽과 가구식 기둥으로 조합된 본체부분의 알몸이 숨겨져 있다.

제주 파라다이스 서귀포 호텔

Cheju Paradise Sogwipo Hotel



'91 韓國建築展

優 秀 賞

대지위치/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511

지역/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40,700㎡

건축면적/4,052㎡

연면적/10,826㎡

건폐율/9.9%

용적율/20.8%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객실규모/62실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회색바르기 및 상주석 붙이기, 토수형 이태리언기와

※자세한 내용은 본誌 9007호 參照



金 浩/(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o

봉명동 성당

Bongmyung-dong Chthedral

曹龜鉉 / 신세대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 Koo-Hyun

'91 韓國建築展

優 秀 賞

대지위치 / 충북 청주시 봉명동

대지면적 / 2,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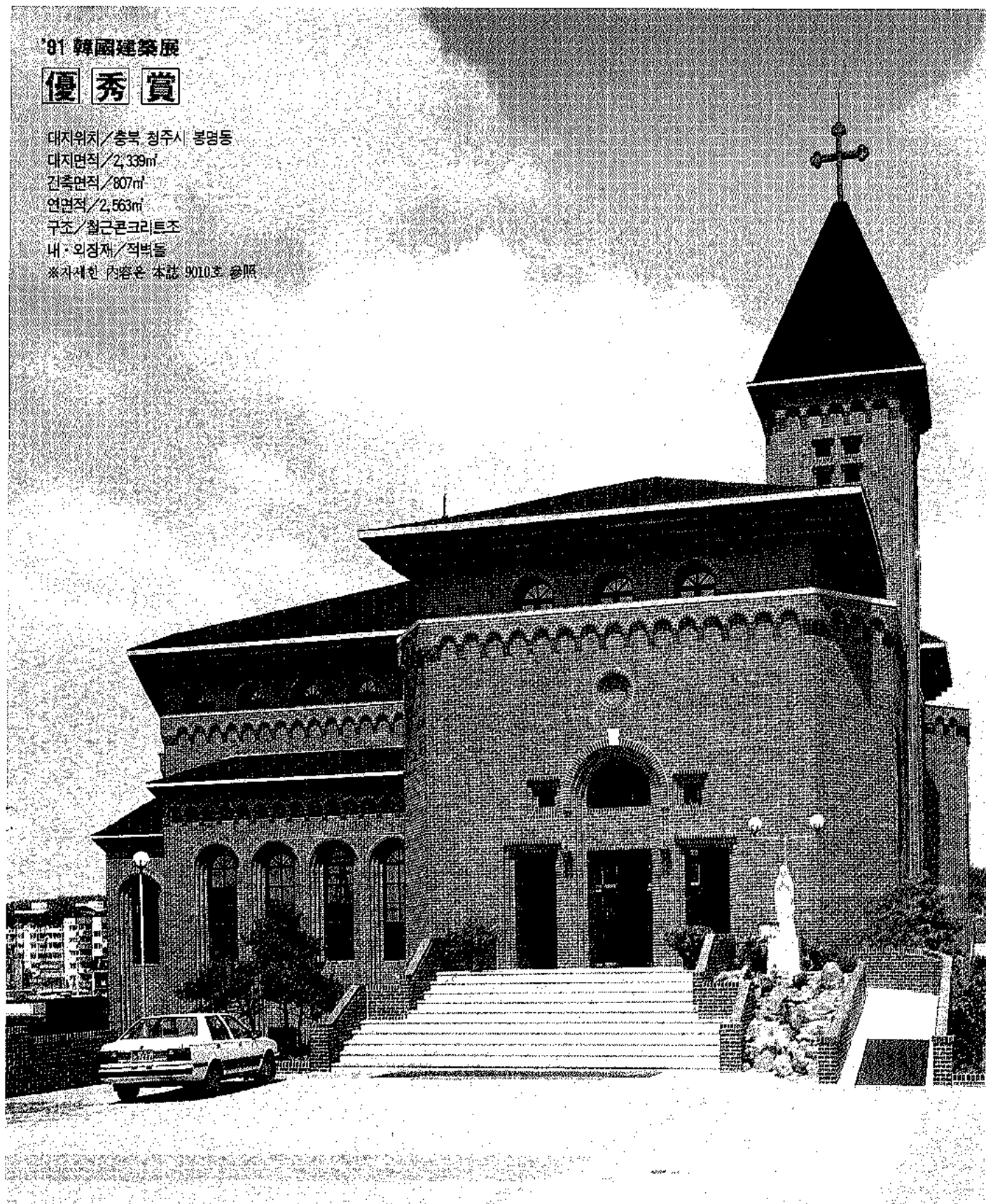
건축면적 / 807㎡

연면적 / 2,563㎡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내·외장재 / 적벽돌

※ 자세한 내용은 본誌 9010호 參照



목동 주경기장 및 야구장

Mok-dong Main Stadium & Diamond



'91 韓國建築展

準優秀賞

대지위치/서울시 양천구 목동 914

대지면적/157,600㎡

연면적/65,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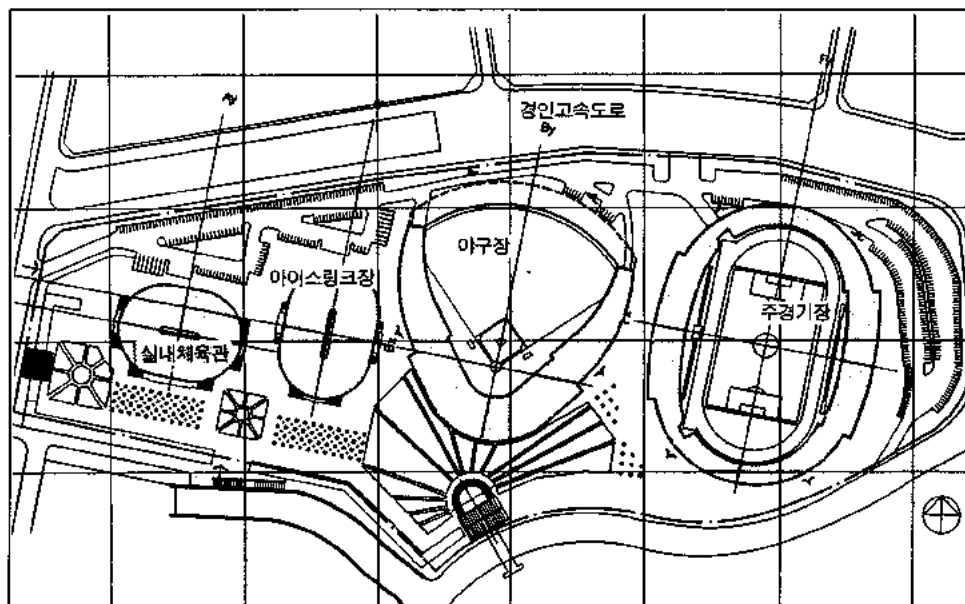
건폐율/20.16%

용적율/38.67%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철골트러스

주요마감재/몰탈위 수성페인트,
PC판무늬마감)위 수성페인트

※자세한 내용은 본誌 9008호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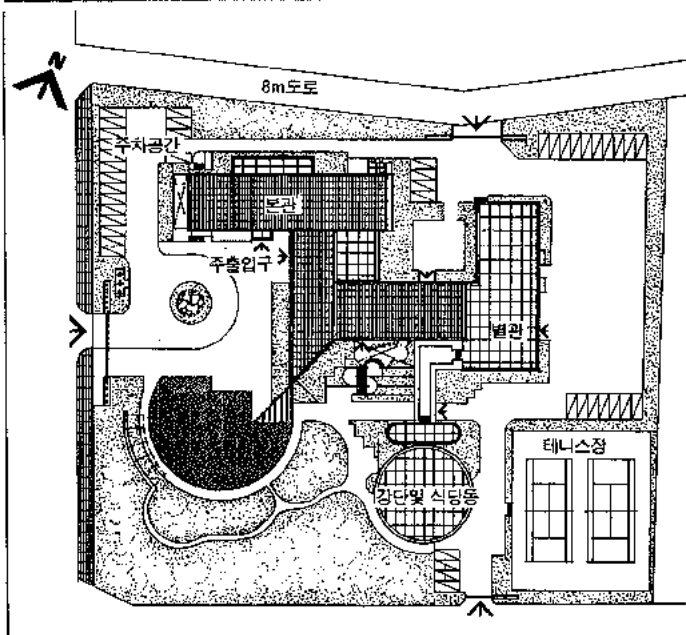
金宇成

(주)아키프랜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Woo-Sung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

KEPCO Chonnam District



대지위치/광주시 북구 오치동 65

지역·지구/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15,572.4㎡

건축면적/2,777.54㎡

연면적/9,665.23㎡

건폐율/17.83%

용적률/7.91%

규모/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화강석 판재, 18mm 반사 복층유리

※자세한 내용은 본誌 9009호 参照

'91 韓國建築展

準優秀賞

李珏杓/엠펜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Kak-Pyo

홍은동 H씨댁

H's Residence
at Hongeun-dong

'91 韓國建築展

準優秀賞

대지위치/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대지면적/210㎡

건축면적/103㎡

연면적/278㎡

구조/철근콘크리트

규모/지하 2층, 지상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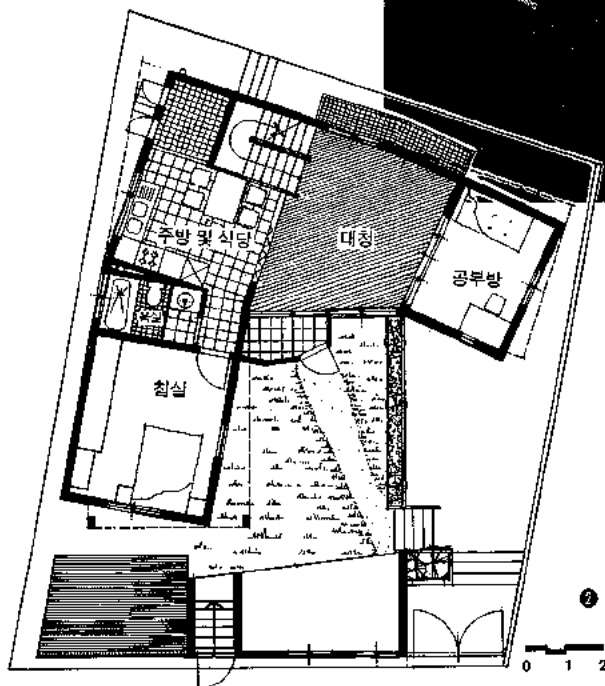
崔勝元

양가주망 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oi, Seong-W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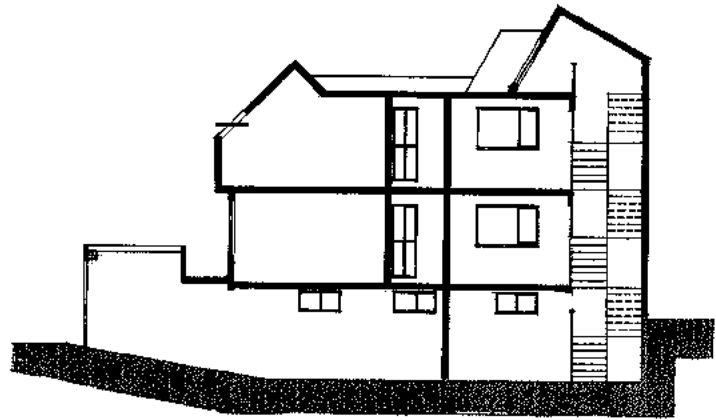
2



3



4



5



6

- ① 전경
- ② 배치 및 1층평면도
- ③ 동측 입면도
- ④ 외벽상세
- ⑤ 단면도
- ⑥ 2층 내부 전경
- ⑦ 배면측 전경



7

■ 설계소요

나는 H선배님 부부(집주인)가 나의 사무실을 처음 찾아 왔을 때 두분이 모습이 참 정다워 보이는 반면 매우 건강하고 맑은 표정이었음을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첫 인상의 잔상이 지워지기 전인 어느날 H선배는 당신이 옛날에 살던 홍은동의 헌집을 나에게 보여주며 새집을 지어달라고 주문하였다.

H선배의 본가는 속초 북쪽에 있고 홍은동 주택은 곧 결혼할 장남과 생활하게 될 보금자리이다. H선배는 동양화 후원을 멤버로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딸이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기에 건축후의 평가가 시작부터 다소는 부담이었다.

그러나 전적으로 나의 의견에 동조를 하였으므로 나는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전통민가의 배치법에 따라 안뜰이 있는 ㄷ자형 주택을

기본으로 건축계획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주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홍은동 주택설계는 인력이 부족한 시내에 접하면서 주로 목수하고만 건축할 수 있는 집을 생각한 것이었는데 목공의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 시공감독은 매우 어려운 고충을 겪으면서 완공을 보게 되었다.

회고해 보면 그간 발표된 작업중에서 좀 나아 보이는 건축은 설계예산이 적지만 나 자신이 성의를 가지고 현장을 출입한 시간이 많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성의가 존재한다면 그 건축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한다.

강릉 K씨 주택

K's Residence at Kangneung



'91 韓國建築展

準優秀賞

대지위치/강원도 강릉시 지번동 343

지역·지구/주거지역

대지면적/168.03㎡

건축면적/14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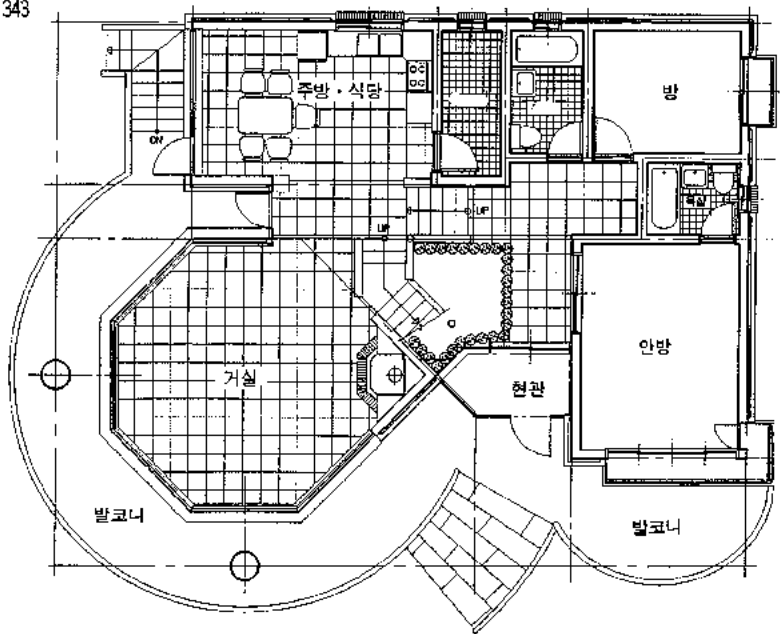
연면적/180.24㎡

1층-122.52㎡

2층-38.28㎡

지층-19.44㎡

- ① 전경
- ② 1층평면도
- ③ 1층거실
- ④ 발코니측 전경
- ⑤ 발코니 상세



安文孝/세안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Moon-H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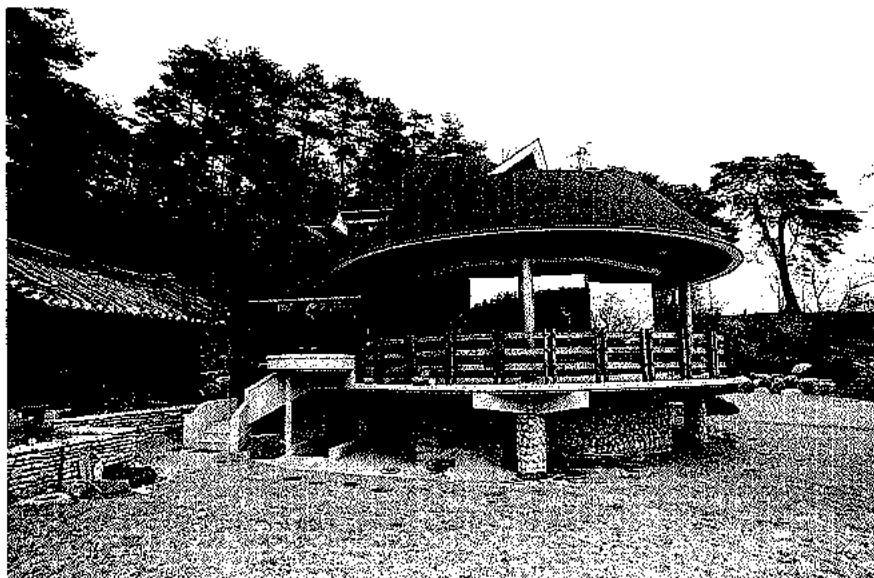


■ 설계소묘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강릉 오죽헌 근처에 몇대를 거쳐 내려온 김씨가문의 전통가옥을 철거하고 현대식주택 설계요구를 여러차례 사양하였다. 비교적 잘 보존된 한옥이라 그것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행위는 마치 오랜 세월을 그 자리에서 지탱해온 보기좋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별 신통치 않은 어린 잡목을 심는 듯한 일종의 죄의식 같은 가책이었다. 나름대로의 전통성을 부여한 현대적 감각의 주택처리 시도만이 이러한 죄의식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을 것 같은 자기위안을 부추기며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 단순한 지붕처마선 기단형식 또는 특정부분의 문양등과 같은 극히 외양적인 요소의 인용을 지양하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전통가옥의 공간성을 지향하는 것만이 전통성 접근에 대한 작은 시도라 생각되었다.

점점의 구체지며 형성되는 공간들, 그 공간들과 또 다른 공간사이를 암시적으로 연결하는 방향성의 계단들, 이러한 반복의 총체를 전통공간의 특성의 한 단면으로 보고, 그것을 압축하여 작은 주택에 도입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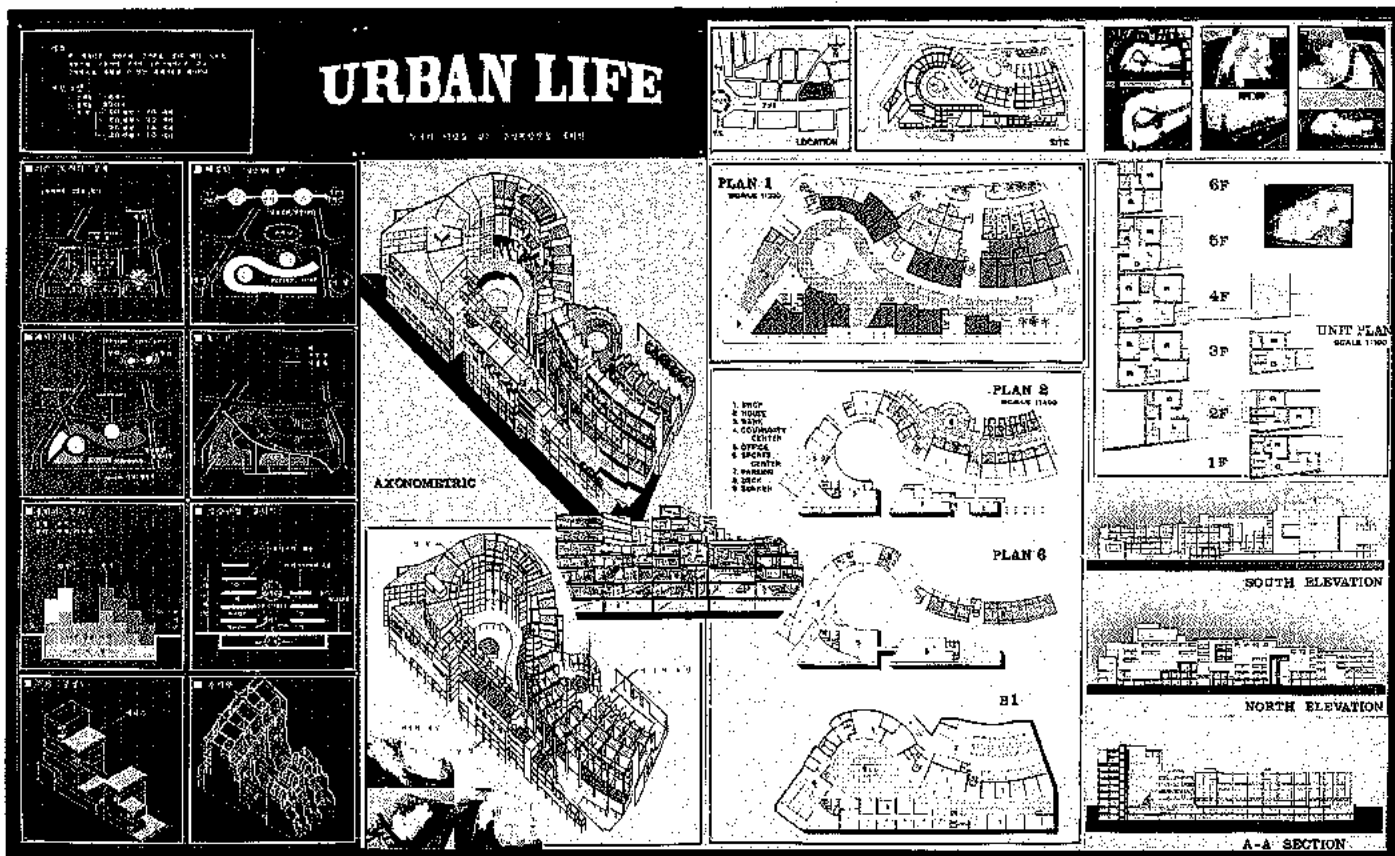
실내 연못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계단의 레벨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서 공간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면서 무한히 방향을 제시하는 톱라이트를 그 위에 두었다. 동시에 균제된 형태처리를 (정원형, 정사각형, 사각형) 통해 전통건축이 갖고 있는 결코 해부지 않은 조형처리와 절제속에 다듬어진 청아한 기품을 이 작은 주택속에 끌어 넣으려 애를 썼다.



最優秀賞

Urban Life

이상훈 / 서울대학원 건축전공
정성문 / 서울대학원 건축전공
윤정현 / 서울대학원 건축전공



■ 계획개념

도시 주거 지역내 상업 건물이 무계획적으로 잠식함에 따라 소음, Privacy, 교통량 증가와 Open Space 감소로 인해 적절한 완충적 중간영역이 필요하며, 밤시간대 상가 空洞현상을 막기위해 직주(職住)근접의 개념을 도입, 주거, 업무, 근린 상업시설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완충적인 외부공간을 갖는 복합단지를 계획하였다.

본 계획안은 상업 Zone과 주거 Zone을 분리 배치시키되, 곡선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공동 Community가 생길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핵)를 계획하고, 하나의 Archetype으로서 住商複合建物を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직적으로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은 한 건물내에서 융합되고, 수평적으로 각각 대로변 및 기존 주거단지의 콘텍스트와 어울리도록 분리 배치하였으며 하나의 단위 유니트로 테라스하우스의 형태를 도입하여 상부는 주거로, 하부의 도로변에는 상업시설을 갖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受賞所感

도시에 어린이 내리면 설 곳이 없는 異邦人처럼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고 벅찬 피곤함이 엄습해옵니다.

동네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하고 나는 그저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빠져듭니다.

지난 겨울 춥고 썰렁한 연구실 한쪽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 住商複合建物を 논의했던 많은 갈등의 시간들..., 술하게 휴지통에 버린 도면과 모델들..., 그리고 주체와 시간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고만 싶었던 나날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포기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 같았고, 우리를 도와 주신 많은 분들의 격려와 힘때문에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밤들을 하얗게 새우고 추위에도 기쁜 마음으로 힘을 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축은 공동의 작업이 될 때 객관적인 가치를 갖고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오늘의 입상결과는 오로지 그분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제안을 받아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작품을 감히 내보이는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상훈



정성문



윤정현

優秀賞

Urban Identity

김상언/고려대학교원
안준석/우노건축
백기동/정림건축

■ 계획개념

기본 Condition으로 주어진 대지나 주거, 업무, 상업
을 위한 Complex는 현 시대의 기능적 요구를 강하게
시사하는 Thema 이다.

본 프로젝트는 도시내의 Social Identity를 Plot으로
설정하여 Boundary의 확장과 Context의 유지를 위한
분절 Articulation로 Process를 전개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택되어지는 Complex는 거대한 단일
Mass로 이루어져 기능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나 자
폐적 오류를 범할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그러나 “기
능”이라는 단어가 즉물적 사고에 의한 것 이상의 의미
를 지닌다면 그것은 심도있는 인간형태의 검증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중심축으로 사용된 시장의 배치는 대지 내의 가능한
가장 긴 동선체계를 이루며 주변의 주거권을 자연스럽
게 유입하여 대로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유치원과 광장, 그리고 문화적 이용시설들의 배치도
Privacy와 융화 사이의 외줄타기를 용이하게 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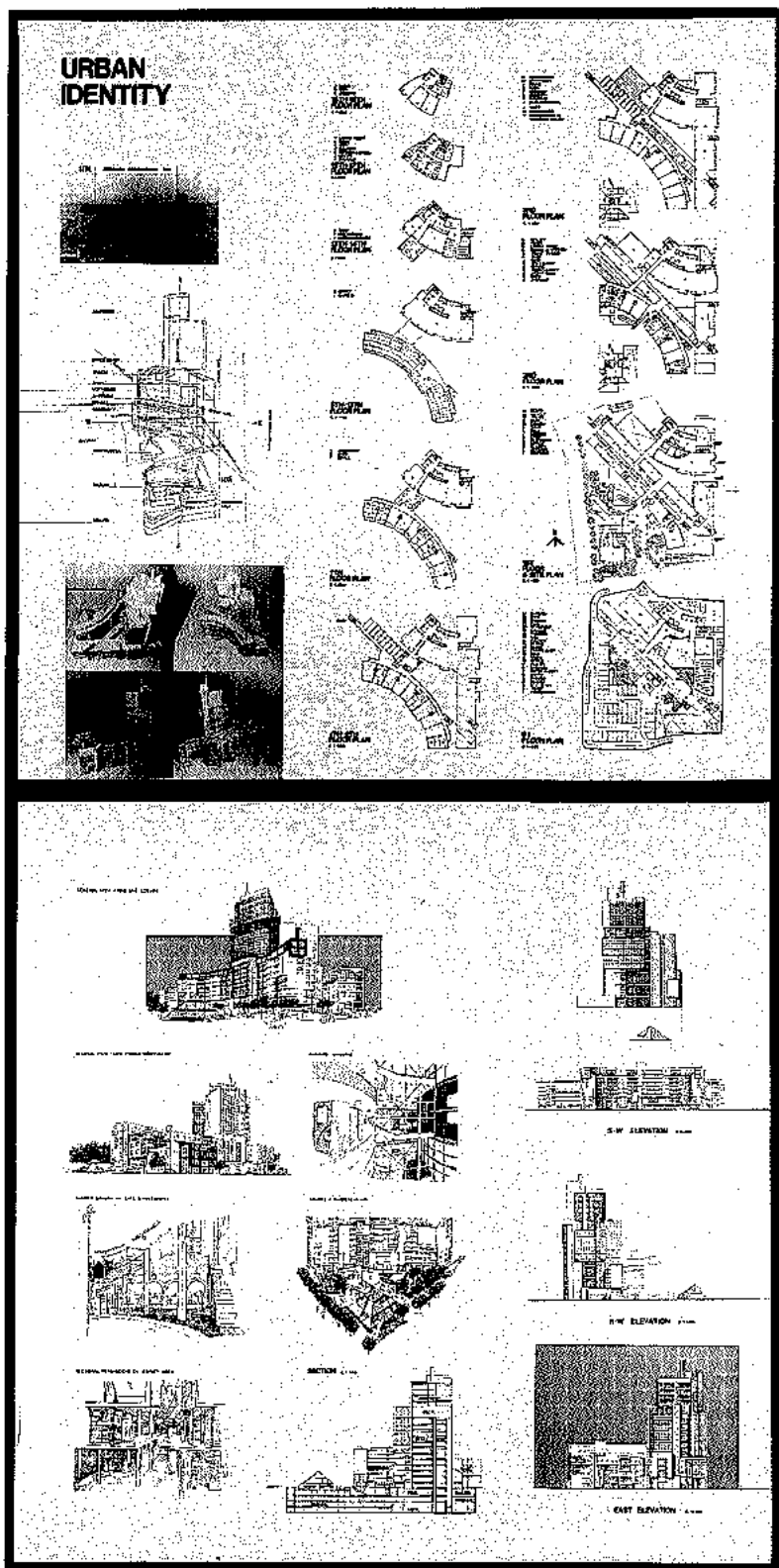
전체적 Mass의 구성은 주변의 건축적 상황에 7층이
하의 작은 Box형 Mass로 이루어진 Context가 존재함
에 따라 주된 Mass는 살리면서 전면을 개적 Identity를
지닌 Screen으로 분절하였다.



김상언

안준석

백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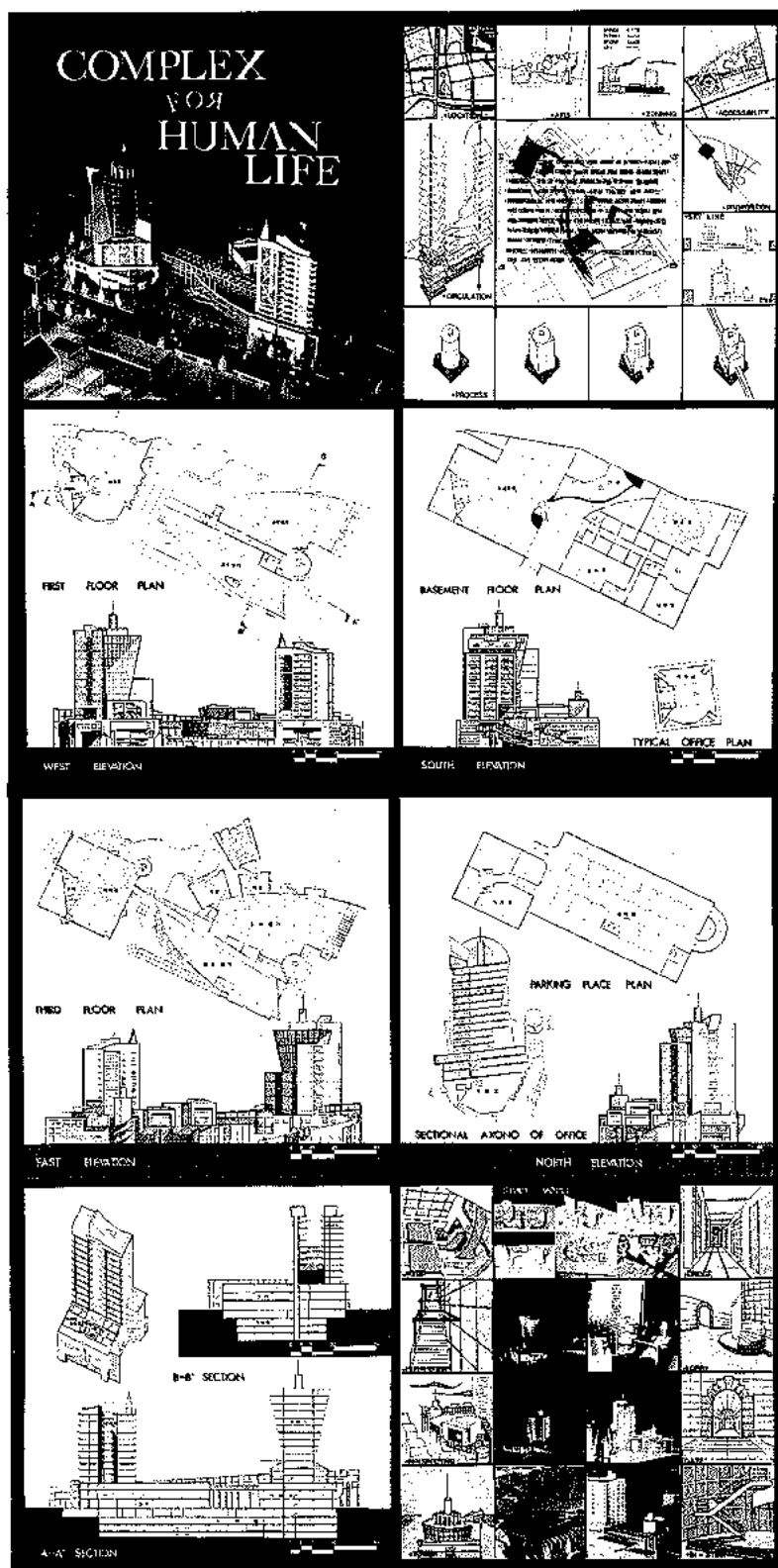
獎 勵 賞

Complex for Human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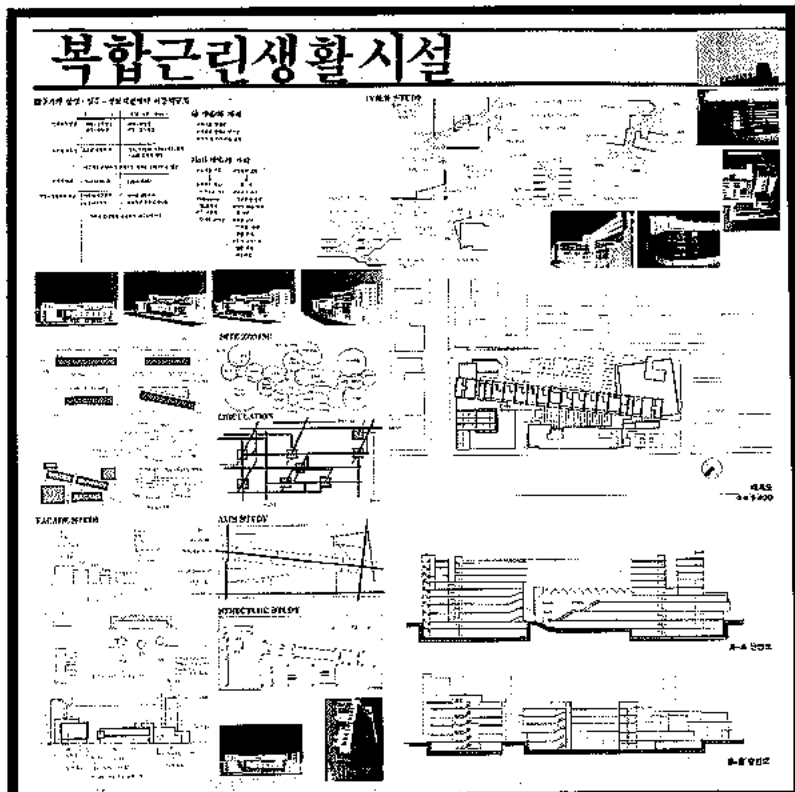
주현준/두우건축
고용현/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주

■ 계획개념

현대 사회의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지역의 재조직화가 시급히 요구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다양한 기능과 용도를 지닌 공간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곧 지방 또한 변화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으며 시대적 맥락에 맞추어 새로운 기능공간 창출이라는 당위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단순히 다양한 공간과 기능의 나열만이 복합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유동하는 공간 예시와 다양한 지역 문화, 사무, 주거, 상업을 포괄하면서도 혼돈스럽지 않을 때 제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자칫하면 삭막해지기 쉬운 도심속에서 절제되고 풍족한 기능을 지닌 도시공간의 제시일 것이다.



獎 勵 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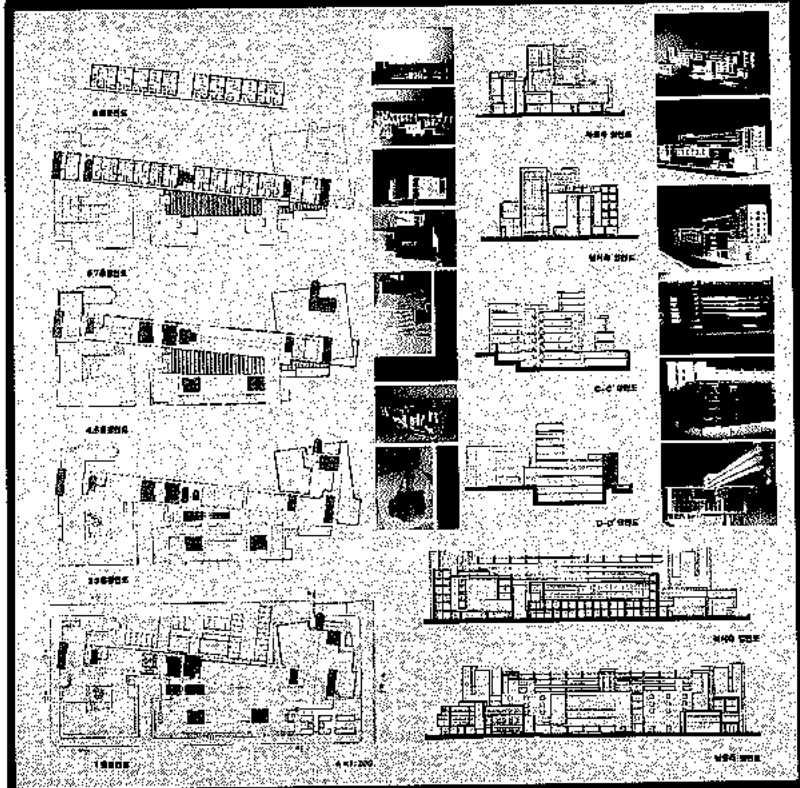


복합근린생활시설

김태우/홍익대학교원 건축전공
엄형석/홍익대학교원 건축전공

■ 계획개념

도시화과정에서 나타난 도시적 기능과 도시건축적 대응간의 괴리를 다양한 기능의 유기적인 배치를 통하여 효율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복합근린시설의 당위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크게 주거와 상업·업무로 구분되는 두가지 도시적 기능은 상대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상보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도시설계적인 측면에서 전개함에 있어서 본 계획안은 역동적인 세 질서의 도입과 다원적인 공간형태의 구성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유기적으로 수용하며 시각적인 투명성을 강조하여 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적 스케일에서 주거의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스케일감의 변화로 인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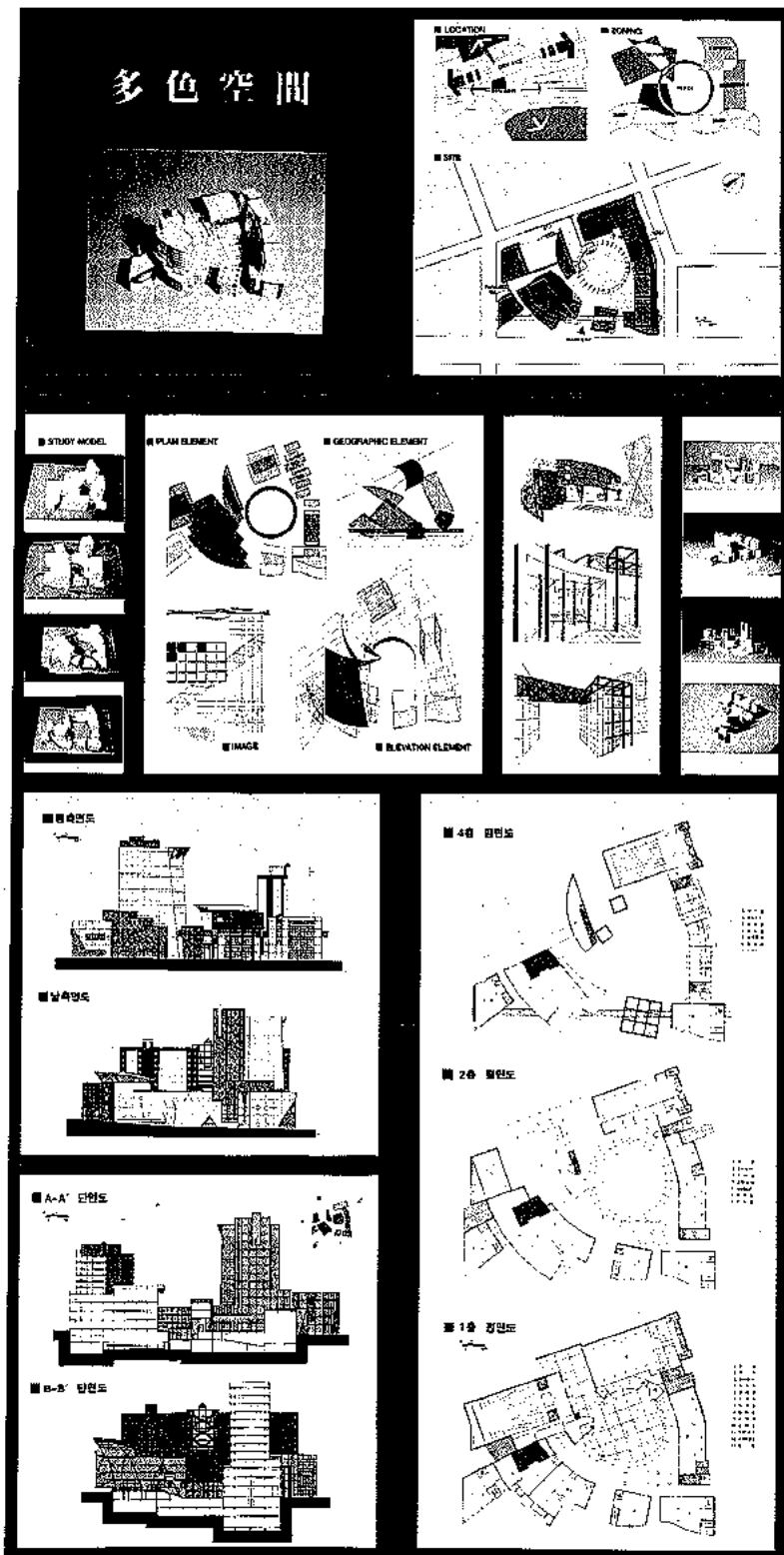
獎勵賞

多色空間

김용휘/전인건축(부산)
김화봉/동서건축(부산)
안창훈/부산대환경대학원 건축전공

■개회개념

- 기존의 주거환경을 흐트리지 않으면서도 신 수요의 상업·문화시설들을 수용한다.
- 도시 Context에 맞는 배스 설정
 - 적극적인 Open Space의 확보
 - 상업 공간을 수평적으로 분배하여 기존의 상업 Line에 변화시킨다.
 - Open Space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분배하고 이들의 완충역할을 하게 한다.
 - 각각의 기능들은 작은 점정을 갖게 하여 개별성 및 기능성을 높여준다.
 - 배치형태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환상형으로 전개
 - 평면형태의 요소는 각 기능의 특성에 맞는 기하학적 패턴에서 유도 → 각각의 독자성 부여
 - 입면 형태는 울동감 있는 곡면을 적극적으로 사용 → 상호화합의 의미부여



最優秀賞

Art Plaza

황길순/경원대학교 건축학과
김윤정/경원대학교 건축학과

■ 계획개념

25m도로의 주출입부외에 상징적 의미의 Bridge를 Sunken Garden에 둠으로써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옥상정원외에 아트리체를 둠으로써 학생Club으로서의 기능도 수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Mass를 10층 높이로 올림으로써 상징Tower의 의미부여와 Land Mark로써 적극적인 Sky Line을 유도하였다.

한 건물내에서 이용자들의 다변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써 여러가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하였다.



황길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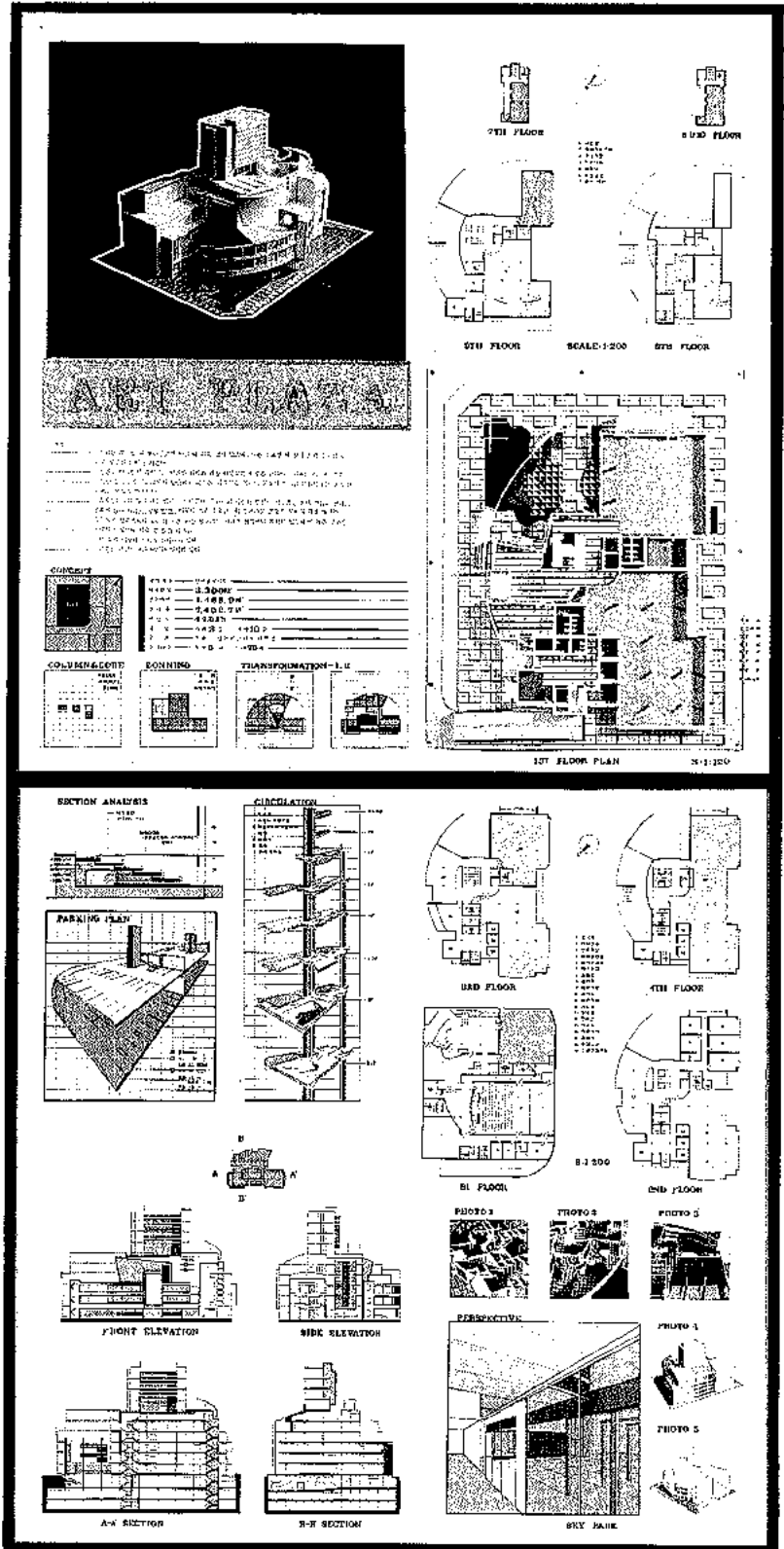


김윤정

受賞所感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듯이 힘들고 피로웠던 일들이 어느덧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있다. 특별하지도 않고 늘상 대할 수 있는 친근함마저 드는 Site를 대하면서 특이하고 애매한 개념유추를 통한 해결방안보다는 보편적 사고방식을 통한 나름대로의 문화 시설을 계획해 보기로 하였다. 25m도로의 기능적인 주진입공간 인간적 스케일의 12m도로에는 의미적 부진입으로서의 여윌공간 소극장, 갤러리, 자료실, 아트리체등 목적공간의 기본적 공간을 세부분으로 형성하고 상호유기적 관계-보색을 통한 예술축제광장으로서의 이미지연출에 노력하였다.

이번 작품전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은 물론이고 후배들에게도 조그마한 자극제가 되기를 바라며 보잘것 없는 작품을 뽑아주신 심사위원 및 보살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優秀賞

飛翔

김구훈/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고철웅/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김소희/중앙대학교 건축학과

■ 계획개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성, 장소성, 역사성 등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시된 대지에 있어서 주변환경——고등학교, 쇼핑센터, 근린생활시설——과의 자연스러운 조화와 연계성, 계획된 건물이 반드시 그곳에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고려는 청소년 문화공간의 계획에 이르게 하였다.

지역 주민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최근 커나란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양질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주체적이며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청소년을 육성하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 전체문화의 발전과 활성을 유도하고자 본 계획안을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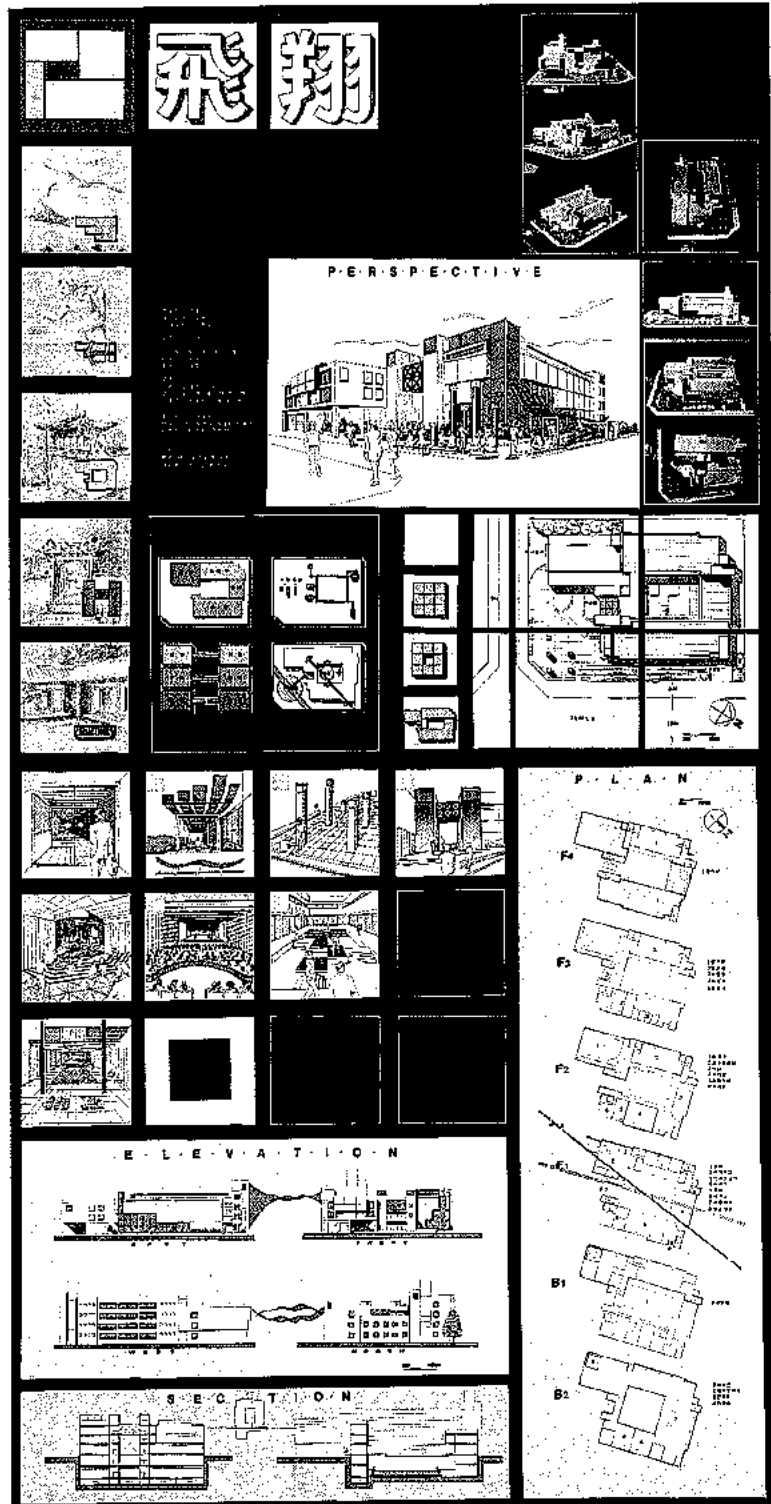
김구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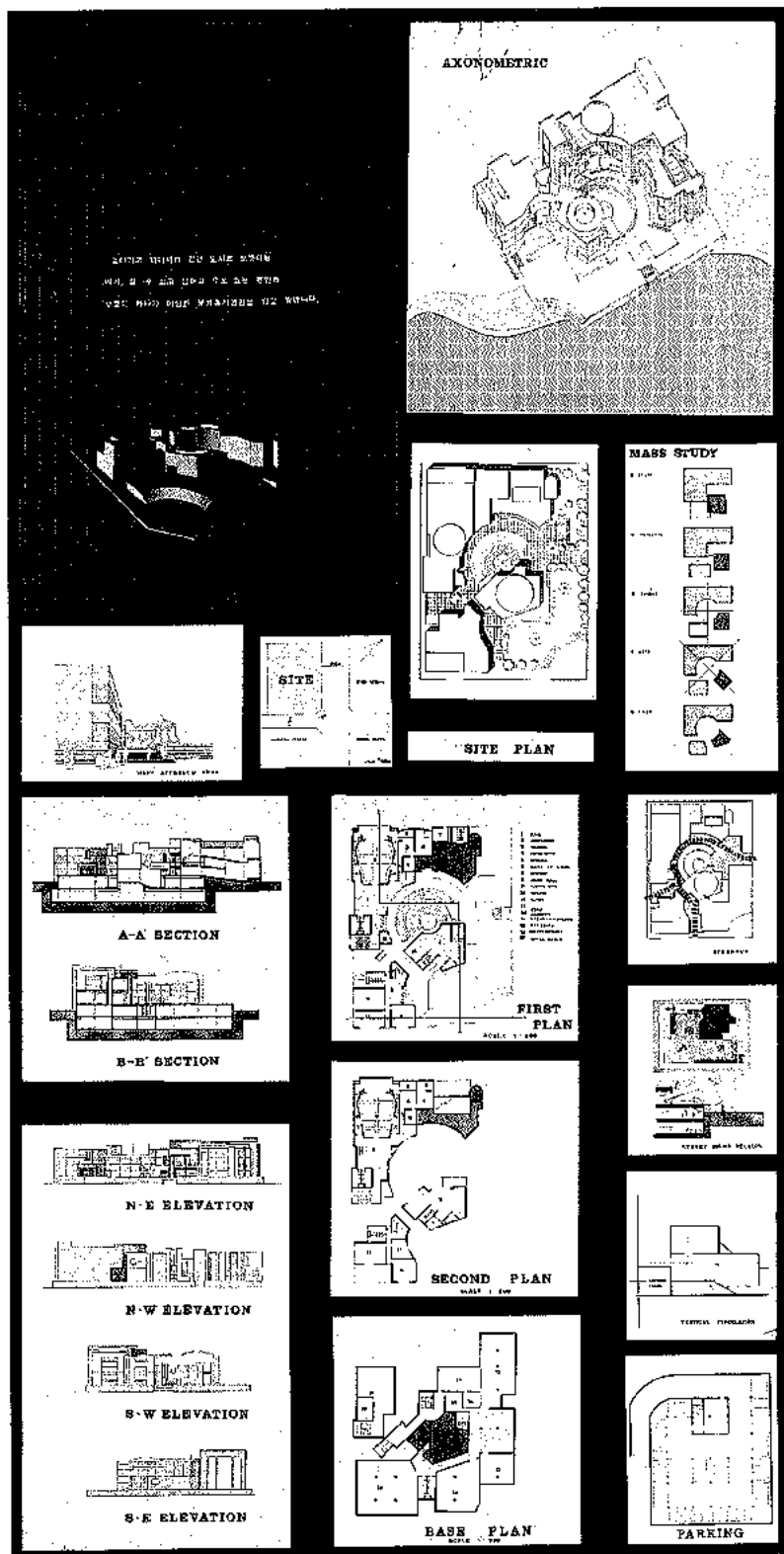
고철웅



김소희



優秀賞



A Different Corner

최광덕/한양대학교 건축학과
박범수/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서용준/한양대학교 건축학과

■ 계획개념

계속되는 건물군, 끊임없는 Block, 각 Block마다의 모퉁이 모퉁이를.....

보다 적극적인 도시에서의 Object로서 문화·휴식공간을 만들어보기 위한 사색들이 A Different Corner 계획안을 낳았다.

지나치고 돌아가기만 했던 사거리의 모퉁이. 그러한 막힌 모퉁이이기보다는 곧장 넘어갈 수도 있고 쉬어갈 수도 있는 편안한 모퉁이를 주어 보다 적극적인 유입동선을 확보하려 하였다.

작은 대지이지만 Compact한 건물들로 Mass를 분절시켜 소박하고 오밀조밀한 느낌으로 친근감을 느끼게 하려 하였다.



최광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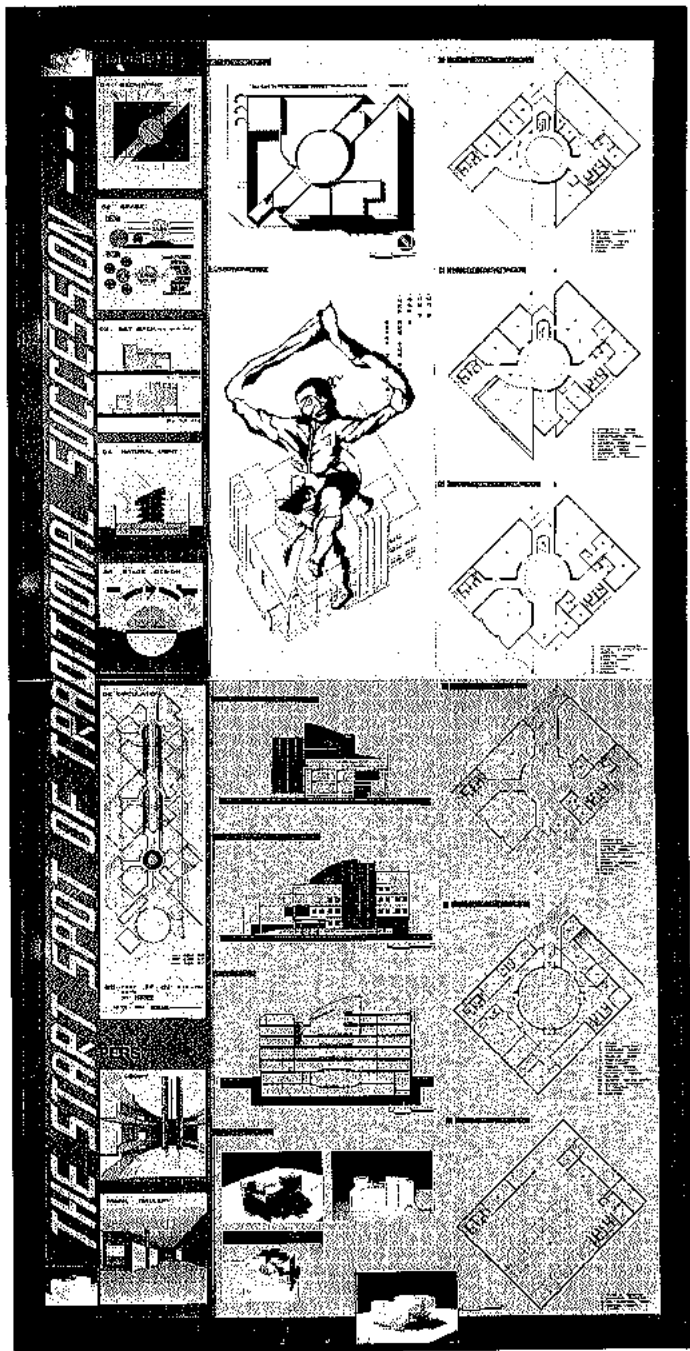


박범수



서용준

獎 勵 賞



The Start Step of Traditional Succession

변문수/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창호/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정승태/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계획개념

사회 전반에 걸쳐 전통문화 소멸 행위들이 비일비재 하고 있는 현실에서 건축이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간” 주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계획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통 문화중 가장 대중적이었으면서 또 서민들의 애환이 가득 담긴 탈춤, 가무극 등을 위한 것이다.

탈춤이나 가무극등의 공연, 또 여러 분야의 민속 자료 전시를 주된 용도로 하지만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지역 주민들의 공공 공간이 될수 있는 사회성, 그리고 교실 안의 암기적인 공부뿐만 고교생들에게 생생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고 느끼고 동화되면서 치열한 경쟁속에 어느덧 이기화 되어 있는 마음에 우리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등을 고려하였다.

도시감각

이희정/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장현순/아주대학교 건축학과

■ 계획개념

본 계획대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주위에 고등학교, 쇼펍센터, 근린 생활 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도로의 규모로 보아 변화가라 하기는 어려우나 대지 주변의 상황으로 미루어 어떤 한 지역의 중심지라고 생각되며, 근거리에 주거지역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업무·여가 시설 계획안을 제시하며, 적정규모의 이 시설이 주어진 가상지역을 형성하고, 새로운 형태의 생산적인 행위들을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 우리 일상행위가 일어나는 이곳은 또한 도회지적 표정을 하고 있으며, 도시 특유의 감각이 존재한다.

Union Comp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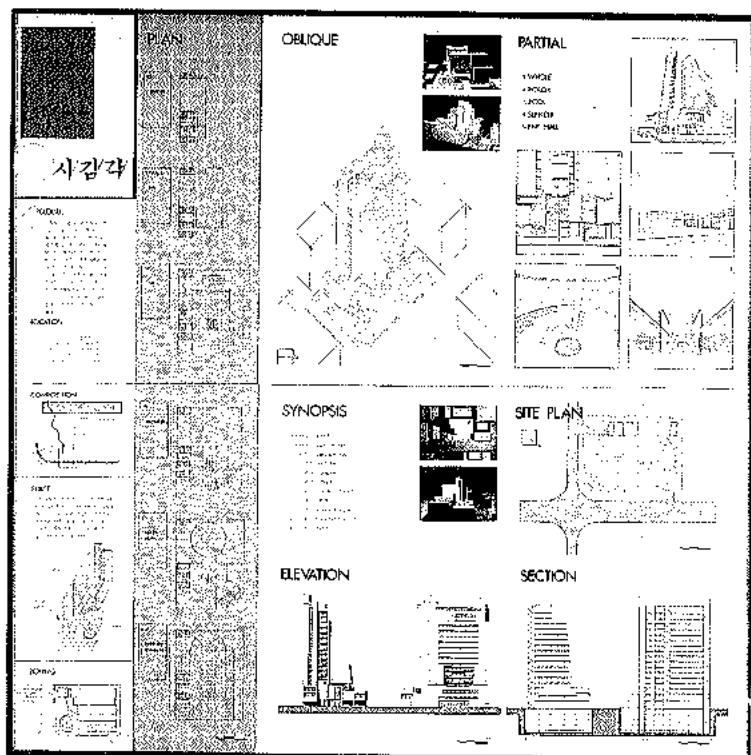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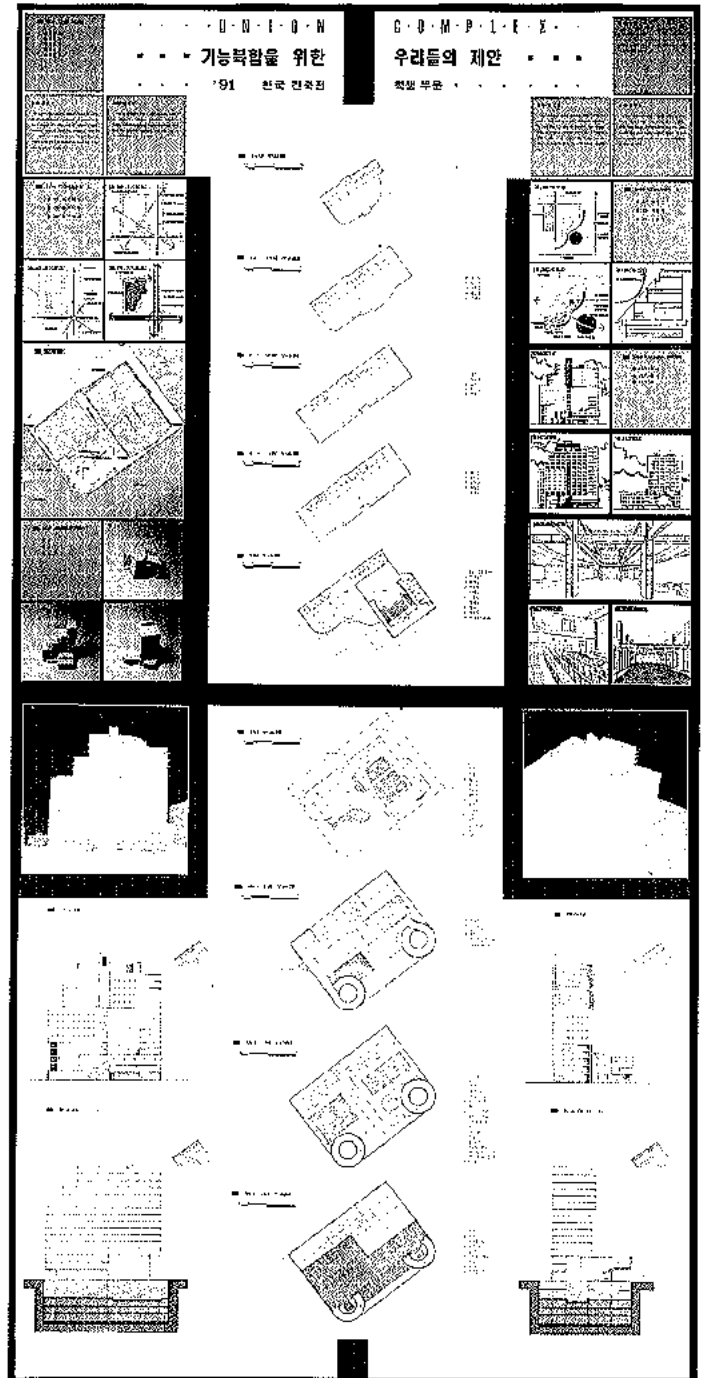
강욱현/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김오진/국민대학교 건축학과
조권제/국민대학교 건축학과

■ 계획개념

産業社會의 발달로 인한 부가가치의 증가는 점차 사회전반의 시설들을 高級化 일변도로 치닫게 하여 시설 사용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使用範圍을 한정함과 동시에 그 계급적 성격을 묵계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文化의 창달이라 함은 양질의 가치를 지니는 소수의 의식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모든 의식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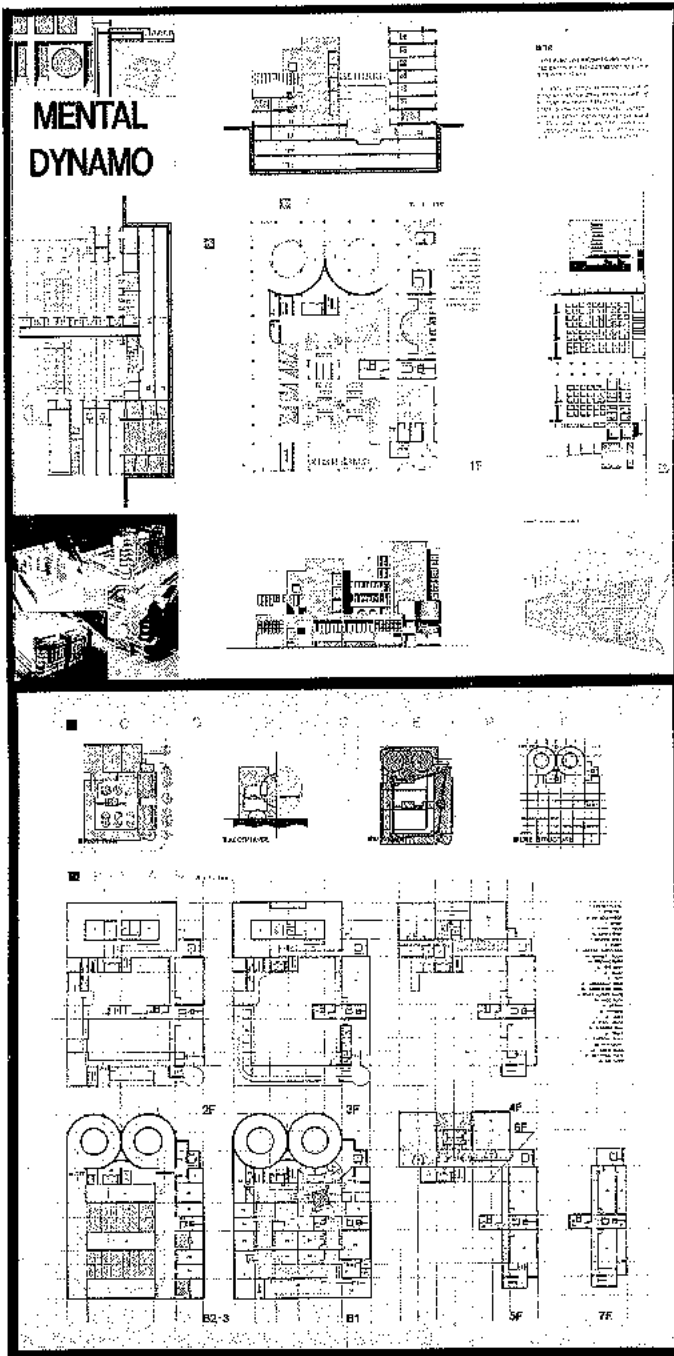
本計劃은 상층부에 임대사무실과 저층부분에 대중문화, 대중체육 및 상업시설을 유치함으로써 활발한 행위를 유도하며, 외래인들과 사무실 입주자들과의 시간대별 겹으로 인한 건물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함으로 같은 용적의 타건물보다 활용도를 높이고, 대중문화 공간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일반인의 건물로의 吸入力을 향상시켜 보다 생동하는 空間形成을 유도하고자 한다.



獎 勵 賞

Mental Dynamo

엄성철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김민진
덕성여자대학
산업미술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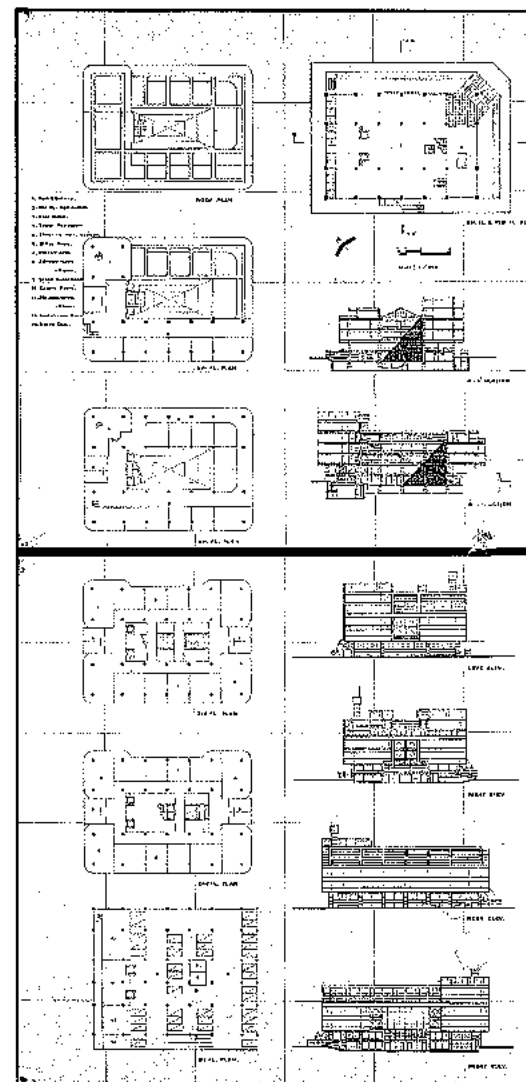
■ 계획개념

본 프로젝트는 교육시설 측면에서의 주된 기능과 그와 관련된 레크레이션 활동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이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부차적 시설들이 한곳에 어우러진 복합적 문화공간이다.

저층부에서는 도심내 오픈 스페이스로서 시설수용인 외에 보행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다양한 이용대상의 세대에 따른 각층별의 기능 설정과 시설내 기능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구성원의 상대적이고 다양한 이루어짐은 공동문화의 관심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신적 자각이며 올바른 방향성의 표출구이다.

Gazebo

김형일/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이승원/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이희준/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Mall and Performance

이동우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김종찬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김창호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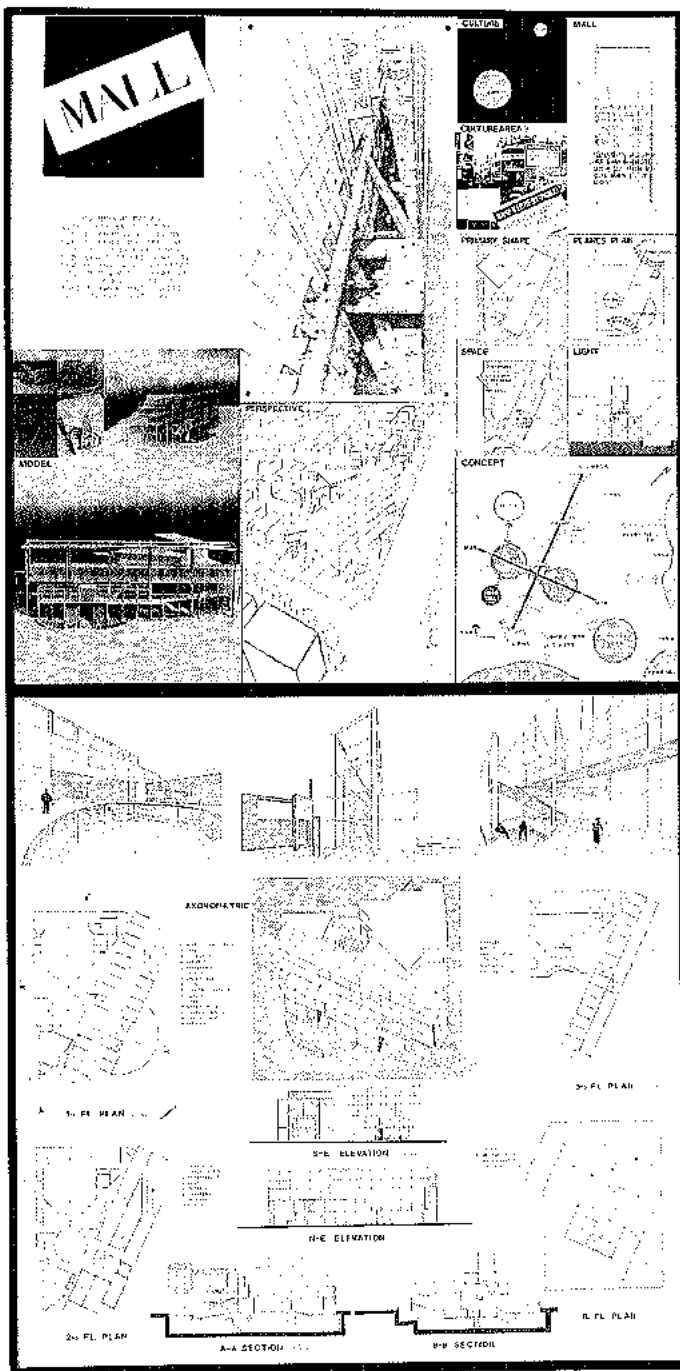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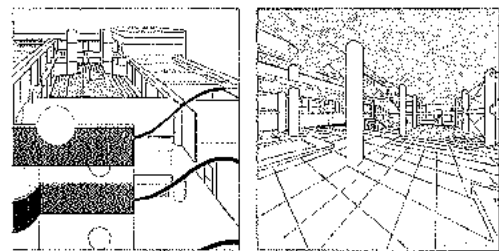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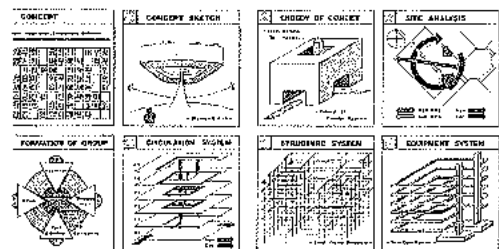
우리는 이 대지에서 일어나게 될 모든 행위가 과연 친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나에서부터 근을 하였다. 그리하여 群의 形成(Formation of group)이라는 측면에서 학원가·상권·생활권이라는 두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을 담아야겠다고 의을 좁혔다.

결과적이지만 이 공간에서는 내부와 외부로 단절시키 기존 건물의 의미를 뒤로 돌리고서 2·3층 그리고 4까지 상승되며, 동시에 외부공간을 연장시키는 커다 계단으로 하여금 중정의 효과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GAZEBO ;

(exhibition 1) (P. 104)

A Tower, Viewpoint, Skyline, or something better than what you see at the surrounding scenery.



■ 계획개념

본 계획은 주어진 대지조건의 현황을 1차적으로 고려하였다. 고등학교·쇼핑센터·근린생활시설등 부심지역의 주변상황도 규정하였다.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고급공연무대와 접하기 힘든 전시기능을 Mall이라는 건축어휘를 통하여 친근한 무대로서 도시민의 '길의 문화'라는 측면에서 계획하였다.

'활기 있는 길'의 회복을 위한 기본과제로 주변지역의 활동을 계획조건으로 수용하여 도시 문화공간으로의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Pedestrian Mall)의 개념을 건축물내 문화공간과 융합·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獎 勵 賞

Prism (청소년을 위한 공간)

이옥화/인천대학교 건축학과
임희숙/인천대학교 건축학과
박상희/인천대학교 건축학과

■ 계획개념

다채로운 빛깔을 발산하는 프리즘은 바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계획안은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과 발산력을 펼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과 기존의 객체적인 입장에서 공간활용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공간활용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도심에 연결되는 문화·스포츠·상업시설의 적절한 공간 배려로서 모든 공간을 갖춘 복합적인 공간을 형성하였다.

전체적으로 활기있는 공간이 되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신선하고 유익한 공간을 창출하려 노력하였다.

共鳴

박선욱/건국대학교 건축학과
박세환/건국대학교 건축학과
정현정/건국대학교 건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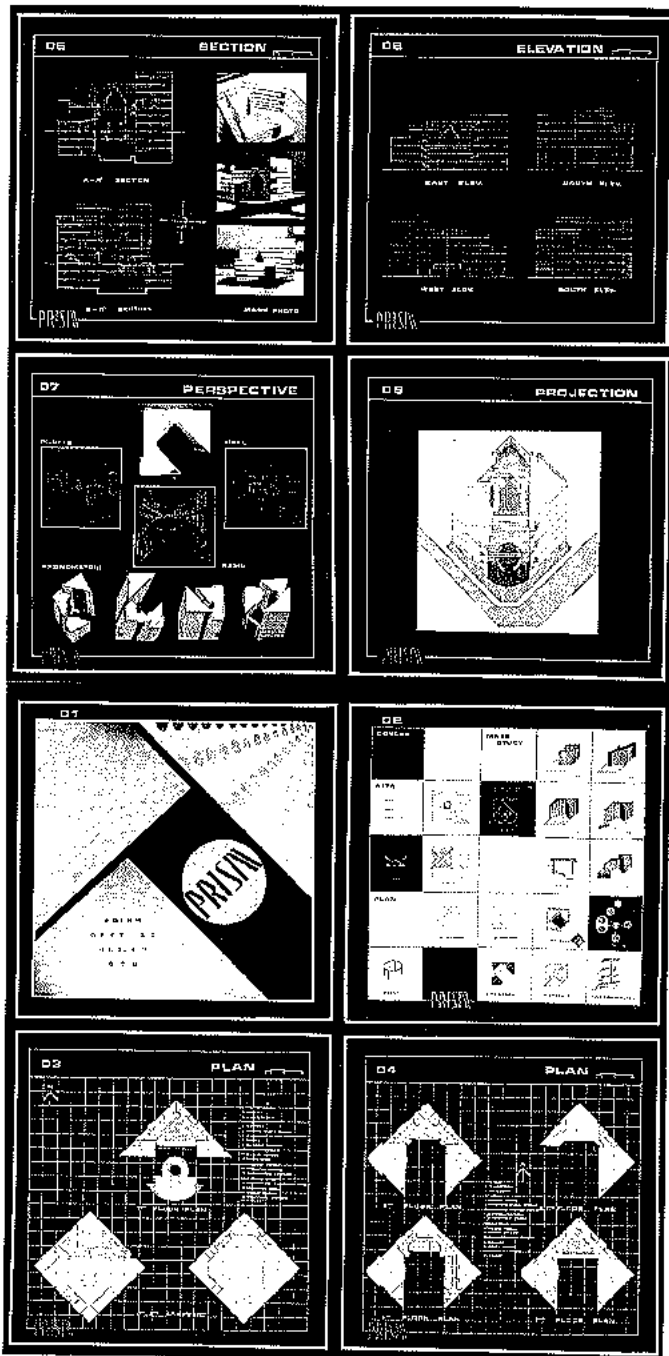
■ 계획개념

건축가의 책임은 건축적으로 진정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일 것이고, 그 이후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의 책임일 것이다.

이런 건축적으로 진정 필요한 공간이 인간에게 어떠한 제약이나 구속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철저히 건축적이며, 유희할 수 있고, 문화적 공명을 느낄 수 있는, 자유와 개방과 경험이 존재하는 공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사람, 공기, 태양, 시간, 존재, 궤적...),

建築은 무한한 것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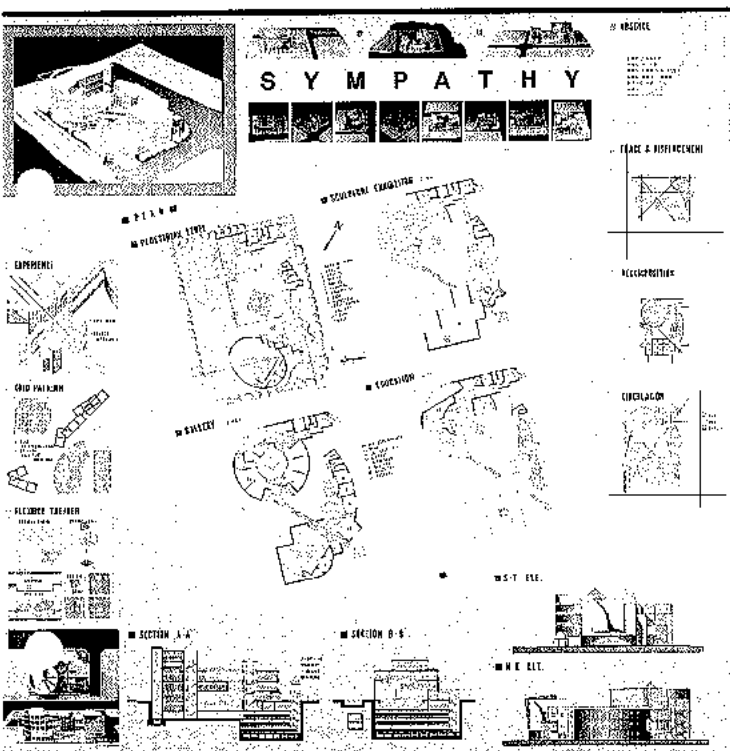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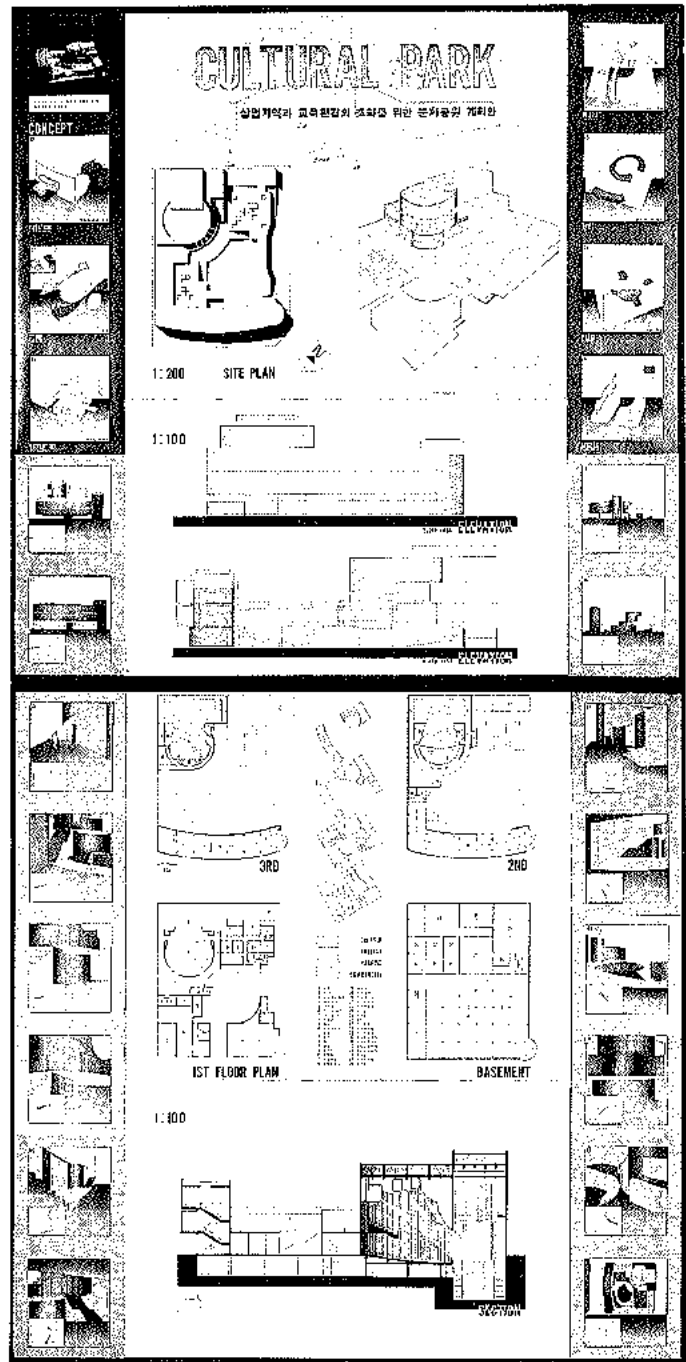
Cultural Park

최문규/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이민창/연세대학교 건축학과
이종구/연세대학교 건축학과

■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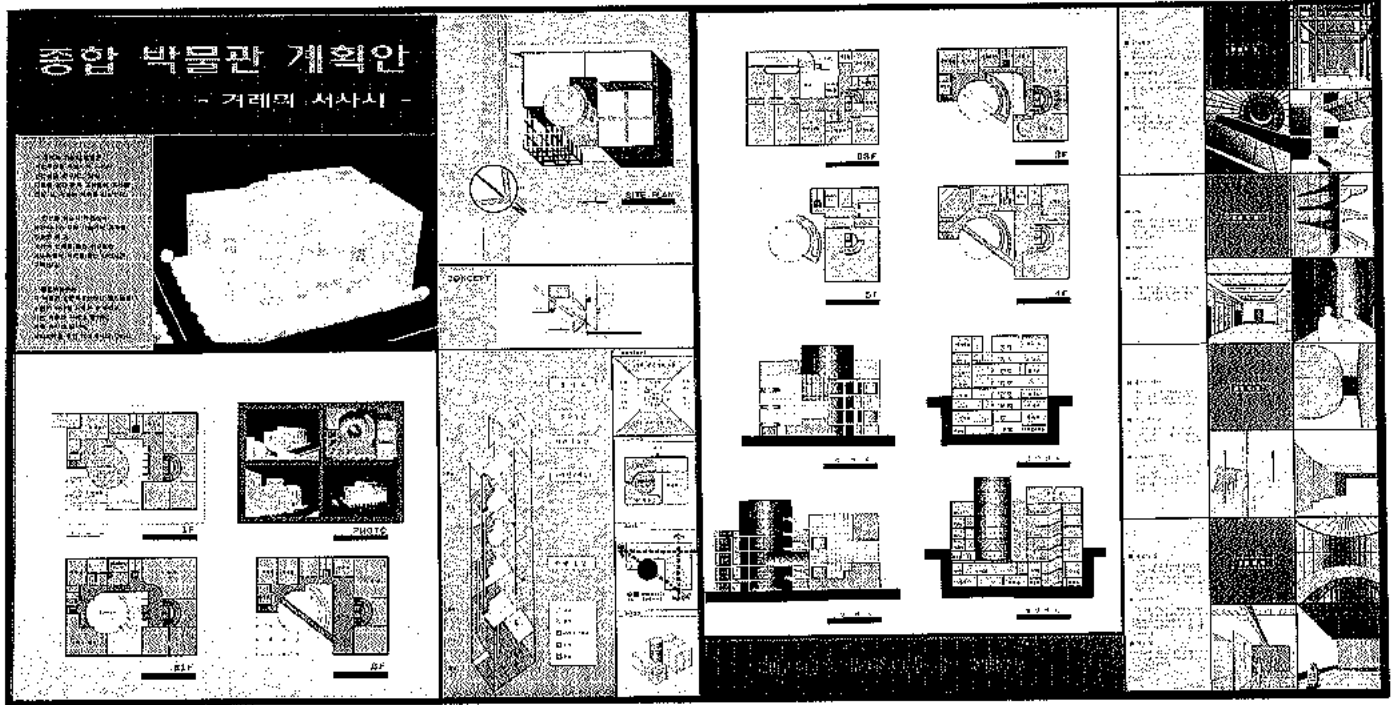
본 계획안은 상업지역(쇼핑센터)과 교육환경(고등학교)이라는 매우 대조적인 주위환경에 접한 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상업적인 변질을 막고 상호간의 접촉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문제 발생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나아가서는 문화의 창조와 향유라는 인간의 이상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본 계획에 있어서의 주안점은 일반적으로 도시속의 공원이 특정 건물에 종속되거나 혹은 공원만 따로 계획되어 사람들을 유도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극장과 Gallery, 화랑, 간이 음식점, 지하 주차장 등 제반 시설들이 모두 공원을 공유할 수 있게 계획하는 한편 위의 시설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보행자들의 동선유입도 다양한 방법(직접진입, 계단진입, 램프진입)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해결하였다는 것이다.



獎 勵 賞

종합박물관계획안 — 겨레의 서사시 —



하원기/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양희종/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차은주/중앙대학교 건축학과

■ 계획개념

현재는 과거의 연속이며 미래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기며 지금 살아 가고 있는 현실의 터에 성실히 정착하기 위해 종합 박물관을 계획하였다.
종합 박물관은 각 박물관 전문특정 분야의 요소를 수집한 하나의 독립된 존재이며, 이는 여유와 사색의 장이며 겨레의 역사의 장이며, 자아회복을 통한 미래 개척의 장이다.

※ p.18에서 계속

나. 新人部門 심사경위

*1차심사

총 응모작 28작품을 심사대상으로 네가티브방식에 따라 심사위원당 10작품을 감점하여 -6점이상 작품은 탈락하고 2차심사대상 18작품을 선정.

*2차심사

18작품을 대상으로 네가티브방식에 의해 10작품씩을 감점, -7점이상은 탈락하고 11작품을 선정.
⇒ 선정작 11점은 시상대상

*3차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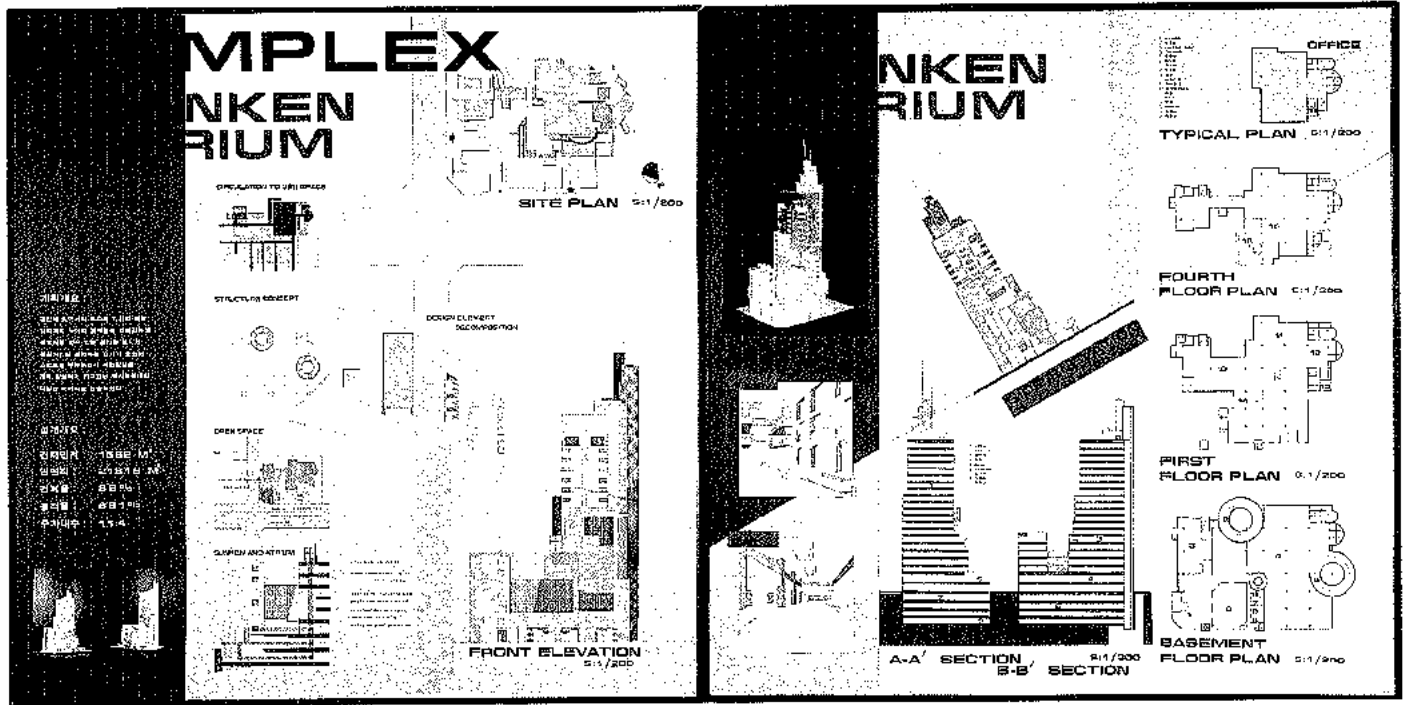
11작품을 대상으로 네가티브방식에 의해 6작품씩을 감점, -6이상은 입선을 시상하고 나머지 5개작품에 대해 최종심사 실시.

*최종심사

3차심사 통과 5개작품을 대상으로 네가티브방식에 의해 3작품씩을 감점, -6점이상 3작품은 장려상을 시상하고 -5점인 28번 작품을 우수상에, 무감점인 12번에 우수상을 시상기로 함.

獎 勵 賞

Complex Sunken Atrium



김기남/부산공업대학 건축학과
이관우/부산공업대학 건축학과
신경민/부산공업대학 건축학과

■ 계획개념

본 Complex는 업무+상업이라는 주용도에 대지내의 Open Space의 확보 및 활성화로 부가적인 문화시설을 설정하고, 계획에 임하였다.

3D-Complex에서 주거를 제외시킨 Complex의배치는 어떠하겠는가 라는 전제에서 건물의 배치는 다양한 배치 및 형태의 표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쇼핑센터와 12m도로를 사이에 두고 설정된 상업 영역의 영역성을 대지내까지 의미의 확장을 시킴으로써 대지내의 상업적 활성화를 꾀하므로 저층부의 실용적 Space를 수평적으로 확장 활용하여 극대화한다.

다. 學生部門 심사경위

*1차심사

총 응모작 154작품을 심사대상으로 네가티브방식에 따라 심사위원당 50작품을 감점하여 -5점이상 및 규격외의 작품은 탈락하고 2차심사대상 89작품을 선정.

*2차심사

심사대상 89작품을 +득점제로 23작품씩을 선정, +4점이상 득점작 35점을 시상키로 하고 8점이상 작품 4점은 최우수상 심사대상에 넘기고 6~7점 득점작은 장려상을, 각시도별 소속작품은 각시도 지부회장상은 시상하는 한편 그외 작품들은 입선으로 처리함.

*3차심사

심사대상 4작품중 네가티브방식에 의해 -7점인 90번은 장려상을 시상키로 하고 3개작품은 4차심사 대상으로 선정

*최종심사

3개작품을 심사대상으로 +득점제로 하여 +5점인 114번에 최우수상을 시상하고 2작품은 우수상을 시상키로 함.

※학생부는 각 시도지부회장상 및 입선작은 지면관계상 생략합니다.
(작품집을 참조하십시오)

다시 맞는 3월에 ...

梁元錫 / 大韓建鎭士協會

우리는 지금
물질적 풍요를
포함으로 여기는 思潮에
휘말려 있다. 내 욕심만 채우면
그만인 세상이 돼버렸다. 이제 이 비극적
악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배푸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여유를 찾아 멋이
있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멋이란 부유하고 말
쑥한 얼굴이나 날씬한 몸매에 있지 않다. 지나
치게 짜임새있고 빈틈없는 것도 멋지지
않다. 멋은 아름다움과 참됨을
동경하고 그것을 실현
하는 순수한 노력
그 자체인
것이다.

새 봄이 파란 눈빛으로 미소짓는다. 찬란하고 영롱한 계절. 생명의 경이와 신비의 계절. 구름꽃 피어오르는 계절. 殘雪이 남아있는 흙더미에서 봄내음이 풍긴다. 저절로 노래가 나오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는 계절, 봄은 다정한 누나의 미소처럼 다가온다. 회색 봄빛이 황금색을 띠면서 대지는 갈아입을 푸른 의상을 준비한다. 봄은 희망을 속삭이는 계절. 감미로운 꿈의 계절.

산다는 것이 한낱 꿈이 아닐까.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榮華도 敗北도 봄별 속에 앉아꾸는 一場春夢이 아닐까. 그것도 풀잎끝에 맺혀있는 한 방울의 아침이슬처럼, 망망대해에 일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처럼 너무나도 짧은 꿈은 아닌가?

삶에는 고뇌와 憂愁가 깃들고 기쁨과 보람도 있다. 넘어야 할 고개도 있고 건너야 할 냇물도 있다. 그러면서 품어야 할 理想이 있고, 성취해야 할 꿈이 있다. 항해하는 배는 풍파를 피할 수 없다. 격랑은 두렵지만 풍파없는 항해 또한 얼마나 단조롭겠는가. 격랑은 어차피 꿈과 희망을 안고 헤쳐나가는 고독한 항해사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

나라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꿈에서 비롯된다. 꿈이 없다면 노력할 것도, 인내할 것도 근면할 것도 절약할 것도 성취할 것도 없다. 꿈은 그것을 소망하여 진실로 추구하는 자를 함부로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사회는 꿈도 희망도 메말라버린 삭막한 폐허 같다.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만 심화되고, 협동도, 이해도, 사랑도 없는 종말적 현상만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

여야의 극심한 정치적 이해다툼과 도덕적 타락, 분배의 불공정으로 빚어진 勞使의 갈등. 富의 편재로 인해 가속화되는 富益富, 貧益貧현상으로 극단적 이기주의 팽배 등이 저변에 깔려있다.

그 결과 무엇이 빚어지고 있는가. 이른바 選良들의 뇌물취득, 水西사건이며 대학교수들의 부정입학사건, 인신매매, 살인, 폭력이 난무하여 범죄와의 전쟁선포 등등 눈썰고 찾아봐도 믿고 기댈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다. 우리를 이처럼 허무의 늪으로 몰아넣어도 되는가 하고 물을 대상도 없다.

우리는 지금 물질적 풍요를 至善으로 여기는 思潮에 휘말려 있다. 내 욕심만 채우면 그만인 세상이 돼버렸다. 이제 이 비극적 악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베푸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여유를 찾아 멋이 있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멋이란 부유하고 말쑥한 얼굴이나 날씬한 몸매에 있지 않다. 지나치게 짜임새있고 빈틈없는 것도 멋지지 않다. 멋은 아름다움과 참됨을 동경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순수한 노력 그 자체인 것이다. 참으로 흡잡을 데 없는 우아한 멋은 자연 그대로 본연 그대로 행동하며 멋자체를 의식하지 않고 있을 때 빛이 난다. 참멋은 내부의 생명력에서 우러난다. 멋은 진실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아름답다. 진실은 이 세상 가치중 至高이다. 남에 대한 거짓은 자신에 대한 거짓보다는 有害하지 않다. 남에 대한 것은 허영심을 만족시키는데 그칠수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것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진리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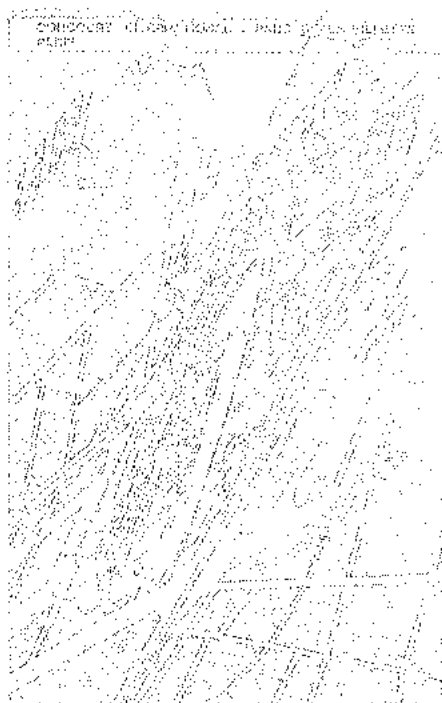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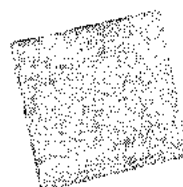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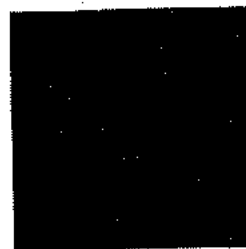
진실엔 얼음같이 차면서 거짓엔 불처럼 뜨거워진다. 반쪽의 진실은 허위보다 무섭다. 교묘히 꾸며 빈틈없게 웅대하는 사람,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사람이 높은 덕망을 쌓을리 없다. 아량이 없으면 외면당하고 덕망이 없으면 존경받지 못한다. 「德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孔子는 설파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치 지도자나 지도층 인사들이 국민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가. 그들로부터 파급된 不信의 골은 깊을대로 깊어서 도덕성이 마비되어 불안심리만 높아 가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나머지 그들을 멸시하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 道德性을 기대하기는 커녕, 염치라도 좀 차려주면 좋겠다. 어떠한 진실에도 무뎠 그릇된 곳이 있고, 어떠한 잘못에도 아직 진실의 접질은 남아있다. 늦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작하는 때가 適期이다. 진실은 가까운 곳에 있다. 사람들이 그것에 주의하지 않을뿐 진실은 항상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나의 참은 아흔 아홉가지의 거짓을 이긴다 않는가? 참을 위해 헌신하면 어둠을 사르고 광명이 비쳐온다. 태양은 대지위에 끊임없이 창조력을 발휘한다. 빛은 순수하다. 더러운 곳을 뚫고 지나가도 그대로다.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한 우리 가슴속에 항상 희망은 살아있다. 희망은 영원한 기쁨이며 불행한 사람에게 제2의 혼이다. 건축계를 위시한 모든 분야에서 회개하며 희망의 싹을 키워 진실로 거듭나는 봄을 맞아야겠다.

다시맞는 이 봄에는...

체계접근으로서의 건축 형태

System Approach Design Method



의미의 체계 접근

인연(因緣)이라는 말이 있다. 인(因)은 가운데, 중심, 원인을 나타내고 연(緣)은 테두리, 주변, 가장자리 또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어원으로 풀이하자면 인연이란 필연적인 것과 우연한 것이 결부된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인과적 및 비인과적 관계는 서로의 연대적 원인과 연대적 책임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원인과 결과의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뉴턴 역학시대의 인과의 개념이라면 인연이란 20세기 양자역학이후의 관계개념으로서 시간엔 선후관계가 없고 여러가지 현상간에 동시에 발생하는 상호영향적인 미묘한 애매, 우연대 필연의 개념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물(網)이라는 것은 한코 한코가 서로 연결되어 만들어짐과 같이 모든 현상은 서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루어진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을 연장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라는 개념도 가장자리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중심에 영향을 주어 발생되는 것이라는 즉, 만물이 독불장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서로 서로 의존해서 생겨난 것이므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다.'는 시스템 이론의 의미를 잘 전달 해 준다고 하겠다. 이런식으로 불교사상에서의 의미 체계를 확대해 보면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환원되어 해석할 수 있다.

시스템 이론은 비교적 단순한 기계적 시스템에서부터 이처럼 가능한 추상적인 사고 시스템, 정적시스템에서부터 균형을 내개로 하는 동적시스템까지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추상적 사고시스템의 인식은 탐정이 사건을 추리해 나가듯 그 사고의 독자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인간 사고의 원형 자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관계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런 시스템적 견해에서의 개방된 사고체계는 모든 학문에서 적용될 수 있다. 최근의 "과학적 미국인(Scientific American)"이라는 잡지 1월호에 '자기조직하는 임계(self-organized criticality)'라는 제목으로 지구의 지각운동을 연구하는데 지구상의 작은 어떤 움직임도 큰 지진의 발생과 관계된다는 요지의 논문이 컴퓨터 실험과 함께 실린 것을 보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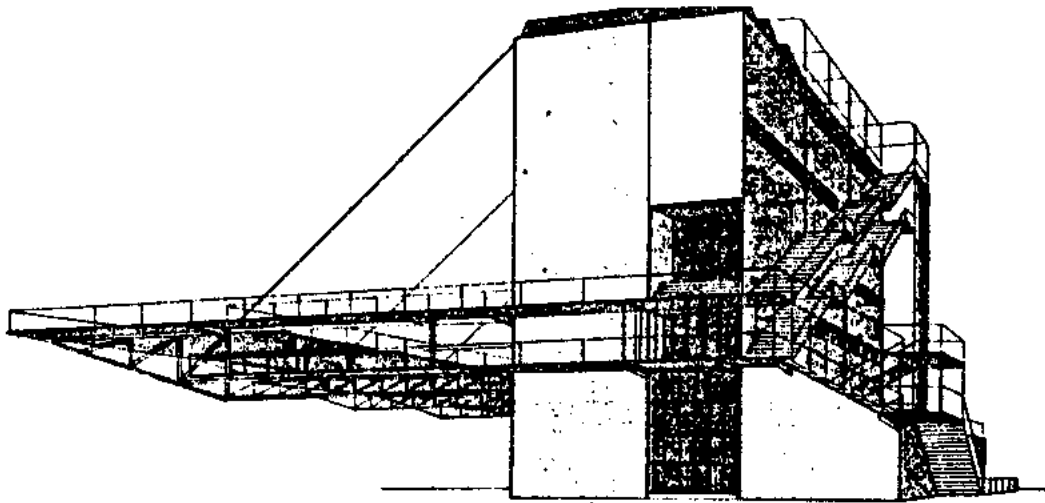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의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할 때 건축, 미술, 조각, 공예뿐만 아니라 귀족계층의 문화나 선비문화, 민중을 통해 흐르던 민예에까지 문화전반을 통해서 엿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그런 의식이 정치, 사회, 종교의 사회적 배경을 갖춘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 속에서 유추해 낼 수 있는 의미들의 패턴과 질서를 나타내는 어떠한 구조(structure)의 발견은

'체계접근'으로서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최근의 동양학의 붐과 더불어 한국미술사분야도 훌륭한 학자와 좋은 논문, 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그대로 각자의 분야에만 충실한 것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시대적 구분에 의한다는 양식상의 문제를 논할 뿐이지

董政根+朴研心
건축사 사무소 장원
by Dong, Jung-Keun
& Park, Youn-Sim



2

종합적인 사상적 배경이 될 수 있는 의미들에 대한 미의식의 총체적인 분석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한국인의 미의식을 논하면서 한두 마디의 단어나 말로 요약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으로 강우방의 “원융과 조화”라는 책이 카탈로그식의 미술사 서술이라는 방법을 떠나고자 하는 의도로 편집·출간된 것이 있을 뿐이다. 한국인의 미의식에 대한 가장 원전이 될 수 있는 책으로는 일본 민예학자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의 “한국과 그 예술”을 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책은 한국의 미술사학계에서 잔인할 정도로 무시당하거나 배척(?)을 당한 책이다.

야나기는 이 책에서 한국미술의 특징을 ‘비애의 미, 애상의 미’등으로 보면서 그것은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과 그로 인한 비참한 역사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어떤 지극한 애정을 갖고..., 옳건 그르건 한국 미술의 특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관적인 의견을 갖고 쓴 책임엔 틀림없고 우리들에게 미적 사고의 한 단면을 보여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 미술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까. 미술이라는 대상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의식의 주체를 미의식이라고 한다면 한국 미술을 인식하는 의식을 한국 미술의 미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의식에서 나타난 조형의 현상을 우리는 미술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 미술의 특징은 한국 미술의 미의식에서



3

- ① 말레비치, 슈프레이티즘의 컴퍼지션 : 빨강 네모블과 검은 네모블, - 1914, oil on canvas, 71 X 45
- ② H. Meyer, H. Wittwer; Pefererschule, Basel, Project 1926
- ③ Zaha M. Hadid. Concours International-Parc De La Villette, Paris

나타난 조형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의식과 특징은 달걀과 병아리의 관계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미의식의 특징은 어느 하나를 밝히면 여러 타분야가 자연 이해되는 그런 상관관계성에 있는 것이다.

“한국미술의 미의식” (김정기, 김리나, 안희준, 문명대 공저, 정신문화연구원간, 1984)의 총론에서 문명대는 ‘이러한 한국미술의 특징, 즉 특수성에 대한 논의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다. 그것은 민족성의 실체가 없듯이 한국 미술의 특징 역시 실체가 없다고 파악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족성의 실체. 춘원 이광수는 ‘민족성이란 완고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야나기의 한국 미에 대한 발언을 한결같이 부정하고 각자의 주장은 없는 채 김원룡박사가 말하는 ‘한국적 자연주의’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맥락으로는 정인국선생님이 그의 저서 “한국건축양식론”에서 한국건축의 근본원리를 ‘순천(順天)사상’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

최근에는 한국건축사가 신영훈의 몽상적 시학이 재미있다. 한옥의 “역사와 문화”(한국의 기충문화, 한길역사강좌 4, 1987)에서 한옥의 조형사상에 대해 ‘우리는 빈틈없이 가공하는 충만의 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인공이 들었더라도 그 위에 천연스러움을 뒤집어 씌워 모두가 천조(天造)인듯이 보이게 하는 농정을 떨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해석방법론을 ‘민학원론’이라고 부르기를 주장한다.



전통 미에 대한 해석을 순수하게 몸으로써 느껴,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와 유사하게 제일 민족학자인 김양기는 그의 저서 “한국민속학의 뿌리” (조선일보선서 0004, 1987)’에서 한국 미의 진리를 ‘비상(飛翔)과 멋’이라고 생각하며 그 속에는 낙천적인 생활감정이 내포되어 있다고 역설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들을 좀 더 밀고나가 한국전통의 문화, 사회전반에는 ‘초월사상’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즐긴다. 한국의 구전문학의 진수는 ‘한’에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민족적인 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조차도 승화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화에서 조차 오래살고(壽) 잘살고(福) 하는 등의 염원의 의미들이 계층화와 상징화를 통하여 미적 초월의 경지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야나기 무네요시는 그의 “미의 법문(法門)”에서 한국의 민화를 보고 느낀 감상을 ‘미의 극치는 좋고 나쁘고를 가리는 의식이 개재하기 이전의, 지적으로 무력한 무심한 상태, 즉 무유호추(無有好醜)의 경지에서 이루어 진다.’고 하였다. 민화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우리의 생활 철학과 생활감정 속에 흐르는 자기초월적 사상의 차원이 인류의 생활 원리로 제시될 때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지난 '89년 “보이스 복수(BEUYVS VOX ; 원화랑, 현대화랑)”라는 타이틀로 전시회를 가진 백남준은 그 전시회의 팸플렛 서문에서 몽고와 한민족과의 유사성에 대해서 논하는 가운데 비디오아트가 시간에 기초한

정보(time-based information)라는 것에 착안하여 역사기록 이전의 시대, 사유재산발생 이전, 농경기술 이전, 유목시대일 때의 기마민족들이 가졌던 기억, 전래속담, 구전문학, 춤, 무용 등은 다른 역사기록이나 서적, 석판, 동굴벽화 등이 영원 속에 묶여 있는 중력 배열(gravity-oriented)을 갖는 것이라면 이들은 영원 회귀 속에서의 무중력 배열(non-gravity-oriented)의 상징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후기 산업사회의 전자시대인 오늘날에 와서도 역시 중력을 갖는 것들인 서적, 신문, 영토, 부동산들 보다는 텔레비전, 비디오테이프, 오디오, 영화 등이 비교될 수 있으며 이들은 좀 더 우리에게 지시경험(experience-oriented)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인류사의 모든 발상인 유목민에게 대한 관심은 일본의 건축가 토요 이또(伊東豊雄)에게도 집중된다. 그의 건축론은 일본의 신진 건축가중에서도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는 ‘건축이 다른 소모품들의 생산처럼 일시적인(ephemeral), 한번 쓰고 버리는 것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저항하지 않는다. 유목민이 그들의 텐트를 옮겨 다니듯이..., 텔레비전, 워크맨, 컴퓨터게임, 24시간영업하는 체스트후드산업같은 소비지향(consumer-oriented)적인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너무 일회적이기 때문에 건축은 현실로부터의 고립이 두드러진다.’고 한다.¹¹ 그의 건축론에는 다분히 백남준의 영향이 눈에 띈다. 직접 물어봐야 확인할

일이지만. 아무튼 백남준의 선견지명있는 무중력 배열(non-gravity-oriented)의 의미는 필자도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요즘 건축잡지에 거론되는 탈구조적 건축물들의 징후를 나타내는 언어로 찌그러뜨리기(distort), 해체하기(split), 우구러뜨리기(warp) 등의 언어가 자주 눈에 띈다.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언어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석기시대 이래로 문자의 발달 순서는 모음에서 단어들 그리고 문장, 문법, 사상의 순이었을 테니까. 자하 하디드의 경우는 그를 다룬 특집¹²에서 자기에게 건축언어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무중력(zero-gravity)의 보이드 속에서 전체의 지평이 새로운 랜드스케이프를 형성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사진 3)

중력에 대한 저항의 전통은 러시아 구성주의에도 잘 나타난다. 러시아 10월혁명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탄생한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최근의 탈구조주의에 의해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근본적인 사상의 분석도 없이 무비판적인 상태에서 영향을 받아 들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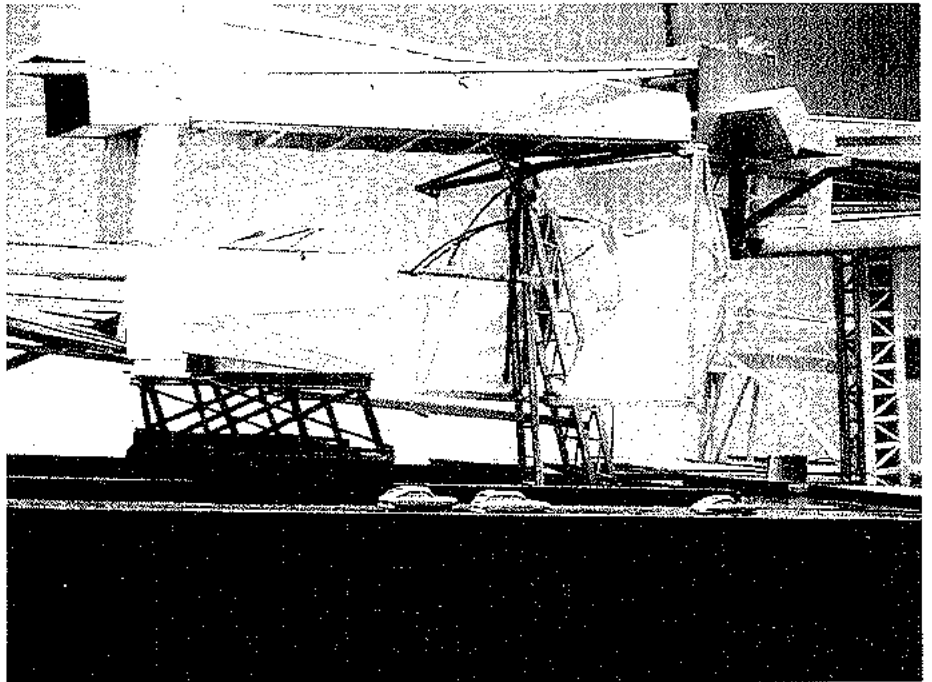
러시아 구성주의가 중력을 거부하는 초월의 사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되어진 미술사 논문을 본 적도 없고 이런 논리는 필자 혼자 세워본 가설이지만 아마 당시에 사회적으로 성공적이었던 민중혁명의 기운과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레닌 이전, 혁명체제하의 초기 러시아의 종던 시절을 마루어 추측할 수 있다. 제3국제기념비 계획안의 작가인 V. E. 타틀린도 ‘내게는

10월혁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없었다. 내용은 활력있고 창조적이며, 사회적이고 교훈적인 생활에 들어갔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레닌은 구성주의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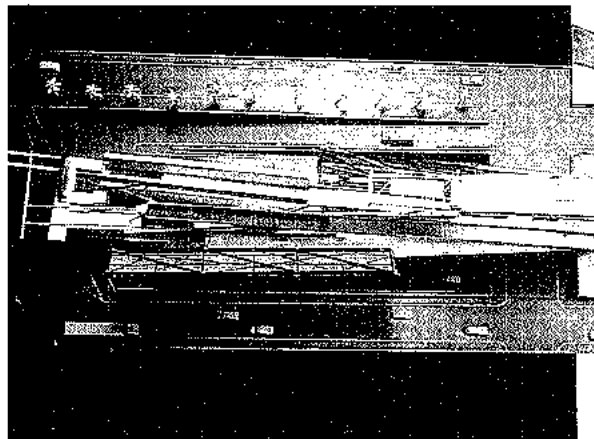
말레비치의 그림 '슈프레마티즘의 컴퍼지션 ; 빨강네모꼴과 까맣네모꼴(1915)'(사진 1)에서는 무중력의 공간 혹은 물위에 떠있는 듯 우연히 만난 두개의 사각형을 볼 수 있다. 메이와 윗치 공동적인 공장건물(Petersschul, basel, project 1926)(사진 2)은 우주공간에 떠 있는 듯한 스페이스프레임을 길게 뻗고 있다. 특히 릿치스키와 스타의 '구름의 지주(Wolkenvugel, project 1924)'(사진 7)는 하늘에 구름을 띄우고자 하는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높고 육중한 지주 위에 사무소건물이 돌출한 채로 얹혀 있는 것이다.

릿치스키의 이미지는 85년후 '로스엔젤레스의 판문'현상 설계의 당선작에서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 작품은 라쉬드와 쿠투어(studio asymptote 소속)의 '철제구름(steel cloud, 1989)'(사진 5, 6)이었는데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장은 이 계획안을 당선작으로 함으로써 제기된 여러가지 회의적인 견해를 일축하면서 '이곳을 찾아 오는 사람들은 천국을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⁴⁾ 천국을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 율이상의 음악을 듣고 독일의 작가 루이제 린저가 한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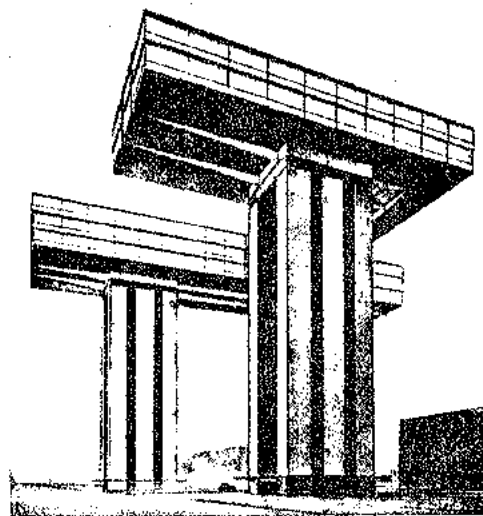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젤리리아 미술관에서는 '초월주의'라는 미술가들의 그룹전이 열렸다. 이들은 현대라고 하는 위기의 시대에는 존재가 지닌 풍요한 울림은 황폐된 정신에 의해 사라져 버리고 장엄한 생명으로서의 존재의 신비와 존엄성은 잊힌지 오래여서 사라져버린 존재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한다. 무관과 생명과 존재를 하나의 의미로 통찰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진리를 열 수 있는 길이 끊임없는 정신의 자기초월 뿐이라고 주장한다. 범생명관적 초월주의를 그 구름의 모두가 공명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전시회에 나온 작품으로 미루어 보아 조금은 어려워



5



6



7

④ 김선희 작, 일체적인 꿈 No 3, 1990, 162X130, Acrylic on Canvas

⑤ ⑥ 'Steel Cloud' 중 일부
Hani Rashid & Lise Anne Couture
(studio symptote 소속)

⑦ Eliezer Markovitch Lissitzky & Mart stam,
Wolkenvugel, Project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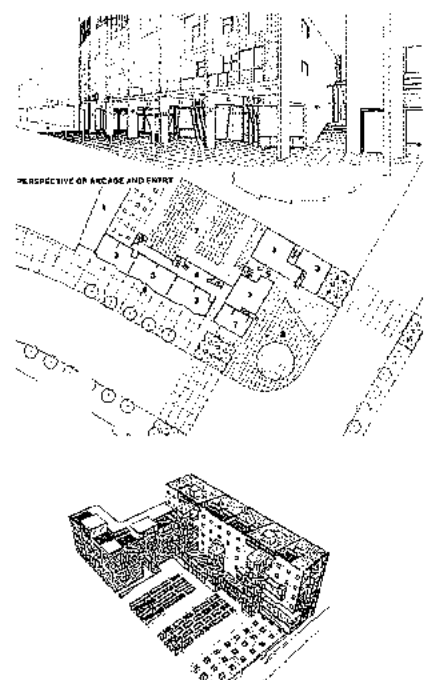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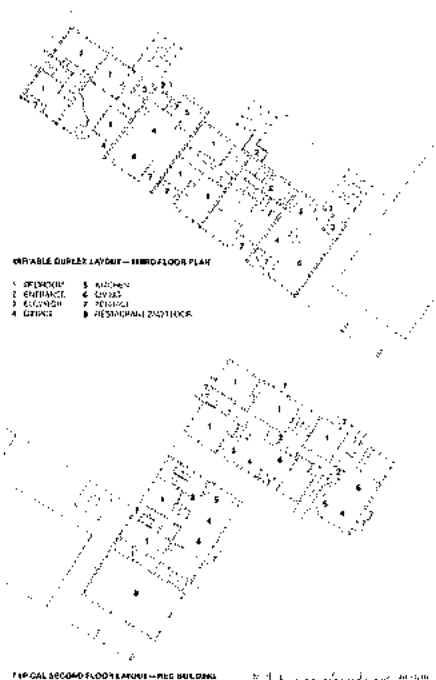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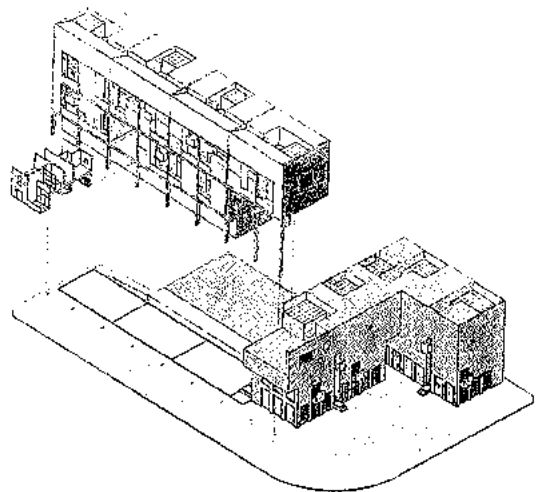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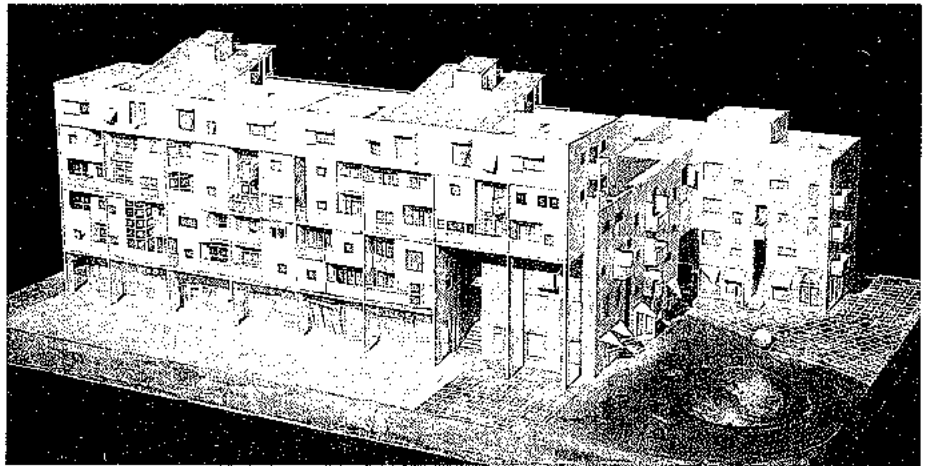
보였다. 전시된 작품으로 보면 이념이나 운동으로서보다는 그림의 테마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 것들을 모아 놓은 것 같았다. 미술평론가 임두빈이 주도해서 이끄는 것으로 하나의 운동이 되기에는 -외국의 선례가 있든 없든- 좋은 테마였다고 생각된다.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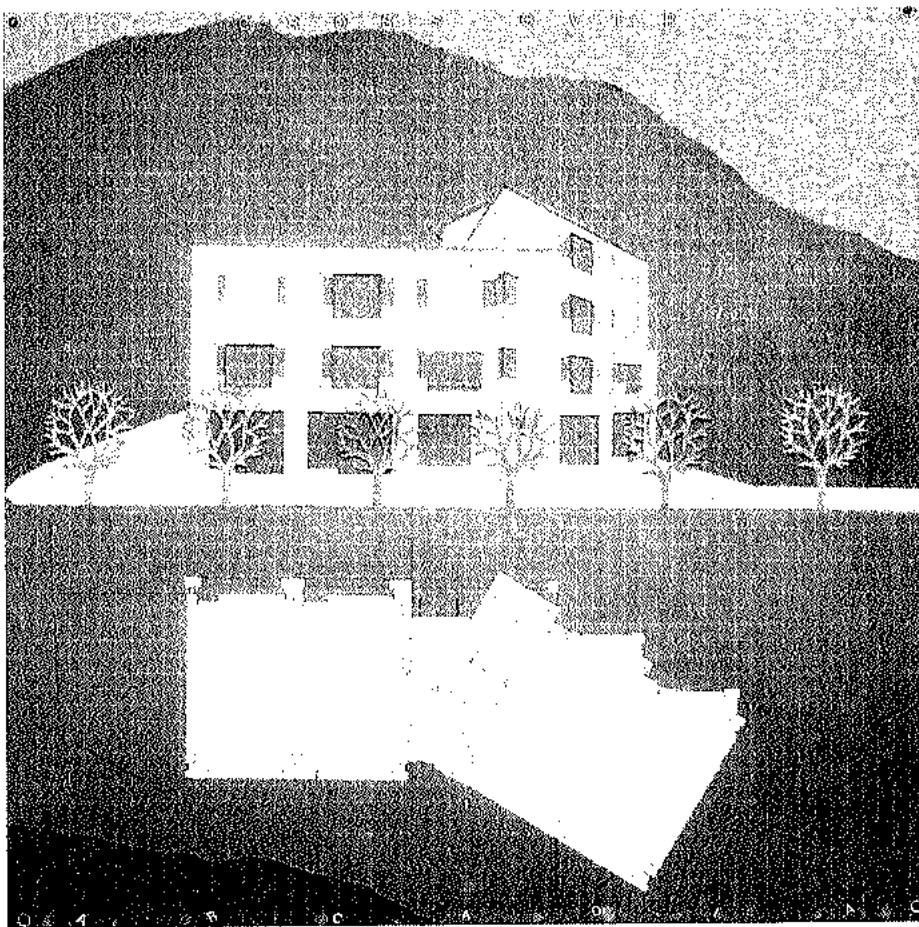
캘리포니아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과학운동도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안에서 파악하는 것-인간생명의 의미에 집중된다. 자연 동력학의 모든 전개 형태간의 연결차원들을 열어주는 자기조직, 자기초월의 페러다임이 그와같은 의미의 인식을 심화시키려는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신과학운동의 근본에는 동양의 사상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또 현대과학이 다다른 막다른 골목에서 동양적 사고는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한다.⁵⁾

과학적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미의식 속에 흐르는 의미와 상징들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있어서 상상력의 세계는 인간의 생물학적 죽음에 대해 삶을 대립시키고 성장의 광기에서 인간적 양식을, 소외와 적응의 상실에 대해 인간참여의 도시를, 문화 나아가서는 예술의 궁극적인 것안에 인간공통의 본질적 희망을, 이런 삶의 해석학을 통하여 동양과 서양의 화해를, 결론적으로는 인간 구원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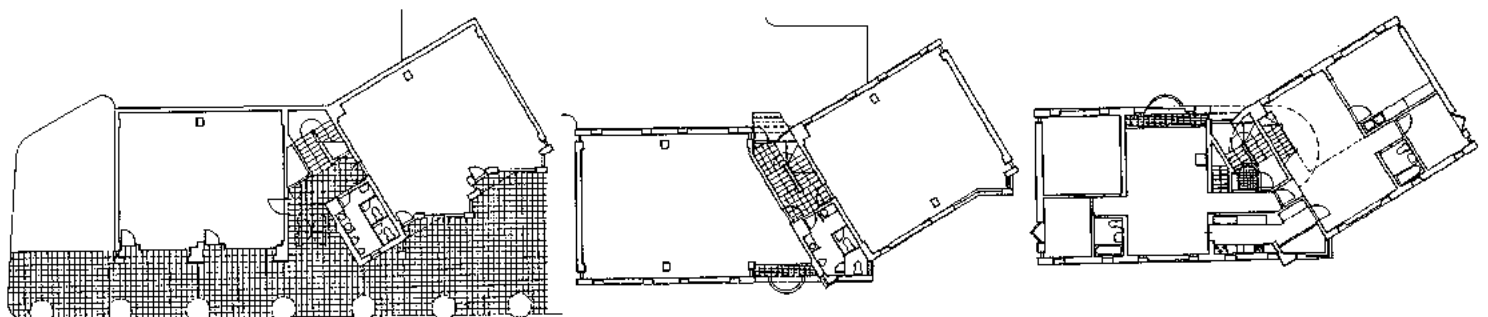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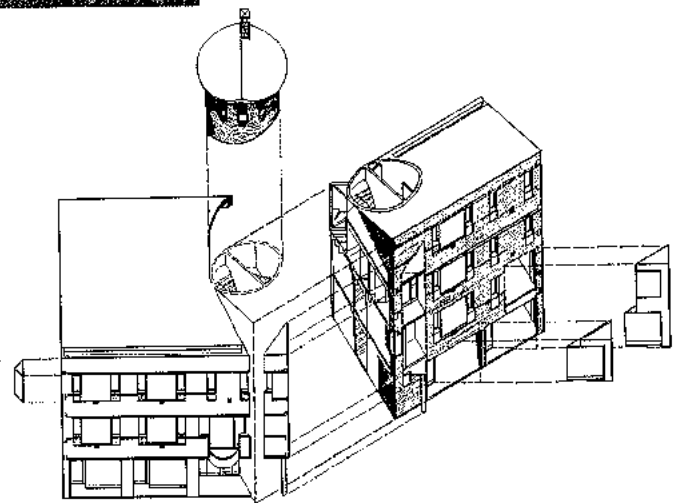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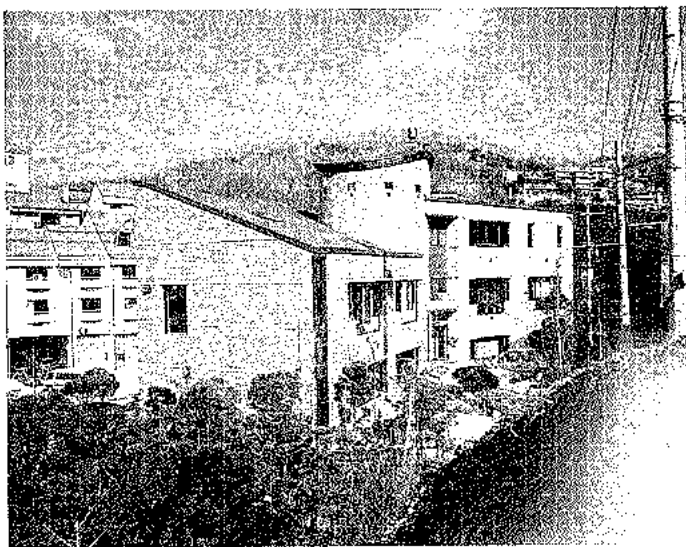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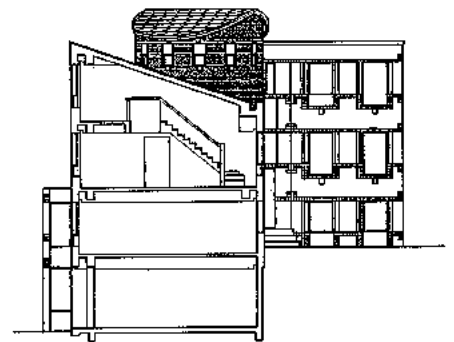
왜 한국인의 미의식 속에는 무중력의, 초월의, 천(天)의 사상이 들어 있는가 하는 체계접근적 관점에서의 좀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의 개인적인 해석이 역사 속에서, 세계 속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되는지 수준없이 찾아보았다. 이런 생각들은 분명하게 현재의 건축작업을 위한 것들이며 이런 식의 방법은 조형과 사고가 병행한 프로세스의 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계획안은 의미나 상징을 갖되 '체계접근'으로서의 해체도(configuration-diagram)를 갖는 것들이다. 여기서 해체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구조(structure)-건축에서 단순히 말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로써 그것이 갖는 질서의 한 부분이라는-의 발견을 뜻한다.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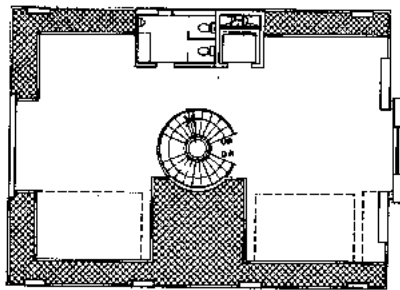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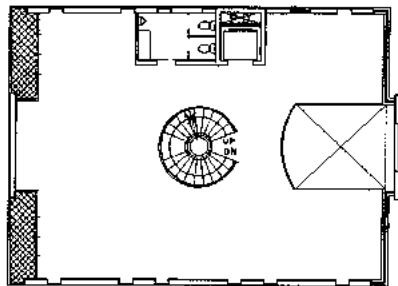
⑧ Kashii District Housing, Mack Architects, cts,
Progressive Architecture, 1:90
⑨ 교우(cross over) 부암동 서울,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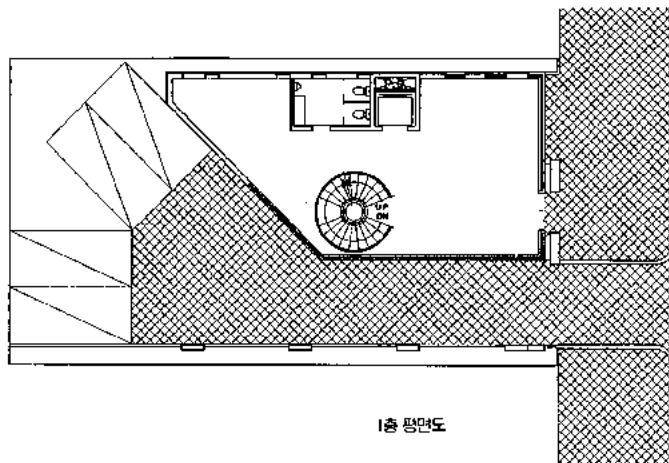
⑬ 비상(soaring), 중국동 서울,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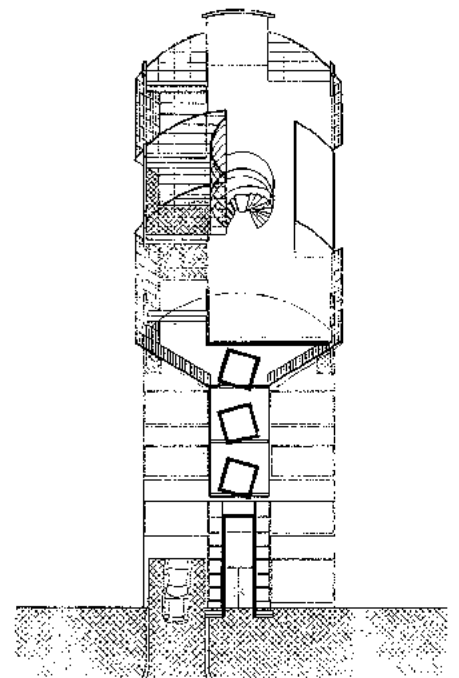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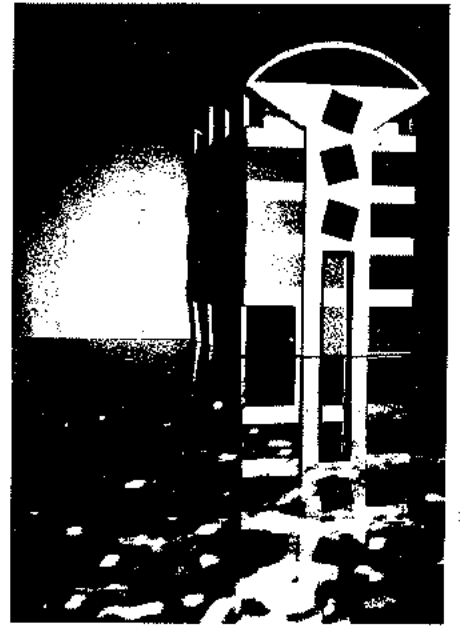
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어느 한부분이 결정되면 다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결정되고 다른 부분이 빠지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상호 완결성을 보여준다.

〈사진 8〉은 ‘케비넷의 설합’이라는 별명을 가진 건축구름 맥(mack)의 ’90 PA Award를 받은 주거용 건물의 계획안이다. 아파트먼트의 하나 하나는 마치 설합처럼 해체 되어져서 2층 높이의 각 주호가 개성있는 공간연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교차된 모퉁이 가로로 의미를 살려서 두개의 패스가 상호관입되도록 설계되었다. 상호 관입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동의 건물은 외장의 색깔이 서로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교우(cross over 1987)’라고 이름 지어진

부암동 상가는 대극사상의 음과 양의 역동성을 표현하면서 마침 그 대지의 상황과 건축주의 요구조건이 대비되어진 건물이다. 음과 양의 상호관입이 건물을 찌그러뜨리면서(distort) 화강석의 돌과 붉은 벽돌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사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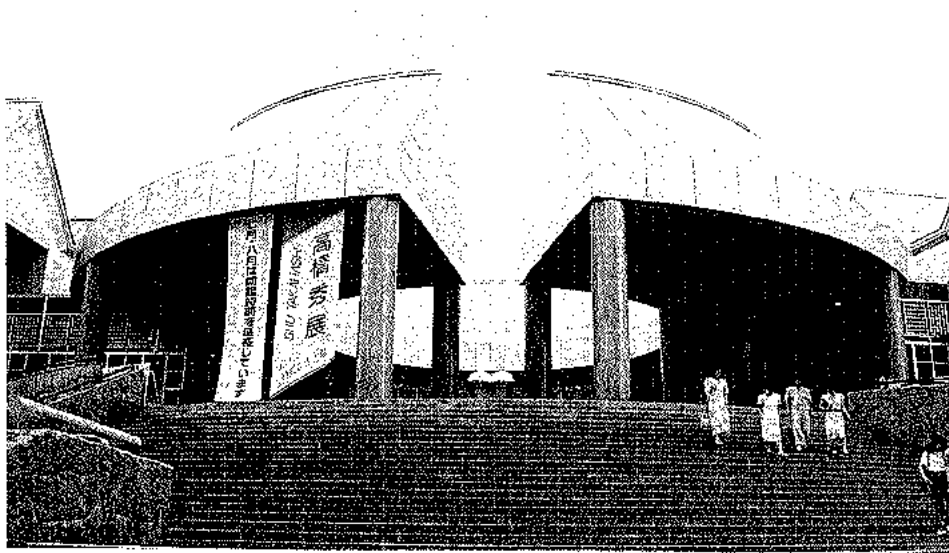
‘비상(soaring 1990)’은 중국동의 밀집된 상가지역에 위치한 대지조건을 갖고 있다. 건축주의 사정에 의하여 실현은 연기되게 되었다. 건축개념은 전술한 김양기씨의 비상(飛翔)의 뜻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개념이 어떻게 진화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계획안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진 10)

註)

- 1) Art in America, April 1990. New Japanese Architects.
- 2) World Architects, vol. 4, ZAHA M. HADID, 건우사, 1987, p. 87
- 3) 러시아 구성 주의, 크리스티나로더, 정진국 옮김, 열화당, 1989
- 4) 플러스, 1989년 3월호, 프리즘
- 5) 신과학운동의 내용 및 주요저서에 관해서는 조선일보, 1991년 1월 4일자 9면 참조
- 6) 상징과 의미들의 상상력의 기능들에 대해서는 상징적 상상력, 질베르뒤랑, 진형준 역, 문학과 지성사, 1983

일본의 미술관 건축

Museum Architecture in Japan



김문덕/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

by Kim, Moon-Duck

1. 일본의 미술관건축 붐

80년대 일본건축계는 미술관건축의 붐이 크게 일고 있다.

80년대 초 마에가와 구니오(前川 國男)의 후쿠오카(福岡) 시립미술관(1980), 가즈오 시노하라(篠原 一男)의 일본 우키요에(浮世繪)박물관(1982), 시라이 세이이찌(白井 晟一)의 쇼토(松壽)미술관(1981)에서 후반의 마키 후미히코(槇 文彦)의 교토(京都)국립근대미술관(1987), 하라 히로시(原 廣司)의 이이다(飯田)시 미술박물관(1989), 구로가와 기쇼오(黒川 紀章)의 히로시마(廣島)시 현대미술관(1989), 단게 겐조(丹下 健三)의 요코하마(横浜)미술관(1989), 이소자키 아라타(磯崎 新)의 미토(水戸)예술관(1990)에 이르는 미술관 건축 행렬이 그 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미술관건축 붐은 유럽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경제중심지 프랑크푸르트를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문화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O. M. 용거스의 건축박물관을 위시해서 최근 완공예정의 한스 홀라인의 근대미술관에

“종래의 미술관의 역할은 작품의 보존과 전시에 국한되었으나 오늘날의 미술관은 부분적으로 서점, 미술 관계 판매점, 오픈 연회, 전위적 전시회 등 상업적이고 동시에 사회적인 중심이 되기도 하며 또한 교회나 순례자와 같은 종교적인 역할도 부분적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폭발적인 예술시장의 성장에 따라 미술관은 재정적 투자—불안정한 달러와 표준금의 대체—의 주요한 기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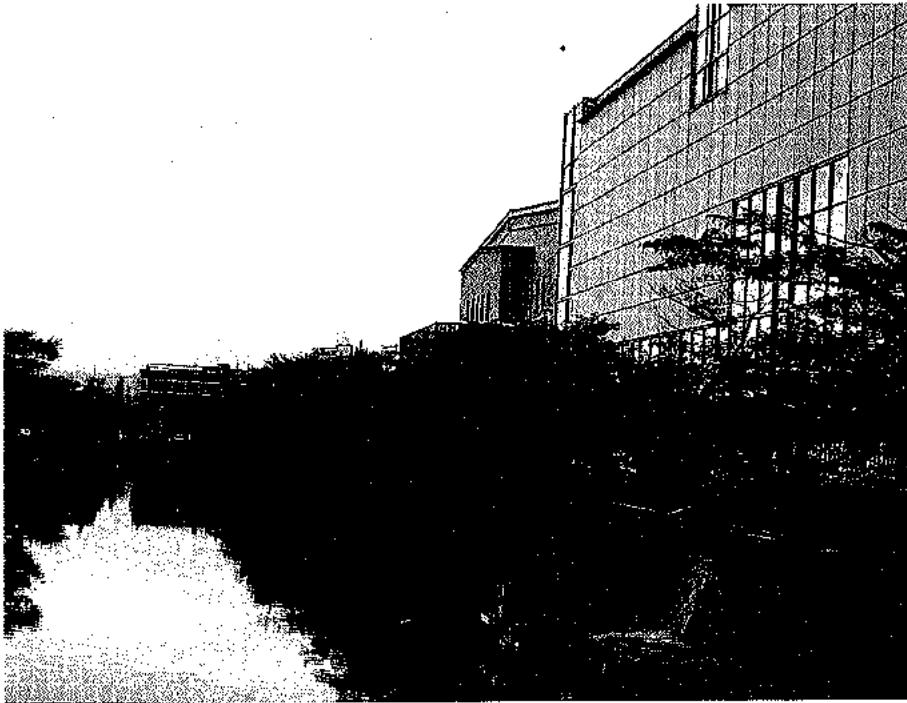
—찰스 쟁스

이르기까지의 미술관 프로젝트나 프랑스 파리의 대규모 문화프로젝트 등에 의해 자극받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일본 남부 구마모토(熊本)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마모토 아트폴리스같은 새로운 일본의 지역문화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이 전술한 미술관건축 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토 토요오(伊東 豊雄)가 설계한 야츠시로(八代)시 박물관이나 스페인 건축가 라페냐와 토레스탐에 의한 구마모토 현대미술관 분관의 증축이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다.

미술관 내지 박물관류의 건축의 성격은 현대에 와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으며 그 변화를 세분화해서 설명하면,

- 1) 시민사회로의 사회적 배경 변화에 의한 과거 군주의 개인적 목적에서 시민교육을 위한 목적으로의 변화,
- 2) 문화정책의 변화에 의한 중앙집권 지향에서 지역문화의 발굴과 연구거점으로서의 변화,
- 3) 미술관의 내적 기능변화에 의한 정적 운영방식에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운영체제방식의 변화,
- 4) 미술관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에 의한, 복합적 종합적 성격에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성격으로의



2. 교토 국립근대미술관

정확한 명칭이 국립근대미술관 교토분관인 마끼 후미히코 설계의 이 미술관은 교토의 동북부, 일본에 있어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공원으로 알려진 오까사끼(岡崎)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이 오까사끼 공원은 1895년 교토가 옛 수도로 정해진지 110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지어진 신사인 헤이안(平安)신궁도 위치해 있는 교토 유수의 관광지이다. 국립근대미술관(도쿄, 교토)이 주로 20세기 동서양미술을 수장·연구하며 일반에게 폭넓게 소개하고 있지만, 특히 교토 국립근대미술관은 일본의 공예와 교토화단의 일본화에 초점을 맞춰 전시하는 동시에 현대미술도 국제적 시점에 소개하는 등 근대미술관으로서 교토라는 서부지역의 거점으로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는 문화시설이다.

1987년에 개관한 이 미술관의 설계에 있어 포인트는 이 건축물이 위치한 일본의 고도 교토라는 도시에 대한 장소성과 역사성에 대한 해석이었다.

비록 다카미즈 신의 과격한 건축을 포용하는 교토의 예술에 대한 개방성은 상업적 성격의 건축이 아닌 공공 문화시설에서는 쉽사리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미술관이라는 건축적 성격과 교토하는 도시의 맥락의 표현을 배치에 있어서는 명확한 부지축에의 순응, 형태에 있어서는 고전적 3부구성, 재료에 있어서는 고도 교토라는 역사적 맥락을 회색의 화강석을 주재료로 한 중후한 분위기로, 건축적 성격은 건축물 네모서리에 위치한 금속과 유리로 구성된 유리의 계단실 타워에 의해 근대라는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근대성은 외벽면의 화강석을 1.5m 격자패턴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20m 높이의 벽면을 3부구성으로 의도적으로 위계화시키고 있으며 기단부의 거대한 석재패턴구성은 고전적인 들쭉기를 참조하여 모던하게 재구성하고 있다.⁴⁾

즉 이 미술관건축은 형태나 재료의 사용에 있어 수평성과 수직성, 근대와 과거, 투명성과 중후성, 일본과 서양이라는 상반되는 요소를 조화시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창호지를 연상시키는 파이버그라스의 사용으로 전통적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각 층의 기능은 지하층이 수장고, 지상 1층이 입구홀, 강당, 커피 숲,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2층은 사무실, 지상 3층과 4층은 기획전시실과 상설전시실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교토라는 도시에 있어 인상적인 기억은 이 도시를

성격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¹⁾

전술한 변화는 국내에서도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각 도청소재지마다 실행된 혹은 추진중에 있는 박물관건축이나, 화폐박물관이나 철도박물관같은 특수한 성격의 박물관건축 붐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국내의 경우는 경제적 여건상 본격적인 단계에까지는 와있지 못하나, 머지않아 본격적인 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박물관은 그 기원울 나라(奈良)등의 시대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구미의 박물관 사상이 일본에 들어온 것은 막부말에서 메이지(明治)시대초로 알려져 있다.

또한 건축적으로는 1200년경에 세워진, 나라에 위치한 쇼소인(正倉院)이 일본에 있어 현대미술관의 발아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초기에 불교 도래 이후 불당에 미술공예품을 배열해 감상하던 방식에서 불상미술과 천황의 황실보존품이 전시품의 주종이 되었던 시기를 거쳐 메이지초에 물산관(物産館)이라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당시(1871년) 일본 최초의 박람회개최되었고, 이것이 상설박물관으로 조성되어 1879년까지 각 지방에 파급되게 되었다.

상기한 발전과정을 거쳐 현대에 이른 일본의 미술관건축은 그 특성이 어떠한가를 최근에 건축된 몇 개의 미술관을 통하여 알아 보자.

- ① 건물전체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히로시마 현대미술관 중앙광장
- ② 교토 국립 근대 미술관 기모강의 지류가 부지 바로옆을 흐르고 있다.
- ③ 대청과 3부 구성으로 이루어진 정면 건축물 네 모서리는 유리로 구성된 계단실 탑이 설치되어 있다.
- ④ 각층 평면도 및 단면도
- ⑤ 캐노피 축에서 바라본 공원 주위 환경

가로질러 흐르는 가모(鴨)강의 맑은 물에서 낚시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었고, 히로시마 도심부를 흐르는 오따(織田)강변 갯가에서 보았던 조그마한 계들의 움직임 역시 인상적이었다. 도시이면서도 도시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는 낭만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이런 강의 존재라는 것을 필자는 이때 깨달았다.

강이라기 보다는 큰 개천처럼 느껴지는 가모강의 지류가 교토 국립근대미술관 바로 옆에 흐르고 있어서 그런지 착 가라앉은 조용한 분위기에 위치한 이 미술관은 그 존재가 돌출되기 보다는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 있었다.

부지 입구에 서있는 붉은 색의 커다란 토리이(鳥居)는 헤이안신궁의 입구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였다.

이 미술관의 기본형태는 기본적으로 상자형이지만, 상부의 박공형 지붕구성의 부가가 인접한 기존건물과의 맥락을 고려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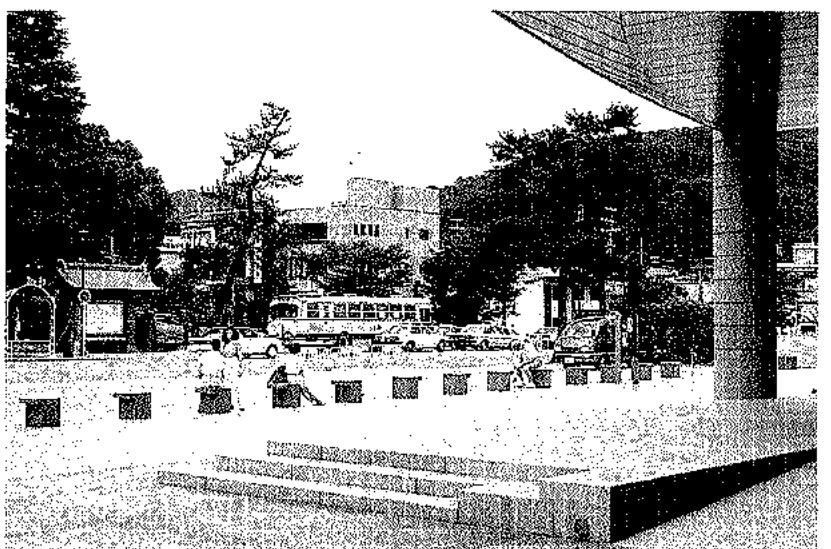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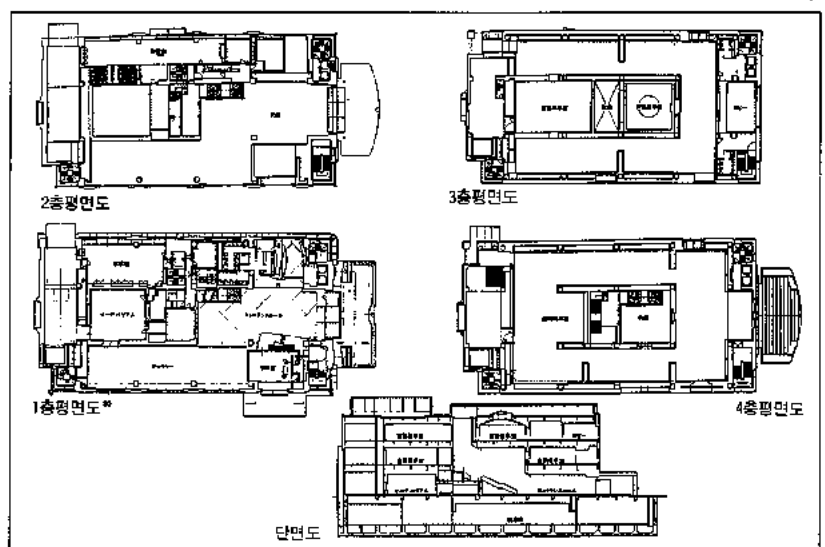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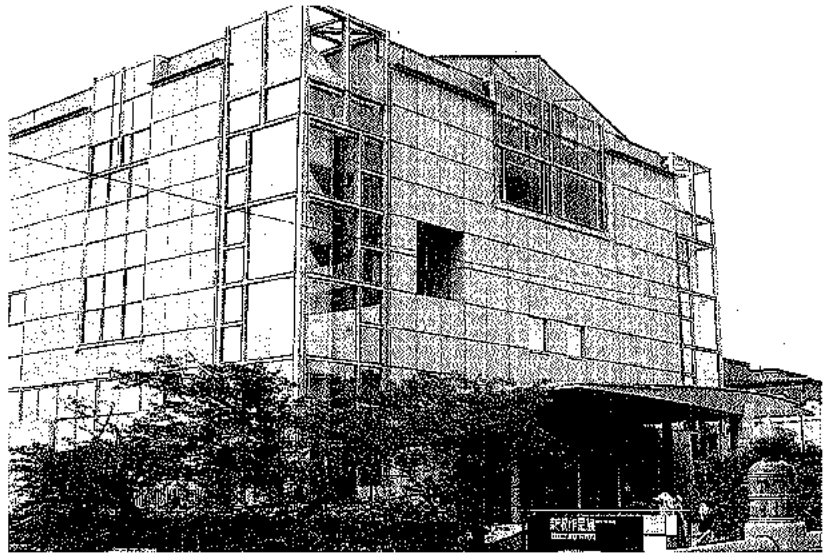
기단부의 석재의 분할은 상기한 것처럼, 순수기하적 구성을 입체화시킨 것같은 조형적 처리가 상당히 현대적으로 느껴졌고 각 부분의 디테일 처리가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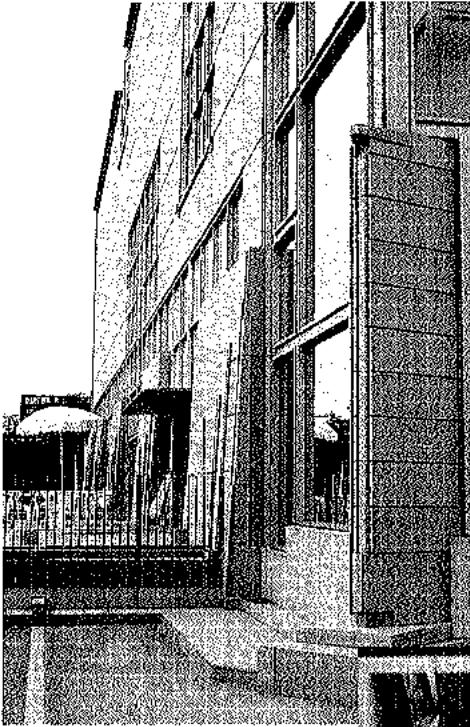
석재관의 디테일 처리가 정교하게 구성될 수 있었던 것은 석재관을 P.C관으로 처리, 시공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정면의 대칭적 구성과 고전적 3부구성, 상부 커튼월과 양측의 유리로 된 계단실 탑과 석재로 마감된 벽면의 대비적 구성은 고전적이게 느껴지는 동시에 메카닉하게도 느껴졌다.

또한 날렵하게 처리된 알루미늄계 캐노피가 경직되기 쉬운 정면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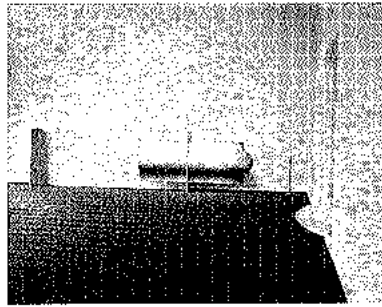
실내 입구홀에 들어 서면, 좌측 개천이 보이는 창가에 면해 휴게용 의자들이 놓여 있고 중앙의 주계단 부분은 4층까지 오픈되어 툴라이트에서 부드러운 자연광이 실내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 계단은 이 미술관의 실내에 있어 공간적 체험을 배가시키는 건축적 장치라고 생각되었으며, 계단에 서있는 기둥, 정교하게 처리된 난간, 계단 벽면에 커다란 원으로 구성된 기하학적 벽면 처리와 톱라이트를 통해 들어 오는 빛에 의해 드러나는 그림자의 윤곽, 삼각형으로 벽면에 매입된 조명, 휴게공간에 설치된 오브제형 안내카운터 등이 이 실내공간에서 미묘하게 조율된 악기의 건반처럼 관람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공간적 울림을 전해오고 있었다.

최근에 이 미술관에서 수집한 수집품 리스트에는 알도 로시 등이 디자인한 알레시사를 위한 커피세트도 포함되어 있었고, 전시품에는 몬드리안의 작품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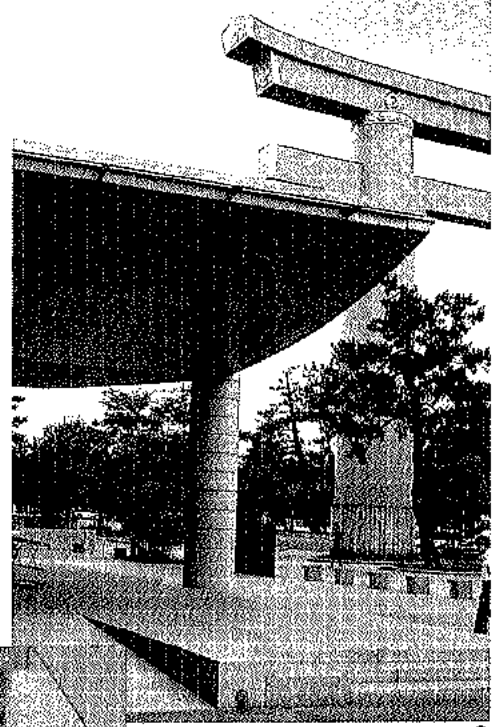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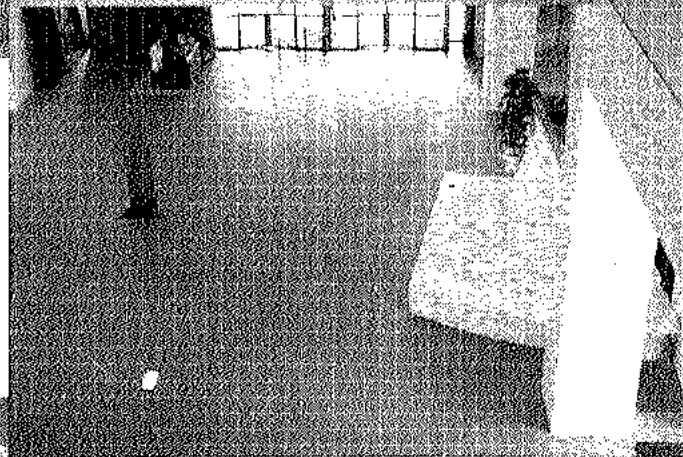


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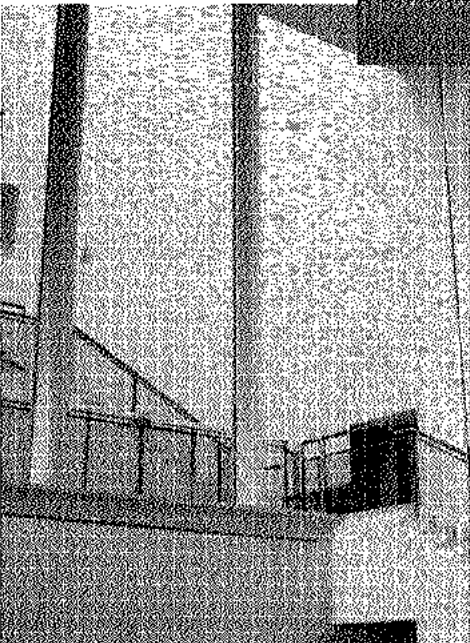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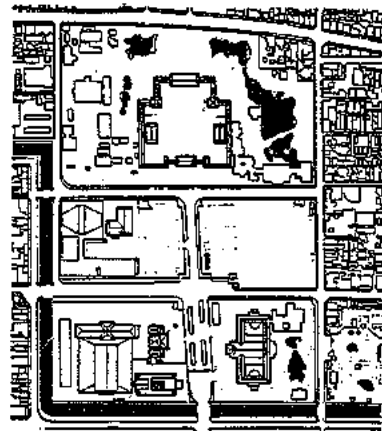
- ⑤ 개천측의 미술관 외벽 디테일
- ⑦ 1층 휴게 공간에 설치된 오브제형 안내 카운터
- ⑥ 미술관 주축입구의 캐노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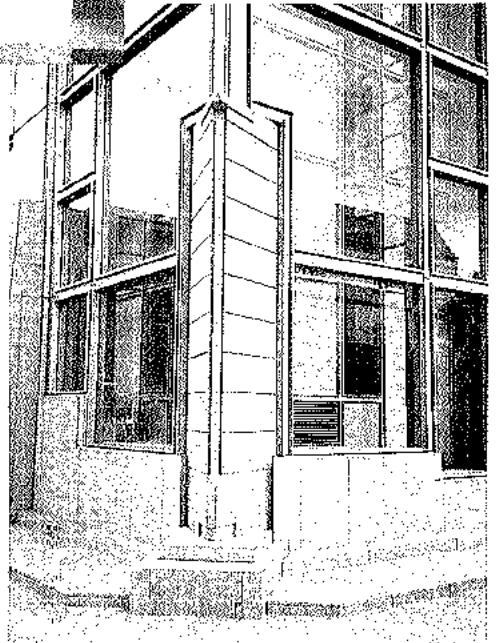
- ⑥ 계단실에서 내려다 본 입구를
- ⑦ 실내의 주계단
- ⑧ 배치도
- ⑦ 절교하게 처리된 기단부 모서리의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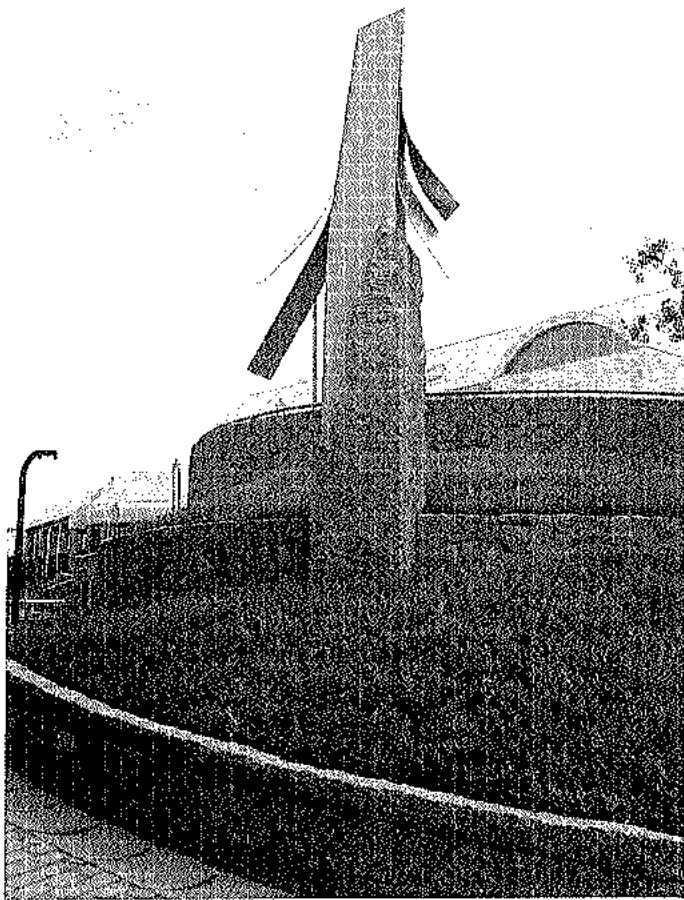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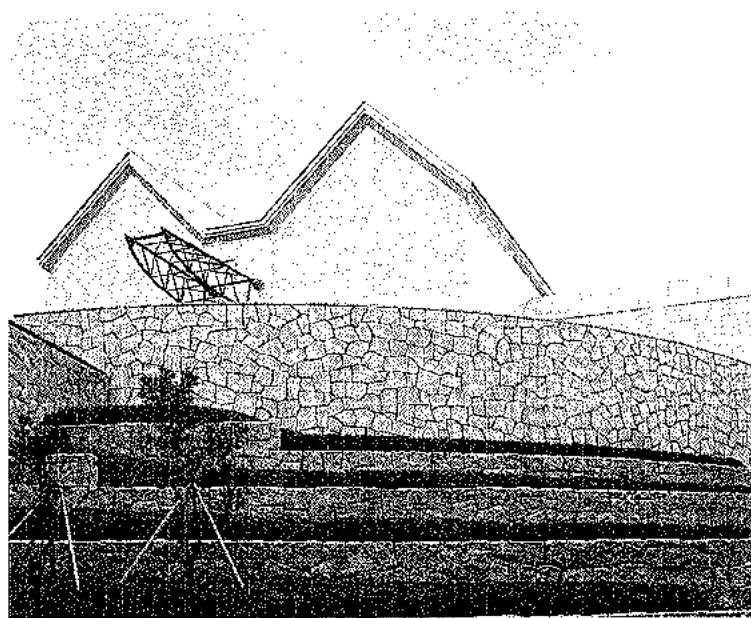
⑧



⑨



13



14

이 미술관에서 데 스틸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을 의도하였다는 건축가 마계의 말을 음미하면서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니, 데 스틸의 외형적 분위기보다는 공간적 분위기를 의도하였다는 표현이 더 부합된다고 생각되었다.

국내에서도 진주박물관의 경우, 전시공간에서 경사가 하나의 공간적 장치로 연출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필자에게 있어 비록 구성형식은 다르지만 미술관을 전시공간만이 아닌 체험하는 공간장치로서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인상적으로 느껴졌다.

3. 히로시마시 현대미술관

히로시마시 중심부에 위치한 히지야마(比治山治)공원에 위치한 구로가와 기쇼오 설계의 현대미술관은 히로시마시의 상징인 평화기념관과는 별도로 새로운 시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10년전 히지야마 공원에 예술공원이라는 이름아래 계획된 마스터플랜에 의해 실현된, 이 미술관의 배치는 이미 마스터플랜에 의거 건설된 도서관의



15

- ⑬ 히로시마 현대 미술관 테라스에 설치된 조각품 성벽을 유추한 형으로 디자인 되었다.
- ⑭ 공생사상을 생박공 지붕으로 표현한 외부 돌출된 것은 캐노피
- ⑮ 전시장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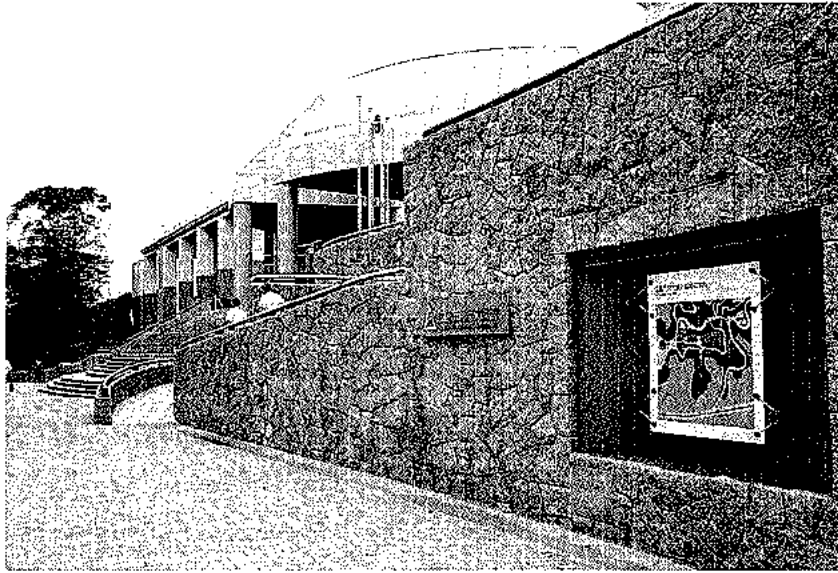
축선상에 맞추어 이루어져 있으며 금후 박물관 및 향토자료관 등을 정비하여 아트센터로 조성될 것이다.

건축가 구로가와와는 80년대 일련의 미술관 프로젝트를 3개 완성했으며 사이따마(埼玉)현립 근대미술관(1982), 나고야(名古屋)시 미술관(1987), 히로시마시 현대미술관(1989)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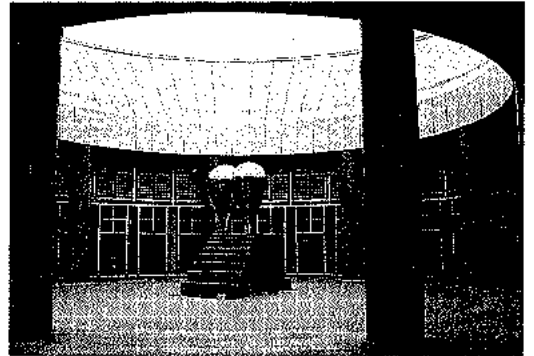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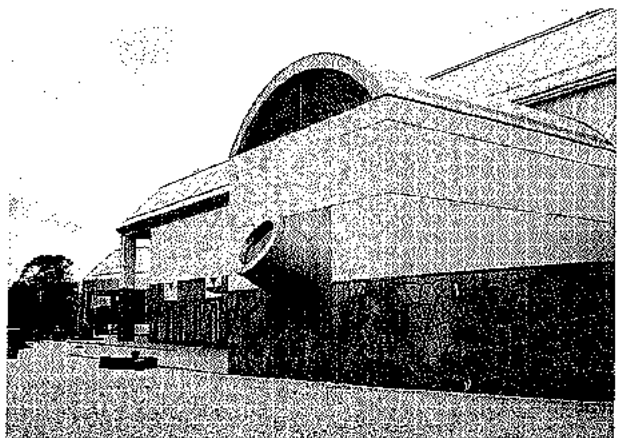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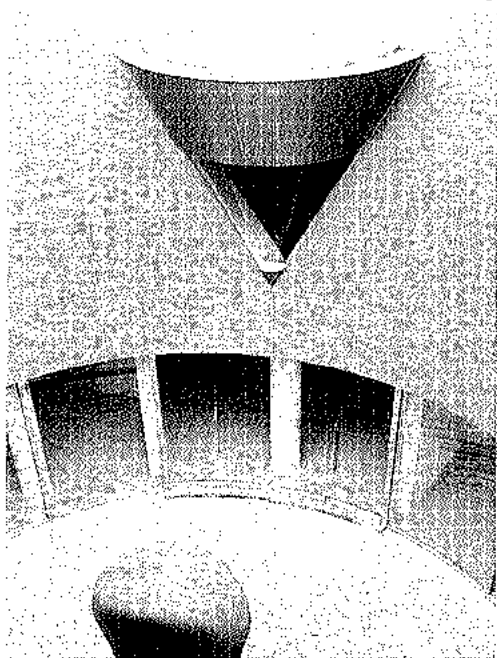
즉 구로가와와는 미술의 경우라면, 연작 시리즈 비슷한 이 미술관건축의 작업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히로시마 시내가 바다로 보이는 이 최근작 미술관이 가장 경관이 좋다는 환경적 장점도 이 히로시마시 현대미술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가 구로가와와는 메타볼리즘운동의 대표적 인물의 한 사람인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롯데 잠실 프로젝트의 기본계획을 완성한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필자 역시 롯데의 선입관 등으로 인해 구로가와를 이소자키 등에 비해 2등급의 건축가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이 미술관을 방문한 후 그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미술관을 방문해 보기로 하자.



- ① 원형광장이 바라보이는 미술관 전경
- ② 외부에 설치된 오브제
실내 계단실을 내려가면서 삼각추의 창을 통해 외부에 설치된 오브제의 일부를 보게 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있다.
- ③ 우측 날개동 부분의 옥외 조각 전시장
대표형으로 돌출한 틸라이트는 지하계단을 채광하며 그 형태에서 르코르뷔제의 영향이 나타나 있다.
- ④ 중앙에 설치된 쌍으로 된 오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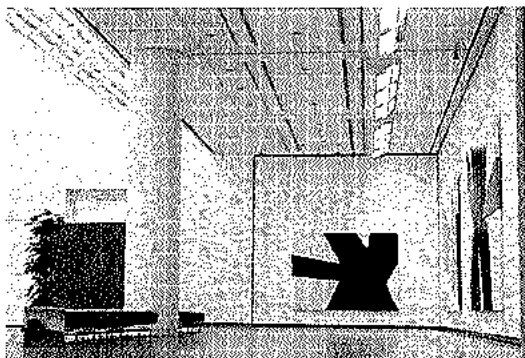
히지야산의 서측으로 오르는 산언덕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기묘하게 구부러진 (일종의 조각을 연상시키는) 스텐레스제 난간이 셋길에 설치되어 방문하려는 미술관이 멀지않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나중에 보니 그 길은 주출입구로 진입하는 정상적인 진입로는 아니었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과거와 무의식을 발굴하는 건축”이란 말에서 연상되듯이 성격을 찾으려는 추적자들처럼 필자에게 이 미술관을 찾는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셋길을 따라 산 정상에 오르자, 성벽을 연상시키는 돌로 쌓은 단형 테라스 위에 자리잡은 두개의 박공형 지붕과 건물이 결합된 듯한, 알루미늄과 타일로 마감된 건축물의 윤곽이 드러났다.

단형 테라스 구성을 한 기단부의 성벽을 유추한 돌쌓기 방식이, 수원성을 유추하여 디자인하였다는 과찬 국립현대미술관 기단부의 약간 거친 느낌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너무나 인공적인 냄새가 풍기는 돌쌓기 방식을 보면서, 현재 서있는 곳이 일본땅임을 인식시켜 주었다. 미술관의 전체구성은 중앙의 반옥의 반건물로 둘러싸인 원형 광장을 중심으로 좌우측의 날개동이 형성된 구성으로, 일반적인 접근은 북측의 광장에서 계단이나 언덕길을 통해 이 주출입구가 있는 원형 광장으로 진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우측이나 좌측 날개동의 형태는 구로가와와 건축철학인 「공생사상」, 즉 서구와 일본문화의 공생, 자연과 인간, 역사와 미래를 상징하는 쌍박공형의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중앙의 광장 역시 옥내와 옥외라는 건축적 요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주출입구측이 개방된 말굽형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구로가와와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동서간의 구분이 애매해진 현대라는 시대에 있어, 2분법적 사고방식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각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포용한다는 철학으로 서구의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철학이나 네덜란드의 알도 반 아니크(Aldo van Eyck)의 쌍자현상의 발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상기한 나고야시 미술관 등에서도 구조를 노출시킨 격자 프레임을 사용하여 내외부가 애매한 공간을 연출한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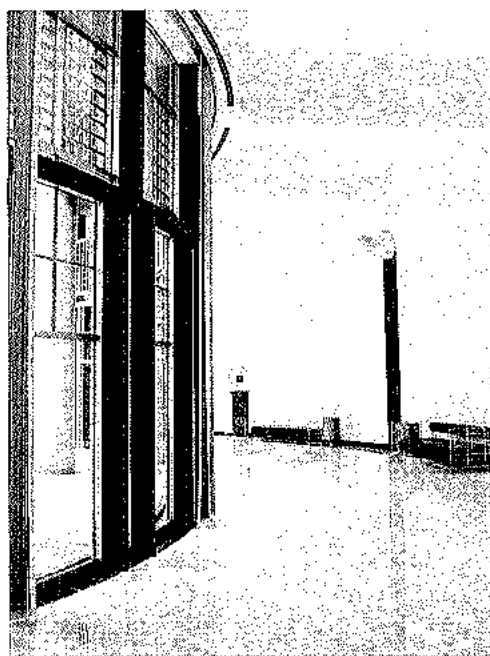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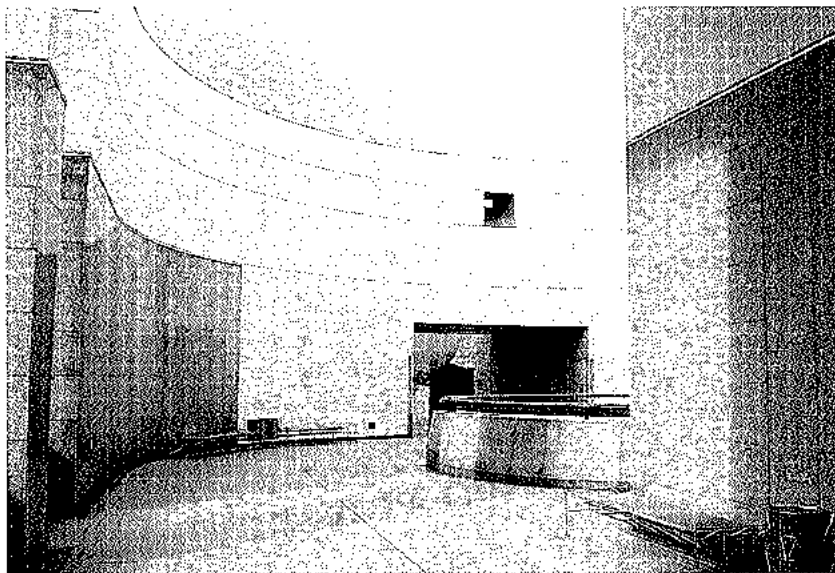
원형의 중앙광장에 서면, 광장 중앙에 쌓으로 이루어진 오브제가 이 건축물 전체의 개념을 표출하고 있었고 광장 서측의 레벨차가 있는 또 다른 옥외광장에는 헨리 무어의 조각작품인 아치형 오브제가 서 있었다.

광장 주위의 외벽이 알루미늄제나 화강석 혹은 타일로 마감된 회색의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었고 배표구만이 황색으로 도색되어 주출입구를 암시하고 있었다.

특히 우측동 부분에는 옥외조각전시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조각전시장측의 벽면에 돌출된 대포형의 지하계단을 채광하는 톨라이트는 르 꼬르뷔제의 라 투레트에서의 인용임이 명백하였다. 꼬르뷔제의 영향은 일본이나 한국 그리고 전세계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시대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느냐이다. 또한 우측동의 외부에 설치된 캐노피 역시 제임스 스틸링의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의 캐노피와 형식은 비슷하지만 구로가와풍으로 디자인을 일신시킨 점이 새롭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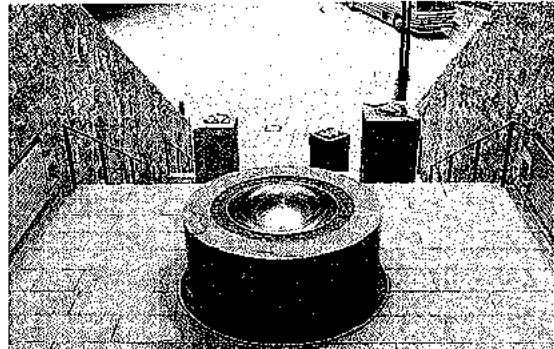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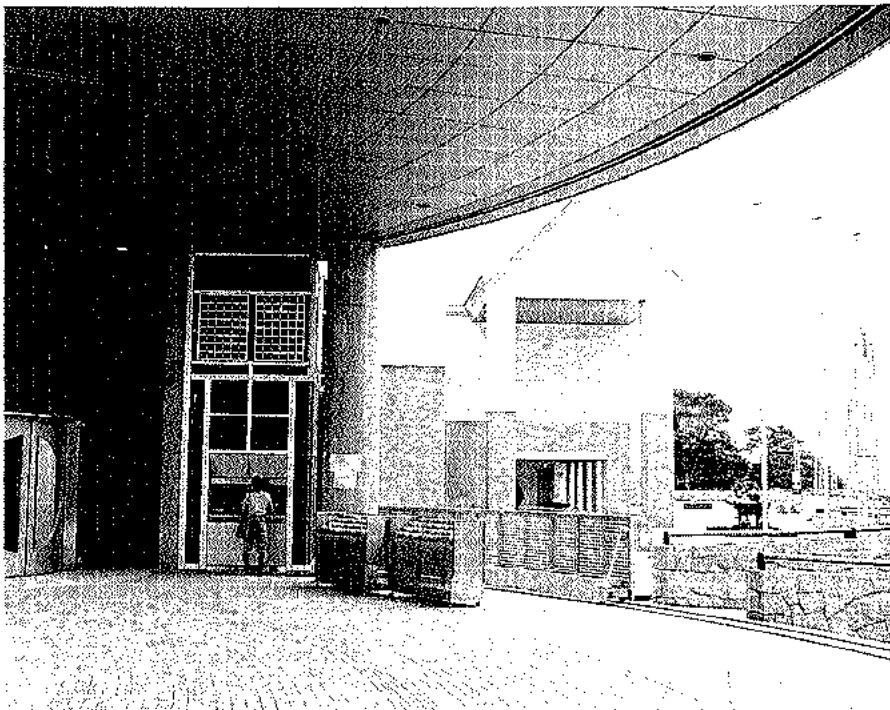
일반적인 일본인에 대한 시각-모방의 천재라는 시각이 있지만, 이렇게 새롭게 재해석하는 방법은 서극이 만드는 홍콩판 스피버그식 영화처럼, 역수출되어 서구인들에게 영향을 줄 때는 이미 그것은 모방의 차원이 아닌 창조의 차원으로 격상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입구 홀에 들어서면, 홀에 전시된 조각에서 공중전화 박스, 그리고 휴게용 의자나 벽부착용 안내판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디자인되었음에 놀라게 된다. 80년대에 있어 최고의 건축물로 평가되었던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관에서도 전체적인 개념이나 부분적 디테일은 흥미있게 처리되고 있지만, 실내공간과 전시품 그리고 실내의 소품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조정한 흔적이 나타나는



- ⑩ 다카하시 수의 특별전
 - ⑪ 북쪽 광장이 통하는 출구
 - ⑫ 중앙 광장 주변의 실내 통로
 - ⑬ 입구홀에 설치된 오브제와 실내조형, 바닥패턴의 조화
- 공중전화 부스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미술관은 발견하기 힘든데 바로 나 자신의 앞에 전개되고 있는 미술관의 실내공간이 그것이라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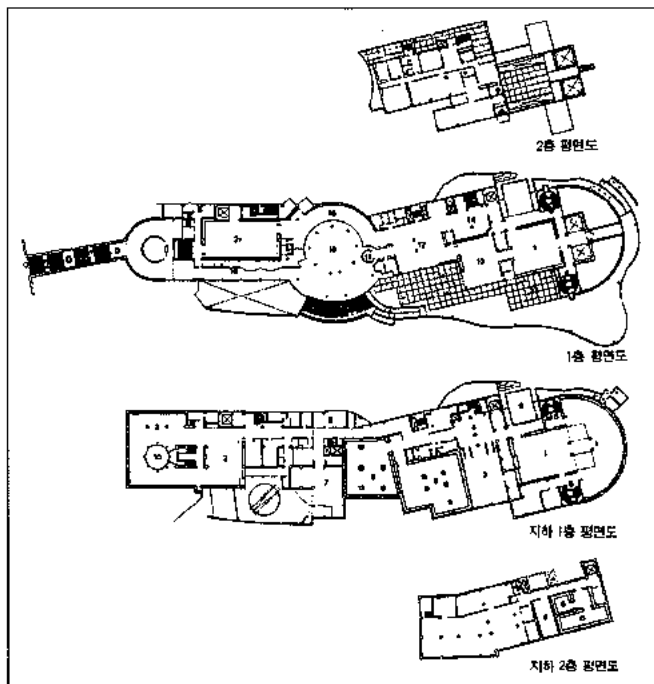
또한 우측 전시동의 원형 계단과 이노우에 부기찌(井上 式吉)의 계단 모뉴먼트의 결합이나 좌측 전시동의 계단실의 삼각형 창으로 보이는 오브제의 단면-작은 단편을 보여줌으로 호기심의 유발과 암시-을 보여주는 연출은 가히 압권이라고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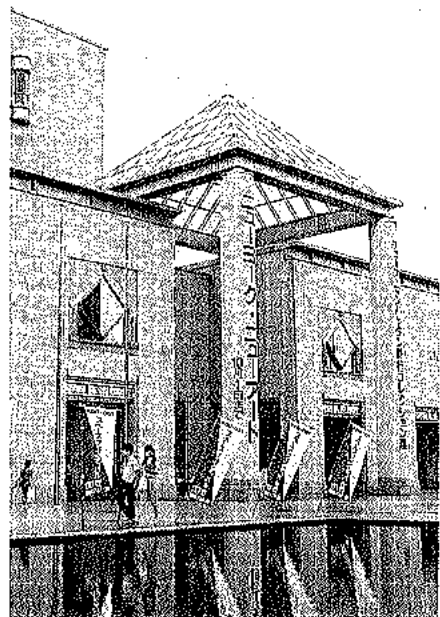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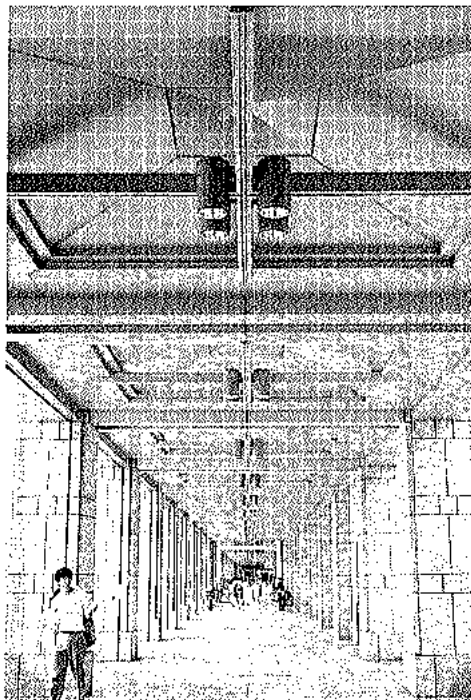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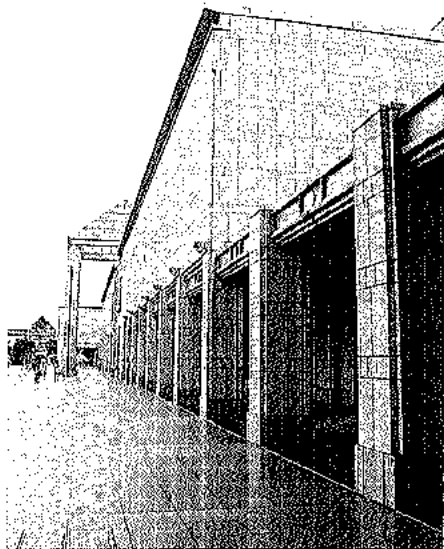
그리고 GK설계에 의해 디자인된 조명이나 안내카운터, 휴게용 소파에 이르는 세심한 배려와 실내공간과의 조화는 미술관 건축의 정석을 보는 것만 같았다. 물론 이런 시각도 관점의 차이겠지만, 건축가는 실내공간과 전시품의 미묘한 조화를 고려하여 전시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이론을 단순한 이론의 적용이 아닌 공간의 연출과 공간적 장치에 의해 건축공간 자체까지 전시물로 격상시키는 수법은 구로가와외의 이미지를 일신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필자도 국내외의 많은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지만, 전체적 개념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관람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각 공간의 부분적인 표현에까지 세심하게 배려된 미술관은 예상외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훌륭한 미술작품이나 조각품 혹은 창작품이 있으니 보아라.”하는 정도이지 그 작품을 좀 더 효과적으로 느끼게 하는 공간적 연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 미술관을 방문했을 당시, 다카하시 수(高橋 秀)라는 적색과 흑색 만을 사용하여 추상적이며 상당히 에로틱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로마에서 활동하는 화가의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었다. 상당히 일본적 냄새가 들린 풍기면서 동시에 추상적인 분할에 의해 서구적 분위기도 표현하는 화가의 작품과 전시공간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전시공간의 조명은 일부 천장에 의한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병용하고 있었는데, 전시실에서





인공조명이 결합된 멀리 덕트가 약간 과장된 형태로 처리된 것이 눈에 띄었다.

전시공간을 나와서 도서관이 바라 보이는 북측 광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옥외 계단을 따라 내려가는 도중에 계단 사이사이에 물이 흘러내리는 석재 오브제가 설치되어 있고, 관람객들은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흘러 내리는 물을 한번씩 쳐보게 연출되어 있었다.

바라보는 조형물이 아닌 행동을 유발시키는 조형물이 미소를 머금게 하였다.

미술관의 건립취지문이 이 미술관의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현대미술은 금세기 후반기의 고통과 번뇌를 통해 형성되었지만 아직도 낯설다. 하지만 금세기의 불행은 공유하고 있는 히로시마의 시민들은 현대미술에 공감하고 있으며, 양자는 20세기를 끝없는 회의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⁹⁾

히지야산 정상에서 바라본 히로시마는 원폭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마치 원폭의 상흔을 잠재우려는듯이……

4. 요코하마 미술관

요코하마 미술관은 도쿄에서 멀지 않은 항구도시 요코하마에 위치하고 있다.

단게 겐조가 1989년에 완성한 이 미술관은 미술관 고유기능 외에도 1989년 개최되었던 요코하마 박람회의 중심시설의 하나로 건축되었다.

따라서 요코하마 항구가 바라다 보이는 「미래항구



- ⑧ 주출입구 부분
매표실을 황색으로 도색하여 강조하고 있다.
- ⑨ 히로시마시 현대미술관 평면도
- ⑩ 섹과 조각이 결합된 오브제
오르내리는 관객들이 섹과 조각이 결합된 오브제의 물을 한번 차게끔 행동을 유발시킨다.
- ⑪ 요코하마시 미술관 정면측에 설치된 주랑
- ⑫ 주랑에서 바라본 통로
- ⑬ 주출입구 부분에 설치된 퍼빌리온 형 구조물
- ⑭ 뮤지엄 숏 실내 전경

21」지구에 위치한 이 미술관은 상기한 교토나 히로시마의 경우와는 달리 주위환경의 맥락이나 자연환경의 고려보다는 오히려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강한 상징성이 요구되었다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교토의 경우, 주변 건물의 형태나 높이를 고려하여 건축된 것이라든지, 히로시마의 경우, 일부러 지하층으로 전시공간을 확장하여 지상레벨에서 보여지는 건축물 외형의 높이를 낮게 보이도록 하는 수법은 이 해변가의 입지에서는 오히려 역의 수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해변가에 서있는 등대를 연상시키는 강한 형태의 미술관, 박람회의 중심시설의 하나로써, 강한 랜드마크로서의 미술관이 이 입지에서는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면적인 기능때문에 이 미술관의 형태나 실내공간은 박람회의 전시관처럼 약간 과장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히로시마의 경우처럼 치밀한 공간의 연출보다는 스케일이 큰 공간과 매스로 처리되어 있다. 이것은 이 프로젝트의 성격상의 요구외에도 단게 겐조의 건축적 성향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미술관의 기본구성은 대칭적 구성을 취하면서 등대를 연상시키는 타워가 중심축에 서있는 형을 취하고 있으며, 이 형태는 박람회서 관람객들의 방향감각을 환기시켜주는 등대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미술관 전면에는 주랑이 설치되어 관람객들의 통로공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강한 축성을 이 건축물에 부여하고 있다.

주출입구 부분에는 입구를 상징하는 오버 스케일의 파빌리온형 구조물이 설치되어 입구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양측의 날개동 사이에 각각 옥외전시장과 중정을 설치하여 기능과 공간을 분절화시키고 있다.

또한 미술관의 전면과 후면의 지형레벨차를 이용하여, 전면 주출입구측으로 관람객이 진입하고 후면으로는 차량이 진입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보차가 분리되도록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인 미술관의 경우, 지하층에 수장고를 배치하지만 요코하마의 경우는 중앙의 타워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워부가 4층은 공조기계실, 5~7층은 수장고, 8층은 전망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파빌리온형 구조물의 주출입구를 통해 실내로 들어가면, 「그랜드 갤러리」라고 불리는 2층까지 오픈된 커다란 실내공간이 나타난다.

지붕 전체가 톱라이트로 구성된 이 거대한 아트리움 공간은 중앙 실내광장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테라스형식의 전시공간으로 처리하여 조각 등의 전시나 각종 이벤트를 실내공간에서 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거대한 실내공간은 미술관의 기능보다는 박람회의 메인 파빌리온의 실내공간에 더 적합하게 계획된 것 같았으며, 실내공간의 오밀조밀한 분위기의 연출보다는 스케일 업된 공간에 의해 공간적 충격을 제공하는 수법을 의도한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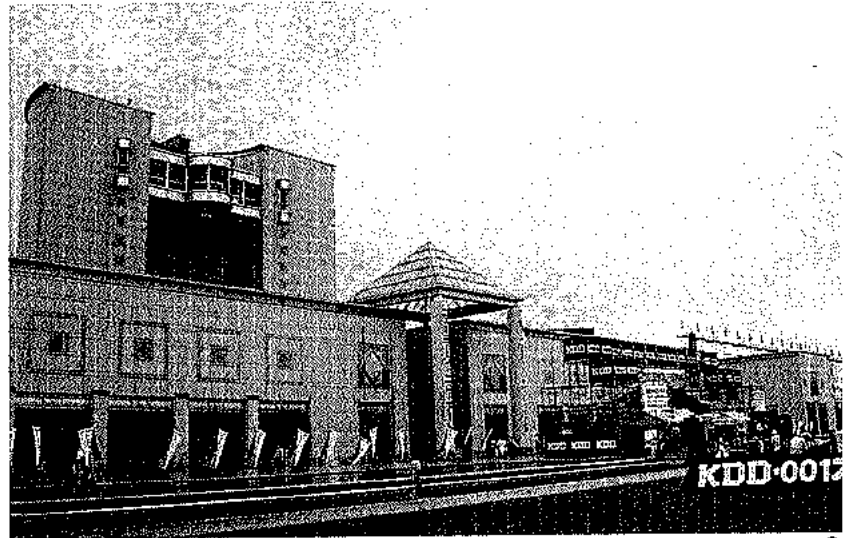
이 「그랜드 갤러리」의 상부는 전시실로 사용하고 하부는 영상정보센터, 뮤지엄 숏, 회의실, 강의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전시공간은 좌우측 공간의 특성을 명확히 인지시키기 위하여 우측에는 정방형평면의 기획전시실, 좌측에는 원형 평면의 상설전시실을 배치하여 전시공간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요코하마 미술관의 전시실의 특징 중의 하나는 3층의 타워부 공간에 위치한 사진전시장이라고 생각되었다.

일반적으로 미술관의 경우, 전시품으로 사진의 비중을 낮게 평가하는데 비해 요코하마 미술관에서는 별도의 전시실과 초기의 사진가들을 같이 전시해 특성화시키려고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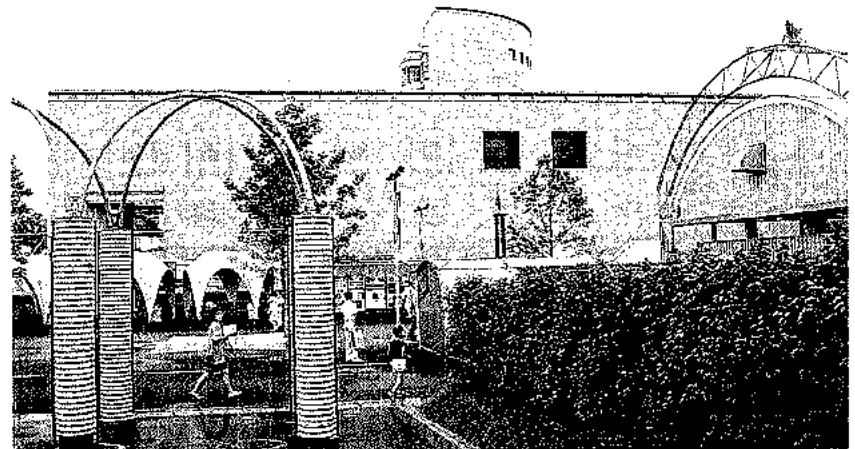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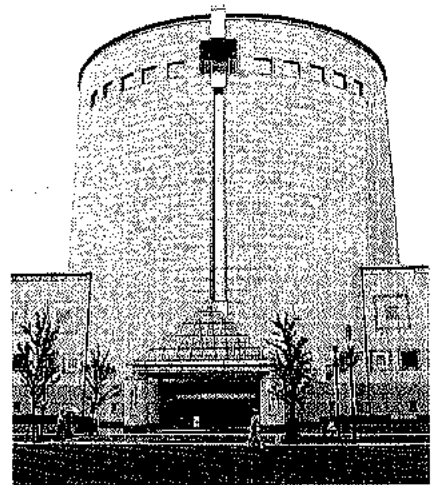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이 미술관은 미술관동과 좌우측 날개동 사이에 중정을 설치해 분절시키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측날개동은 시민을 위한 아트리에동으로, 좌측날개동은 도서관과 레스토랑동으로 기능상 성격을 구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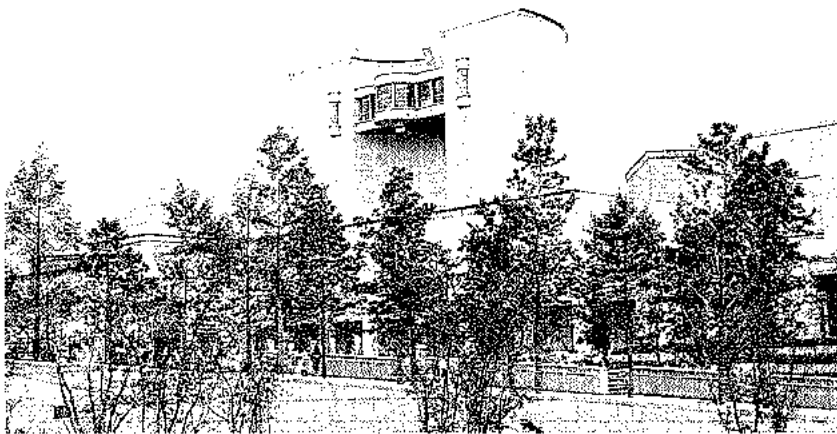
이것은 구상단계에서부터 요코하마시측이 제안한 “관람한다, 창조한다, 배운다.”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건축적 실체로 해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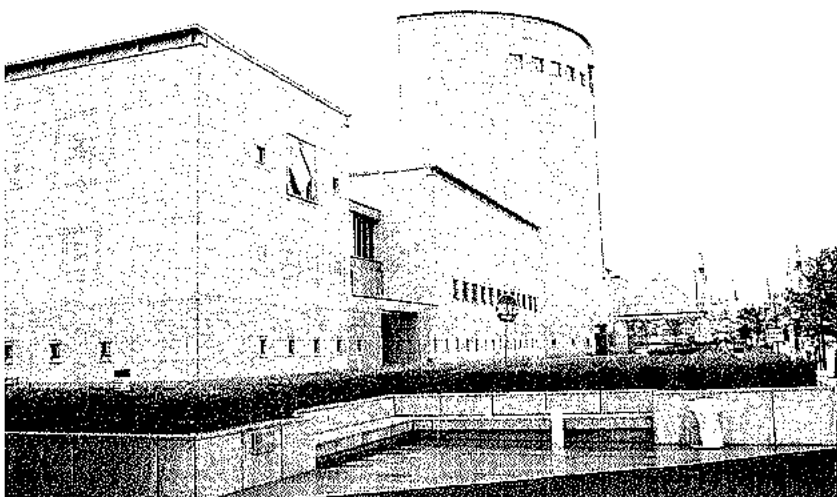
- ① 미술관 전경
- ② 동대형 이미지의 타워부 수장고, 전망대, 공조기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③ 측면에서 바라본 전경
- ④ 박람회 당시 정원측에서 바라본 요코하마시 미술관
- ⑤ 히테아마 예술공원 마스터 플랜
- ⑥ 후면에서 본 전경

후면 출입구는 주차장으로 진입토록 계획 되어 있다.





1. 벽천
2. 월터
3. 도서관
4. 히로시마시 현대미술관
5. 조각광장
6. 조각의 숲
7. 야외 스테이지
8. 박물관



이 요코하마 미술관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페이스 프레임 사이로 자연광이 2층까지 오픈된 공간을 꽉 채워 밝은 실내를 연출하고 있는 「그랜드 갤러리」로, 만약 이 2층에 위치한 「그랜드 갤러리」에서 퍼포먼스 등이 행해지면 3층의 난간에서 관람객들이 바라보는 장면은 장관일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즉 이 공간은 다목적의 성격도 갖추고 있으면서 시민에게 「개방된 미술관」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우측날개동인 시민을 위한 아트라에동을 방문하였을 때, 아동들이나 시민들이 실제 작품을 만들고,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미술관이란 단순히 예술작품의 관람이나 감상만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여 창조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개방된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천에 소개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입지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라는 시대에 있어 미술관의 기능은 가끔 데이트할 때 연인과 방문한다든지 하는 비일상적 공간이 아닌 시민들과 호흡하는 개방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서구의 경우, 관람료도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도심지에 위치한 미술관을 하나의 일상적 공간으로 호흡하고 있던 사례들은 인상적이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허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역사적 건축물들의 실내외공간을 리노베이션하여 특수한 성격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전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항상 반만년 역사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이지만 역사나 예술을 숨릴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대규모의 미술관 건축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요코하마 미술관은 박물관 폐회후 「미래향구 21」지구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 새로운 문화적 명소로 등장할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 미술관을 떠났다.

註)

1) “현대의 박물관건축에 관한 계획학적 연구” 서상우(홍익대 박사논문 1988.6), p.49-50

2) “京都 國立近代美術館” 横文彦(新建築 1987.1)p.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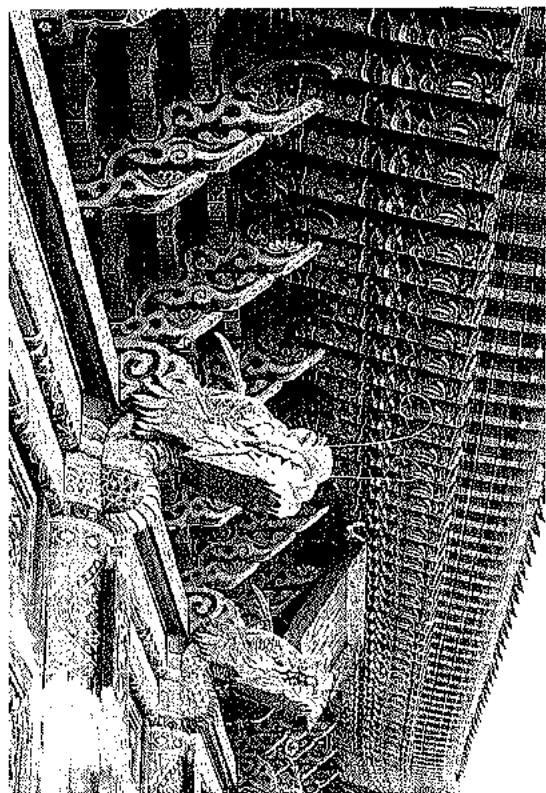
3) “ヒロシマ・アクトropolis(Hiroshima Acropolis)” Charles Jencks(SD 1988.6), p.10

4) “横浜美術館” 龜封 川淑郎(新建築 1989.7), p.235

朝鮮시대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張慶浩/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8. 조선의 불교건축

고려말 불교의 병폐가 극도로 심하여 국가의 재정을 비롯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게 됨을 깨닫게 된 유학자들은 조선이란 새나라를 건국함을 기화로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는 기풍을 진작하여 이를 숭상하게 되었다. 즉 威化島回軍 이후 李成桂가 실권을 잡게되자 鄭道은 불교자체가 ‘滅倫害國의道’라 하여 斥佛論을 일으켜 유교세력 중심의 정치문화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태조는 국가의 제도로써 승려와 사찰의 증가를 억제하도록 하였고 불교세력의 확대를 금하였다. 그러나 그는 원래 고려말 懶翁선사의 영향을 받은 바도 있고 또 無學大使인 自超와는 가깝게 지내어 등극후에 王后로 삼아 건국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1397년에는 神德王侯 康씨를 위하여 興天寺를 세워서 후에 이곳이 조계선종의 본사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태조는 정책은 유교중심 정책을 따르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불교의 인연을 끊지 못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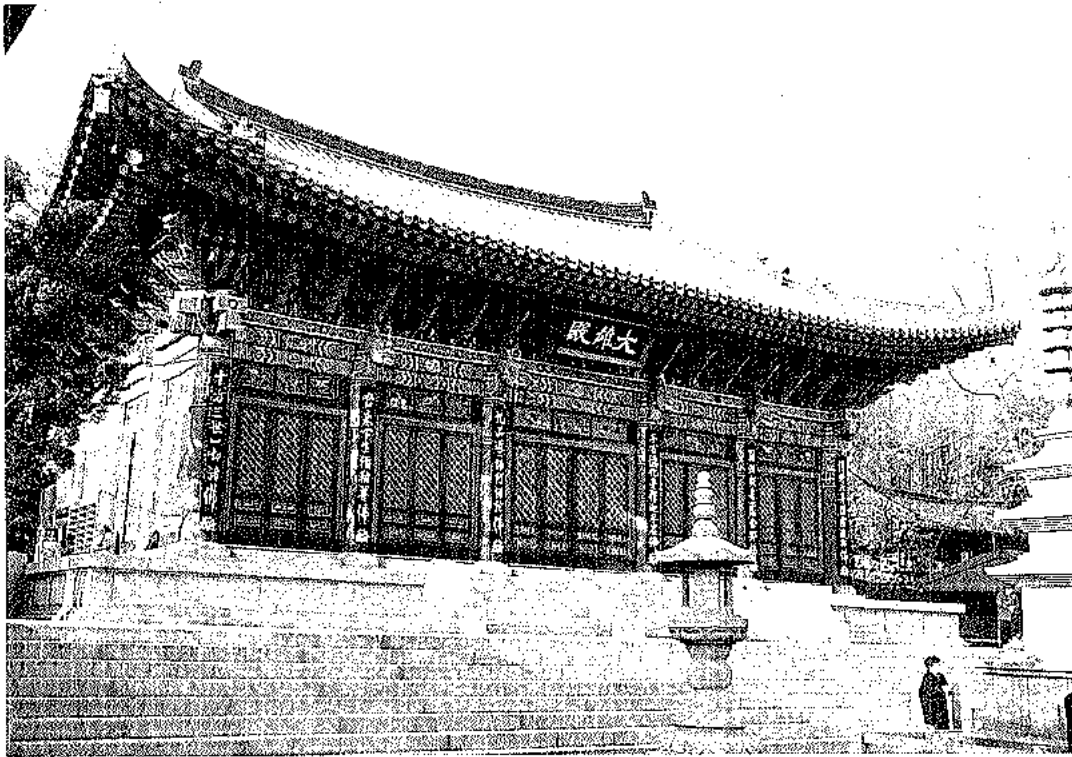
그러나 태종대에 들어와서 불교의 배척은 점차 심하여 國師나 왕사의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에 242寺만을 남겨두고 그 이외의 사원을 철폐하였으며 아울러 이 폐사의 토지와 노비를 모두 몰수하였다. 세종때에는 불교의 7교과를 통합하여 禪宗(曹溪·天台·總南을 통합)과

敎宗(華嚴·慈恩·中神·始興)으로하여 禪·敎 양종으로 줄이고 흥천사와 흥덕사를 각각 선·교의大本사로 삼고 각지에 본산 36사만을 인정하는 일대 정리를 가하였다. 그러나 세종 역시 말년에는 내불당을 두고 불경을 읽기도 하는 등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 본래 불교를 독실히 믿어오던 세조는 배불정책을 외면하고 불교의 부흥에 노력하였다. 그는 ‘석씨의道는 공자의 도보다 나아 하늘과 땅과 같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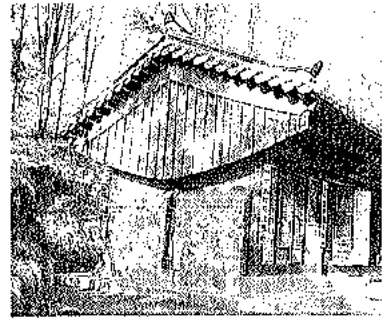
세조는 세종때에 지은「釋譜詳節」과 불덕을 찬양한「月印下江之曲」을 합본하여「月印釋譜」라고 하였고 특히 국역으로 된 불전을 만들어 불교의 새로운 길을 밝히었다. 또 태조가 창건하였던 興福寺터(지금 종로 파고다공원)에다 1464년 大圓覺寺를 창건하고 큰 가람에다 큰 불상과 종을 만들고 3년후에 다층탑(13층탑)을 완성하였다. 또 해인사, 상원사, 월정사, 정학사, 회암사, 도감사, 신록사, 쌍봉사 등을 중수 또는 보수하고 속리산 복천사와 오대산 금강산의 諸寺와 양양의 낙산사 등 명찰을 찾아 공양하는 등 조선시대에 불교의 중흥을 가장 성행시키려던 시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종은 다시 억불정책을 써서 사찰의 건립과 승려가 되는 길을 제도적으로 막아 승려가 격감하였다. 또 연산군때는 원각사와 흥천사, 흥덕사마저 폐하고 고려 이래의 僧科를 정지하였다.

그뒤 명종조에 들어서서 중종의 妃인 문종왕후가



- ① 봉은사 대웅전 전면공포
- ② 전경
- ③ 영산전 전경
- ④ 기림 배치 평면도
- ⑤ 용주사가림배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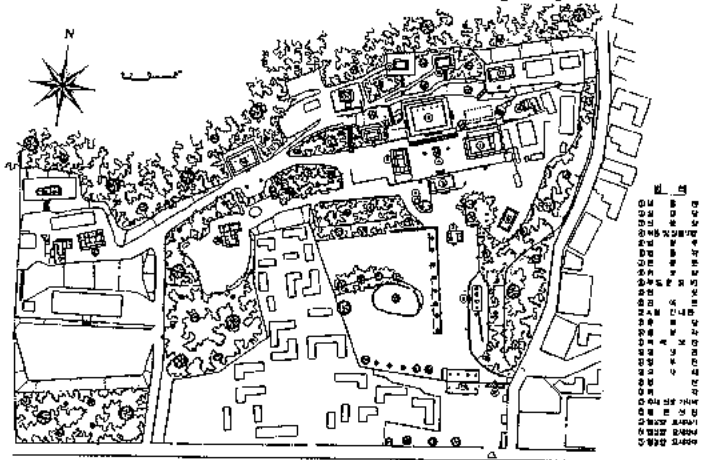
섭정을 하면서 명승인 百潭寺의 普雨를 불러들여 승과를 부활하고 불교를 장려하게 되니 불교계는 다시 생기를 띄게 되었다. 이때 奉恩寺를 신종의 본산으로, 봉선사를 교종의 본산으로 선·교 양종을 두었다. 그러나 문종왕후가 죽은 뒤 승과와 나라에서 인정하던 度牒제도 폐지가 되고 불교는 또다시 냉대를 받게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休靜(시산대사), 惟政(泗冥堂) 등이 승병을 일으켜 국란극복에 투신하여 크게 공헌한 바 있고 이때 불교는 휴정의 문종으로 합치게 되고 禪·敎의 대립이 조계종으로 일원화된 것도 그의 영향이라 할 것이다. 또 그는 염불을 선과 통하는 길이라 하여 염불을 장려하여 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렇게 승병들이 임진왜란때 공을 세운 것은 당파싸움에 휘말려 세상을 어지럽히던 유신들에게는 하나의 경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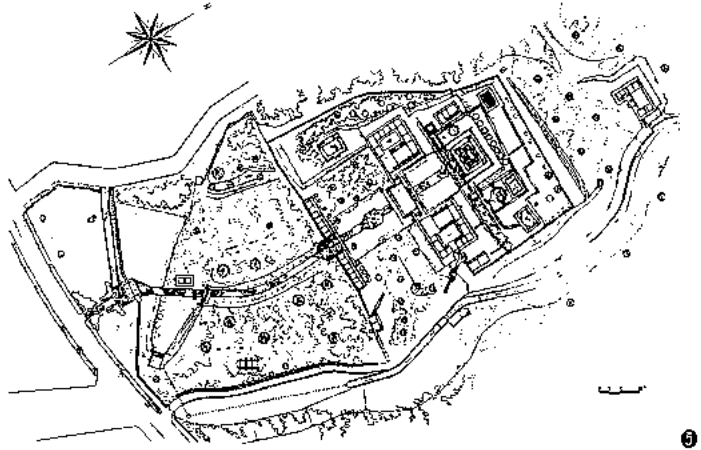
이때를 계기로 조선말에는 禪修, 講學, 念佛의 삼문으로 나누어 坐禪堂, 講堂, 念佛堂을 두게 되고 불교의 대중화가 성행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미륵신앙이 두드러지게 성행하기도 하여 소위 萬日會를 갖고 南無阿彌陀佛을 만 번씩 염불하는 회를 건봉사와 망월사 등에서 거행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불교는 많은 시련과 학대를 받았지만 그 내면적 혹은 개인적으로는 이를



1	대웅전
2	영산전
3	기림배치
4	용주사가림배치
5	전경
6	영산전 전경
7	기림배치 평면도
8	용주사가림배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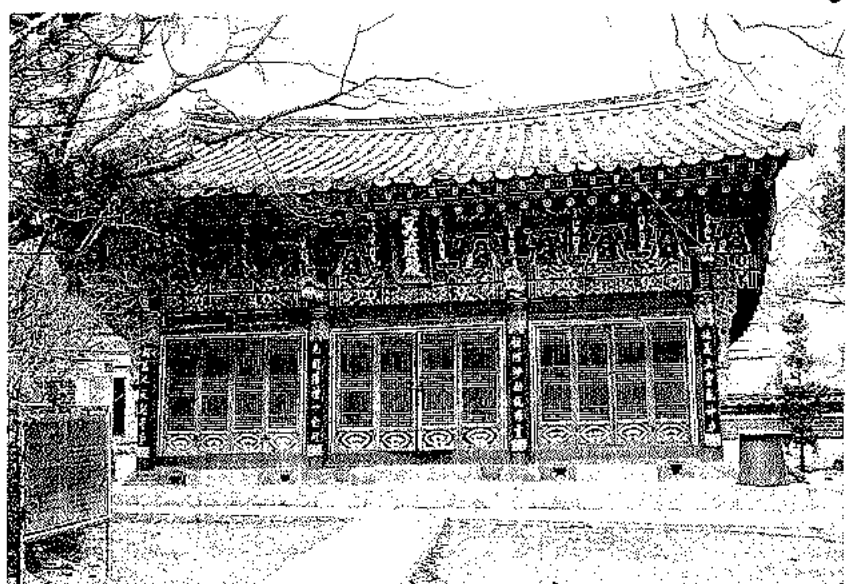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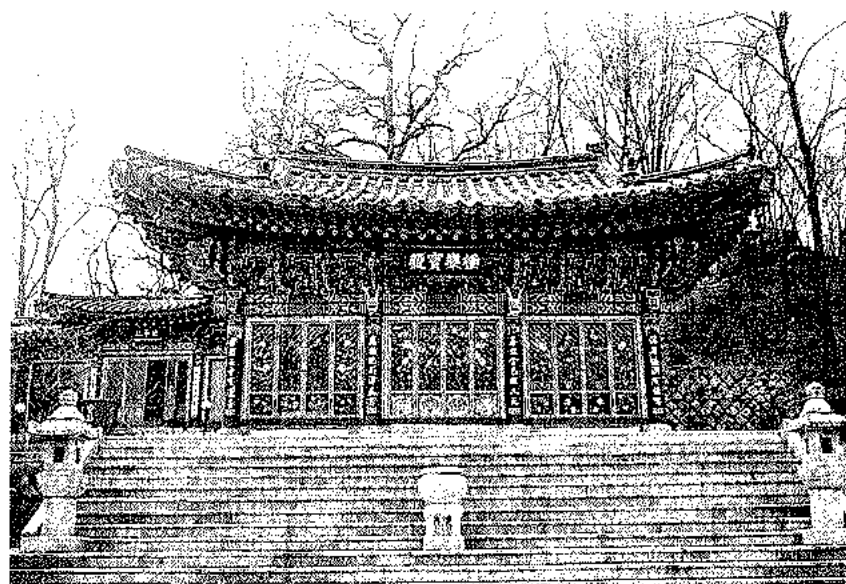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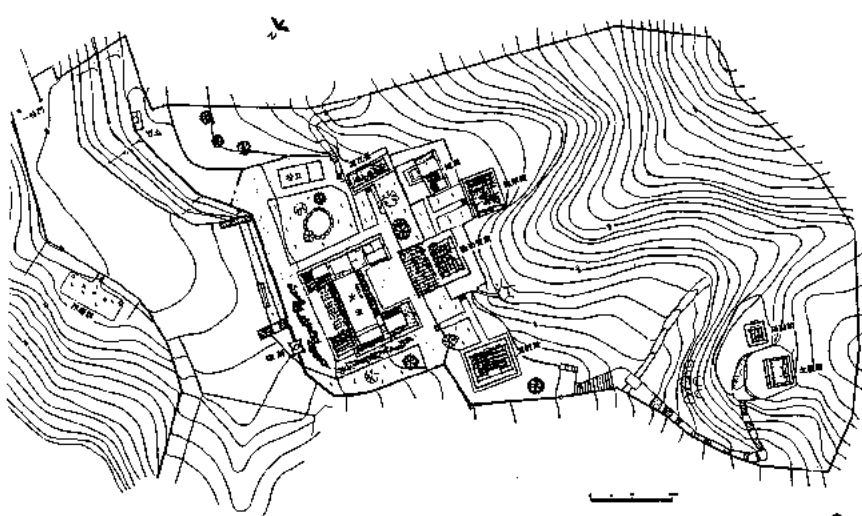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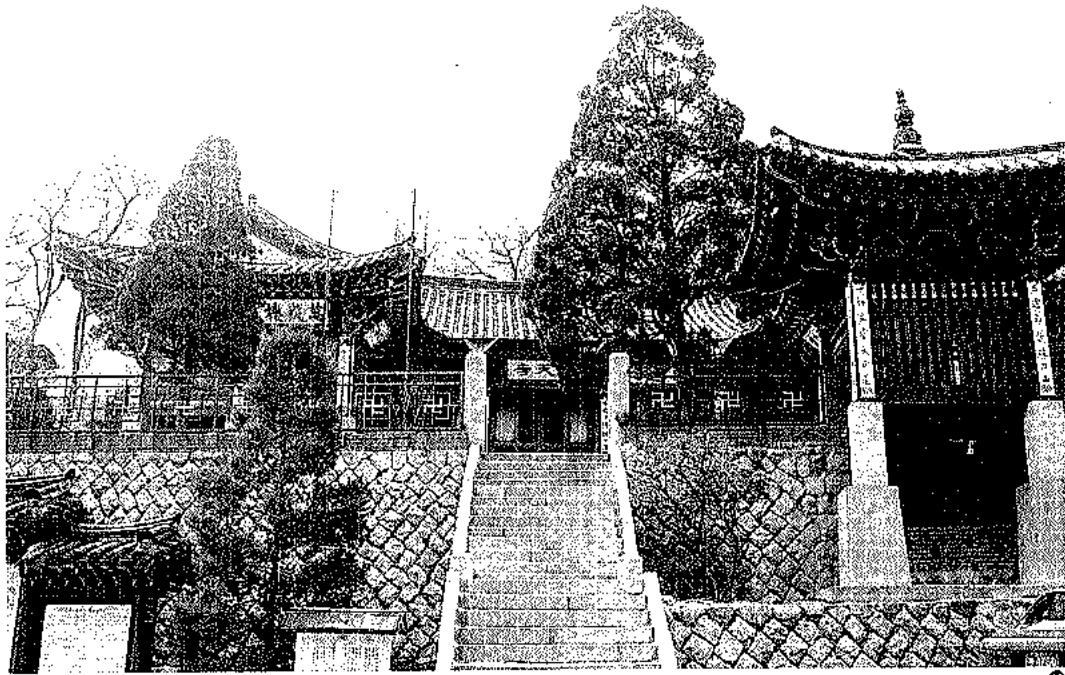
신봉하던 군신과 왕가의 가족들이 있어 불교의 명맥을 이어오는데 크게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고 믿어진다. 특히 조선후기 18세기말 정조는 비명으로 살해된 그의 망부(사도세자)를 위하여 수원에다 거대한 규모의 願刹을 창건하였음은 그 좋은 예이고 이렇게 왕가뿐만이 아니고 일반 백성에게까지 은밀한 신봉이 있었다고 믿어지는데 이것은 조선시대 산지가람의 사찰의 役事를 보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伽藍은 흥천사나 홍복사 또는 원각사와 같이 평지가람을 이루는 사찰도 있지만 그보다도 불교의 확대를 위하여 산골로 옮겨가는 산지가람이 더 많았다. 세조가 1462년 용문산 상원사에 행차할 때 觀音現相 사적을 기록한 「觀音現相記」가 전해지는데 당시 上院寺의 가람을 보면 산계곡 사이에 사찰건물들을 배치하여 그림으로 표현하여 집의 형태까지 알아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림으로 보면 앞에 높은 축대 위에 문으로 오르는 계단이 높이고 그 뒤에는 남회랑(남향을 한 가람으로 추정)과 같이 동서로 뻗은 건물과 그 양변 동·서에서 북쪽으로 뻗은 건물이 동쪽과 서쪽을 막아 그 사이에 안뜰을 이루게 하고 안뜰에는 단층과 2층의 불당이 배치되어 2층 불당 바로 옆에는 석탑이 높이고 서쪽회랑 밖에는 부도가 보인다. 또 중층불당과 석탑 뒤쪽으로 정면 3칸의 작은 전각이 좌·우측에 앞을 보고 놓여 대웅전이 아닌 다른 불당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주위에 담장을 둘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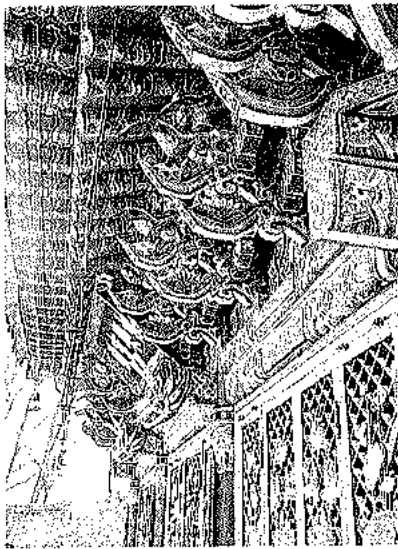
이 그림으로 보아서 이 사찰의 가람형식은 고대사찰 가람과 같이 남북축선을 따라 좌우 대칭의 규격화된 가람이 아니고 산지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자유로이 배치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자유로운 가람의 배치는 전술한 普雨僧이 중창한 서울의 봉은사와 춘천 청평사 등지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사찰은 조선시대에 건물을 중창하고 개조한 곳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 중요한 사찰을 들면 화순 쌍봉사, 예천 용문사, 부여 무량사, 강진 무위사, 안동 개목사, 부안 개암사, 하동 쌍계사, 양산 통도사, 보은 법주사, 김제 금산사, 구례 화엄사, 화성 용주사, 여주 신흥사, 논산 쌍계사,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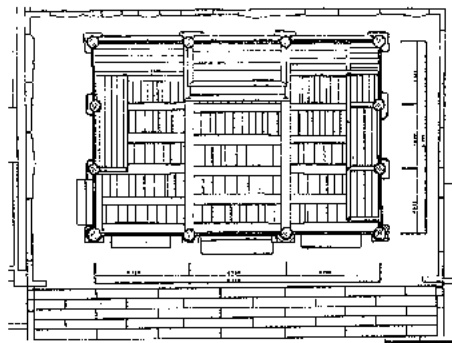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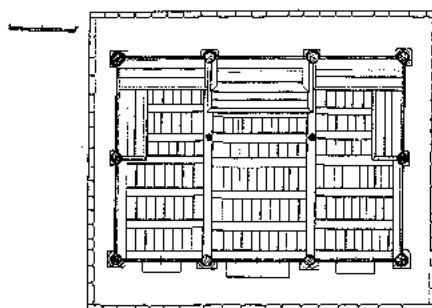
- ① 상원사 관음 현상도
- ② 홍천사가람배치 평면도
- ③ 극락보전 정면
- ④ 연부전 정면
- ⑤ 사찰 정면
- ⑥ 大房 측면
- ⑦ 극락보전 전면공포
- ⑧ 연부전 전면공포
- ⑨ 극락보전 평면도
- ⑩ 연부전 평면도
- ⑪ 내부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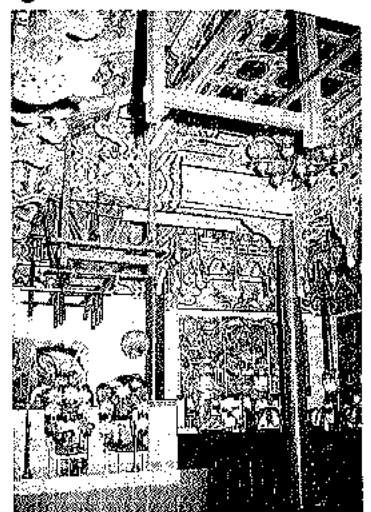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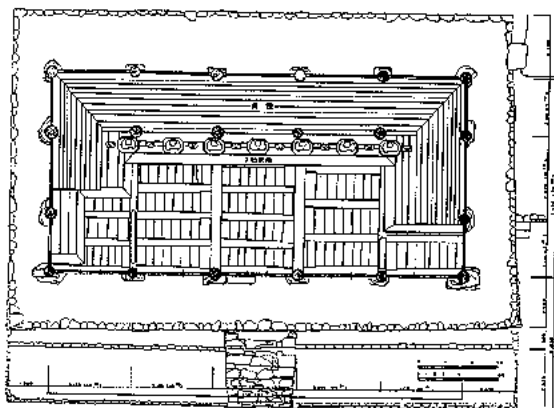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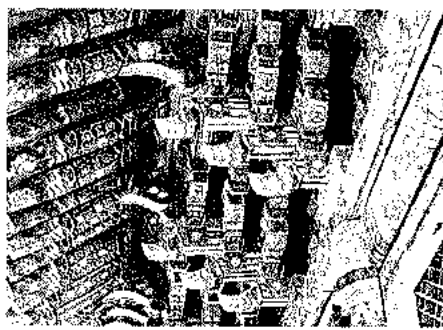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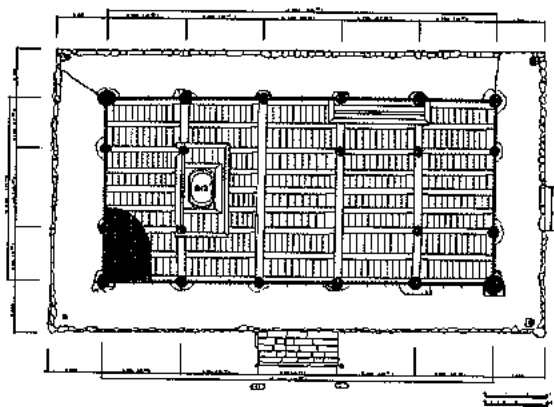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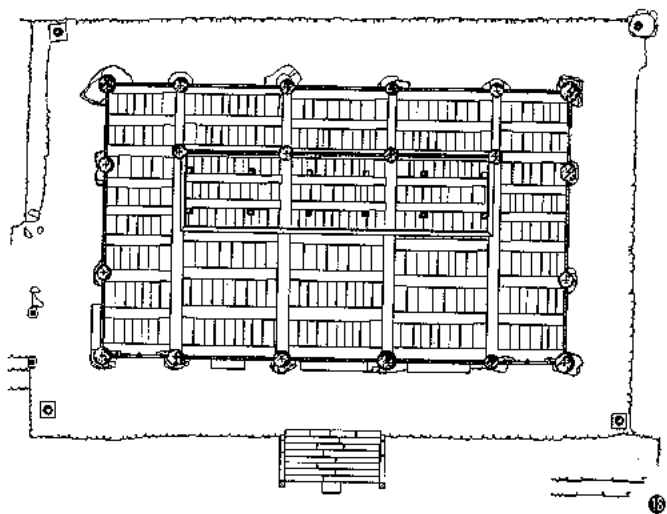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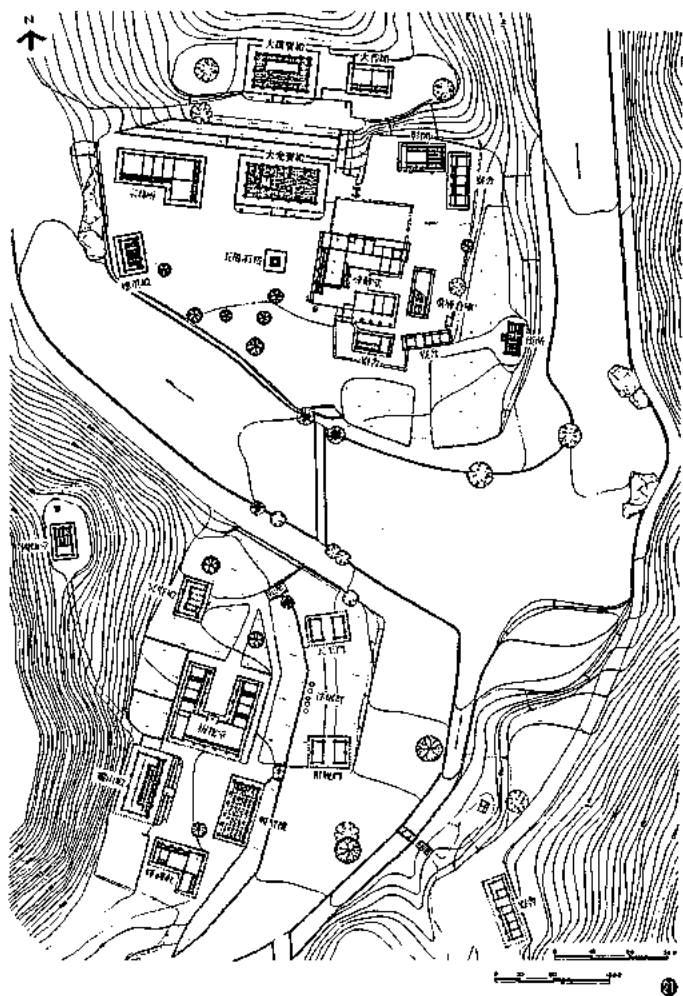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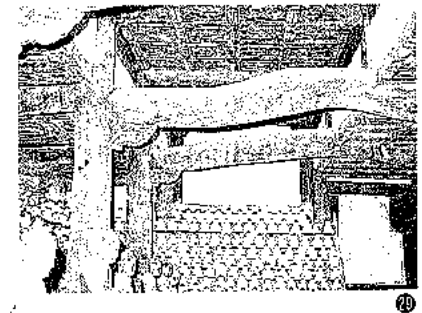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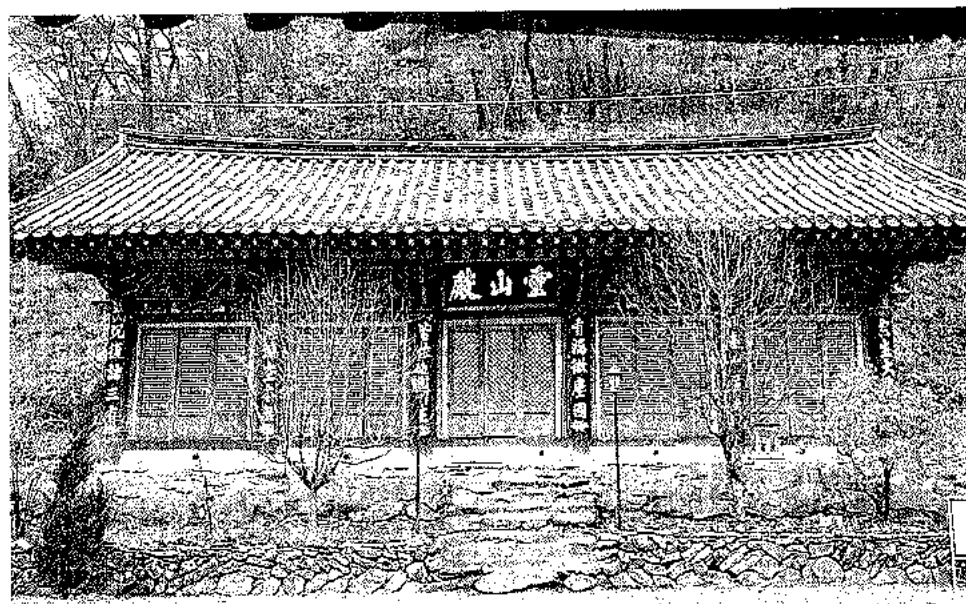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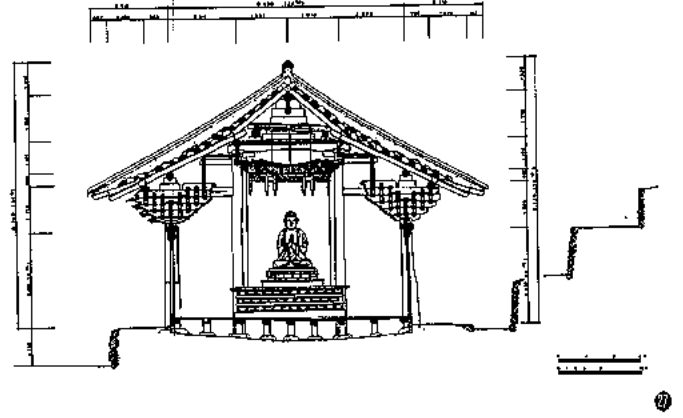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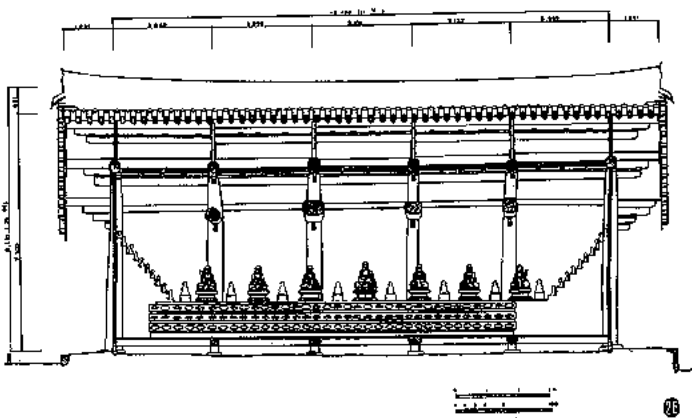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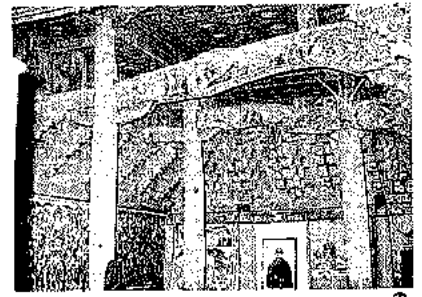


⑭



⑮





- ① 하동 쌍계사 대웅전 정면
- ② 평면도
- ③ 전면 공포
- ④ 내부
- ⑤ 마곡사 가람 배치 평면도
- ⑥ 대광보전 평면도
- ⑦ 영산전 평면도
- ⑧ 대광전 정면
- ⑨ 내부 가구
- ⑩ 종단면도
- ⑪ 영산전 횡단면도
- ⑫ 청면
- ⑬ 내부 가구

조선시대의 가람은 학자들에 의하여 그 위계와 종파계열로 분류되어 설명되기도 하여 혹자는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단의 배치로 보고 또 혹자는 종파에 따라 彌陀系, 彌勒系, 法華系 등으로 나누어 그 배치의 특성을 논하기도 하였다.¹⁾

조선시대 가람에 나타나는 건물들을 보면 대웅전·대웅보전·천왕문·금강문·일주문·극락전·미타전·무량수전·대적광전, 대광명전, 비로전·약사전·미륵전·용화전·보광전·원통전·팔상전·명부전·지장전·시왕전·문수전·칠성각·산신각·삼성각·독성각 등이 있다. 이들 건물의 성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大雄殿, 大雄寶殿

석가모니를 대웅세존²⁾이라 부르는데서 釋迦를 모시는 곳을 일컫는다. 보통은 협시불과 함께 三世佛을 모시어 과거, 현재, 미래불을 나타낸다. 즉 阿彌陀佛과 彌勒佛을 협시로 하고 화엄계에서는 문수, 보현보살을 협시불로 모시기도 하고, 또 아미타와 미륵불에 각기 보현·대세지·관음·문수를 협시로 하여 7불을 모시고 대웅보전이란 칭호를 건다.

極樂殿, 彌陀殿, 無量壽殿

주존으로 極樂淨土를 주관하는 아미타여래를 모신 불전이다. 협시불로서 대세지와 관세음보살을 또는 지장 및 관음보살을 모신다. 미타여래는 무량광불이라고도 하며 무량수불이라고도 부르므로 건물의 명칭도 이를 따를 때가 있다.

大寂光殿, 人光明殿, 毘盧殿

모든 부처의 근본으로 보는 毘盧舍那佛을 모신 곳이다. 화엄종에서는 비로자나, 로사나, 석가모니불을 각각 다른 3신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법신으로 본다. 그러나 종파에 따라서는 이들을 각기 모시는 곳도 있다.

藥師殿

세상의 병고를 없애준다는 藥師琉璃光如來를 모신 불전이다. 왼손에는 질병을 치유하는 약병을 들고 오른손은 손을 펴서 밝을 보도록 처든 施無畏印을 한다. 협시로서 日光과 月光보살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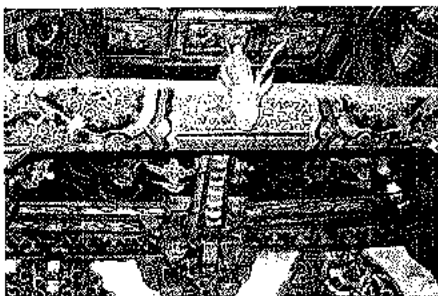
彌勒殿, 龍華殿

미래불인 미륵삼존을 모신 불전이다. 法起菩薩이 도솔천에서 공덕을 닦다 56억 7천만년후에 지상에 내려와 용화세계를 펼쳐 3회의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메시아적 사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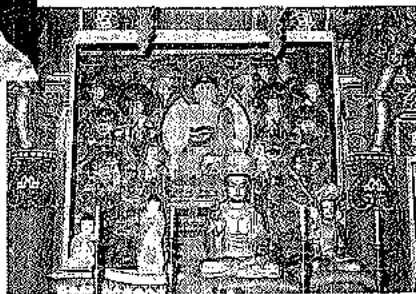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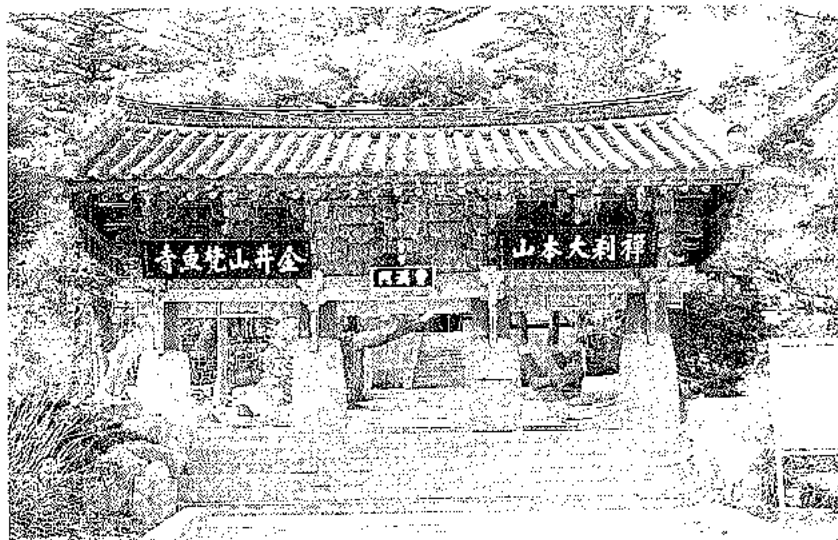
㉑



㉒ 전등사 藥師殿 내부가구
㉓ 개곡사 원통전 내부
㉔ 범어사 一柱門



㉕



㉖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이 비록사상이 구국의 신념으로 믿어진 것 같다.

圓通殿

중생의 業苦를 제도하는 觀世音菩薩을 주불로 모신 불전이다.

靈山殿, 羅漢殿, 應眞殿

석가의 실법장인 靈山會에서 유래된 불전으로 원래는 석가의 10대제자를 모신 불전인데 조선시대에는 16羅漢을 모시는 것이 보통이다. 나한은 석가멸에서 득도한 수도자중 최상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다.

八(捌)相殿

석가의 전생에서 열반까지의 일대기를 여덟 장면으로 표시한 것을 八相成道라고 하는데 이 그림을 모시고 석가모니를 받드는 불전을 팔상전이라 한다.

冥府殿, 地藏殿, 十王殿

명부란 閻羅府 또는 地府라고도 하는데 죽은 후의 세계 즉 閻魔王이 있는 곳이다. 사람이 죽어서 이곳에서 10대왕의 심판을 받아 극락과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 명부의 중생을 제도하는 지장보살과 명부시왕을 모신 불전이다.

天王門, 金剛門, 一柱門

須彌山 중턱에서 4州를 수호하는 신으로 사천왕을 모신 절의 정문을 사천왕문이라 하며 금강杵를 들고 불법을 수호하는 金剛力士像을 모신 문을 금강문이라 한다. 일주문은 사찰의 경역을 나타내는 문으로서 문의 기둥 2개만을 세워 그위에 기와지붕을 올린 문이다. 특히 조선시대에 많이 세웠던 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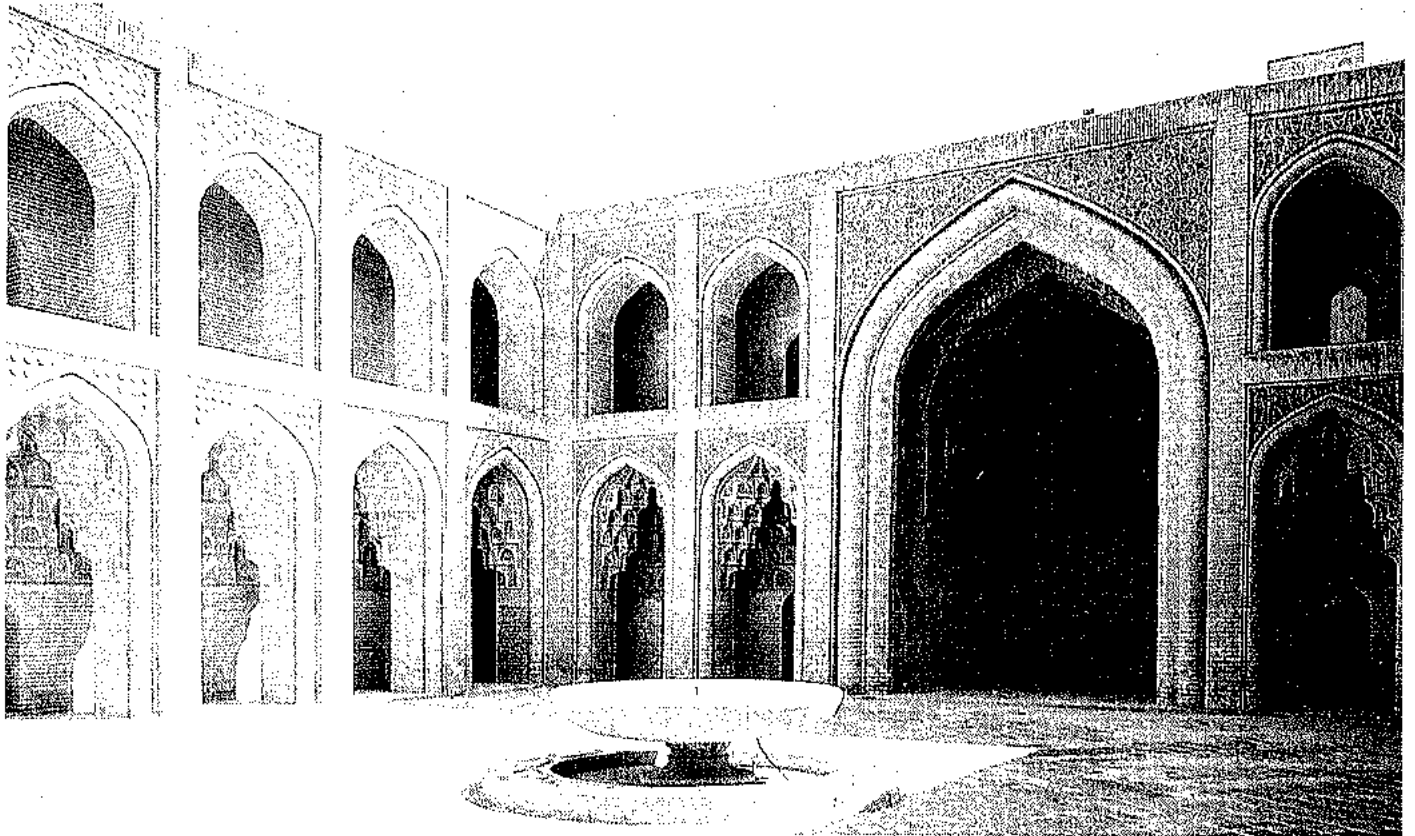
이상의 불전 이외에 우리나라 토속적인 신앙에서 가해진 불전인 칠성각, 산신각 등이 있다.

註)

1. 金奉烈, 「朝鮮和時代 寺刹建築의 殿閣構成과 配置形式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2. 「法華經」卷三 授記品 “大雄孟世尊…”

메소포타미아 건축순례 (6)

Tour of Mesopotamia Architecture



1

ABBASID 궁전

지금 이라크 전역은 걸프전쟁의 여파로 인한 파괴의 불길이 휩쓸고, 전세계 매스컴의 추적을 받고 있다.

오늘날의 이라크지역은 인류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화려한 꽃을 피웠던 인류문명의 보고이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의 두 강을 중심으로 에텐의 동산, 노아의 방주, 바벨탑 등 구약성서 속의 이야기와 아리바안나이트의 무대인 이라크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무궁무진한 문화 유적지들이 1만여곳이 넘게 산재하고 있는 곳이다.

그외에도 세계 7대 불가사의인 공중정원, 바빌론과 사마라, 이슬람문화의 상징인 황금사원, 최초의 대학, 바그다드 박물관 등 인류문명의 보고로 보존되어야 할 건물들이 수없이 많아, 바그다드 전체 아니 이라크전역이 하나의 박물관이나 다름없는 곳이지만 오늘날의 걸프전쟁으로 보호되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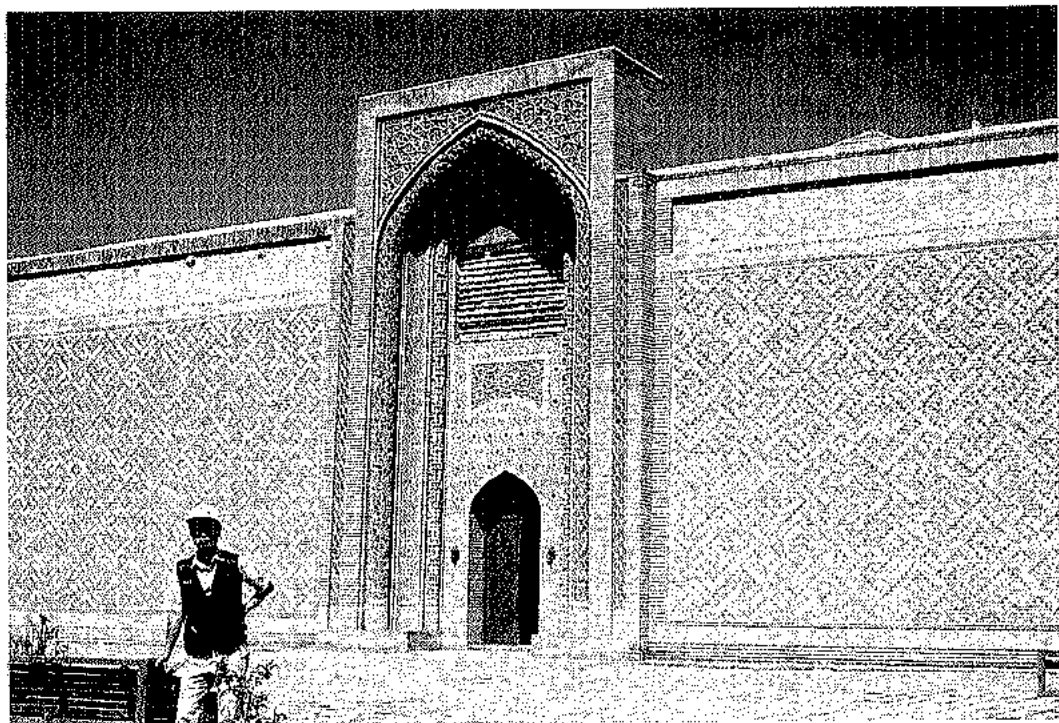
이러한 건축문화가 파괴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번에 소개하려는 압바시드 궁전은 현재까지 사용하던 국방부청사 건물과 한 궁내의 인접하고 있는 건물로서 국방부청사 폭격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폭격의 진동이 수 km에 달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니 그 충격과 진동은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리라 우려되며, 이러한 값진 인류문명의 유산이 파괴된다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건물은 아직 우리나라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어느 유명건축물에 못지 않은 훌륭한 건축물로서 메소포타미아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화려하고 정교한 벽돌조각조 건축이다.

제24회 서울올림픽이 한창이던 88년 9월에 세계 각국이 참가하는 바빌론 페스티발에 이라크정부의

裴元泰
韓美건축구조연구소장
by Bae, Won-Tae



초청의 영광이 필자에게 주어져 6년만에 바그다드를 다시 찾게된 기회가 되었다.

수많은 유적지와 무궁무진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자취 중에서도 이 Abbasid Palace 만은 행사 일정에서 별도의 시간을 내어 혼자 찾아 갔었다.

이 건물은 바그다드의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찾기가 쉽지 않는 묘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서 찾는데 무척 애를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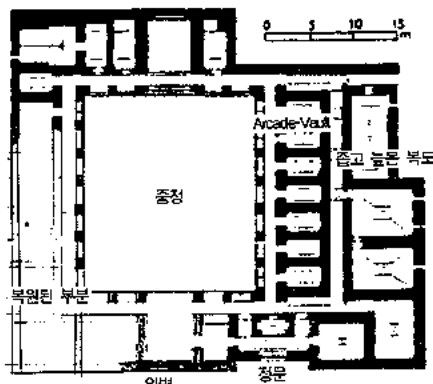
분명히 위치를 알고 있었던 곳인데 이 건물의 근처까지 와서도 못찾고, 헤메다 보니 무더운 날씨에 지쳐 버렸다. 과거 필자가 바그다드에 상주 근무할 때에 이 건물을 한번 찾아 보았는데 그때는 당시에 찍은 사진 상태도 충분치 못하였으므로 이번에 이 건물만은 꼭 다시 찾아가 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기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찾아서 들어갔다.

이 압바시드궁은 현재 이라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방부로 쓰고 있는 궁의 경내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지만 옛오트만 제국때의 화려한 궁전으로서 특별히 유지 관리해 오고 있는 건물이므로 찾아보기 어려운 건물이다.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이번에 찾아 갔을 때도 이 건물을 찾아오는 사람은 필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면 관리 사무실이 예나 다름없이 있고 관리인이 매일 상주하고 있다. 찾아오는 필자를 보고 오히려 관리인이 뜻밖이라는 표정이다.

바그다드의 古代도시의 전통적인 옛 거리인 알



라시드 거리의 복잡한 시장과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곳은 심심산천의 절간보다 더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한적한 곳이다.

그렇기때문에 더욱 나혼자만이 알고 있고 나혼자만이 사랑하는 건물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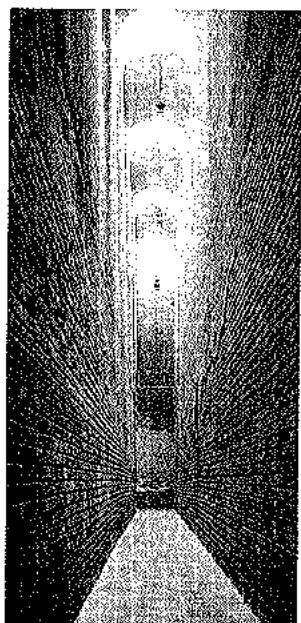
곳곳을 탐험리며 살피며, 분주히 사진찍고 돌아보는 필자가 이상한듯 이곳의 관리인은 가끔씩 뒤따라와 지켜보았다.

이 건물의 건설연대는 Abbasid Al-Nasir Lidinill-ah 시대인 A.D. 1179~1225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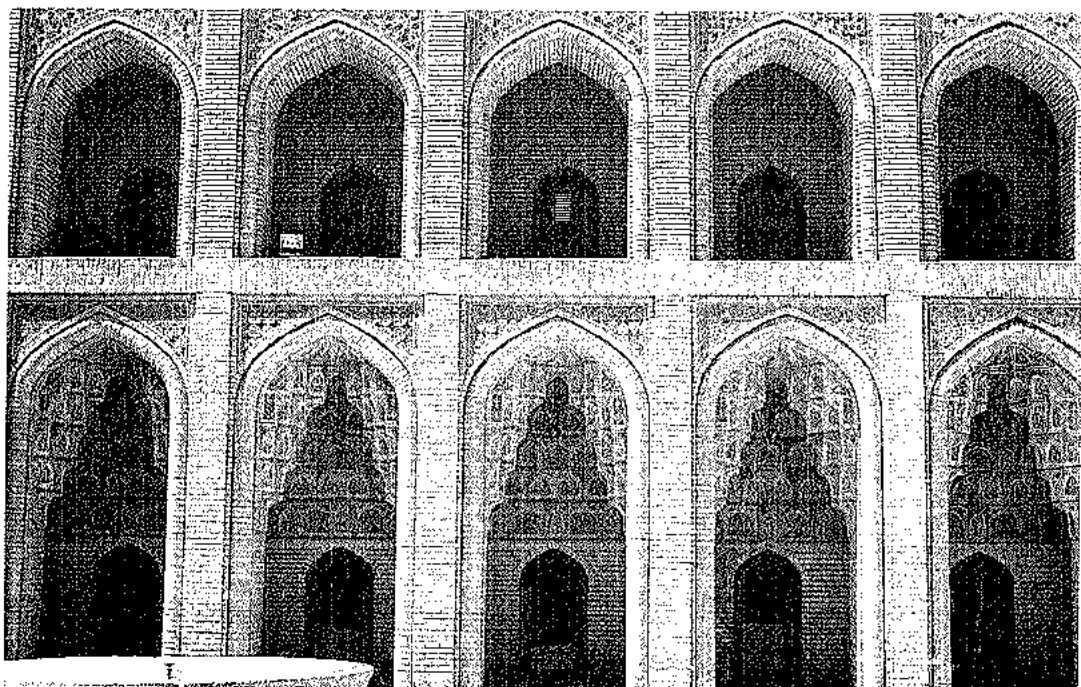
이 건물은 특별히 보호되어 보존되고 있으므로 근 8백여년 동안의 세월에도 복잡하고 정교하고 화려한 원형의 벽돌구조 그대로 간직되어 오고 있으며 바그다드에 현존하는 고대 이슬람 건축의 대표적인, 유니크한 건축의 표본이 되고 있다.

평면도에 나타나 있는 평면은 건설당시 원형

- ① 중정에서 본 Arch와 Vault
흑벽돌로만 지어진 건물로서
8백여년동안 퇴색되지 않는
아름답고 정교한 모습이다.
- ② 압바시드 궁의 정면외벽
외벽은 높은 벽의 무량으로
막혀져 있으며, 이렇다한
문양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우리의 전통 문양과 흡사하다.
- ③ 중정에서 본 Arcade 열주 상세
- ④ 평면도



6



6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있는 부분이며 평면의 왼쪽에 나타나지 않은 곳은 현재 복원되어져 있다.

이 건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8백여년 전에 2층의 바닥판까지 순전히 흙벽돌로만 지어진 건물로서 지금도 이 건물이 주는 인상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마치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과도 같이 싱싱하고 튼튼하고 힘찬 아치와 아름답고 정교한 모습은 짙은 화장도 전혀 하지 않고 꾸미지도 않았어도 항상 아름다운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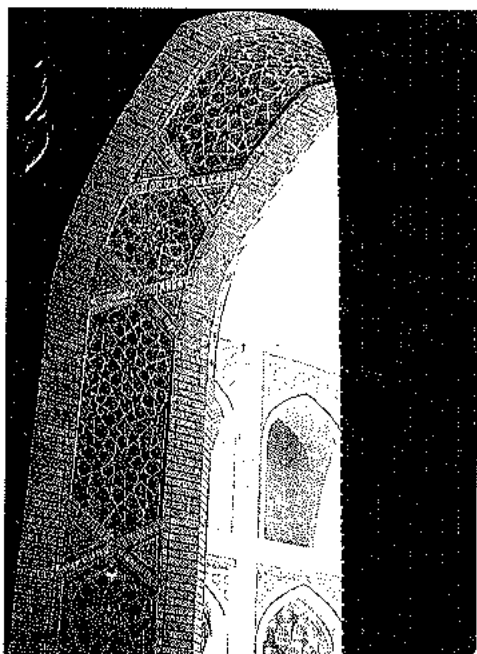
지닌 사람과도 같다.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별도로 꾸미거나 치장을 하거나 별도의 외·내장 마감재 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외벽이나 내벽, 바닥이나 천장 모두가 흙벽돌로서 벽돌 그 자체가 외장재이기도 하며 구조체이므로 오랜 세월의 비바람에도 그 아름다움은 그 견고함과 같이 변치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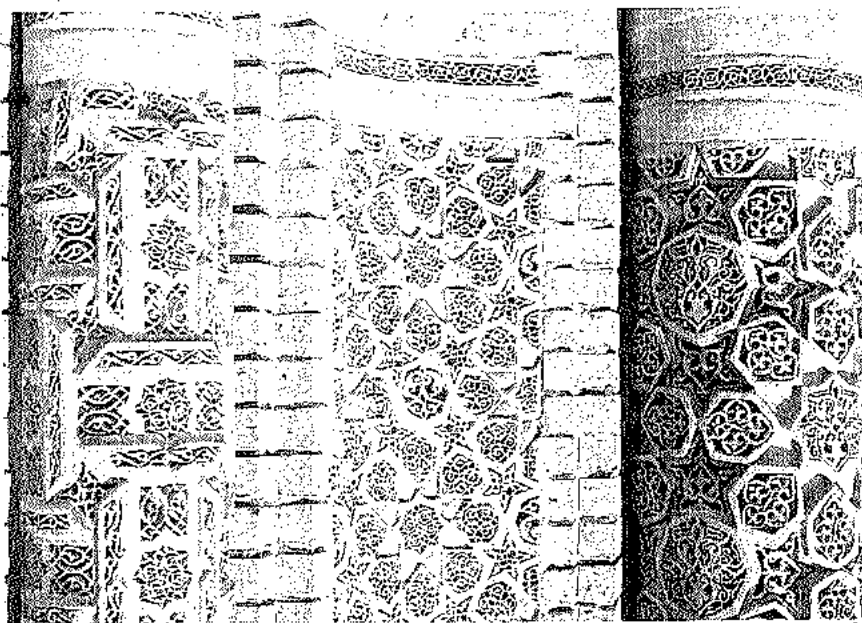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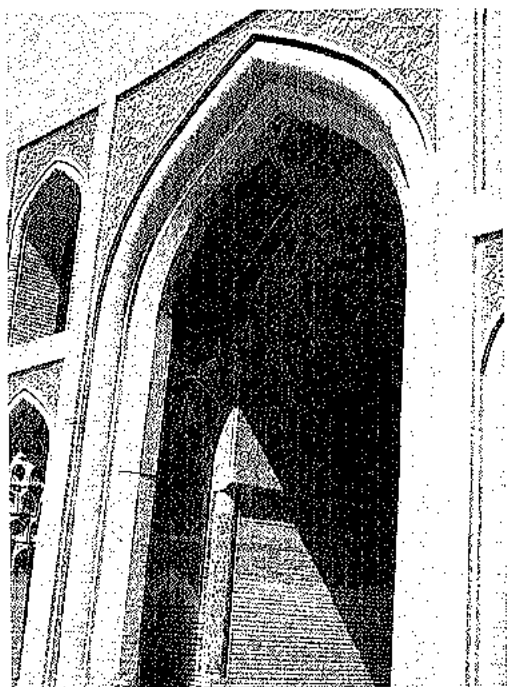
건물의 주출입의 외벽은 높은 벽으로서 무창으로 막혀져 있는데 이 높은 무창의 벽돌벽은 자칫하면 감옥소의 벽처럼 삭막하고 단절되기 쉬우나 이 건물의 벽은 우리나라 조선조의 문양과 같은 친근감이 나는 문양으로 되어 있으며 뜨거운 햇볕을 차단하는 자연 환경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입구는 높은 아치하나가 가운데 우뚝 솟아 정문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문의 크기는 지나치게 위엄을 주는 과장된 크기의 통상적인 궁전의 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크기로서 사람의 출입이 적당한 스케일의 문이다. 건물내부의 각종 스케일도 Human Scale 에 근거를 둔 크기임을 볼 수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바로 실내가 되며 진입이 왼쪽으로 한번 꺾여서는 큰 Vault 아래에 서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정이 눈앞에 전개된다.

그자형 중정 쪽을 향하여 사방에 아름다운 열주와 아치가 둘러싸여 있다. 또한 갖가지 크기와 폭의 아치가 배열되어 있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아치나 기둥이 배열 되다가는 때에 따라서 똑같은 입면에서도 간격이 달라 좁아지기도 한다. 똑같은 입면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를 모듈이라는 치수로



7



여지로 맞추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입면이 완전히 정리된 대단히 규칙적인 가지런한 아치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며, 현대의 건축은 대다수 똑같은 크기의 창이 일정한 간격으로 획일적인 입면을 구성하는데 반해 그 아치가 무척 자유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획일적인 것은 조화라고 할 수 없다. 규율이 있는 질서는 획일적이지 아니며 그 진정한 질서라는 것은 강요된, 조직적인 질서나 정돈이 아니라, 자유스러움 속에 질서와 조화가 형성되고 정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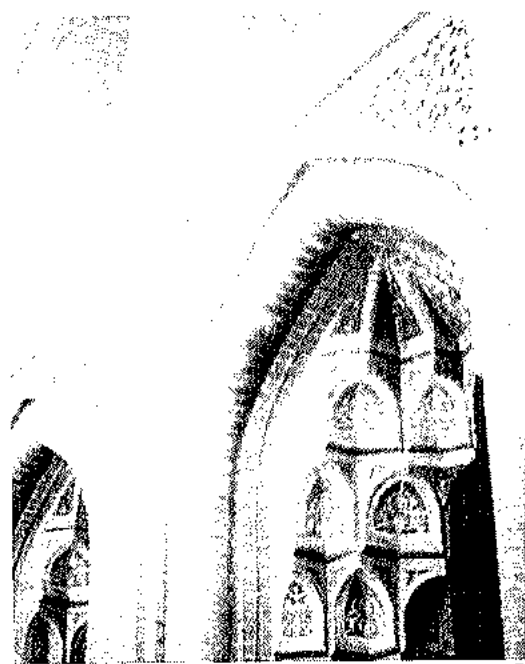
이러한 순수한 벽돌 조적조 건축은 구조에서 마감까지 엄격한 모듈과 치수가 맞아 들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물인 것이다.

선에도 굽기와 두께가 있다. 큰 아치의 테두리선인 Heavy Twist Moulding 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순수한 조적조 건축만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조화의 선이다.

모든 아치 상부의 벽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벽면의 문양이 각 아치상부마다 각각 다르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이 문양은 벽돌 벽면 위에 별도로 붙여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벽돌을 만들때 부각된 자체의 문양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양이 별도로 변질되지도 않으며 떨어져 나가지도 않는다.

아래층의 아치와 2층의 아치도 유심히 보면 다르다. 기둥의 선도 1층과 2층이 수직으로 곧게 뻗어 올라간 것으로 보이나 아래층의 기둥이 Moulding 으로 인하여 그 단면적이 2층보다 크다. 그 이유는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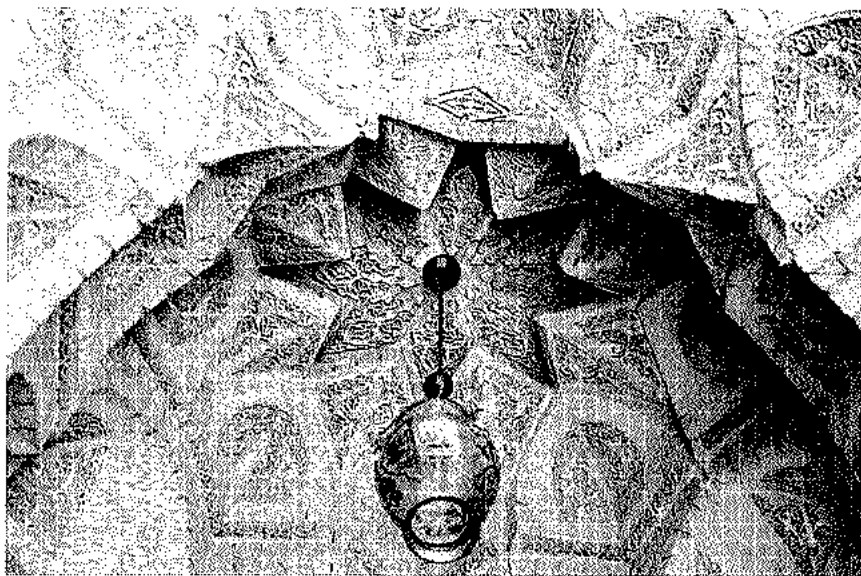


기둥으로서 2층을 받치기 위해서는 아래층 기둥이 더 커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디자인을 위해서, 모양을 위해서 늘이지도 줄이지도, 일부러 맞추지도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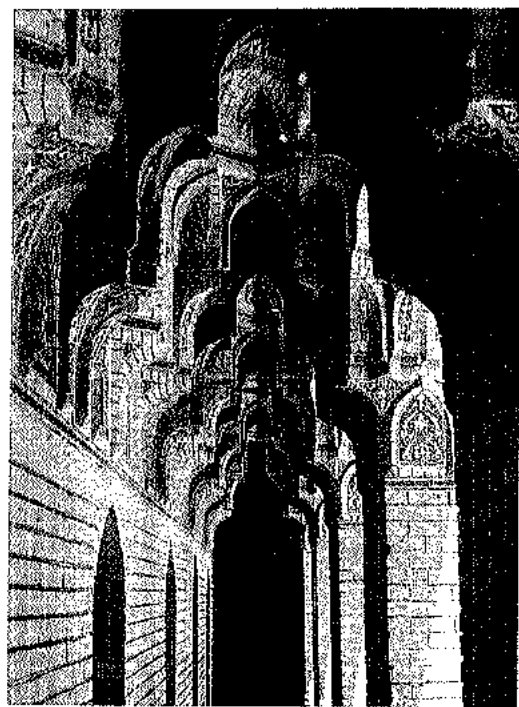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아래층 회랑의 Vault 구조이다.

입면에서 보듯이 2층의 아치들보다 아래층의 아치 속에는 복잡하고 화려하게 되어 있다. 이것 또한 합리적인 구조의 이유에서 형태가 나온 것이다.

- ① 지나치게 좁고 높은 충격적인 느낌의 통로
이것은 충격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이유의 기능에서 생겨났다.
- ② 중정에서 정면으로 바라본 Arcade 일주들
아치 상부에 있는 문양은 각 아치 상부마다 모두 다른 변화를 주고 있다.
- ③ 큰 아치 내부면의 벽돌문양
- ④ 벽체모서리 부분
아름다운 Heavy Twist Moulding, 도서리각의 두께와 폭, 길어등의 스케일 비례가 적당한 모서리면 집기의 아름다운 디테일의 극치이다.
- ⑤ 화려하고 정교한 압바서드 궁전의 벽체
- ⑥ Arcade 일주 상세의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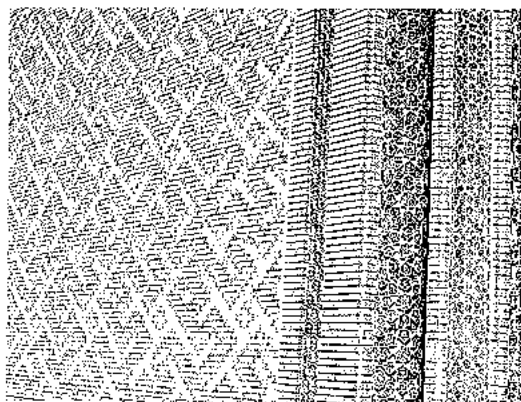
11



12

각 방의 벽돌 지붕의 구조는 Tunnel Vault Pointed Arch 구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진에서 보듯 회랑의 화려한 천장(2층의 바닥에 해당하는) 구조는 장식을 위한 것 같이 아름답지만 결코 화려하기 위한 장식물만이 아닌 것이다.

전편에서 소개되었던 「알 함브라 궁전」의 예를 들어 비교하면, 알 함브라 궁전은 이 암바시드 건물보다 약 60여년 이후에 착공되어 스페인에 있는 것으로 사라센 건축의 정수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다.



13

「알 함브라」는 그 조형의 조화나 선이 무척 나약해져 있어 이 암바시드궁전과 비교해 본다면 놀라운 조형미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알 함브라 궁전」의 소개에 '기묘한 디테일은 이것은 아름다움의 극치로서 이슬람의 독특하고 기하학적인 조각을 가미하여 마치 석류나 보석을 보는 듯 하다'고 어느 책에 소개되어 있다.

기묘한 디테일이란 바로 이 암바시드궁전 아치

속에 화려한 벽돌 형상과 같은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필자의 주장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장식을 하기 위한 조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수목을 볼 때 팔랑거리는 잎파리만 보았지 그 중요한 기둥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 같다.

「알 함브라 궁전」의 화려한 모습은 구법의 원조는 바로 이 암바시드궁전에서 60여년 후에 건너간 것이다. 나약해지지 않고 혼탁해지지 않은 본고장의 이스라엘 건축의 정수는 바로 이 암바시드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정교하고 화려한 벽돌 천장의 형태는 바로 구조적인 구법인 Structural Design에서 생겨난 형태라는 것을 필자는 분명히 느꼈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바로 벽돌 내쌓기 구법인 것이다.

순수한 벽돌조적조로서 2층바닥을 형성하고 2층을 받치려고 이렇게 복잡한 요철로 Pointed Vault를 이루어 벽돌 내쌓기로 구축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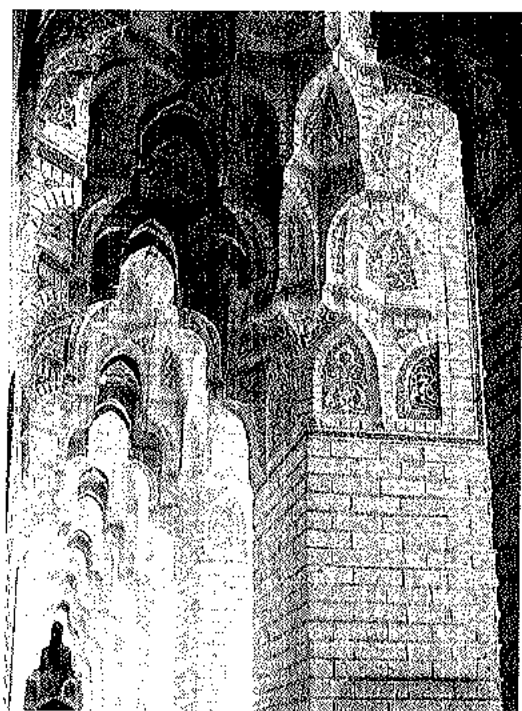
Pointed Vault의 튼튼하고 그 구조적인 아름다움이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입체감이었다.

중정에서 회랑쪽의 정면을 보고 찍은 입면 사진은 아치 속에 벽돌 내쌓기한 요철들이 점점 안쪽으로 들어간 입체 형태들이며 또한 점차 천장을 쳐다본 사진이다. 입면에서 하나의 아치 속에는 Pointed Vault가 그 속에 각각 아치마다 형성되어 제일 높은 가운데가 오목한 곳은 별 모양으로 되어 둥이 매달려 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장식을 하고 조각을 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구조체인 본 건물의 구조의 아름다움의 극치인 것이다.

이러한 구법의 아름다움에서 우리는 더욱 큰

- ① Vault의 내부를 올라다 본 모습
별 모양 부분이 각 Vault의 가장
오목한, 높은 곳이다.
- ② 화려하고 정교한 벽돌 Vault 회랑
이것은 벽돌 내 쌓기의 구조적인
구법의 Vault로서 조적조 구조미의
극치를 이룬다.
- ③ 암바시드 궁의 정면 외벽 상세
- ④ 벽돌 Vault 회랑
- ⑤ 상부층을 받치는 벽돌 조적조의
구조적인 구조미로서 아름다운
Pointed Vault의 앞면
2층의 기둥보다 아래층의
기둥크기가 더 크다.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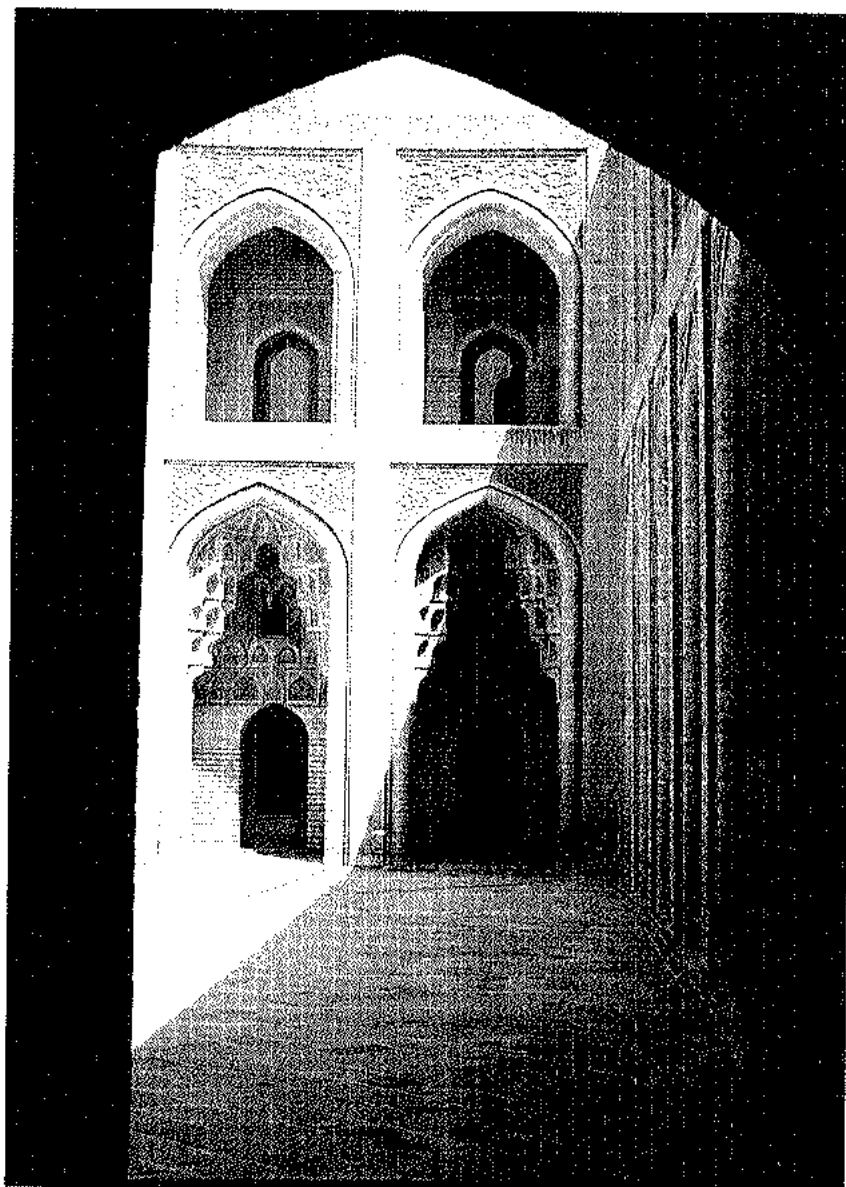
교훈으로서 되새겨야 할 것이다.

건축의 아름다움이란 나무에 비교한다면 그 줄기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큰 줄기가 비뚤어졌든, 끝에 팔랑거리는 잎파리 치장에만 관심을 갖고 벽화다 예술장식품이다 하고 건축에 조각물 설치 규정을 한다는 것은 건축의 구조부터 예술과 기술이 갖추어진 차원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줄기는 도외시된 관심밖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다시한번 튼튼하고 아름다운 구조가 주는 교훈인 올바른 길로 유도되어야 할 우리의 건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실내의 중복도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좌측으로 복도가 꺾어지는데 여기에서(평면도의 우측부분 중복도) 전혀 상상도 못했던 깜짝 놀랄 공간이 나타난다. 이것은 처음 느껴보는 공간감이다. 이 공간은 폭이 좁아 한 사람만이 지나다닐 수 있으며 그 사람은 어깨를 비껴서 지나가야 할 정도의 폭이며 반면 천장은 아주 높다. 그리고 좁은 폭의 중복도가 길게 나 있다.

이러한 공간이 있을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공간 속에 갑자기 서게 되니 내심으로 충격적인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좁고 높은 공간 그곳은 긴장된 공간으로 왜 이러한 공간이 형성되어야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중복도의 채광을 위해서는 지붕까지 천장이 높아져서 Sky Light 가 필요했으므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복도의 폭이 좁은 것은 이 복도의 성격은 마치 병원건축에서 Medical Road 와 같은 성격으로, 뒤쪽 내실의 은밀한 통로로서 한두사람만이 은밀히 다니기 위한 것으로 보안이나 안전에도 꼭 필요한 폭만으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11

높이 깊이는 필요에 의해서 생긴 치수이지 입면에서도 일정한 간격의 아치가 연속되다가도 필요에 의한 개구부는 작아질수도 커질수도 있게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좁고 높은 공간은 위압감과 긴장감을 주는 충격적인 공간으로 우리의 건축에도 적소에 적용될 수 있는 쇼킹한 공간으로 재현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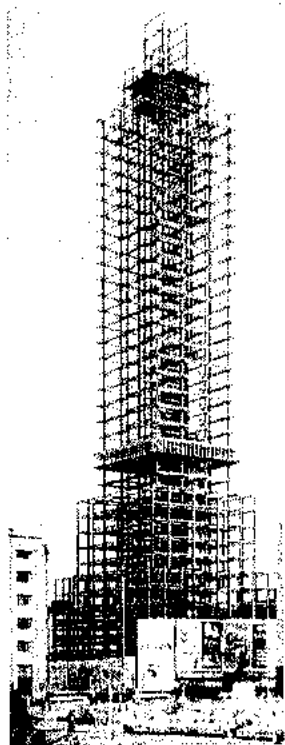
또 한가지 세심한 것은 이 좁고 높고 긴 공간이 시작되는 복도가 직각으로 꺾어지는 모서리 벽이 바닥에서 사람의 키 높이 정도까지는 코너의 모서리 각을 죽여 놓았다는 것이다.

建築構造物 스파의 長大化

Look Forward to the Long-span Beam
on Bulding Structures

金鍾洛/충실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工博
李鶴洙/HAN 건축·구조연구소

by Kim, Jong-Rak & Lee, Hark-Soo



I. 장대스판에의 노력과 귀중한 경험

건설당시의 최고의 기술로 건조된 장대스판의 구조물이 생각지 못한 자연현상에 의해 파괴한 예를 여러번 보아 왔다. 귀중한 실체실험이다.

그러나 주의해 보면 이러한 대형사고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구조기술 분야가 급격하게 발전되었다.

〈사진 2〉는 Tay교의 추락을 나타낸 것이다. 교량기술자로서 이름 높은 Thomas Bouch에 의해 영국 스코트랜드 Tay강 입구에 준공했다. 당시 세계가 경이해 마지않던 60m 스파의 鍊鐵製의 트러스 84련으로 조성되었다. 1979년12월29일밤 열차 통과중 중앙부 13련 트러스가 열차와 함께 추락해 버렸으며 약 100명의 사상자를 냈다.

조사에 의하여 당일 풍속이 35m/sec로써 주원인은 교각을 구성한 브레이스로 연결된 6개의 주철파이프가 풍압에 의해 경사도파했다. 이 귀중한 실패로 설계용 풍압력이 재검토되었고 그후 자료를 Forth교의 설계에 반영하여 Forth교는 지금도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사진 3)

〈사진 4〉는 미국 Seattle시 부근의 Tacoma Narrows교가 풍진동에 의해 추락한 것이다. (1940. 11. 7) 4개월전 현수교의 세계적 거장 L. S. Moisseiff의 설계로 1940년7월1일 준공된 교량이다. 중앙 스파 854m의 당시 세계 3위의 거대한 현수교였다. 당일 19m/sec의 풍속에 교량床板의 비틀림을 수반한 진동이 발생하고 진동의 진폭이 점점 증가되어 붕괴에 도달했다.

이 사고로 현수교의 動的耐風安全性에 관한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고층건축물 내풍설계의 기반을 준비하게 되었다.

공간의 제한이 없는 구조물에서도 사고는 지속되고 있으며 구조설계의 체계와 초고층건축물 장대스판구조등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귀중히 생각한다.

구조기술의 발전은 하루에 달성된 것이 아니다. 귀중한 경험을 살려 지속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또한 위대한 자연에 대해 겸허한 기술자로서의 태도도 필요하다.

토목구조에서는 기술적 제약을 제외하면 상부공간의 제약은 거의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구조물은 대지의 소유권과 관계되어지고 집단적 질서에 묶여 있어 인근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있다. 우선적으로 높이 제한일 것이며 건축연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건축주와 설계자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적인 무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즉 層공간의 중첩이 문제인 것이다. (사진 1)

그러나 기술자로서의 겸허한 도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장대스판은 自重, 적재하중, 외력에 의해 部材의 부담능력이 커지고 부재의 단면 특히 軸(단면높이)이 커진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해결방안이 없을까?

선배들의 귀중한 경험을 빌려 장대스판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II. 구조의 안전성과 경제성

〈사진 5〉는 파리의 루브르(Louvre)박물관에 있는 함무라비(Hammurabi) 법전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건설분야 및 조선분야 기술자의 책임에 관하여 여러 조목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일부를 소개하면 만약 축조한 건축물이 충분한 강도를 보유하지 못해 붕괴하면 그 기술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재축조 완성시켜야 하고 붕괴로 인하여 건축주 또는 자식이 사망하면 사형에 처하고 또한 노예가 사망하면 동등한 가치의 노예를 건축주에게 보상해야만 한다.

이와같이 함무라비 왕은 건축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의 근본이 되는 법전중에 그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로 미루어 수치적인 안전성의 검토가 불가능하였고, 구조물의 붕괴가 가끔 발생하였으며 그때마다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3700년전 Babylon(사진 6)의 건설분야 종사자의 지위 및 사회형태가 상이하므로 단순비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건설활동에 종사한 기술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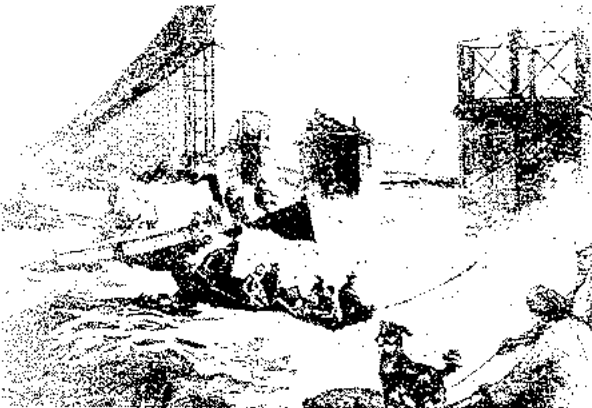
절대적인 전제군주 밑에서 결사의 의지로 맡은 일을 해냈다는 점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한편 現今의 건축기술자는 사회적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경제성에 얽매어 있지는 않은가? 또는 지나치게 일을 쉽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분명한 것은 현금의 가장 손쉽고 능력이 탁월한 콘크리트, 철동을 풍부하게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문화의 상징으로 남길만한 건축물 생산을 위하여 사고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초고층건축물(Sky Scraper)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말썽없이 원만하게 운전되어지는 엘리베이터, 적절한 냉난방, 전기공급, 통풍등 제반설비가 기능을 발휘하면 「만사형통」인 것처럼 생각한다.



2

이러한 구조물은 갈수록 그 수가 늘어갈 것이다. 고층건물은 상호교통, 업무용이와 효율적 기능등 그 장점도 많다. 한편 고층건축물의 지나친 위용과 더불어 地價의 지표로 상업적인 사정에 따라 건설되어지고 있어 인간이 건설한 건축물에 인간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되었다.

건축사 및 기술자로서의 노력은 어떠한가. 앞서서 지나친 경제성을 언급했다.

또한 지나친 안이로 새로운 구조에 대한 노력, 새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했는지? 장대스판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하는 의문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현시점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점은 계획설계와 구조설계, 제반설비설계 사이의 협의부족이다. 설계기간의 충분한 여유가 필요하지만 협의에 의한 경제성 향상이 부채단면설계에서의 경제성 향상보다 더욱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우리의 풍토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구체적인 제안이 되지 못하지만 건축사와 기술자가 공동적으로 노력하여 설계기간의 여유를 찾아야 할

것이며, 각분야의 기술협약에 관하여 정당한 평가에 대한 인정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III. 석조아치의 기술

切石 벽들을 원호에 따라 쌓아 올린 석조아치는 언제 어느 시대 어디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기원전 4천년~3천년에 페르시아만 근접에서 높은 문화를 보유했던 수메리아인(Sumerian)이 아치의 원리를 건축에 응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집트 Gizeh의 피라미드(기원전 2500년경)에 남아있는 아치는 절석을 켈테레버 형식으로 내밀며 쌓은 구조이다. 별도로 이집트의 폐허 속에서 본격적인 아치를 볼 수 있다.

아치는 지반을 횡방향으로 밀어내고 항상 벌어지려고 하므로 연약지반에 구축된 아치는 붕괴하기 쉽다. 이에 이집트인은 「아치는 安眠하지 못한다」는 말을 남겼고 이는 아치의 역학적인 성질을 잘 나타낸다.

석조아치의 성질을 이해하고 넓게 응용한 것은 로마인이다. 높이 80m 收容觀客 約9萬名이나 되는 유명한 Colosseum이다. (사진 9) 석조아치가 연속하여 원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원리에 대한 이해는 충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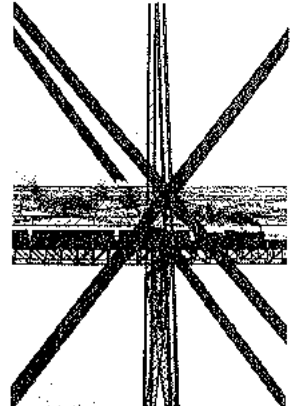
로마인은 석조아치의 기술을 이용하여 각지에 거대한 구조물을 구축하였다.

로마는 지금도 분수가 많이 있으며 로마인은 물을 좋아하며 즐겼을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시의 급수를 위해 수원지로부터 지상 지하를 거처 수도를 건설하였고 이에 따라 수도교도 건설되었으며 이 수도교는 적극적으로 아치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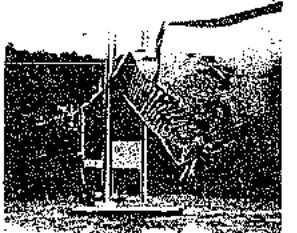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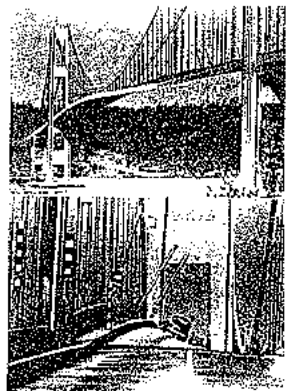
水道가 가장 많을 때는 9개나 되며 또한 프랑스 점령시에는 남프랑스의 Nimes의 물을 끌어 오기위하여 수도를 축조하였고 이 수도가 Gard계곡을 건너기 위해 (사진 7)과 같은 Gard수도교를 건설했다. 길이 270m, 수면상의 높이 45m, 아치가 3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의 아치가 24m로 8경간의 아치로 되어있으며, 1973년 전체구조의 대수선으로 대부분이 현존해 있다.

현재의 구조물의 구조제산이나 시공은 공학의 한 분야로서 확립되어 있고 기술자에 따라서는 구조물 각부에 생기는 응력 변형을 미리 조사도 할 수 있으며 (사진 8)과 같이 간단한 光學性 실험으로 아치 주변의 응력분포도 쉽게 알 수 있다.

당시의 구조기술이 확정·확인 어렵지만 시도하여야 했고 自重에 못이겨 붕괴하거나 변형이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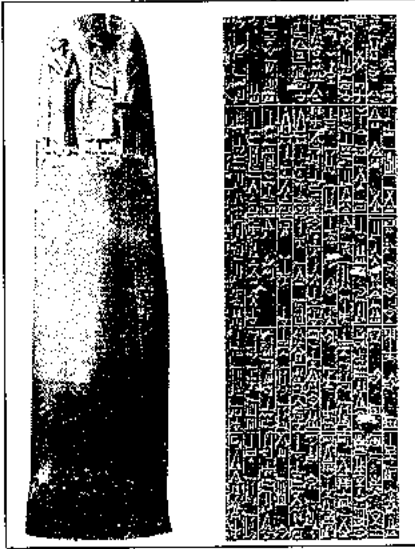
① 총 공간의 중첩

② Tay교의 추락

③ Forth교의 일부

기차와 대차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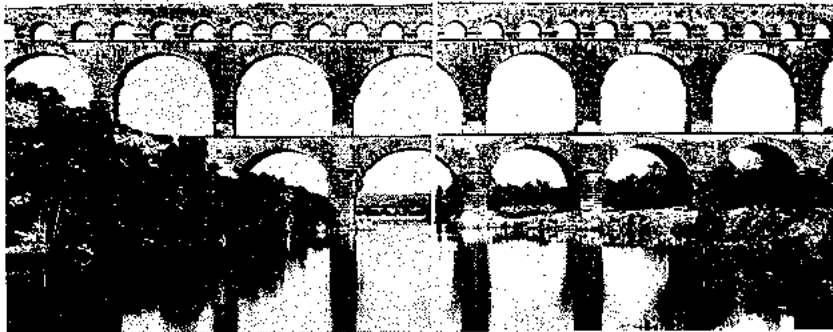
④ Tacoma Narrows교의 붕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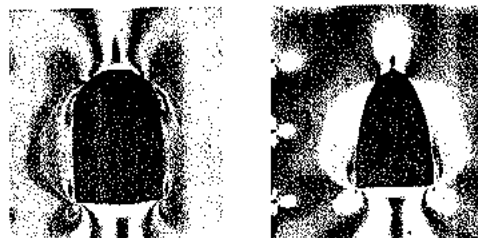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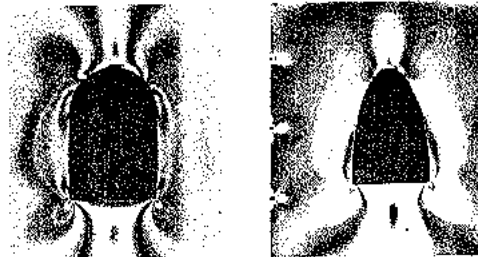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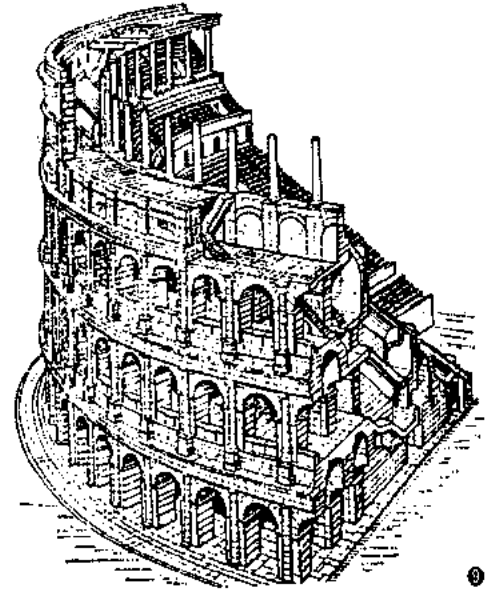


7

- ⑤ 함무라비 법전
- ⑥ 고대 도시 바빌론
- ⑦ Gard 水道橋
- ⑧ 아치 주변의 응력 분포
- ⑨ 로마의 콜로세움
- ⑩ 레오날도의 대상 중에서
- ⑪ Galeo의 논문 중에서
- ⑫ 아테네 Parthenon 柱頭의 일부
- ⑬ Thuburbo Maius Plaza of the Petronii, Order(A.D 255年)



10



9

로마인들의 석조아치 기술은 합리적이며 또한 2천여년 전에 확립되었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IV. 장대스판의 필요성과 가능성

1993년 한국도 만국전람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는 1988년 24회 올림픽 다음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또하나의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람회는 산업공산품의 발전을 과시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과 구조기술의 발전을 과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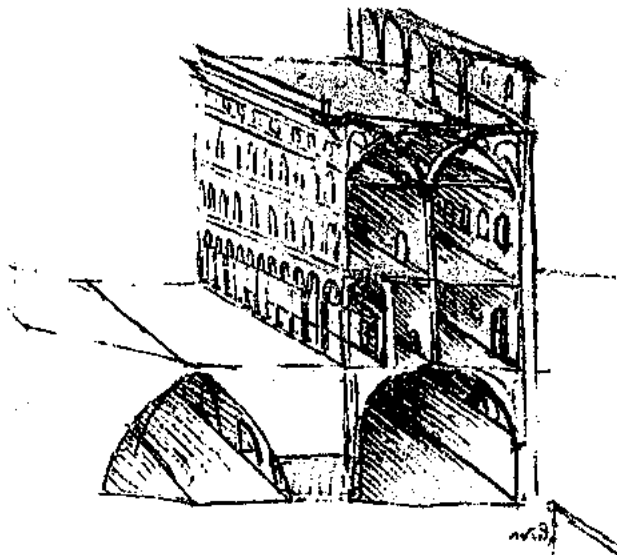
경제발전과 더불어 대형구조물의 필요성은 더욱 고조된다. 한편 산업·경제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대형공간의 필요성 수요가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건축 구조기술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현재 국내의 건설산업은 철과 콘크리트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재료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한 구조물이 아직도 적다는 반성도 필요 할 것이다.

먼저 장대스판에 대한 발전을 간단히 살펴본다.

〈사진 12〉는 아테네의 Parthenon(BC447~432)의 柱頭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둥간 간격은 기둥 지름의 2배~2.5배로 축조되어 있다. 〈사진 13〉은 Parthenon 건설후 약 680년뒤의 Thuburbo Maius가의 프라자의 오더(AD255년)를 나타낸 것이다. 기둥간 간격이 약 6배로 되어 있어 大徑間에 대한 노력을 알아볼 수 있다.

그후 AD532~537년 사이에 건립된 이스탄불의 Hagia Sophia(사진 14, 15)를 보면 웅장한 외관과 더불어 사각형 평면위의 돔을 설치하여 균일한 내부조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돔의 직경 31m, 높이 155m이므로 경험적인 기술로 큰



공간 장대스판에 대한 역작이라 해야 할 것이다.

〈사진 17〉은 로마 야외극장 해가람의 스케치이다. 상부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시설물로서 장대스판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재에는 개폐형의 돐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22)

또한 증첩되는 공간이 없는 구조의 경우 그 발전은 눈부시다. 현재에 와서는 (사진 19)와 같은 현수교로서 1천m의 스팬을 손쉽게 설계되어지고 있다. (현재 1890m 경간의 현수교가 건설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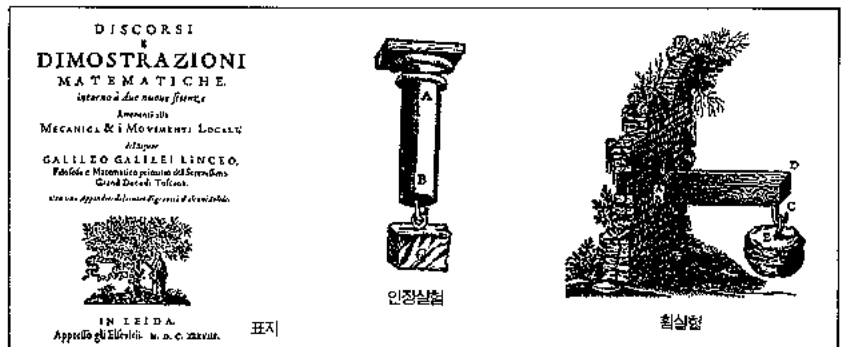
이와같은 현수교의 장대스판을 가능하게 한 것은 Truss 구조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사진 20〉은 세계최초의 철교이며 Truss 구조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소개를 생략한다.

〈사진 18〉은 제주도식물원의 Space Structure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며, 〈사진 21〉은 New York에 있는 전시장의 내부를 나타낸 것이다. I. M. Pei의 설계로서 연면적 17만㎡의 Space Frame과 반사유리로된 구조물이다. 이와같이 건축에서도 Truss의 기본적인 구조방식을 이용하여 증첩공간구조를 달성시키기도 하며 더욱 욕심을 내어 몇km의 시설물도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Space Frame을 이용하고자 하는 안도 있다. (사진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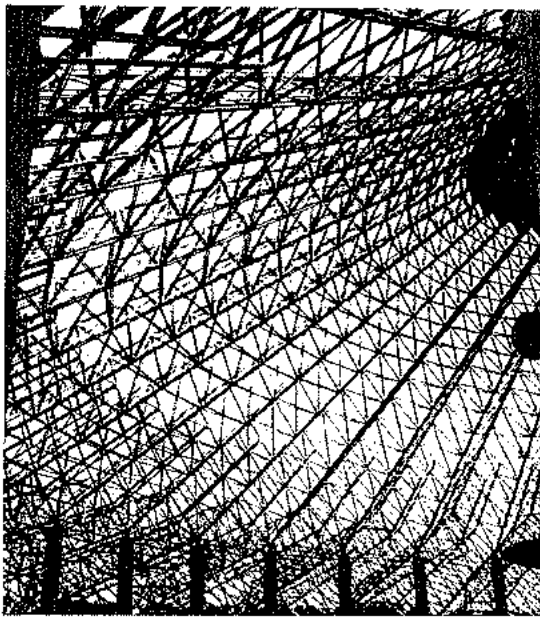
한편 상부공간의 제한이 없는 공기모구조도 (사진 30, 31)과 같이 200m 전후의 스팬으로 지붕면을 설치하여 3萬이상의 관중을 모으기도 한다.

근년에는 많은 관중이 한번에 운집하는 시설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1993년의 반국박람회에는 우리도 경험해야 할 일이며, 대규모 구조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또한 사무공간 및 주차시설에서도 無柱空間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⑩ Istanbul, Hagia Sophia의 외관(A, D 532~537)
- ⑪ Istanbul, Hagia Sophia의 내부
- ⑫ Jacob Bernoulli의 보처짐 곡선에 관한 이론
- ⑬ 로마 야외극장의 해가람
- ⑭ 제주도 식물원의 공간 구조
- ⑮ 스팬 1천m 전후의 현수교(일본)
- ⑯ 세계 최초의 철교
- ⑰ 뉴욕의 Jacob K. Javits Convention 센터(1960~1966, I. M. Pei & Partners)
- ⑱ 개폐형 돐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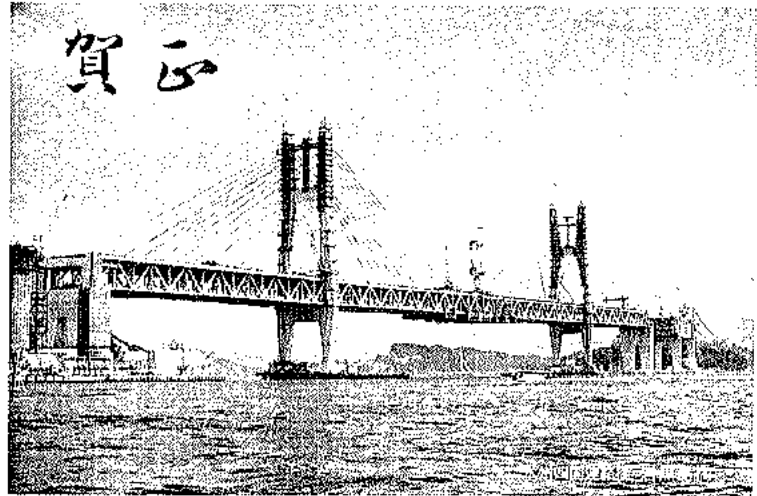
급속히 높아졌다. (건축전체의 영향은 별도로 생각하고) 외관이나 장식의 인상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의 좋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의 구조체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다. 구조체에 대한 관심부족이다. 통상적인 생활경험과는 관계가 먼 과학적인 이론 기술상의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건물의 구조체는 주로 3차원의 좌표축으로 이루어진 기둥, 보, 바닥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역할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구조체의 결성방식에 따른 경제성의 차이를 이해시키기 쉬울 것이다.

또한 재반설비와 건물기능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들 설비의 규모 방식에 따라 구조체의 방식을 좌우하며 스판의 길이를 결정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근년의「建築士」誌의 신축건물 설계도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기둥높이의 28~33%가 설비공간 및 보部材의 높이로 숨은 공간이 된다. 예를 들면 층고 3.9m인 경우 1.2m~1.5m의 높이가 상층바닥과 하층천장사이가 되는 것이다. 물론 보부재의 스판 길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기가 큰 공기조화 설비 덕트의 관통에 필요한 공간과 보의 내력 및 처짐에 대응하는 보의 절대높이가 필요하다. 이에 최근에는 허니콤 보(Honey Comb Beam)를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지하구조에서는 천장내의 공간으로 터파기 공사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구조설계자를 어렵게 하는 큰 요인이다.

(사진 23, 24, 25)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공간의 중첩으로 바닥보 기둥으로 형성되어 상부에서 연직방향으로 힘이 흐르게 되고 하부의 기둥은



12

상부보다 큰 연직력에도 저항하며 수평력에 의한 모멘트 전단력에도 충분히 저항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천장 속에 숨어 있는 보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가 충분했는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둥과 보 접합부에 관한 것은 뒤로 미루어 두고도 중첩공간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설계되어져야 하는가?

건축구조에 사용되어지는 보의 스팬과 단면에 대해 살펴본다.

건축일반구조등의 교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경우 보의 길이는 보층의 10~16배 정도로 기술되어 있다. (T형보, 矩形보에 따라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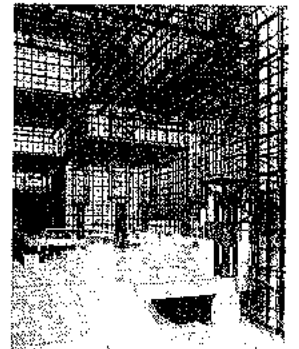
철골구조의 경우는 9~12m가 일반적이다.

철골철근콘크리트의 경우 철골구조와 거의 비슷하며 철골철근 기둥과 철골보의 합성구조가 주가 되고있다. 이러한 철골철근기둥과 철골보의 경우 기둥·보 접합부의 콘크리트 충전성이 골조의 강성 및 인성을 좌우하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로는 기둥·보 접합부의 완전충진이 불가능한 단면도 사용되고 있어 기우되는 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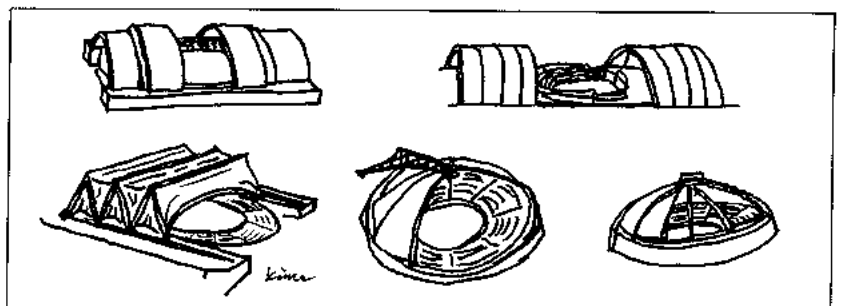
또 하나의 스판의 결정 요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하주차공간과의 관계일 것이다. 특히 스판을 결정하고 지하층기둥의 방해로 3台南 기둥이 있는 주차장을 접하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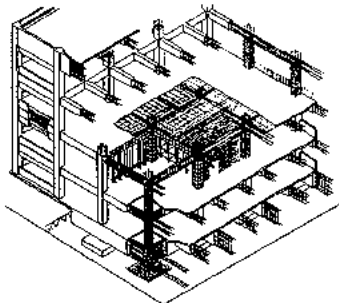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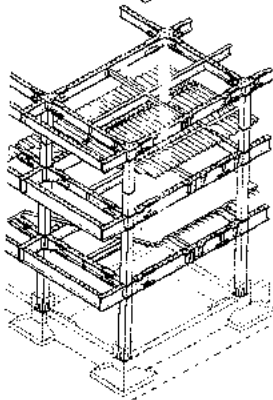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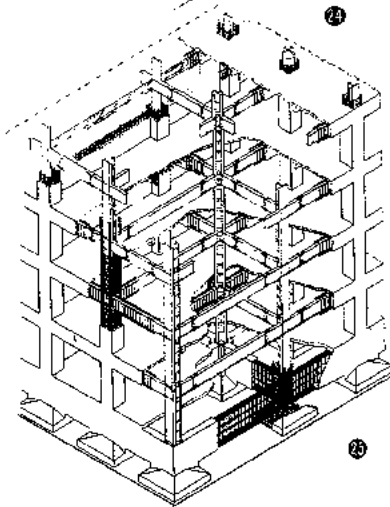
1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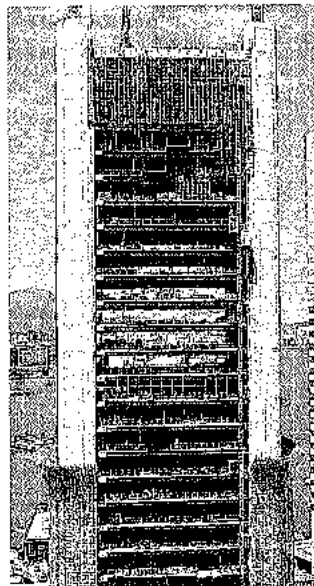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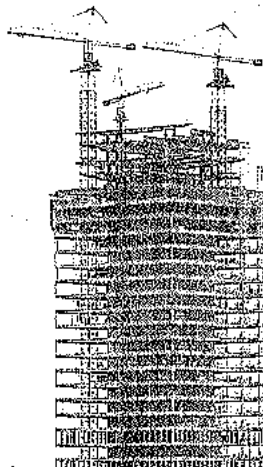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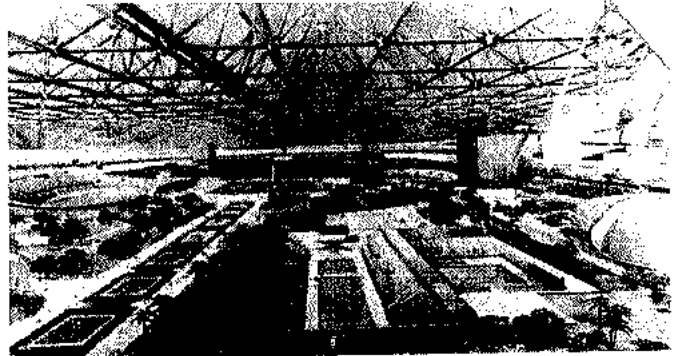
2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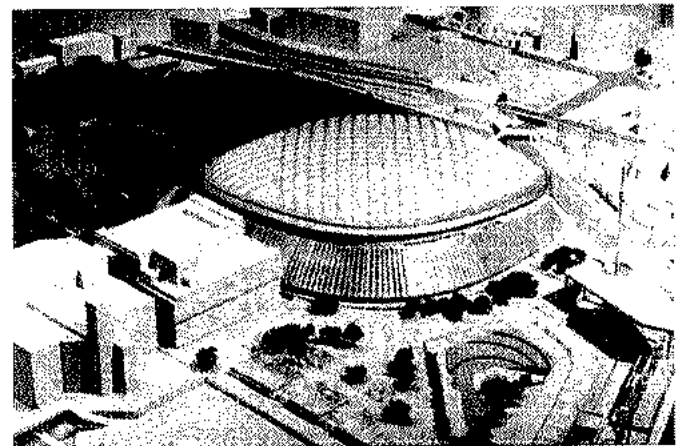
28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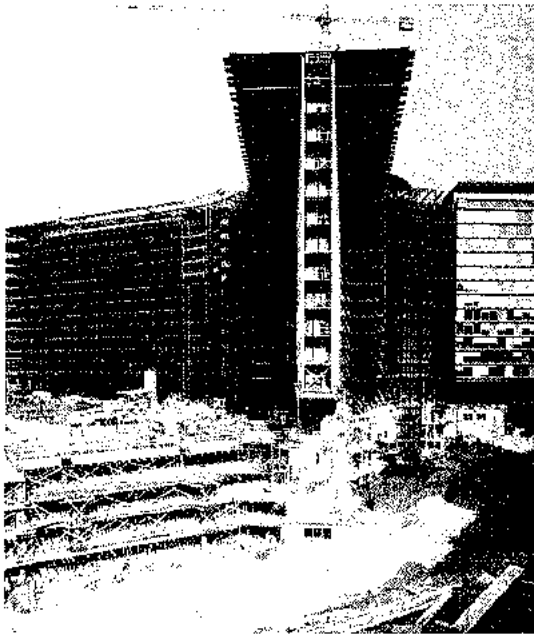


31



32

- ② 철골 콘크리트 골조의 개요
- ③ 철골구조 골조의 개요
- ④ 철골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개요
- ⑤ 홍콩의 중국은행
- ⑥ 현재 건설 중인 홍콩의 중국은행
- ⑦ Brussel Tourmide 빌딩
- ⑧ 운동경기 시설의 계획안
- ⑨ 미네아 폴리스 에어돔
- ⑩ 도쿄 에어돔
- ⑪ 건물과 건물사이의 오버 브릿지
- ⑫ Brussel의 유럽공동체(EC) 본부가 있는 빌딩의 공사전경
- ⑬ 홍콩에 있는 삼각구조의 중국은행
- ⑭ Brussel의 EC 본부가 있는 빌딩



건축은 인간이 존재하고 또한 활동하고 생활하기에 필요하여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은 도로, 건물, 도구 등과 더불어 시대의 문화 산업상황 등에 의해 만들어지고 구성되어지는 것이다.

현대건축은 균형이 잡혀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건축에 부여되는 사명에 대하여 어느 한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으며 또한 다른 부분은 지나치게 등한시 하기 때문이다.

혹시 건축사는 비기능적인 아름다움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일은 없는지? 고전적인 입면, 대칭적인 입면의 고집, 과거에 확실하게 인정받은 적이 있는 복고풍의 아름다움에 관한 추종은 없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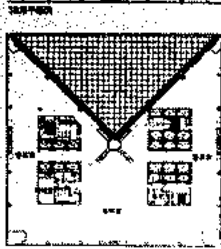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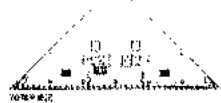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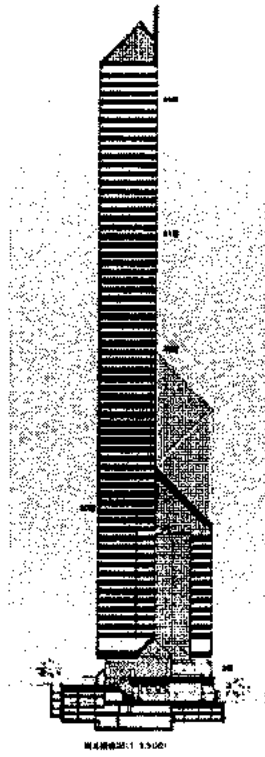
물론 복고와 더불어 탁월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걸작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보다 진실하며 가능성을 암시하는 아름다움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를 추구하는 건축가와 기술자는 더욱 친밀히 활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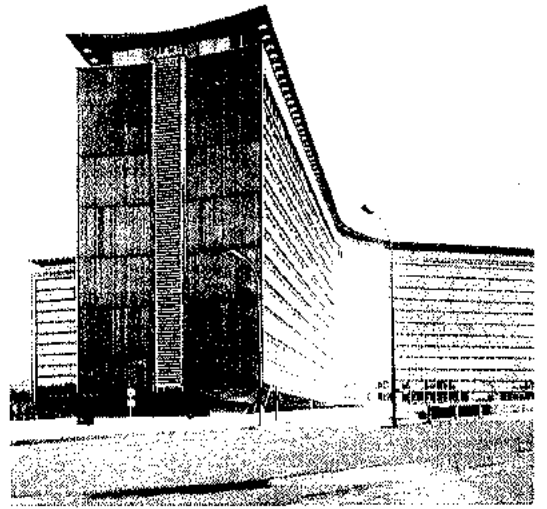
(사진 26)과 (그림 34)는 홍콩의 중국은행이다. —건축설계 Pei Cobb Freed & Partners(미), Kung & Lee Archo(홍콩), 구조설계 Lesile. E. Robertson Associated(미), BMP Civil & Structural(홍콩), 설비설계 Jaros, Baum & Balles(미), Associated Consalting Eng. (홍콩)

글 쓴 본인만의 느낌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능을 암시하며 골조가 가지는 안전성과 진실한 표현으로 구조적인 미의 대표급이라 생각한다. 물론 설비면에서도 그 찬사는 대단하다. 이러한 진실한 표현은 우리는 못해내는 것일까? 지나치게 좋은 "드레스(Dress)"를 입히려는 의식은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27)은 지금 건설중인 홍콩의



31



32

은행건물(지상27층)이다. 28.5m 스팬의 無柱오픈스페이스로 홍콩의 위치에 어울리는 장대스판 건물이 될 것이다.

(사진 32)는 건축물과 건축물사이에 설치한 오버 브릿지이다. 기능적인 것은 물론 만족스러우며 길이에 비해 보부재의 날씬한 느낌이 상쾌하다. 부연한다면 상단부의 유리돔이 명쾌하지 못해 욕에 티가 되지만...

이와 같은 날씬한 장대의 보라면 공간충첩되는 일반 건축에도 사용가능할 것이다.

(사진 28)은 Brussels의 Tourmidil 빌딩의 공사전경이다. 20m×20m 코어 상단에 40m 스팬의 보(Preflex Beam)를 설치하여 큰 공간을 얻었다.

(사진 33, 35)는 본의 유럽공동체(EC) 본부가 있는 빌딩 공사전경과 외벽 마감 후의 사진이다. 장대스판을 사용한 구조로서 구조적인 진실성을 표현했다. 여기에도 역시 31m의 장대스판의 보(Preflex Beam)를 사용했다. 보의 춤은 1.3m만으로 충분했다. 이 보의 춤으로 보면 일반적인 철골보에서는 15m~20m 정도의 스팬에 적용되는 보 일 것이다.

끝으로 지금의 설계환경으로 보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 제반설비설계가 서로 충분한 협의되어 설계되어 지고 있지 않다.

짧은 설계기간이 큰 요인일 것이다. 앞에서의 제안과 같이 건축가, 기술자의 공동노력으로 사회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협의 및 기술적 활동에 대한 보상의 문제도 요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건축사와 기술자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새로운 건축 공간을 창출하는 것을 요구 받을 것이다.

신 입 회 원



林聖濟(58年)
부산국립개방대 건축
동문·백산건축(종합)
부산 동구 초량 1162-5
465-6625~6



白仁鶴(56年)
광주대 건축공
자유·동서건축(종합)
부산 동구 초량 1163-10
463-8000



朴弘圭(60年)
경남공전 건축
부원·재건·삼보건축(종합)
부산 사하 당리 325-18
205-5797~8



鄭鍾宇(53年)
강원종고 건축
원유택·정종우건축
대전 중구 대흥 326-103
257-0058



李相禹(54年)
철도고 건축
설건축
충북 천안 오룡 4-2
552-0184



禹鍾泰(58年)
영남대 건축
세일건축
대구 서구 평리 1092-10
552-5603



玄碩浩(57年)
영남대 건축
이태아건축
대전 중구 대봉 16-1
421-7060



裴在述(54年)
영남공전 건축
효성건축
대구 수성 범어 556-1
741-0225



金柄圭(52年)
영남대 건축공
현대건축(종합)
대구 중구 동문 1-2
424-6788



朴在東(55年)
영남대 건축, 고려대학원
한국건축(종합)
대구 중구 덕산 127-10
421-3930



金昌圭(55年)
대구공고 건축
동양·미가건축(종합)
대구 동구 신천 126-1
756-0111



李孟雲(59年)
영남대 건축공
미래건축
대구 수성 수성 301-3
761-1115



金汶烈(60年)
영남대 건축, 동대학원
미래건축
대구 수성 수성 301-3
761-1115



鄭在基(57年)
영남대 건축공
구성각건축
대구 동구 신암 123-17
956-7100



裴相景(61年)
경남대 건축
미림건축
대구 남구 대명 3052-1
651-7500



權純業(61年)
영남대 건축공, 동대학원
삼영·도움채건축(종합)
대구 중구 대봉 25-7
425-3302



金學棟(56年)
영남대 건축
정우건축
대구 남구 대명 30-5
624-1550



鄭淳穆(56年)
영남대 건축
세원·미주·대농건축(종합)
대구 삼덕2가 106-17
421-9922



李九龍(60年)
영남대 건축공
효성건축
대구 수성 범어 556-1
741-0225



李江柱(59年)
부산공대 건축
유성건축
부산 동래 거제 121-14
861-5943~4



黃勝煥(59年)
경주공고 건축
으뜸건축
경북 경주 성진 340-22
41-6129, 43-2569



金乙潤(55年)
경주공고 건축
창조건축
경북 경주 노서 121-21
43-3630



金鍾文(56年)
경기대 건축, 인하대학원
근정건축(종합)
서울 강남 삼성 165-8
558-4483~5

李榮漢회원 博士學位 취득

서울지부 李榮漢회원이 지난달 「韓國高等教育施設에 있어서 空間類型的 變遷過程과 特性에 關한 研究」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博士學位를 취득하였다.

開港期 이래 '7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시설(주로 대학 캠퍼스)의 空間 特性을 분석한 본 논문으로 學位를 취득한 李榮漢회원은 '57년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건축학과 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88년 建築士 면허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주)아키프랜종합건축사사 무소에 근무하며 국립서울산업대학 건축공학과에 출강중이다.

박사학위 취득 학위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영한회원

「한국고등교육시설에 있어서 공간유형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韓國高等教育施設에 있어서 空間類型的 變遷過程과 特性에 關한 研究」는 開港期에서부터 1975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건설된 高等教育施設의 空間特性을 분석한 것으로, 근대 100년간에 건설된 고등교육시설 공간유형의 변천과정, 외국에서 유입된 캠퍼스의 역할과 한계, 韓國人에 의해서 창조된 캠퍼스 공간의 건축계획적 특성, 그리고 캠퍼스 배치의 성장유형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학교 입지와 캠퍼스 배치, 그리고 건물 평면을 각 공간요소에 따라서 空間類型을 분석하였다. 각 시기별로 공간유형은 동질성을 가지며 시대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일본인 학교는 여러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1. 立地類型에서 背山型과 남향, 남동향, 남서향의 경사지에 입지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학교는 前面道路型에 입지하였으며, 입지의 向은 前面道路의 向에 從屬되었으며, 一定한 傾向이 없었다.

2. 配置類型에서 배치의 기준축과 기준점은 주로 지형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불럭 배치는 초기에는 툰 ㄷ자형으로 이루어지다가 캠퍼스가 성장하면서 툰 ㄷ자형과 툰 ㄱ자형, 병렬형을 혼합하여 캠퍼스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본인 학교에서는 배치의 축과 기준점은 전면도로와 정문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불럭배치는 單獨型, 並列型으로 전체 캠퍼스를 형성한다.

3. 平面類型에서 수평형태, 외벽체부 구성방식, 주출입구 진입방식은 외부공간의 성격이나 지형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解放 이후 캠퍼스의 건물은 배개공간을

창조하는 회랑형, 난간형, 처마형의 사이공간이 下向 傾斜方向이나 주 진입로 방향, 중심적인 외부공간에 面하여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인 학교에서는 평면유형은 장소의 지형상의 잠재력이나 외부공간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외부에서 이식된 규범과 같은 정해진 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제시기에 형성된 캠퍼스는 미국 캠퍼스의 공간유형으로부터 선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해방이후에는 독자적인 공간유형을 가지게 된다. 결국 미국 캠퍼스는 미국이라는 풍토와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대로 정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외국 캠퍼스의 일제시기 캠퍼스에의 영향은

1. 미국 대학캠퍼스는 學問的인 共同體社會를 創造하는 것을 목적으로, 캠퍼스내에 교사동뿐만 아니라 기숙사, 관사,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그리고 건물을 분산적으로 배치하던가 중심축을 중심으로 하여 並列型으로 배치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연희전문 캠퍼스와 이화여전 캠퍼스에 반영된다. 그러나 보성전문 캠퍼스는 큰 전면도로를 앞에 두는 장소에 입지하고 있는 사실이나 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규모있게 건설하였다는 사실에서 미국의 캠퍼스와는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2. 日本의 大學캠퍼스는 19세기 말에 전국적인 규모로 건설된 고등중학교를 모델로 하여 건설된다. 이 고등중학교의 배치의 기준축, 배치의 기준점, 각 기능의 배치방식, 直交座標上의 並列型 불럭배치등은 그대로 일본인 학교의

공간계획에 그대로 이식된다.

高等教育施設의 입지선정과정, 공간배치, 내부공간구성등 전과정에 걸쳐서 자연적인 조건인 지형과 기후조건에 적응하여 형성되며, 특히 지형의 조건은 캠퍼스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또한 캠퍼스는 산에 입지하거나 툰 ㄷ자형을 불럭배치의 기본으로 하여 캠퍼스의 자연성장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서 형성된 배치성장유형은

1. 캠퍼스들은 溪谷型, 丘陵型, 기슭型, 丘陵+溪谷型의 지형에 입지하였다. 이 지형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잠재력에 의하여 각 캠퍼스들은 몇가지의 배치 성장형으로 분류된다.

2. 溪谷型에 입지하고 있는 연세대 대신동 캠퍼스는 線的 成長型(Linear Growth Type)으로 성장하며, 기슭형에 입지하고 있는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는 피라미트 成長型(Pyramid Growth Type)으로 성장하며, 이 두 유형은 位階的인 形態(hierarchy form)를 배치의 기본으로 한다.

3. 丘陵+溪谷型의 地形에 입지하고 있는 서울대 관악 캠퍼스는 同心圓的 成長型(Concentric Growth Type)으로 성장하며 이 유형은 機能的인 形態(functional form)를 배치의 기본으로 한다.

4. 이들 배치 성장형은 歐美에서 나타나고 있는 배치의 성장형인 線的인 成長型, 中心 成長型과는 차이를 보여주는 데, 그 이유는 韓國 캠퍼스들이 背山型으로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91년도 1월분 전국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 1월분 6백2만8천7백31㎡보다 24.40%(1백47만9백78㎡) 증가한 7백49만9천7백9㎡의 실적을 보였다.
-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월분 합계 6백2만8천7백31㎡보다 24.40%(1백47만9백78㎡) 증가한 7백49만9천7백9㎡의 실적을 보였다.
- 다. 전 월 비 12월분 1천3백83만6천1백97㎡보다 45.80%(6백33만6천4백88㎡) 감소한 7백49만9천7백9㎡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 狀態)

(연면적 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0 년 도	1991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191,295	1,278,698	87,403	7.34%
	대구지부	207,706	440,761	233,055	112.20%
	인천지부	222,378	888,405	666,027	299.50%
	대전지부	187,640	351,375	163,735	87.26%
	경기지부	1,215,896	1,253,019	37,123	3.05%
	강원지부	87,326	128,989	41,663	47.71%
	충북지부	119,799	293,672	173,873	145.14%
	충남지부	134,045	184,670	50,625	37.77%
	전남지부	173,876	234,439	60,563	34.83%
	경북지부	346,473	435,625	89,152	25.73%
	경남지부	758,993	764,568	5,565	0.73%
감소지역	제주지부	47,381	82,987	35,606	75.15%
	부산지부	870,110	814,962	(55,158)	-6.34%
	광주지부	316,805	219,351	(97,454)	-30.76%
	전북지부	149,008	128,208	(20,800)	-13.96%
합	계	6,028,731	7,499,709	1,470,978	24.40%

全國圖書申告 概況(用途別 増減 狀態)

(연면적 기준) (단위/㎡)

종 별	12 월 분	1 월 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588,105	765,239	177,134	30.12%
다 세 대 주 택	453,081	510,125	57,044	12.59%
연 립 주 택	308,212	149,924	(158,288)	-51.36%
아 파 트	7,172,784	1,920,970	(5,251,814)	-73.22%
근린생활시설	1,775,227	1,475,767	(299,460)	-16.87%
종 교 시 설	52,754	55,861	3,107	5.89%
의 료 시 설	29,425	92,637	63,212	214.82%
교육연구시설	202,892	82,953	(119,939)	-59.11%
업 무 사 설	1,280,533	625,189	(655,344)	-51.18%
숙 박 시 설	58,855	81,185	22,330	37.94%
공 장	1,031,577	976,999	(54,578)	-5.29%
기 타	882,752	762,860	(119,892)	-13.58%
계	13,836,197	7,499,709	(6,336,488)	-45.80%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용도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4,086	4,156	738,054	462	483	23,638	46	46	3,547	4,594	4,685	765,239
다 세 대 주 택	1,003	1,114	506,023	26	26	2,830	9	14	1,272	1,038	1,154	510,125
연 립 주 택	83	134	148,313	2	2	775	2	2	836	87	138	149,924
아 파 트	129	464	1,864,840	11	17	54,022	4	4	2,108	144	485	1,920,970
근린생활시설	2,699	2,802	1,354,903	277	291	59,946	204	205	60,918	3,180	3,298	1,475,767
종 교 시 설	48	64	50,303	21	24	4,887	5	7	671	74	95	55,861
의 료 시 설	7	9	86,604	2	2	5,846	1	1	187	10	12	92,637
교육연구시설	22	29	60,593	16	20	17,056	21	21	5,304	59	70	82,953
업 무 사 설	111	126	599,519	28	31	22,195	5	5	3,475	144	162	625,189
숙 박 시 설	15	18	32,990	13	33	27,606	9	9	20,589	37	60	81,185
공 장	461	756	711,194	201	315	239,077	41	43	26,728	703	1,114	976,999
기 타	497	668	570,555	165	192	84,826	32	34	107,479	694	894	762,860
합 계	9,161	10,340	6,723,891	1,224	1,436	542,704	379	391	233,114	10,764	12,167	7,499,709

支部別 全國 圖書申告 概況(1月分)

구분 지부별	신 축·개 축·재 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울 지 부	2,523	2,570	1,260,634	52	56	18,064	0	0	0	2,575	2,626	1,278,698
부산 지 부	960	1,185	758,060	122	142	44,172	41	42	12,720	1,123	1,369	814,952
대구 지 부	483	517	414,272	332	354	17,702	26	26	8,787	841	897	440,761
인천 지 부	523	668	835,412	16	30	48,045	15	16	4,948	554	714	888,405
광주 지 부	222	244	189,906	40	41	28,109	9	9	1,336	271	294	219,351
대전 지 부	235	269	327,204	22	22	11,307	57	62	12,864	314	353	351,375
경기 지 부	1,465	1,626	1,069,093	91	101	41,391	76	76	142,535	1,632	1,803	1,253,019
강원 지 부	220	255	105,667	40	44	21,092	9	9	2,230	269	308	128,989
충북 지 부	304	370	235,855	42	83	52,391	27	27	5,426	373	480	293,672
충남 지 부	226	243	165,398	46	46	17,134	21	21	2,138	293	310	184,670
전북 지 부	129	159	107,293	34	42	13,778	32	34	7,137	195	235	128,208
전남 지 부	371	439	158,792	101	124	69,704	28	29	5,943	500	592	234,439
경북 지 부	398	468	305,976	96	127	108,722	14	14	20,927	508	609	435,625
경남 지 부	943	1,138	713,243	137	171	45,192	24	26	6,123	1,104	1,335	764,558
제주 지 부	159	189	77,086	53	53	5,901	0	0	0	212	242	82,987
합 계	9,161	10,340	6,723,891	1,224	1,436	542,704	379	391	233,114	10,764	12,167	7,499,709

會員動情

崔昌奎회원 別世

서울지부 崔昌奎회원(건축사사무소 신진 대표)이 지난 18일 老患으로 別世하였다.

享年 75세의 故崔昌奎회원은 1957년 신진건축설계사무소 開設 이래 韓國建築家協會會長을 역임(72~74년)하는 한편 「건축과 주변」, 「건축 단상」등의 저서를 통한 建築에 대한 熱情으로 건축계의 존경을 받는 한편 '88년 제1회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故 崔昌奎회원의 영결식은 지난 20일 한양대 부속병원 영안실에서 한국건축가협회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어 경기도 장호원에 유해가 안치되었다.



故 崔昌奎회원

■ 약력

- 1919년 함경남도 영흥군 生
- 1941년 동경 홍야 고등공민학교 건축과 졸업
- 1957년 신진건축설계사무소 설립
- 1972~74년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역임
- 1988년 제1회 문화예술대상 수상

崔昌奎兄 영전에

人生이 덧없는줄 알기는 해도
이렇듯 虛妄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엇그제 했던 約束은 어떻게 하고
혼자 훌쩍 가버리면 어떻게 하오

좋은 세월 만나서 함부로 吐하는 기염.
不義와 非理를 참지 못하던 칼 같은 성미
그러면서 막걸리 같이 텅텅하고 多情스럽던 마음씨
아직도 그 너털웃음소리가 귀에 익은데
이젠 불러봐도 대답은 없을 터이고
언제나 가슴을 텅 비워 놓고
가장 소탈한 보통사람으로 살다간 당신은

지금 보통席에 앉아서 훨훨 하늘나라로 가고 있겠지.
주님이 방그레 웃으시며
웬 불만은 그렇게 많고
교회에는 왜그리 안나왔었느냐고, 꾸짖으실거야

崔兄, 이젠 들리지도 않겠지?
잘가라고 외치는 소리.
먼저 가 있으라고 외치는 소리

一吊辭를 대신해서

韓昌鎭

(주)한정건축종합건축사 사무소

제2회 理事會 개최



本協會 '91년도 제2회 理事會가 吳雲東회장 주재로 지난 2월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시기 변경」등 주요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이날 심의된 주요 부의안건의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회 理事會〉

-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시기 변경
- '91 전국건축사대회는 연기하되 가급적 창립기념일을 전후해서 개최하기로 함
-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재조정 승인
- 실적회비 산출기준표상의 공사비 단가에 대해서는 40%로 재조정하여 총회에서 추진받는 것으로 하고 3월1일부터 시행하되 그와 관련하여 연금회비 징수율은 현행 1%에서 0.75%로, 실적회비 전국

징수율은 현행 0.8%에서 0.6%로 조정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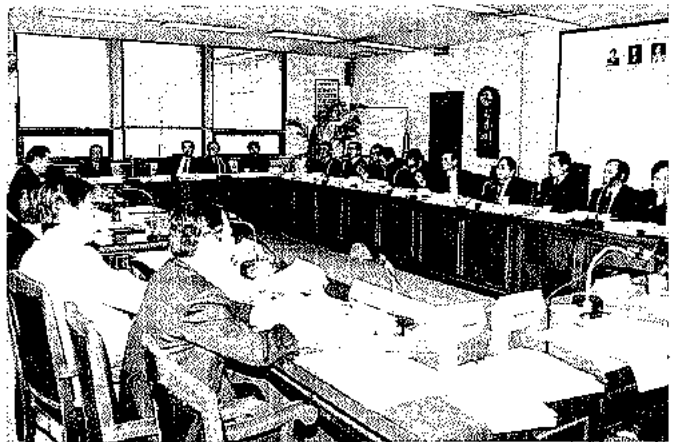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연구 승인
- 소요예산은 3월 임시총회시 추경으로 하고 원안대로 승인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 (안) 승인
- 감리보수 기준을 기술용역육성법상의 비율과 동일수준으로 하여 형평의 원칙에 준하고자 하는 등의 원안대로 승인
- 건축법령연구소 자문위원 위촉
- 현 동국대 공과대학원장인李文輔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로 함
- 우루과이라운드 및 종합건설업면허제도 대책위원회 간사보선
- 간사 보선 및 위원교체 여부를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함

제2회 支部會長會議 개최

本協會 '91년도 제2회 支部會長會議가 지난 2월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실적회비 산출기준표상의 건축공사비 단

가 조정 시행」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협의내용은 제2회 이사회에 반영하였다.



任員協議會 개최

本協會는 지난 20일 「'91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결정」등 협회 주요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任員協議會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임원 협의회〉

- '91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결정

—오는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본 협회 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협의

(地自制 의원선거 일정의 확정에 따라 3월 28일로 연기하기로 확정—제3회 이사회 결의)

- '91 한국건축전 심사위원회 구성
- 회장과 건축1위원장, 설계경기 운영분과위원장에 위임하여 구성하기로 협의

'91韓國建築展 作品審査



本協會에서 주최하던 건축사작품순회전과 신인·학생 설계작품공모전을 통합, 발전시킨 '91韓國建築展 작품접수가 지난 28일 마감되었다.

會員부분과 新人, 學生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된 이번 展示會에는 총 239개 작품(건축사부문 58작품, 신인부문 28작품, 학생부문 154작품)이 응모되어 2월 27일부터 작품심사를 실시하였다.

吳雲東회장을 위원장으로 건축사부문과 신인·학생부문에 구분하여 사제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2월27~28일(신인·학생부문) 3월 4~5

일(건축사부문) 각각 부문별 심사를 실시, 姜錫元 회원作「성지원」등 건축사 부문 우수작과 준우수작, 신인·학생부문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자세한 심사경위와 수상작 발표는 p.18-의 記事 참조)



주거용 건물 소음에 관한 심포지움



本協會에서는 지난 20일 대한 건축학회와 한국음향학회와 공동으로 「주거용건물이 소음실태 및 저감대책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산·학협동으로 상호 연구의 활성화의 실무적용을 위한 정보교환의 발전적 기회를 모색하고자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는 회원과 회원사무소에 소속한 직원, 교수와 학생, 건설기술인과 일반인등 400여명이 참석, 본 협회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심포지움의 발표주제와 강시는 다음과 같다.

• 제1주제 : 소음과 주거환경—이광태(경남대)

• 제2주제 : 공기전파음 및 구조체의 차음실태—이상우(경기대)

• 제3주제 : 공기전파음의 저감대책—신영무(전북산업대)

• 제4주제 : 고체 전파음 및 구조체의 차음실태—김선우(전남대)

• 제5주제 : 고체 전파음의 저감대책—김홍식(대한주택공사)

• 제6주제 : 국내의 건축재료의 음향성능 특성 및 활용방안—김용국(환경음향연구소)

• 제7주제 : 국내의 주거환경 소음 관련기준 및 법규—박윤수(국립건설시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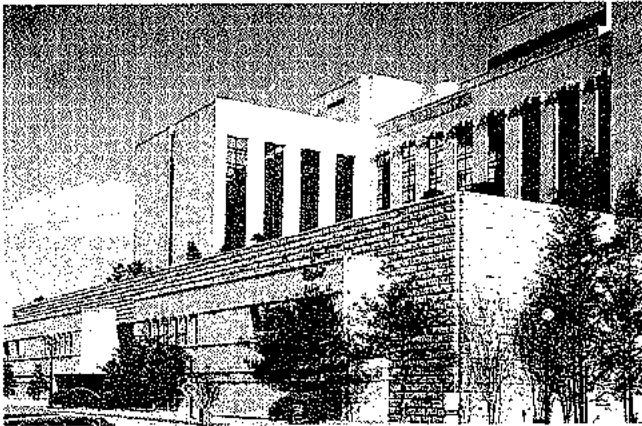
資料/判例

建築士事務所 登録이 취소된 경우와 그 業務停止命令의 취소

行政處分の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前歴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法定의 加重要件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法定加重要件에 따라 새로운 制裁的인 行政處分이 가해지고 있다면 先行政處分の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연 2회이상 건축사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이 된 때를 建築士事務所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建築士法 제 28조 제 1항 제 5호의 규정은 制裁的인 行政處分の 法廷 加重要件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原告가 辯論再開申請과 함께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명령이 전제가 되어 原告의 建築士事務所登録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 소명자료까지 제출하고 있다면, 이 사건 建築士事業停止命令에서 정한 停止期間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原告에게는 建築士事務所登録取消라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정을 나타내 보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原審으로서 이 사건 建築士業務停止命令 取消訴訟에 있어서 訴의 利益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辯論의 再開를 허용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한 審理를 다행하여야 한다. (90. 10. 23 제 2부 판결 90누 3119 공 886호 2440)

제9회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발표



제9회 서울시 건축상 금상 수상작

서울시에서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매년 서울 시내 우수건축물의 건축사와 건축주에게 수여하는 서울시 건축상의 '90년도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89~'90년도 준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제9회 서울시 건축상 금상은 회림종합건축의 이영희, 이석문화원이 설계한 「국회의원 회관」이 차지하였는데 심

사위원으로는 본협회 회장을 비롯한 건축3단체장과 김문환(서울대), 박돈서(아주대), 박영기(연세대), 여홍구(한양대), 홍대형(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지난 28일부터 시청역 지하전시장에서 일반에 공개된 이번 서울시건축상 수상작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9회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구분	건물명	설계자	건축주
금상 (1)	국회의원회관	(주)회림 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희, 이석문	국회사무처
은상 (2)	스위스그랜드호텔	삼정종합건축사사무소/황규열	이우영
	국제방송센터	(주)김중업 종합건축사사무소/고 김중업	한국방송공사
동상 (3)	이화여대 박물관	(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김정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공항공터미널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황일인	한국공항공터미널(주)
	올림픽유스호스텔	(주)종합건축사사무소/아기반/김석철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
장려상 (2)	성림빌딩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임장렬	임장렬
	목동실내빙상경기장	(주)우원종합건축사사무소/서학조	서울특별시

'93대전엑스포아파트설계현상공모 당선작발표

지난 해 12월17일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가 주최한 '93대전 엑스포 아파트 설계 현상공모에서 이키프랜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우성)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확정되었다. 지난 2월 4일까지 12개 사무소에서 접수된 12개의 설계안을 대상으로 한 심사결과 우수작으로는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대표 곽홍길)의 작품이, 장려상으로는 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이영희)의 작품이 수상하였다.

심사 위원인 이광로 서울대 교수는 심사평에서 입상작들의 특징으로 아파트 배치의 다양성 추구하고 기념성, 보행복지체계 확보, 그리고 엑스포 아파트 단지로서의 상징성은 물론 교통과 보행동선등의 유기적으로 계획된 점을 들 수 있다고 밝혔다.

2월11일 가진 시상식에서 당선자 김우성회원에게는 엑스포 아파트 설계권이 주어졌다.

분당신도시 쇼핑·레저단지 현상공모 발표

지난 해 11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현상공모했던 분당신도시 쇼핑·레저단지의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당초 50개 작품이 응모하여 14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당선작은 다음과 같다.

우수작

- (주)한울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건원국제건축

가작

- (주)창조 종합건축사사무소 + 신기철

입선

-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창우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2편의 우수작에서 장점을 취합하여 도시설계를 확정할 예정이며, 대상지 토지를 도시설계 내용으로 건축하는 조건으로 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매각할 예정이다.

안양시신청사현상설계 당선작발표

지나해말 안양시에서 작품을 공모한 안양시 신청사 현상설계경기의 당선작이 발표되었다.

안양시 평촌지구내에 건립될 신청사의 당선작은 부림종합

건축(김호+전현망)으로 건축면적 8천4백75.8㎡, 연적적 2만6천8백67.4㎡규모로 금년말 착공, 93년말에 완공될 예정이다.